



특집 I : 갈채와 함성부를 '88서울올림픽

올림픽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참가로 동서문화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화합과 전진을 다지게 될 서울올림픽이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우리나라의 고유무술인 태권도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시범종목으로 선보이게 되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회를 앞두고 남녀국가대표선수단은 강화훈련에 돌입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망의 날을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녀국가대표코치들이 분석한 세계태권도강국의 경기력은 어떠하며, 이들에 대비해 어떠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시범경기가 어떻게 치루어지며 우리는 올림픽국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태권도 시범경기 제시판

I.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경기일정

23개의 정식종목에 237개의 금메달 각축전이 벌어지게 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태권도는 야구와 함께 시범종목으로 펼쳐진다.

남자31개국, 여자13개국에서 총192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될 태권도 시범경기는 9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매일 남녀2체급씩 예선전과 결승전이 펼쳐져 메달 및 상장이 수여된다.

■ 경기일정 및 금메달 현황

종목	일자	9월												10월		일 수	금 메달 수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계	남	여	혼성
양궁	궁											○	○	○	②	②	5	4	2	2		
육상	상							③	③	⑤	⑧		④	④	⑤	⑨	①	9	42	24	18	
농구	구	○	○	○	○	○	○	○	○	○	○	○	○	①	①		14	2	1	1		
복싱	싱	○	○	○	○	○	○	○	○	○	○	○	○			⑥	⑥	15	12	12		
카누	누										○	○	○	○	⑥	⑥	6	12	9	3		
사이클	클		①		①	○	①	○	④	①	①						8	9	7	2		
승마	마			○	○	○	②	○	○	○	①	①		○		①	12	6			6	
펜싱	싱				○	①	①	①	①		○	①	①	①	①		10	8	6	2		
축구	구	○	○	○	○	○	○			○		○		○	①		10	1	1			
세탁	조		○	○	①	①	①	①	⑥	④			○	○	①		11	15	8	7		
핸드볼	볼				○	○	○	○	○	○	○	○	○	①	○	①	12	2	1	1		
하키	키		○		○	○	○	○	○	○	○	○	○	○	①	①	13	2	1	1		
유도	도									①	①	①	①	①	①	①	7	7	7			
근대5종	종		○	○	○	○	②										5	2	2			
조정	정			○	○	○	○	○	⑦	⑦							7	14	8	6		
사격	격		②	②	②	②	①	②	②								7	13	7	4	2	
수영	영	○	①	④	①	⑤	⑤	⑤	⑥	⑥	○	①	○	①	①	②	15	38	19	19		
탁구	구								○	○	○	○	○	○	○	④	9	4	2	2		
테니스	스				○	○	○	○	○	○	○	○	○	○	○	②	②	12	4	2	2	
배구	구	○	○	○	○		○	○	○	○	○	○	○	○	①	○	①	15	2	1	1	
역도	도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	①			11	10	10			
레슬링	링		○	○	③	③	④					○	○	③	③	④	10	20	20			

종목	일자	9월												10월		일 수	금메달수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계	남	여
요트					○	○	○	○			○	○	⑧					7	8	1	6
계	종목수	5	12	12	18	17	18	16	16	16	16	17	18	16	16	13	4				
	금메달수	0	5	7	9	13	18	12	30	25	12	5	15	14	24	39	9	237	151	72	14
시범	태권도	○	○	○	○	○	○	○	○	○	○	○	○	○	○	○	4				
	야구				○	○	○	○	○		○		○				8				
전시	배드민턴			○													1				
	보울링		○														1				

II. 태권도 시범경기

1. 참가국 현황

태권도 시범경기 개최에 따른 참가국선발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은 참가국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세계태권도연맹 112개 회원국 중에 세계선수권 대회(5, 6, 7회) 입상순위 및 기타 국제규모대회의 입상전적을 바탕으로 남자팀31개국

128명, 여자팀 13개국 64명을 선발하였다.

■선수 및 임원

참 가 국			선 수			임 원	계	비 고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31	13	33 (44)	128	64	192	53	245	후보국 : 16개국 남·여 동시참 가국 : 10개국

■태권도 경기참가국 현황

국가(국가명 약자)	제 금												남 선수	여 선수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플라이	웰터	밴텀	미들	윈	라이트	페더	해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AUSTRALIA(AUS)	○							○					2	1				
AUSTRIA(AUT)		○	○				○			○			○	2	1	4	1	
BAHRAIN(BRN)	○						○			○		○		5	2			
CANADA(CAN)	○		○	○			○	○		○				○	4	1	4	1
CHINESE TAIPEI(TPE)		○	○				○	○		○			○		3	1	4	1
DENMARK(DEN)				○	○	○				○		○	○		2	1	4	1
ECUADOR(ECU)						○	○		○		○		○		6	2		
EGYPT(EGY)			○			○	○		○				○		6	2		
ENGLAND(GBR)			○			○	○		○			○			5	2		
FRANCE(FRA)	○					○	○								4	1		
IRAN(IRA)						○	○		○				○		4	1		
ITALY(ITA)			○	○			○	○	○			○	○	○	7	2	4	1
JAPAN(JPN)	○								○		○		○		4	1		
JORDAN(JOR)	○											○		○	3	1		
KOREA(KOR)	○	○	○	○	○	○	○	○	○	○	○	○	○	○	8	2	8	1
LIBYA(LBA)						○				○					2	1		
MALAYSIA(MAL)			○			○				○							4	1
MAXICO(MEX)	○	○	○			○			○	○	○		○	○	8	2	4	1
NETHERLAND(HOL)	○					○	○		○		○		○		7	2		
NEW ZEALAND(NZL)							○	○				○	○				4	1
POLAND(POL)			○			○				○					3	1		
SAUDI ARABIA(SAU)			○			○					○				5	2		

국가(국가명 약자)	예																남				여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선수 수		인원 수		선수 수		인원 수	
	슬라이	벨	터	벤	텀	미	들	신	라이트	페	디	헤	비											
SPAIN(ESP)	○	○	○	○	○	○	○	○	○	○	○	○	○	○	○	○	○	8	2	8	1			
TURKEY(TUR)	○	○	○	○	○	○	○	○	○	○	○	○	○	○	○	○	○	7	2	8	1			
U. S. A(USA)	○	○	○	○	○	○	○	○	○	○	○	○	○	○	○	○	○	7	2	8	1			
VIRGIN ISLAND(ISV)				○				○					○	○	○	○	○	1		4	1			
W. GERMANY(FRG)	○	○	○	○	○			○		○	○	○		○	○	○	○	8	2	4	1			
YUGOSLAVIA(YUG)	○		○									○						3	1					
PHILIPPINES(PHI)	○																	1						
NEPAL(NEP)								○										1						
QATAR(QAT)													○					1						
KUWAIT(KUW)													○					1						
BELGIUM(BEL)			○															1						
계	16	16	8	16	8	16	8	16	8	16	8	8	16	8	16	8	128	40	64	13				

2. 경기일정

기간 : '88. 9. 17~9. 20(4일간)

9월 17일 (토요일)	15:00	남녀 폴라이급, 헬터급 예선
	19:00	남녀 폴라이급, 헬터급 준결승
	21:20	남녀 폴라이급, 헬터급 결승 및 시상식
9월 18일 (일요일)	10:00	남녀 밴텀급, 미들급 예선
	13:00	남녀 밴텀급, 미들급 예선
	15:00	남녀 밴텀급, 미들급 준결승
	17:20	남녀 밴텀급, 미들급 결승 및 시상식
9월 19일 (월요일)	10:00	남녀 핀급, 라이트급 예선
	13:00	남녀 핀급, 라이트급 예선
	15:00	남녀 핀급, 라이트급 준결승
	17:20	남녀 핀급, 라이트급 결승 및 시상식

9월 20일 10:00 남녀 페더급, 헤비급
(화요일) 예선

13:00 남녀 페더급, 헤비급
예선

15:00 남녀 페더급, 헤비급
준결승

17:20 남녀 페더급, 헤비급
결승 및 시상식

3. 입장권판매

- 입장권 가격

구분	요금(원)	좌석 수
1 등석	5,000	1,541석
2 등석	3,000	5,216석

- 예매

구분	시간	판매처
해외판매	'87. 10. 1	각국 NOC 또는 AGENT
국내판매	'88. 7. 1	판매대행기관
우대권판매 (학생 및 단체)	'88. 6. ~	문화부 및 판매대행기관

- 당일 판매

· 판매기간 : 해당경기일('88. 9. 17-9. 20)

- 판매시간 : 경기시작 1시간전부터 경기종료 1시간전까지
- 판매장소 : 지하철 3호선 동국대입구 지하철공간 2개소

Ⅲ. 태권도대회 경기규정

1. 경기 기간

제24회 올림픽 대회의 태권도 시범경기는 1988년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2. 세부종목 - 체급

태권도 경기는 다음과 같은 체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남자

1. 핀 급 : 50kg 이하
2. 플라이급 : 50kg초과 54kg 이하
3. 밴 텀 급 : 54kg초과 58kg 이하
4. 페 더 급 : 58kg초과 64kg 이하
5. 라이트급 : 64kg초과 70kg 이하
6. 웰 터 급 : 70kg초과 76kg 이하
7. 미 들 급 : 76kg초과 83kg 이하
8. 헤 비 급 : 83kg 초과

나) 여자

1. 핀 급 : 43kg 이하
2. 플라이급 : 43kg초과 47kg 이하
3. 밴 텀 급 : 47kg초과 51kg 이하
4. 페 더 급 : 51kg초과 55kg 이하
5. 라이트급 : 55kg초과 60kg 이하
6. 웰 터 급 : 60kg초과 65kg 이하
7. 미 들 급 : 65kg초과 70kg 이하
8. 헤 비 급 : 70kg초과

3. 일반 규정

가) 규칙

태권도 경기는 세계 태권도연맹(이하 "국제연맹"이라 함)의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본 규칙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문 원본이 우선한다. 본 규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 - ①

일반적 사항은 올림픽 현장에 따른다.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가 펼쳐질 장충체육관

가) - ②

기술적 사항은 국제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가) - ③

올림픽 현장과 국제연맹 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선수만이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참가 선수

참가 선수는 체급별 남자 16명, 여자 8명으로 제한한다. 각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는 한 체급당 1명씩 최대 남자 8명, 여자 8명의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어떠한 선수도 두 체급 이상 출전할 수 없다.

나) - ①

모든 선수는 그들이 대표하는 NOC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나) - ②

참가팀의 선정은 국제연맹이 한다.

국제연맹은 선정 기준을 수립하며 지역별 안배

원칙을 적용한다.

다) 참가 신청

다)-① 예비 참가신청 마감일

각 NOC는 국제연맹을 통하여 1988년 5월 17일 24:00시 (한국표준시간)까지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함)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참가 신청은 텔렉스로 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사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텔렉스 번호: K21988

주소: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중앙 사서함 1988, 서울

참가 신청서에는 선수별 참가 체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② 최종 참가신청 마감일

선수 명단을 기재한 최종 참가신청서는 1988년 9월 2일 24:00(한국표준시간)까지 조직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참가신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다)-③

어느 한팀이 참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제 연맹은 이를 대신하여 다른 팀을 선정한다.

라) 의무 검사

국제연맹 경기규칙에 따라 의무 검사를 실시한다.

마) 감독자 회의

감독자 회의는 1988년 9월 16일 14:00시에 국기원에서 개최한다.

4. 경기 규정

가) 경기운영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제연맹에 있다.

나) 계체량

체급별 참가 선수는 국제연맹이 임명한 감독관의 감독하에 해당 경기일 07:00시에서 08:00시 사이에 올림픽선수촌에서 계체량을 실시한다.

계체량 실시시간은 국제연맹 집행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선수는 공식 계체량에 앞서 공식 계체 저울을 사용하여 자신의 체중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다) 추첨

추첨은 국제연맹 임원 및 참가 NOC대표자들의 임의하에 1988년 9월 16일 15:00시 국기원에서 추첨임원들(조직위원회)이 실시한다. 조직위원회에 접수된 참가 NOC의 공식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추첨을 실시한다.

추첨에 임의하지 못한 NOC를 위하여 추첨임원이 대신 추첨할 수 있다.

라) 경기 방식

태권도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 경기 시간

경기 시간은 3분 3회전으로 하고 각 회전간 휴식 시간은 1분으로 한다.

바) 기술 임원

국제연맹이 심판을 임명한다.

국제 연맹 경기규칙 제21조에 따라 경기 시간별로 심판 배정 명부(working rota)를 작성한다.

국제연맹은 경기 진행을 위하여 최대 30명의 주심, 부심, 배심원을 임명한다. 선발된 모든 심판들은 국제연맹의 국제심판 명단에 들어 있어야 한다.

국제연맹 경기규칙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매 경기마다 주심1명, 부심4명, 배심원2명을 지명한다.

사) 소청위원회

국제연맹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경기개시 전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를 임명한다.

소청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국제연맹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국제연맹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제연맹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청위원회 위원이 된다.

심사 대상 국적자를 제외한 각기 다른 국적의 위원 3명과 위원장이 소청을 심의한다.

아) 항소

경기후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코치는 소속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소청위원회에 서면으로 소청을 제기한다. 소청접수 즉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은 소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며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심



올림픽태권도시범경기 참가국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국기원은 보수공사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의 결과를 통보한다. 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복장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국제연맹이 규정한 도복, 머리보호대, 몸통호구, 남심보호대 및 팔다리 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선수 고유 번호는 도복저고리 어깨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선수는 도복, 호구 이외의 경기 진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지닐 수 없다(안경, 반지, 시계, 신발, 양말 등).

5. 시상 규정

입상자에게는 IOC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의 상을 수여한다.

- 1위 : 시범 종목 금메달과 상장
- 2위 : 시범 종목 은메달과 상장
- 3위 : 시범 종목 동메달과 상장(체급별 2명)

각 체급 5위 이하의 순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6. 경기장

태권도 경기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17km지점에 위치한 장충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경기장의 관중석은 약 7,000석이며 올림픽 패밀리를 위한 좌석이 준비된다.

두께가 20cm이내인 단 위에 3개의 코트가 설치되며 코트는 평평한 표면으로 되어 있다. 코

트의 규격은 12m×12m이며 바닥은 국제연맹이 지정한 에타 폼(Etha foam)으로 설치된다.

웍업장, 선수대기실, 샤워실, 응급실 및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국제연맹 사무실이 마련된다.

명칭	장충체육관 CHANG CHUNG GYM
위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 가 200번지

7. 연습장

올림픽 선수촌으로부터 10km지점에 위치한 국기원이 연습장으로 사용된다. 각 팀은 조직위원회가 국제연맹과 협의하여 작성한 연습 일정에 따라 연습한다.

국기원에는 샤워실, 휴게실, 선수대기실이 설치되며 몸통호구가 비치된다.

명칭	국기원 KUKKIWON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번지

8. 용기구

경기 및 연습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구는 경기복장 및 안전 보호용구에 관한 국제연맹 규정에 따른다.

9. 규정집 승인

본 경기기술 규정집은 세계 태권도연맹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각각 1987년 3월 27일과 1987년 8월 14일 승인한 것이다.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윤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으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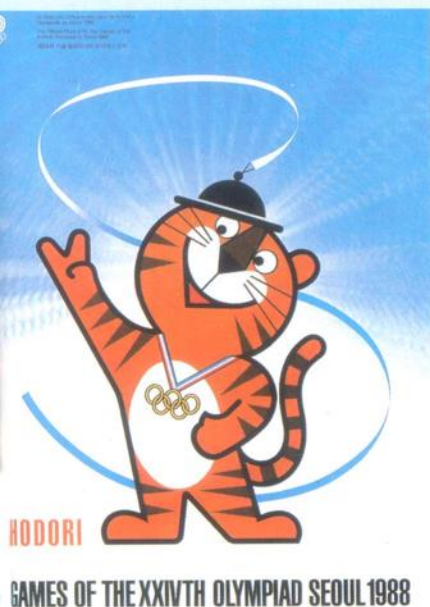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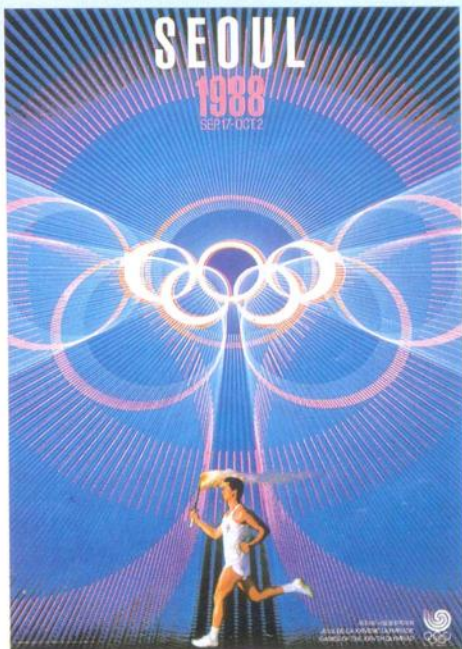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태권도 시범경기 남자 출전국 경기력을 진단한다

국가대표코치/이승국 · 김세혁

'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므로써 지구촌의 112개 WTF회원국중 출전티켓을 따낸 31개국의 128명의 남자선수들이 서울 강충체육관에서 분투할 시간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최종선발전을 거쳐 각 체급에 2명을 선발하여 8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1개월에 1번씩 평가전을 하여 3번의 평가전을 마치고 올림픽에 출전할 대표선수 8명을 선발하였다.

'88서울 올림픽 국가대표선발평가전에서 체력면, 기술면, 정신면, 인격면을 종합하여 선발하였으며 지금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국제대회를 대비한 기술면에 치중하여 훈련하여 왔으며 각 선수들도 훈련의 강도를 잘 소화하여 코칭 스텝과 일치된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코칭 스텝에서는 기술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특히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서의 선수들의 생활과 일반상식(한문, 명상의시간) 및 토론을 통하여 선수들 각 개인의 심리적인 면도 꿰뚫어 보고 있다.

체력면에서는 새벽 06:00 기상해서 Cross Country (산악훈련), 힐(Hill) training, 8km road work 등 훈련을 통한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등을 기르고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유연성과 준비운동에 열을 가하고 있다.

지역별 경기력 진단

-아시아 지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한다.

체격과 체력조건이 거의 비슷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이지만 대만은 국제대회의 많은 경험과 국내에서의 태권도에 대한 대단한 열의와 관심으로 보아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본다. 또한 대만대표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스피드한 기술을 익혔으며 실전경험을 토대로 노련한 경기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칭 스텝에 의한 태권도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였던 나라이다. 경량급의 선수들은 한국선수 수준에 있으며 스피드한 발차기 기술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다.

일본은 태권도를 받아들인 역사가 짧고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경기 기술이 숙달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며 태권도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이다.

-중동 및 대양주 지역-

요르단이나 이란은 체격조건이 서구인의 체격이므로 신장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자팀 대륙별 참가현황

지 역	참 가 국	인 원
아 시 아	5	17
중동 및 대양주	7	20
아 프 리 카	2	8
유 럽	12	57
캐 남	5	26
계	31	128



1987년 10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장면.

외국선수들은 활동한 신장과 체력으로 과감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국제대회를 통한 경기의 실전경험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에 임해서는 적극적인 공격 위주로 경기를 운영한다. 특히 뒷차기 기술을 주요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선수들은 대부분이 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공격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경기 기술은 없다.

-아프리카 지역-

에집트는 제3회 월드컵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

최하는 나라로서 중량급에서는 강한 나라이다.

미들급 선수는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자이며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로써 받아차는 기술이 스피드하며 실전경험이 풍부한 선수이다.

코트디부와르는 김영태사범이 태권도를 보급하여 검은 대륙의 태권도 강국으로 발돋움 한 나라이다. 태권도에 대한 열기는 국민학생에서부터 중년층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몇개월씩 합숙훈련을 통하여 전문 기술과 체력을 닦고 있다.

제7회 세계태권도 대회에서는 종합 2위라는 노력의 결실을 이루었으며 웰터급의 선수는 노련한 기술과 경기운영으로서 수준급의 선수이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경기수준이 뒤떨어지는 나라이다.

-유럽 지역-

유럽지역은 태권도 경기수준이 상위권에 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나라가 참가하게 되는 것을 보아도 유럽지역의 태권도 보급과 경기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스페인인 차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지닌 나라다. 그들은 서울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력한 대표팀 구성을 위하여 각 체급에 2~3명의 후보선수들을 인솔하여 한 곳에서 1개월간의 전지 훈련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나라이다. 6회 세계대회 때는 중량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라이며 8회 세계대회 때는 경량급과 중량급의 기술수준이 평균화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특기할 기술은 받아차기 기술과 내려차기, 뒷차기, 주먹기술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경기운영에서도 스피드한 발차기로 이번 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 외에도 터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도 기술 수준이 평균화 되어 있으며 터키의 선수 수준은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나라이며 공격형의 기술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량급에서 강한 선수층을 갖고 있다.

독일은 중량급 특히 미들급과 헤비급에 강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경량급에서도 플라이급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서 만만치 않은 상대로 대두될 수도 있다.

공산권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협을 쌓기 위한 참가국으로서 경기에 임할 것이 예상된다.

—팬암 지역—

가장 태권도의 저변확대가 잘된 나라이며 팬암지역에서도 미국같은 나라는 한국 대표선수를 거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 2세의 자녀들이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국가대표 선발은 3~4차례의 평가전을 거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대표팀 합숙소에서 장기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그룹이 되어 한국에 건너와 태권도 경기 기술을 배워 간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경기운영면이나 기술은 한국대표선수들과 대등하며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선수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 헤비급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로서 빛차기와 돌려차기 기술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이다. 경량급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들이 많으며 이번 올림픽에도 상위 입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는 경량급에서 선수들이 많으며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된 나라중의 한 나라이다. 태권도의 전문기술은 대부분 선수들이 주먹치로기를 이용한 발기술로써 스피드한 동작을 지닌 감재력있는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나 에콰도르는 팬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 경기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뛰어난 체력과 체격으로써 계속적인 경기기술을 익힌다면 조만간에 상위권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이 5개 지역에서 31개국이 참가하는 나라 중에서 대만, 이란, 요르단, 에집트, 코트, 디브아르,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독일,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가장 한국 대표선수들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이며 경기력에서도 국제수준에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2개월 남은 훈련 기간중 한국대표 선수단은 각 나라 선수들의 기술을 최대한 입수하여 각 개인선수의 기술을 평가 분석하고 훈련방법도 체격보장 및 전문기술에 100% 치중하며 외국인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동중국 태권도 기술을 장충체육관에서 선보일 것이다. 그밖에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태권도와 유사한 가라데라는 무술의 종주국이라는 특성때문에 태권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일본 태권도의 양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게 확실하다.

경기에서 전문적인 경기 기술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받아치기 기술까지 구사하는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나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채급 선수들의 기량은 전반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지고 온것이 확실하다. 특히 경량급 선수들은 태권도 경기기술의 고난위 동작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어 우수한 선수로 점차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리

이태리는 다양한 기술과 강한 체력을 가진 경험 많은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량급, 중량급의 기술의 평준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고 다양한 기술을 스피드하게 사용하는 경량급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상위권의 나라들과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시범경기 여자출전국 경기력을 진단한다

국가대표코치/김영인 · 박필순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표 코치들은 한국팀의 전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는 국제 경기에서 국내 선수의 기술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노출되었으며,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코치들이 국외로 파견되어 체계적이며 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문 기술을 육성해 왔을 뿐더러 그들의 체격조건이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기술 육성을 위해 각종대회에 참가해 왔고 종주국으로의 전지훈련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 및 한국 선수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왔다.

특히 '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하여 불태 선천적인 체격,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전술 뿐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까지 급성장하여 적극적 공격으로 우리 선수들과 대등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다.

현재 세계 여자 태권도의 상위권 판도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 자유중국과 유럽의 스페인, 터키, 미주 지역은 미국, 멕시코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스페인, 미국, 자유중국팀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부담스러운 팀들이며 '88 올림픽에

서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들이다.

제7회 세계 선수권 대회 및 제1회 세계 여자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제8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통하여 나타난 각국의 전적을 토대로 각국 여자팀의 경기력을 분석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팀 대륙별 참가현황

대	륙	참 가 국	인 원	
아	시	아	3	17
중	동	대양주	1	4
유	럽		5	24
팬	애팔		4	19
계		13	64	

●역대전적을 비교해 볼때

경량급에서는 스페인과 자유중국 선수들이 한국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로 한국, 자유중국, 스페인의 3파전이 예상되며, 중량급에서는 유럽과 미주세력이 강세이며 한국과 스페인, 미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전체급을 비교해 볼때 한국, 미국, 스페인, 자유중국 등 4개국의 치열한 접전 및 전술이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한국팀은 전체급에 다양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되어 있으나, 경량급에서 보다 중량급

에서 스페인과 미국팀을 경계하여야하며 역대 전적으로 보아 중량급이 열세인 만큼 충분한 전술 및 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별 전력분석

그동안 국내에서 생각만 했던 장신 선수에 대한 약점이 몇번의 국제경기를 통하여 노출되었으며, 몸싸움이 강한 서구 및 미주 선수들에게 약하며 득점력 빈곤과 장신선수에 대한 공격과 수비의 한계점을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의 대비책으로 빠른 스텝과 모션을 이용한 전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의 공격력 둔화와

● 88올림픽에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국가 및 체급별 역대전적 비교

체급	국명	역대전적	비고 (금메달 가능국)
플라이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자유중국
	멕시코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3위	
플라이	스페인	제1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1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1위	자유중국
	한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플라이	미국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1회 세계대회 1위	자유중국
	스페인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플라이	자유중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이탈리아	제7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1위	스페인
플라이	미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2위	한국
	멕시코	제7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미국
	한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플라이	한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자유중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자유중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미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플라이	한국	제1회 세계대회 2위	한국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플라이	캐나다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플라이	미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스페인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한국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플라이	캐나다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캐나다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캐나다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캐나다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법실을 유도하여 확실한 득점위주의 공격을 하여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바르셀로나 세계대회 및 아시아 대회를 통하여 장신 선수들과 직접 실전경험을 통하여 전력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며, 우리 선수들이 장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스페인, 미국, 자유중국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팀들이며, 우리보다 우수한 체격과 체력을 토대로 그들 특유의 공격을 자랑하는 팀들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팀들로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3개국에 대한 전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

●자유중국

한국 선수들과 유사한 유형으로 스텝과 모션에 의한 기술발차기의 공격과 받아차기의 찬스 포착을 잘하며 장신을 이용한 적극적 공격과 방어가 원활하고 정확한 발차기를 시도한다.

특히 공격적인 앞들어찍기와 뒷차기는 한국 선수를 능가하며 경기운영의 묘를 살려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단타 동작에서의 (특히 앞들어찍기와 뒷차기) 높은 득점력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끊으며, 몸싸움에 약한점과 한국선수들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이급 선수는 제1회 세계대회, 제8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종합성적 ('87년 스페인)

번호	메달		금	은	동	나라별 메달합계	등위
	국명						
1	한국	국	3	2	1	6	1
2	대만	만	1	3	3	7	2
3	스페인	인	1	1	3	5	3
4	태국	키	1	-	1	2	5
5	네덜란드	드	1	-	1	2	5
6	미국	국	1	1	2	4	4
7	멕시코	코	-	1	1	2	6
8	독일	일	-	1	1	2	7
9	인도네시아	아	-	1	1	2	7
10	프랑스	스	-	1	1	2	7
11	캐나다	다	-	1	1	2	7
	계		8	8	16	32	

●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부) 종합성적
(’88년 네팔)

번호	메달		금	은	동	나 라 별 메달집계	순위
	국명						
1	한 국		7			7	1
2	대 만		1	5	2	8	2
3	호 주			1	4	5	3
4	네 팔				6	6	4
5	말레이시아			1	2	3	5
6	싱 가 폴			1		1	6
7	홍 콩				1	1	7
	계		8	8	15	31	

회 아시아 대회 우승자이며 연타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올림픽에서 유력한 우승후보이기도 하다.

—유럽 지역—

● 스페인

선천적인 기질과 체격, 체력을 앞세운 난타전에 강하며 특히 힘과 긴팔을 이용한 주먹공격에 자신감을 보였다.

단타공격에서 이제는 스텝을 이용한 공격과 받아차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특히 경량급(핀,밴텀)은 백스텝을 이용한 받아 차기가 뛰어나며 주먹에 의한 연결 공격을 시도한다.

중량급은 장신을 이용하여 미는 동작, 컷트발 등을 자주쓰며 앞들어찍기와 돌려차기의 얼굴 공격이 인상적이다.

웰터급 선수는 제7회 및 제1회 여자 세계대회를 2연패한 선수이며 힘과 투지를 앞세운 스페인의 간판선수로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단점은 거리조정의 미숙함과 경기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주 지역—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형과 아시아형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형이다.

우수한 체격, 체력의 스텝모션에 의한 공격형이며 때에 따라 받아차기도 한다.

특히 주먹공격에 의한 발의 연결공격에서 몸통과 얼굴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발차기를 시도한다.

경기력에서 유럽선수들과 비슷한 점이 있

나 과감한 연결공격으로 경기력의 미숙함을 극복해 나간다. 발차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이며 컷트발과 앞후리기 동작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헤비급선수는 제7회 및 제1회 여자세계대회를 2연패한 2m4cm의 거한이다. 큰 키를 이용한 컷트발 앞후리기는 일품이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비책

아시아 지역과의 시합에서는 확실한 포인트 위주의 경기를 이끌어 가야하며, 주먹공격에 의한 연결동작과 전술에 의한 경기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미주 지역과 유럽선수들에게는 스텝과 모션에 의한 상대선수의 동작을 일으켜 몸통과 얼굴에 다양한 공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체력안배에 신중을 기하여 한국선수 특유의 빠른 스텝과 스피드를 이용한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여, 상대선수의 공격의 맥을 끊은 다음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전술에 의한 경기를 할때 승산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팀은 핀, 페더, 라이트 3체급은 제1회 세계대회 우승에 이어 각체급이 고루 입상하였으며, 특히 제8회 아시아 대회에서 7체급석권은 고른전력과 경기력이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중주국의 자부심과 홈팀의 잇점을 살려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본다.

이제 외국 선수들도 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며 국제경기를 통하여 경기운영의 기술만 익히면 우리 선수들과 비등한 경기의 결과가 올것으로 보인다.

항상 우리가 우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며 다양한 기술 동작을 구사하여 과감성 있는 공격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면 상대선수들을 제압할 수 있다.

과감성과 난이도가 높은 기술동작을 개발하여 실전에 적용시킨다면 관중은 물론 심판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며 중주국 선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올림픽에 출전할 태권도 남·여 국가대표 선수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경기에 종주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될 남녀국가대표 선수가 확정되었다.

남자 국가 대표 선수는 2월 11일과 12일에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를 통해 체급별 1·2위 자리를 선발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실시된 강화훈련에 들어가 3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이중 체급별 우수선수 1명씩을 최종 선발하여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제1차 평가전은 4월 25일, 2차 평가전은 5월 18일, 3차 평가전은 6월 22일에 있었는데 이렇게 3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국가 대표가 선발되었다.

평가기준은 3차례에 걸친 평가전 성적 뿐만 아니라 체체량, 부상여부, 합숙생활태도 등을 토대로 실시되었다.

선수들은 합숙훈련을 통한 강화훈련으로 경기력향상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체체량, 합숙시의 생활태도 등은 거의 문제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였다는 평가가 국가대표 코칭스텝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선발의 결정적인 역할은 3차에 걸친 평가전의 성적이라 할 수 있었다.

제1차 평가전과 제2차 평가전에서 핀급의 권태호선수, 플라이급의 하태경선수, 밴텀급의 조영남선수, 페더급의 장명삼선수, 라이트급의 박

봉권선수, 웰터급의 정국현선수, 미들급의 이계행선수 등은 연속 2연승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거의 확정되었다. 다만 헤비급경기중 1차평가전에서 김종석선수가 김현일선수를 맞아 2:0으로 승리한데 비해 2차 평가전에서는 1회전에 김종석선수가 김현일선수를 공격하다 발등에 파상을 입어 1회전을 마치고 김종석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의 부상이라 심판은 김현일선수의 승리로 판정을 내려 1:1의 승부를 기록해 3차 평가전이 최종선발의 관건으로 남았다. 3차 평가전에서는 김종석선수의 부상이 완쾌된 듯 1회전에 김현일선수의 얼굴을 강타해 득점을 얻는 등 3회전에서도 득점을 추가하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올림픽에 출전할 영광을 안았다.

한편 여자 국가대표선수들은 2월 9일과 10일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된 '88년도 한국여자 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체급별 1위 자로 선발된 8명의 선수가 남자대표 1·2위자들과 함께 합숙훈련을 통해 강화훈련을 쌓아왔다. 여자선수들은 남자선수들과의 합숙훈련으로 보다 강도높은 강화훈련으로 기술을 보완하고 체력보강에 힘써 '88서울올림픽에서의 활동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코칭스텝의 의견이다.

한국대표선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올림픽에 출전할 영광의 얼굴들은 다음과 같다.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 국가대표선수단

코치 이승국(한국체육대학교수)

(남) 김세혁(동성고교사)

코치 김영인(영신여고교사)

(여) 박필순(대한유도대학조교)

남자선수

체 급	성 명	소 속	국제대회 주요전적
핀 급	권 태 호	동 아 대	제 8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8)
플라이급	하 태 경	한 체 대	제 8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8)
밴 텀 급	지 용 석	국군체육부대	제 7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페 더 급	장 명 삼	설악케이틀카	제 5 회세계대회 1 위 (1982) 제 5·6·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2-1988) 제 1 회월드컵대회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라이트급	박 봉 권	한 국 체 대	제 7 회세계대회 1 위 (1985) 제 10 회아시아안게임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웰 터 급	정 국 현	서울지하철공사	제 5·6·7·8 회세계대회 1 위 (1982-1987) 제 6·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6-1988)
미 들 급	이 계 행	조선대대학원	제 2 회월드게임 2 위 (1985) 제 10 회아시아안게임 1 위 (1986) 제 8 회세계대회 1 위 (1987)
헤 비 급	김 종 석	서울지하철공사	제 6 회아시아대회 1 위 (1984)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여자선수

체 급	성 명	소 속	국제대회 주요전적
핀 급	이 화 진	청 산 여 상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플라이급	추 난 물	청 산 여 상	
밴 텀 급	박 선 영	경 회 대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페 더 급	김 소 영	성 신 여 대	제 1 회세계여자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라이트급	이 은 영	경 회 대	제 1 회세계여자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웰 터 급	김 지 숙	경 회 대	제 7 회세계대회 1 위 (1985) 제 1 회세계여자대회 2 위 (1987) 세계대학대회 1 위 (1986)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미 들 급	김 현 회	경 회 대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헤 비 급	장 윤 정	경북태권도협회	제 1 회세계여자대회 3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88서울올림픽태권도국가대표선수단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될 얼굴들



이 승 국코치



김 세 혁코치



김 영 인코치



박 필 순코치



민규 · 권태호



플라이급 · 하태경



밴텀급 · 지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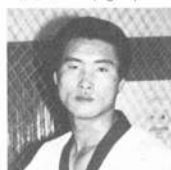
페더급 · 장명삼



라이트급 · 박봉권



웰터급 · 정국현



미들급 · 이계행



헤비급 · 김종석



민규 · 이화진



플라이급 · 추난물



밴텀급 · 박선영



페더급 · 김소영



라이트급 · 이은영



웰터급 · 김지숙



미들급 · 김현희



헤비급 · 장운정



우리는 올림픽 국민

■ 우리모두가 준비요원

올림픽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남김없이 동원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민족역량은 한 나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기본 바탕으로 가늠된다고 볼 때 국민모두 올림픽 준비요원인 것이다. 올림픽 개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식의 선진화가 아닐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의식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올림픽에의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선진국민 의식의 기본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명예와 긍지를 중시하며 정직, 책임에 투철하고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 매사에 무리와 억지를 피하며 공공질서를 철저히 존중하는 생활양식 등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나의 일, 우리 집의 경사, 우리 모두의 축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정신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내가 바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세가 올림픽 개최 국민의 기본자세이다.

내 모습이 나라 얼굴이고 내 마음이 국민정신이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인을 맞아야 하겠다. 따라서 올림픽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선진외식의 정착을 위해서 범 국민적인 노력과 슬기를 집약시켜야 하겠다.



올림픽자원봉사요원 접수처에 몰려든 지원자들('85년 10월)

■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란 개개인이 스스로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작게는 동네일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비록 하잘것없는 역할이라도 자기 책임으로 맡아 치르겠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자기생활에 직접적인 실익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자세야말로 투철한 주인의식의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이기적 자세에 대해 공분하고 나아가 이를 시정하는데 앞장서는 마음 또한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식의 발전, 정착은 바로 선진문화 사회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의식과 행동양태에 진정한 주인의식이 자리잡지 않고서는 선진문화 사회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진정한 주인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사회는 그 경제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야말로 항상 이웃과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공동선에의 동참을 자랑으로 여겨온 사람들이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이웃의 경사를 내일처럼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 생각해왔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하면 곱이 된다’는 인간관계의 미덕을 소중히 키워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는 크고 작은 국난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 이를 극복해왔다. 역사의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5천년동안 찬란한 문화를 면면히 가꾸고 국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민족성 때문이었다.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보여준 번 국민적 호응은 바로 아름다운 민족 전통의 새로운 구현을 실증한 것이라 하겠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주인의식’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정착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 손님을 맞는 자세

올림픽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으레 개최국에 대한 갖가지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동경올림픽’은 동양적인 섬세함과 친절함을 ‘멕시코’대회에선 아스테크 문명의 신비를 ‘민헨’대회에서는 독일인의 성실성과 과학에 바탕을 둔 정확성을 그리고 ‘몬트리올’대회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을, ‘LA’대회는 위대한 미국의 국력을 한껏 과시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슬기를 마음껏 발휘하여 전통과 현대의 멋있는 조화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국민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겠다.

서울올림픽에는 전세계선수단과 대표, 임원, 국제경기연맹관계자, 보도진 등 3만여명이 한국에 모여들고 대회를 관람하러 오는 외국 관광객만도 24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우리의 자연경관, 문화재,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통수단 등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생활상, 관습, 역사 전통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보고 느끼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이미지로 결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받아왔다.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인의 친절과 예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민족 고유의 인정미와 순박함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절이야말로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예의바른 한국인의 위상을 오래 심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친절하게 예의바른 국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다. 이것은 비단 서울올림픽대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남자부경기

전체급석권으로 종합우승차지

이 용 환

국가대표코치
현재 광성고 태권도코치



아시아 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네팔 카투만두 다시라스 체육관 랑카스타홀에서 3월 23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중주국 한국을 비롯하여 18개국 1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아시아 태권도인의 대제전에서 한국 남자 대표선수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1회대회 이후 14년만에 금메달 8개로 전체급을 석권 하는 쾌거를 올렸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단은 박 익 단장의 인솔하에 고국환 감독, 강선장 코치, 이용환 트레이너와 남,여 선수 16명 등 총 22명의 선수단이 파견되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이 확정된 후 대회 출전에 앞서 2월 10일 부터 3월 17일 까지 합숙 훈련에 들어가 강도높은 훈련으로 필승을 다짐하면서 3월 18일 우리 대표팀은 김 포공항에서 협회임원 및 태권도 관계자와 친지들의 선전을 다짐하는 전송을 받으며 네팔로 향했다.

대회에 앞서 선수들은 체중조절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간단한 워밍업으로 몸을 풀었으며 저녁에는 선수단과의 미팅을 통하여 시합전까지의 일정 및 훈련계획을 상의했다. 아울러 훈련상태 분석과 정신자세 확립에 주력 하였으며 특히 같은 호텔내에는 자유중국, 호주, 요르단, 카타르 선수단이 묵고 있어 외국선수단에 대한 선수 및 임원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중주국 선수다운 매너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하였다. 대회 전날 22일에는 아시아 연맹 총회와 대표자 회의가 실시되어 늦게까지 진행되어 저녁 10시가 지나서야 끝날 수가 있었다. 숙소에서 가진 미팅에서는 경기일정과 체중 확인,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중주국선수답게 경기력 및 행동에 모범을 보여줄 것과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하였다.

경기일정을 보면 23일에는 남자 핀급과 밴텀급, 24일에는 페더급, 웰터급, 라이트급, 25일 마



우승기와 우승컵을 안은 한국대표팀

지막날은 플라이급, 헤비급, 미들급 경기가 진행되었다.

3월 23일 대회 첫날은 8시 30분에 시작된 입장식에 이어 9시 30분부터 게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핀급에 권태호선수, 뱀팁급에 조영남 선수가 출전하여 대회첫날 두개의 금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핀급의 권태호선수는 예선 첫게임에서 7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는 강호 필리핀의 ARNOLBARAD 선수와 대전을 치루었는데 우세한 신장과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 득점으로 승리하는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였다. 한편 3차전에서는 7회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자유종국의 CHANG RONS 선수를 맞이하여 사실상 결승전 게임을 치루었는데 1회에 받아차기로 득점을 빼냈고 2회전에는 열세를 보였으며 3회전에서 우세를 지켜 점진 끝에 승리를 안았다. 준결승전에서는 호주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승리, 결승에 진출하였는데 네팔의 BHI DAN BAMA 선수가 요르단 선수와의 준결승전 경기의 부상으로 기권하여 강창모선수는 한국에 첫번째 금메달

을 안겨주었다.

또한 조영남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하여 일본의 HIROKATUSAITO 선수를 맞이하여 몸통 공격과 얼굴득점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승리했다. 준결승전에서는 필리핀의 STEDHEN FERNADE 선수를 월등한 기량 차이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자유종국의 CHANG HSIAO YONG 선수를 맞이하여 금메달을 놓고 격전을 벌였으나 힘과 장신을 바탕으로 한 우세한 경기로 판정으로 물리쳐 국제 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대망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으며 한국팀에 2번째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대회 둘째날인 3월 24일 경기에는 페더급에 장명삼선수, 웰터급에 정국현선수, 라이트급에 박봉권선수가 출전하였다. 장명삼선수는 23일 대회 첫날부터 컨디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감기 몸살 등 최악의 컨디션으로 게임에 임하였다. 1회전에서 호주 선수와의 커다란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과 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2차예선전에서는 이라크 선수를 다양

한 기술로 일방적인 경기를 벌여 판정승,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이경기에서 요르단의 SO-MIRJOBBER 선수를 맞이하여 게임 시작 1회 1분 40초 만에 원발 얼굴돌려차기로 강타 K.O승을 거두어 관중들과 각국 선수들로 부터 환호를 받았다. 페더급출전선수중 가장 강력한 라이벌 상대인 자유중국의 TZAN SHINSONG선수는 예선 1차전에서 부란 선수를 K.O로 이겼고 2차전에서 인도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준결승전에서는 홍콩선수를 우세한 신장과 경기 운영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대망의 우승을 놓고 장명삼 선수와 일전을 치르게 되었다. 자유중국의 거센 도전을 말해주듯 결승전 게임은 시종 신중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많은 국제 대회 참가의 축적된 경험으로 장명삼 선수가 우세로 승리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웰터급의 정국현 선수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여 필리핀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호주 선수를 노련한 경기 운영과 다양한 동작으로 판정승을 거둔뒤 준결승에 진출, 일본 선수를 맞이하여 K.O승을 의식하여 득점위주의 공격을 시도 하였으나 판정승에 그쳤다. 결승전 경기에서는 자유 중국의 WU TSUNG CHE선수가 준결승 경기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기권 함으로써 한국팀은 4개의 금메달로 종합우승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라이트급의 박봉근 선수는 현지에서 컨디션이 좋지않아 걱정을 했으나 1차전에서 일본 선수를 쉽게 판정승으로 누르고 말레이시아 선수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공격력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하여 준결승전에 진출, 호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순발력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로 판정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올랐다.

역시 결승전에 오른 자유중국의 CHEN YI HSIUNG선수는 박봉근 선수와 격돌, 서로 공격적인 동작과 자세로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 받는 일전을 벌였으나 경기 경험 부족으로 박 선수에게 3회 10초만에 회측으로 K.O패 함으로써 태권도 중중국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박봉근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팀의 사기는 고조되었으나 자

(중 합 전 적)

(남자부)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8		
2	대 만		4	
3	요르단		1	4
4	호 주			2
5	필리핀			3
5	카타르			2

유중국 선수단은 사기가 크게 떨어진 느낌이었나.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는 플라이급에 하태정선수, 헤비급에 김종석선수, 미들급에 정용석 선수가 출전하여 대망의 전체급 석권을 기대하며 선전을 다짐 하였다.

하태정 선수는 1차전 경기에서 긴 신장을 이용하여 몸통 얼굴공격 등 효과적인 공격으로 2차전에 진출, 이란 선수와의 게임에서는 첫게임과는 달리 게임이 안풀려 어려운 경기 운영으로 우세로 겨우 판정승을 거두어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하태정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IROQ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로 압도하며 득점을 내는등 선전했으나 2·3회전에서는 상대선수가 게임의 열세를 만회 하려는듯 거센 반격으로 나와 어렵게 득점을 지켜 판정승으로 승리함으로써 힘들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카타르, 자유중국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요르단의 JASAN 선수를 맞이하여 예선과 준결승 경기에서 보여준 고전에서 벗어나 시종 화이팅 넉친공격과 다양한 기술로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뒤이어 벌어진 헤비급 경기에서 김종석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랐는데 2미터가 넘는 장신에다 힘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호주의 VIC-BATEMAR 선수를 맞아 체력이 딸려 다소 고전하였으나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기술로 커버하며 승리하였으나 2차전에서는 오른발등과

원발가락에 커다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자유중국의 SHIEH RONGTZORG 선수와의 대전은 코치진의 기권권유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팀 닥터의 응급 처치와 진통제 복용으로 게임에 임해 선전하여 한쪽발로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원발 얼굴 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으며 판정승함으로써 자유중국팀의 유일한 금메달 유망주를 탈락시켰다.

이어 홍콩의 CHONG PUCHIR 선수와의 결승전은 두발의 부상에도 뛰어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해 원발로 얼굴 득점을 올리는 등 기술을 앞세운 공격으로 판정승, 감격적인 승리를 안았는데 이는 불굴의 투지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라고 본다.

이어서 한국 남자 선수단의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는 미들급에 출전한 정용석 선수는 1차예선에서 이란 선수를 맞아 1회 40초만에 원발 뒤후리기로 K.O로 승리하며 2차전에 진출해 네팔 선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승리, 준결승전에서 필리핀 선수를 다양한 공격과 우세한 동작으로 제압하였다. 정용석 선수는 카타르 선수와 자유중국 선수를 이기고 올라운 이라크의 HAIDER YOOSIF 선수가 시종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정용석 선수가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

한국팀에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여 한국팀은 대망의 전체급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회를 마치고 거행된 시상식에서는 한국이 1위 대만이 2위 요르단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국은 대망의 전체급을 석권 하였으며 태권도를 통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경기력 뿐만 아니라 중주국 선수다운 행동과 자세를 보여 주었다고 본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종 세계대회 및 국제대회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자유중국 선수들의 기량은 우리 대표팀에겐 가장 거센 도전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또한 필리핀과 일본 대표 선수들의 장신화를 대비해야하며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 다른팀들도 한국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추격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은 외국 선수의 장신화와 기술 개발을 대비해 단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외국팀의 정보 파악 등에 주력할 것은 물론국제대회에는 반드시 비디오 촬영으로 외국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국명
권	1	권태호	한국
	2	Bidhan Lama	네팔
	3	Paul Lyons	호주
	3	Firas Rafiq Al-Jayousi	요르단
플라이	1	하태경	한국
	2	Ihsan S.Abu Shakaha	요르단
	3	Hwang Yao Han	대만
	3	Miguel ventosa	필리핀
밴텀	1	조영남	한국
	2	Chuang Hsiao Yong	대만
	3	Stephen Fernandez	필리핀
	3	Elorahim R. Qhiab	카타르
페더	1	장명상	한국
	2	Tzan Shih Song	대만
	3	Yeung Yin g Kwan	홍콩
	3	Samir Jaber	요르단

체급	등위	성명	국명
라이트	1	박봉권	한국
	2	Chen Yi Hs	대만
	3	Hussein Ibrahim Simrin	요르단
	3	Jinho Jo	호주
웰터	1	정국현	한국
	2	Wu Tsung Che	대만
	3	Hirokazu Shiokawa	일본
	3	Abedin Arab Bادهgh Abadi	이란
미들	1	정용석	한국
	2	Haider Yoosif	이라크
	3	Joalberto Pamintuan	필리핀
	3	Liu Chien Chung	대만
헤비	1	김종석	한국
	2	Chong Fu Chik	홍콩
	3	Shieh Rong Tzong	대만
	3	Almas Mohame	카타르

특

집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여자부경기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18개국에서 총1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네발의 수도 카투만두 국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3일 오전 8시30분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경기에 들어갔으며 여자부 첫날 경기에서는 밴텀급, 페더급, 웰터급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펼쳐져 한국은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한 첫날을 장식했다.

밴텀급에 출전한 박선영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Torng Ya Lin선수를 맞아 득점없이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호주의 Carmela Hartnett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경기에서 김지숙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강호 Mira Thapa 선수를 맞아 상당히 고전했는데 3회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간신히 승리로 이끌고 결승전에 진출, 말레이시아의 Joyce Ong Bee Eng선수를 누르고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페더급의 김소영선수는 결승전에서 대만의 Chen Yiuan Feng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대만선수는 신장면에서 김소영선수보다 7cm나 컸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공격이 위협적이어서 1회전에 김선수가 1점을 먼저 빼앗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소영선수는 많은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기를 펼쳐나가다 기회를 포착, 2회전에 뒷차기로 1점을 얻었다. 3회전에서도 김선수가 공격의 우세로 세번째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4일 대회 이틀째 날에는 플라이급·라이트급·헤비급 경기가 펼쳐졌다.

플라이급에 출전한 추남윤선수는 1차예선전에서 기량과 화이팅이 좋은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를 맞아 선전했으나 아깝게 판정패를 당했다. 대만선수는 종주국선수를 1차예선에서 이기



한국여자대표코치
김영수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화진선수가 감격스러운듯...

고 올라가자 심리적 안정감을 찾은듯 승리를 거듭하며 결승전에 올라가 싱가포르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라이트급에서 이은영선수는 말레이시아, 네판, 호주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신장이 좋은 대만의 Chen Jiun Feng 선수를 맞아 신장의 열세로 공격이 차단당하는 가운데 1,2회전에서 우세판정을 빼앗기는 고전 끝에 3회에 코치주문대로 앞차기에 의한 뒷차기를 시도, 앞차기는 약했으나 뒷차기는 정확한 몸통공격으로 득점을 얻으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헤비급에서 장운정선수는 1차예선에서 네판의 Manju Tuladhar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고 결승에서 대만의 Lee Show Lan 선수를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다.

25일의 마지막날 경기는 핀급과 미들급 경기가 치루어졌다. 핀급의 이화진선수는 국제경기 경험이 전혀없는데다 신장면에서 타국에 비해 열세했기 때문에 코칭스텝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화진선수는 1,2차예선을 가볍게 승리로 이끌며 결승에 진출, 대만의 Chin Yu Fang 선수를 맞아 계속해 내려찍기를 성공시키



밴텀급에 출전한 박선영선수는 한국에 첫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며 득점을 올리는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승리했다.

여차 마지막경기인 미들급경기에서 김현희선수는 2차 예선전에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에게 신장과 체력의 열세로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코칭스텝을 초긴장시킨 가운데 겨우 우세승을 거두었다. 예선전을 힘겹게 마친 김현희선수는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결승전에

●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대만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ü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판정패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력을 분석하여 차기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올라가 대만의 강호 Wang Chih Yu 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과 화이팅 넘친 공격력을 바탕으로 관중을 매료시키는 가운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여자대표는 플라이급을 제외한 7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외국선수들이 신장과 체력을 앞세운 과감한 공격을 펼쳐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대만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ü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판정패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력을 분석하여 차기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선수들이 보강해야 할 점으로는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위주의 단타보다는 관중과 심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크고 강하게 연결되는 공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전적

- 1위 한국(금7)
- 2위 대만(금1은5동2)
- 3위 호주(은1 동4)
- 4위 네판(동6)
- 5위 말레이시아(은1 동2)
- 6위 싱가포르(은1)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국 명
핀 급	1	이화진	한 국
	2	Chin Yu Fang	대 만
	3	Bronwyn Butterworth	호 주
	3	Shima Khadaga	네 판
플라이급	1	Pai Yun Yiao	대 만
	2	Wong Liang Meng	싱 가 폴
	3	Cheryl Smith	호 주
	3	Shita Rai	네 판
밴 텀 급	1	박선영	한 국
	2	Carmela Hartnett	호 주
	3	Torng Ya Lin	대 만
	3	Chai Saew Yuen	말레이시아
페 더 급	1	김소영	한 국
	2	Chen Yüan Feng	대 만
	3	Cheng Ma Ling	홍 콩
	3	Panny Glowacki	호 주
라이트급	1	이 은영	한 국
	2	Chen Jiun Feng	대 만
	3	Angela Gaye Coulson	호 주
	3	Rita Shrestha	네 판
웰 터 급	1	김 지숙	한 국
	2	Joyce Ong Bee Eng	말레이시아
	3	Mira Thapa	네 판
	3	Tang Huey Ting	대 만
미 들 급	1	김 현희	한 국
	2	Wang Chih Yu	대 만
	3	Laxmi Gurung	네 판
	3	Lau Choo Boon	말레이시아
헤 비 급	1	장 윤정	한 국
	2	Lee Show Lan	대 만
	3	Manju Tuladhar	네 판

특

집Ⅱ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남자부는 지난 7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에서 전체급을 석권한 이래 15년만에 8체급을 모두 휩쓸며 8연패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7개체급을 석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88서울올림픽 태권도시범경기의 청신호

▲사회: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앞두고 남·여대표선수들이 아시아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남자부는 지난 7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전체급을 석권한 이래 15년만에 8체급을 모두 휩쓸며 8연패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호주에서 개최된 제7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우승한 이래 7체급을 석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 청신호가 되리라 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까지 특히 단장께서 노고가 크셨을텐데 대회에 앞서 각오는

어떠했으며 이번 대회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서울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중요성 커...

▲박익단장: 본 대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

회를 어떻게 치루느냐에 따라 남녀대표선수단이 앞으로 어떠한 마음자세로 '88대회를 맞게 되느냐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어느 국제대회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앞서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또 선수들에게는 각국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는 자세로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18개국에서 154명이 출전한 가운데 여자부 1체급을 제외한 전체급 우승으로 중주국 태권도 경기의 우수성을 발휘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수 모두가 중주국 대표로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중주국의 국위선양은 물론 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대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감독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따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각국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체급 메달석권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고국환감독: 이번 대회는 각국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국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한국이 전체급 메달을 석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메달획득보다는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각각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사회: 이번 대회의 결과가 '88서울올림픽 출전을 앞둔 대표선수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입니까?



선수들 모두 사기가 높아 이러한 분위기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면 올림픽에서의 전체급 석권도 가능하리라 낙관

▲강선장코치: 본대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이지만 아시아대회와 세계대회의 기량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선수들이 기량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대회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구나 남자부의 경우 전체급 석권이 14년만에 있는 일이라 선수들 모두 사기가 높아 이러한 분위기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면 올림픽에서의 전체급 석권도 가능하리라 낙관합니다.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강하고 큰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공격법을 연구해야.

▲김영수코치: 여자부경기에서는 핀급과 헤비급외에는 외국선수들이 신장과 체력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안전위주의 단타보다는 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하고 큰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공격법을 하루속히 연구해야만 앞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될 상대국은 어느 나

라입니까?



대만은 남녀 3체급이
결승에 진출, 한국의
강력한 적수로 부상

▲이용환코치 : 이번 대회에서 대만은 남녀 각각 3체급서 모두 결승에 진출, 한국의 강력한 적수로 부상했습니다. 대만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대만선수 뿐만 아니라
호주와 필리핀선수도
앞으로 주시해야

▲김경주코치 : 여자부에서도 대만이 강력하게 중추국을 추격해와 가장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필리핀선수도 앞으로 주시해야 되리라 봅니다.

▲사회 : 대만의 태권도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 코치가 계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강선장코치 : 25년전에 태권도가 처음 보급된 이래 최근에는 태권도가 아시아게임의 유력한 메달종목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만국가대표팀 여자부코치로 참가한 한국인 사범 한유근씨에 의하면 대만의 태권도 인구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이전부터 지금까지 2~3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해 4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공과의 스포츠 경쟁에서 유일한 우월종목으로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아성을 깨칠날도 멀지 않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사회 : 대만은 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남자 3체급, 여자 4체급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대만선수들에 대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용환코치 : 대만선수들은 신장위주로 선발되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 신장면에서 우세합니다. 신장과 체력을 앞세운 과감한 공격에 대비하고 장신에 대비한 상단공격의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국 선수단에서는 비디오로 경기를 찍어가 각국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이기기위한 전략, 전술 또는 작전을 수립하는데에는「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자에 대한 정보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이 아직 우리나라선수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선수층이 얇고 경기경험면에서 우리나라선수들보다 적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 : 내팔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경기운영면은 어땠습니까?

▲고국환감독 : 대회 운영면에서는 우리나라 도장에서 친선경기를 하는 정도였을 정도로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각국의 선수들 기량은 높이 향상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회 : 내팔국민들의 대회 호응도나 관전태도는 어땠습니까?

▲강선장코치 : 태권도경기에 앞서 국립경기장에서 90여명의 관중이 압사하는 대형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입장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해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또한 경기장의 통로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경기장을 출입시켰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장에는 관중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 경기마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 내팔국민에게 태권도가 열

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관한 여러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녀 선수여러분들의 경기내용과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점, 각국의 경기력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비급에 출전한 김종석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하며 남자부가 전체급을 석권하는 영광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상을 당했습니까?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한 김종석선수

▲김종석선수: 1차예선전인 첫 시합에서 2m4cm의 호주선수를 맞아 우선 신장의 열세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국내경기에서는 적보다 큰 선수와 대전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약간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회전을 우세로 이끈 뒤 2회전에 득점을 올리고 원발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 3회전에 무척 고전했습니다.

▲사회: 계속 경기가 있어 부상 때문에 고전하였을텐데 어떻게 승리를 하였습니까?

▲김종석선수: 두번째 경기는 대만선수와와의 경기였습니다. 테이핑한 후 시합에 들어갔는데 두차례나 코트에 쓰러지는 고전이었으나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경기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무척 와일드하게 상대방 선수를 몰아붙였던 모양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발가락이 찢어진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회: 그야말로 눈물겨운 승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선수는 지난 제6회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필리핀선수를 K.O로 누르고 우승한 이래 지난 수년간 계속 슬럼프 기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올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로 선발되는 등 재기전에 성공해 이번 대회의 감회는 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기전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종석선수: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서울지하철공사에 입단하면서부터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쟁쟁한 전력을 자랑하는 동료들과의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 같은 서울지하철공사팀의 정국현선수는 국제대회에서 꽤 쉽게 메달을 따낸다 싶은 정도인데 운이라고 보십니까 실력이라고 보십니까?



국제대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외국선수들의 공격의 흐름을 잡기 힘들고 신장이 우세해 힘들어

▲정국현선수: 대전운이 좋아 무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결승전에서는 대만의 우종제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면 상대방 선수들이 저의 세계대회전적을 알고는 우선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는데다가 외국선수들의 공격의 흐름을 잡기가 힘들고 신장이 우세해 우리나라선수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대회는 아무리 여러번 치루어도 늘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국제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내대회에서 인정되는 특징이 국제대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경험 있는 선수들은 국내시합 스타일과 국제시합 스타일이 다르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시합에서부터 크고 강하며 난이도 높은 기술구사로 국제대회스타일로 경기운영해야

▲장명삼선수 :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대회에서는 몸통공격이 성공하면 득점으로 인정하나 국제대회에서는 정확한 공격이라도 동작이 크고 소리가 크게 나서 강타라는 인상이 가아지만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국내시합에서부터 크고 강하며 난이도 높은 기술구사로 국제대회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 : 장명삼선수는 국제대회의 경험이 많은 편이지요.

▲장명삼선수 : 아시아선수권대회 3차례,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각각 1회 등 모두 6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땀습니다.

▲사회 : 결승에서 대만의 장스슌선수에게 판정으로 이겼다고 했는데 출전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까?

▲장명삼선수 : 전히... 이란, 이라크 선수가 잘한다는 얘지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예상보다 못하는 것 같았고 대만과 요르단이 기대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 박봉권선수는 결승에서 통쾌한 K.O 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박봉권선수 : 결승전에서 대만선수를 맞아 오른팔 후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시합전에 대만선수의 경기모습을 지켜보았더니 매우 기량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승에서 대만선수를 만나서는 큰 동작보다는 작은 동작으로 수비하다가 찬스를 포착했던 것이 승리



결승에서 큰 동작보다는 작은 동작으로 수비하다가 찬스를 포착했던 것이 승리 안겨줘

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회 : 가장 힘든 상대를 가장 통쾌하게 이긴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남선수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호 대만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손이 높이 올라가자 기뻐하실 아버지의 얼굴 떠올라

▲조영남선수 : 대만선수를 맞아 결승전에 돌입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판정승을 거두고 손이 높이 올라가자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회 : 권태호선수는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출전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관중은 별로 없었으나 네팔국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들어

▲권태호선수 : 결승에서 홈팀인 네팔의 선수

를 맞아 그곳 관중들의 응원이 대단하리라 생각했는데 기권승을 거두었습니다. 관중은 별로 없었으나 네팔국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팔인들에게는 스포츠 중에는 축구 다음으로 태권도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강산장코치: 국민소득 200불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팔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태권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인기 스포츠라는 점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 미들급의 정용석선수는 이라크선수와 결승전을 치루었는데 이라크선수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승전에서 붙은 이라크선수의 기술은 수준급

▲정용석선수: 이라크선수의 기술은 수준급이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한국선수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국현선수: 정용석선수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인 공격으로 몰아붙여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라크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한 것 만으로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회: 하태경선수도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누가 제일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까?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의 영광차지

▲하태경선수: 우선 제 자신이 제일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형트레이너: 하태경선수는 특히 1차예선에서 이라크선수를 맞아 회측, 뒷차기등 멋진 기술을 발휘하였고 결승전에서도 3:0으로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며 판정승을 거두는등 선전했습니다.

▲사회: 이제 여자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경기는 플라이급 외에 7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우승자보다도 패자에게 그 패인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데 추남룡선수는 그 패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올림픽에서는 이번대회를 거울삼아 설욕전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남룡선수: 예선전에서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대만의 패윤유선수를 맞아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떨어진데다가 첫시합에서 강자를 만나니까 당황하여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추남룡선수는 이번의 출전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올림픽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작오는 어떻습니까?

▲추남룡선수: 저보다 훨씬 기량이 뛰어난 선배인들이 많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 졌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설욕전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박선영선수는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래 이번 대회에서

는 금메달을 획득 하는 영광을 안았는데 그때의
초감을 들려주시지요.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애국자가 된 듯한
가슴 뭉클함 느낄 수 있어

▲박선영선수: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
려퍼지자 애국자가 된 듯한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김소영선수는 경기할 때 탱크처럼
떨어붙인다는 의미에서 「탱크」라는 별명을 들
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에서처럼 떨어
붙었습니까?



상대가 키가 커서 선불리
들어가다가는 얼굴공격
당하기 쉬워...

▲김소영선수: 외국선수들은 대부분 신장면
에서 우월하고 체력이 좋은 편입니다. 결승에서
만난 대만선수의 경우도 신장이 좋아 앞발로 밀
어주고 뒷차기를 많이 구사했습니다. 상대가 키
가 커서 선불리 들어가다가는 얼굴공격을 당하
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다 기
회를 포착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사회: 김지숙선수는 7회아시아선수권 대회
와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대전을 펼친
바 있는 대만 선수와 이번에도 경기를 펼쳤다고
하는데 그 선수와의 승부는 어땠습니까?

▲김지숙선수: 첫개입을 치른 대만선수가 제



숙적 대만선수와의 대전에서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리한
올림픽대회에서는 자신감
갖고 겨룰터

7회아시아선수권대회 때 저를 이긴 바 있고 지
난해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겨우 우세승으
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2회전에는 몸
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긴장해 공격다운 공
격을 펼치지 못하다가 3회에 「자신감을 갖고 경
기에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김경주트레이너: 김지숙선수는 3회전에 무
려 3득점이나 얻는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
다. 김지숙선수가 올림픽에서 다시 그 선수와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자신있게 경기를 펼치리
라 봅니다.

▲사회: 이은영선수는 국제대회에 여러번 참
가한 경험이 많은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가장 신
경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최선

▲이은영선수: 저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에 출
전해 부상을 당한 경우가 많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신경쓰입니다.

▲사회: 이화진선수는 여자선수들 중에 제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강선장코치: 저는 이화진선수가 국제대회
에서 그렇게 잘싸우리라 생각지 못했는데 대회
에 임한 이화진선수는 국내대회보다 국제대회

에서 더 잘 싸우는 스타일 같았습니다.

▲남자선수들: 이화진선수는 조그마한 체구에 재일 큰 기함으로 상대를 압도해 관중들로부터 많은 격려박수를 받았을 뿐더러 좋은 기술을 발휘해 재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회: 이화진선수, 결승전에서 대만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주효했습니까?



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 받아

▲이화진선수: 1,2회전에서 계속 내려찍기가 유효했습니다.

▲사회: 김현희 선수도 결승전에서 대만선수와 대전을 펼쳤는데 신장과 체력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전무님의 특별한 최면술(?)로 자신의 기량을 십분 발휘

▲김현희선수: 다른 체급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신장이나 체력면에서 열세였는데 미들급에 출전한 대만선수는 저와 모든 면이 비슷했습니다.

▲강선장코치: 김현희선수는 결승전에 앞서 예선전에서 7회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신의 호주선수를 맞아 1,2회전을 고전하다 3회전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를 마

치고 김현희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치출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전무님께서 많은 국제 대회 경험으로 선수에게 안정감을 북돋아 주셨는데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해 몰라보게 기력을 내더니 자신의 실력을 150%나 발휘하며 선전해 주었습니다.

김현희선수는 예선전에 너무 고전한 탓이었는지 금메달을 목에 걸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정국현선수: 제가 보기에도 호주선수는 체격이 무척 좋았고 기량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 그 선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무님의 독특한 최면술이 김현희선수를 승리로 이끌게 한 것 같습니다.

▲사회: 김현희선수, 전무님의 독특한 최면술에 걸려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어떤 최면이 있었습니까?

▲김현희선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중석선수: 최면이 어떤 것인지 알면 최면이 걸리지 않겠습니까(일동웃음.....)

▲강선장코치: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정신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사회: 장윤정선수는 제7회대회에 이어 연속 2연패를 차지하여 아시아권에서는 태권도 여왕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여 세계의 여성최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올림픽대회는 저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릴터

▲장윤정선수: 저는 당치는 크지만 늘 대회에 나가면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갖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 대

맞더라도 패고 오자는 각오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대회는 저의 마지막 시험이 되리라 봅니다.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금메달을 걸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개선하였습다. 이제 여러분들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 날까지 강화훈련에 들어가 세계의 최강자들을 이겨내기 위한 체력보강과 체적의 건강유지, 고

도의 기술언마로 젊음을 불사르는 나날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맘의 결정체는 자신의 영광 뿐만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나라의 체육사에 영광스런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좌담회가 여러분의 기량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88대회를 앞두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 간 안 내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



김석련 저·오성출판사 발행

청소년 수준에 맞도록 기술과 동작, 예절교육 등을 분리하여 엮은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이 오성출판사(1988년 5월 30일 발행)에서 발간되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의 양면을 여러가지로 조화있게 다루었다. 또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옛 선조들이 물려준 무예정신의 정통성을 심어주고 심신수련의 교육적 가치를 한층 더 고취시켜 문무겸비를 함양시

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 발간 취지를 밝혔다.

책의 내용은 1장 태권도의 본질, 2장 태권도의 발달사, 3장 태권도와 무예정신, 4장 태권도의 기초, 5장 품새, 6장 겨루기, 7장 격파, 8장 중요급수 및 인체해부도, 9장 태권도와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9장에서 다른 태권도와 건강관리에서는 응급처치를 비롯해 알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스포츠 맛사지와 건강지압,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 자세와 운동방법, 심폐소생법(심장맛사지)등을 다루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겸 IOC위원은 추천사를 통해 「오늘의 청소년들은 인격순화를 통해 참된 윤리관을 배양하는 태권도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태권도 종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아래 정신수양과 체력인마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필자인 김석련씨는 명지대 체육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성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이며 본회 편집분과위원이기도 하다.

필자는 태권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 「태권도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국내선수과 외국선수의 태권도 경기내용에 관한 연구」, 「태권도 국내학술 연구논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등의 논문과 「武道·스포츠跆拳道」라는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88추계종별선수권대회 겸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소년체육대회

인류의 대제전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역량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실시되던 추계종별대회와 제69회 전국체전이 제17회 소년체육대회와 통합경기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거행되었다.

제17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는 1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25일과 26일에 실시되었고, 제69회 전국체육대회겸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고등부 112명, 대학부 108명, 일반부 112명 등 총 483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였다.

—편집자주—

대표자회의

5월 24일 오후 5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는 임운규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황춘성진무이사의 대회운영에 관한 설명, 권경욱기술심의회회장의 경기장질서확립문제에 관한 당부 등으로 간략하게 마쳤다.

추계종별선수권대회겸 제17회 소년체육대회 및 제69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대표

자회의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이미 가진 바 있기 때문에 대회 전날에 가진 대표자회의는 대회운영진반에 관한 시도대표들의 주지사항만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각시도협회 임원선수단
환영 만찬

본 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환영만찬

이 전주시의 코아관광호텔에서 성대하게 펼쳐져 각시도협회임원 선수단은 우의를 다지며 각기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필승을 다짐하였다.

전북태권도협회장인 육종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후백제의 도읍인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각시도 선수단을 환영하였다.

본회 임운규부회장은 답사



서울 송 봉 섭



부산 이 근 우



대구 도 상 곤



인천 성 재 준



강주 윤 판 석



경기도 안종웅



충북 정 만 순



충남 이 진 수



전북 오 인 규



전남 박 창 웅



경북 예 조 해



경남 김 억 곤



제주도 양광호



강원 박 병 철

▲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협회 임원

에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애쓰신 전북협회 회장단 및 관계자들에게 전 태권도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고 전제한후 통합체전이라 대회의 규모가 클 뿐더러 각시도에서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한만큼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보였던 경기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

했다.

개회식

개회식은 황춘성전무이사의 대회선언, 김운용회장을 대신하여 임운규부회장의 대회사, 강현욱전북체육회회장겸 전북도지사의 치사, 육종진전북태권도협회회장겸 전주시장의 환

영사가 있었다.

이어 이규형사범의 구령에 맞추어 한국태권도어린이국가대표시범단인 미동국교 60명의 어린이들이 펼쳐보인 태권도 시범은 질서정연한 가운데 태권도의 기상과 위력을 보여주어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린이 국가대표시범단의 절묘한 시범

제17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중등부경기로 이루어진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통합경기로 개최되어 단독경기 때와는 달리 각 시도에서 출전한 전국체전선수들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는 가운데 개최되 경기장의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찼다.

A코트1번 김병석선수(제주) 대 김현식선수(강원)의 대전과 B코트2번 김철용선수(대구) 대 박동종선수(충남)의 대전으로 시작된 예선전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고 향상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시트배정으로 11체급 모두 예선을 부전승으로 통과하였고 충청남도도는 1천만 인구를 자랑하는 강호 서울대표팀을 물리치고 10체급, 이어 서울이

9체급, 경상남도 8체급, 부산직할시와 충청북도가 6체급,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제주도가 각각 5체급이 예선을 통과했고 강원도에서 3체급이 준준결승에 올랐다.

메달권 진입을 놓고 치열하게 펼쳐진 준준결승전에서 편급경기는 김태실선수(전북)가 김현식선수(강원)를 3:2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며 메달권에 선착했다.

플라이급 준준결승전 중 이준태선수(전북)와 박종천선수(충북)의 대전은 박선수가 1회전에 3득점을 올리며 홈그라운드인 이선수들 4:1로 제압했다.

밴텀급 준준결승전에서는 진승태(전북)선수가 김성열(전남)선수를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로 메달권에 진입했다.

페더급 준준결승전에서는 부자가 선수와 코치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정동(전북)선수와 이영기코치(완산중학교코치)가 그 주인공. 이정동선수는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박창길선수(충남)에게 패하고 말았다.

전날에 이어 5월 26일은 라이트급 준준결승전부터 시작되었다.

A코트의 정관영(전북)선수와 유규택(충남)선수의 대전은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유규택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했다.

전북팀은 시트배정으로 유리한 고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급에 이어 L-웰터급, 웰터급, L-미들급, 미들급, L-헤비급, 헤비급에서 계속 연패를 감수해야 했다.

준준결승전에서는 충남이 8체급으로 가장 많이 준결승전에 돌입했고 서울과 경남이 6체급, 부산 5체급, 경북 4체급, 충북 3체급, 대구·광주·전북 제주가 각각 2체급, 인천·경기·전남·강원이 1체급씩 동메달권에 올랐다.

준결승전 및 결승전

●핀급:준결승전에서 김태실(전북)선수는 박동종(충남)선수를 막상막하의 경기중 우세판정으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고 석운용(부산)선수는 이재필(경남)선수를 역시 우세로 이겨서 결승에 올랐다.

리치가 긴 김태실(전북)선



열띤 응원이
펼쳐져 경기분위
기를 더욱 고조
시켰다.

수를 맞아 석운룡(부산)선수는 빠른 몸놀림으로 계속 공격을 하였으나 10여센치의 신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회 1득점, 2,3회 우세를 빼앗겨 패배, 김태실선수가 전북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 박종천(충북)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이정희(대구)선수는 김대훈(부산)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정상수(경남)선수를 맞아 1회 우세를 빼앗겼으나 2회에 맹공으로 2:1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3회에 두 선수다 치열한 점진끝에 1:1 득점을 내 득점에서 앞선 이정희(대구)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진승태(전북)선수는 박성열(경북)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 신인 유양주로 부상한 이동규(충남)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조재성(서울)선수를 맞아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패배, 서울이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페더급: 박창길(충남)선수와 장현술(경남)선수와의 대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은 박창길선수가 1회에 우세, 2회에 장현술선수가 1득점을 얻는 가운데 3회전을 맞아 박창길선수가 역전을 위해 공격을 퍼붓자 장현술선수는 점수지키기에 급급하여 라인밖 경고를 받는 등 소극적인 공격끝에 힘겹게 승리, 경남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라이트급: 강호 서울의 전만중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충남의 유규택선수는 신장면에서 월등히 큰 광주의 김봉찬선수를 맞아 1회 우세와 2,3회에 각각 득점을 올리며 승리하였다. 뛰어난 기량과 과감한 공격 앞에는 건리치도 통용이 안되는 좋은 본보기였다.

●L-웰터급: 준결승전에서는 임병찬(충남)선수가 3-4년 전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 부산팀의 최성화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정충민(전남)선수는 본대회의 새로운 강팀

으로 부상한 경남의 이경환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1,2회전에서 득점과 우세를 주고받는 접전끝에 전남의 정충민선수가 어렵게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웰터급: 제주의 이광선선수와 서울의 김민수선수와의 대전으로 좁혀진 결승전은 1회 1득점을 얻은 김민수선수가 여세를 모아 2,3회전에도 계속 우세한 경기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L-미들급: 준결승전에서 서울의 강호 임성수선수를 백중세로 이기고 올라온 제주의 권혁훈선수는 결승에서 대구의 김진 선수를 맞아 1,2회를 득점이 없는 가운데 우세로 물고 3회전에는 우세관정으로 어렵게 금메달을 획득했다. 득점이 없이 우세승이라 패배한 대구·코치석에서는 어필을 하기도 했다.

●미들급: 김진만(경남)선수와 이지석(충남)선수의 대전으로 좁혀진 결승전은 본 대회

에서 새롭게 부상한 강자끼리의 한판이었다.

1회전을 1:2로 이지석선수가 앞섰고 2회전은 김진만선수가 우세판정을 받는 가운데 3회전에 김선수가 득점함으로써 동점을 이룬가운데 2회전의 우세판정으로 김진만선수가 경남에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전체1위를 꿈꾸던 충남팀은 이로써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다.

●L-헤비급: 준결승전에서 안금호(인천)선수는 김승범(강원)선수를 맞아 1회전에 1득점을 빼앗겼으나 2회전에 2득점으로 역전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희상(대구)선수와 서강호(광주)선수의 대전은 1회에 선취득점을 올린후 2회 초반 코치석에서 타움을 던져 기권하였다.

결승에 오른 안금호(인천)선수와 서강호(광주)선수의 대전은 1회 2득점으로 승세를 잡은 인천의 안금호선수를 맞아 2회에 서강호선수는 맹공으로 1득점을 만회했으나 3회에 안금호선수가 공격을 계속해 부우며 격돌을 벌이는 가운데 안금호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헤비급: 체급별 준결승전 중에서 가장 치열한 대전을 펼친 헤비급은 강호 서울의 이범석선수와 본대회의 최강팀으로 우승이 기대되는 충남 안성주선수의 대전으로 펼쳐져 득점에 돌전을 이루었으나 우세판정을 받은 서울이 승리, 충남은 아깝게 탈락했다. 이어



제17회 소년체전 종합1위는 서울, 2위는 충남, 3위는 경남이 차지했다.

벌어진 부산 신원조선수와 경남 박동일선수의 대전은 헤비급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득점을 내며 3:2로 부산의 신원조선수가 승리,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승전에서는 부산의 신원조선수가 선취득점을 얻었으나 2회에 서울의 이범석선수가 1득점을 얻어 동점을 이룬뒤 3회전에 이범석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승리, 서울팀이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충남, 경남이 중등부 강호로 부상

본대회에서는 서울이 종합1위를 차지한데 이어 충남과 경남이 중등부강팀으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평균화됨에 따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우세판정

에 의한 판정승이 많았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다양한 기량을 펼치기 보다는 득점위주의 경기운영만을 노리는 경향이어서 경기분위기가 차츰 흥미롭지 못했으나 지역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기장은 열기에 가득찼다.

경기의 질적인 면에서 볼때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질 중등부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술발휘로 기량향상을 꾀하지 못했다는 점과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정신이 아쉬웠다.

그밖에 예시예종의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경기장에서 심판 판정을 놓고 공식절차를 무시한 심한 어필, 경기종료 후 선수들은 상대편 코치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정신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선수들의 선전을 격려해주는 모

습이 보기 드물어 무도정신이
깨나친 승부욕에 의해 점차 퇴
색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태권도인들이 이러한 경기장
풍토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해
야만 앞으로 진정한 무도스포
츠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
리라 본다.

소년체전 종합 성적 및 순위 (태권도경기)

1. 서 울	(1.868)
2. 충 남	(1.828)
3. 경 남	(1.245)
4. 전 북	(922)
5. 제 주	(773)
6. 부 산	(750)

7. 인 천	(704)
8. 경 북	(680)
9. 광 주	(632)
10. 경 기	(595)
11. 전 남	(586)
12. 충 북	(563)
13. 대 구	(513)
14. 강 원	(281)

입상자 명단

체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핀 급	1	김 태 실	전 북
	2	석 윤 용	부 산
	3	박 동 중	충 남
플라이급	1	이 재 필	경 남
	2	정 상 수	대 구
	3	박 종 현	충 북
밴 텀 급	1	김 대 훈	부 산
	2	조 재 성	서 울
	3	진 승 태	전 북
페 더 급	1	박 만 은	경 북
	2	이 동 규	충 남
	3	장 현 술	경 남
라이트급	1	박 창 길	충 남
	2	김 성 현	서 울
	3	허 성 진	경 북
L-웰터급	1	유 규 태	충 남
	2	김 경 회	경 기
	3	전 만 중	서 울
L-웰터급	1	김 봉 찬	광 주
	2	정 충 민	전 남
	3	임 병 찬	충 남

체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L-웰터급	1	최 성 화	부 산
	2	이 경 환	경 남
	3	김 민 수	서 울
웰 터 급	1	이 광 진	제 주
	2	김 동 근	충 남
	3	신 보 현	충 북
L-미들급	1	권 혁 훈	제 주
	2	김 진 진	대 구
	3	임 성 수	서 울
미 들 급	1	장 용 국	부 산
	2	김 진 만	경 남
	3	이 지 석	충 남
L-헤비급	1	이 덕 회	충 북
	2	김 재 덕	인 천
	3	안 금 호	인 천
헤 비 급	1	서 강 호	광 주
	2	김 승 범	강 원
	3	이 회 상	경 북
헤 비 급	1	이 번 석	서 울
	2	신 원 조	부 산
	3	안 성 주	충 남
헤 비 급	1	박 동 일	경 남
	2		
	3		

제6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고등부 경기

11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

룬 고등부경기는 소년체전의
결승전과 시상식후 바로 이어
져 고조되었던 열기가 전국체
전에도 계속돼 예선전부터 열

띤 집전을 펼쳤다.

예선전에서는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충남에서 6명
이 준준결승에 진출하는 패조
의 스타트를 보였고 시트배정
으로 예선전을 통과한 전북팀
이 5명, 서울팀이 4명, 충북팀
이 3명, 부산·인천·광주·경
기·경남에서 각각 2명씩, 대



고등부 체급별 우승자

구·강원·전남·제주에서 각각 1명씩 동메달권에 진입하였다.

●핀급: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후 승승장구하는 전북의 윤철선수는 강팀으로 부상한 충남의 신상준선수를 맞아 선전 결승에 올랐고 경남의 지재기 선수도 강원의 채우병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윤철(전북)선수와 지재기(경남)선수의 대전은 1회 윤철 선수의 선취득점을 2,3회전에 지재기 선수가 맹공으로 추격하였으나 우세를 그쳐 은메달에 머물렀고 윤철 선수가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전북의 신재근코치와 경남의 김영국코치는 동년배로 같은 시기에 선수생활을 한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경기장에서는 필승의 신념으로 맞섰고 판정후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국체전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주기도 했다.

●플라이급: 쌍둥이 형제로 소년체육대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의 박세성 선수가 전국체전대표로 출전, 홈팀인 전북의 김양식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충남의 윤희준 선수도 경기의 김훈섭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충남의 윤희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부산의 박세성 선수는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았다.

●밴텀급: 준결승전에서 정을진(전북)선수는 양정석(서울)선수를 맞아 2:3으로 석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고, 이국재(인천)선수는 권오철(충북)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양정석 선수와 이국재 선수의 결승전은 양 선수가 1,2,3 회전에서 우세판정을 받으며 승리, 금메달을 차지했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 전

북의 송준호 선수는 대구의 신춘호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 연속 2체급에서 동메달에 머무는 부진을 씻었거나 결승에서 경기의 이재범 선수에게 1,2,3 회전에서 계속 우세를 빼앗기며 아깝게 탈락, 은메달에 머물렀다.

●라이트급: 장덕훈(광주) 선수는 신경수(충남)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박의성(충북) 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강호 서울의 박세진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1회 우세를 빼앗기고 2회 우세를 빼앗아 동물을 이룬 가운데 3회에 우세를 빼앗겨 서울팀에 금메달이 돌아갔다.

한편 라이트급 예선전에서는 서울의 박세진 선수가 1회중반 원발돌려차기로 공격해오는 강원의 이철우 선수를 뒤틀기로 받아차 몸통에 적중, 다운되었으나 카운트없이 바로 경기를 속행시켜 선수보호 측면이나 판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웰터급: 홈팀인 전북의 임성호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부산의 장영태 선수는 광주, 제주, 서울의 선수들을 제압하고 올라온 강호 충남의 신광수 선수를 맞아 1회 12초에 원발돌려차기를 시도하려는 신 선수에게 오른발뺏차기로 맞공격, 복부를 강타하여 결승에서 보기도 못한 K.O.승의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새롭게 강팀으로 부상한 충남팀과 경남팀의 대전에서 승리한 충남의 구기정

선수는 제주의 강승수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충북의 박종범 선수와 결승에서 만났다.

충청도선수끼리의 한판이었으나 경기내용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으로 1회에 득점에 가까운 공격을 많이한 충북이 우세, 2회에서는 득점을 주고 받으며 충북이 우세, 3회에서는 중반에 오른반돌려차기로 1득점을 충북이 뽑아 강호충남의 구기정선수가 은메달에 머물렀고 충북은 첫 금메달을 따냈다.

● 해비급: A코트의 예선전에서 전남선수가 서울선수에 게 우세로 패하자 전남에서는 관중에 불복, 선형식을 끌기하는 등 심한 어쩔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B코트의 예선전에서 충북의 임명수선수는 경남의 이호근선수를 맞아 2득점을 선취하고 우세하게 경기를 끝

나 가나 3회전에 침침을 만회하려고 맹공을 가하는 경남의 이호근선수를 주먹공격으로 얼굴을 강타하여 만취패를 당하였다.

준결승전에 오른 이호근(경남)선수는 인천의 최운종 선수에게 관정패하여 메달결전에 부상과 패배의 아픔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다.

송근배(광수)선수와 최종훈(인천)선수의 결승전은 1회에 우세를 선취한 최선수가 2,3회전에서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관정승을 거두어 해비급왕좌를 차지했다.

우세판정이 문제

고등부상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가상 패기있게 기량을 발휘하여 파감한 공격을 하여야 할 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공격과 득점에만 집착해 확실한 득점없는 가운데 우세판정이 많았다. 우세판정에 있

어서는 두 선수다 정확한 득점차나 공격에 우열을 가라기 힘들때 내려지기 때문에 관중에 시비요소가 많았다. 특히 집착 체질처럼 각 시도별 강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때 우세판정은 더욱이 문제가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우세판정을 축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심판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득점을 찾아 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득점을 줘도 그만 우세를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는 경기장에서 사라져야 되겠으며, 강타를 맞아 다운이 되어 카운트를 해도 1득점, 얼굴을 맞아 카운트를 해도 1득점, 몸통을 막동으로 삼 끊이차 소리가 크게 나도 1득점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득점판정은 재연구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기법에 의해 승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입상자 명단(고등부)

세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세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권	금	1	윤	천	전	북	라이트	금	1	박	재	진	서	울																																																																																																																																																																																																																																																																																																																																																																																																																																																				
		2	지	세	기	경			남	2	송	근	배	광	수	경	남																																																																																																																																																																																																																																																																																																																																																																																																																																																	
		3	전	상	준	충			남	3	신	강	수	충	남	3	박	의	성	충	북																																																																																																																																																																																																																																																																																																																																																																																																																																													
플라이	금	3	최	우	병	강	위	월터	금	3	신	광	수	충	남	1	양	영	태	부	전	북																																																																																																																																																																																																																																																																																																																																																																																																																																												
		1	박	재	진	무	산			1	신	광	수	충	남	3	임	성	호	전	북																																																																																																																																																																																																																																																																																																																																																																																																																																													
		2	윤	희	준	충	남			2	양	영	태	부	전	북	3	홍	문	주	서	울																																																																																																																																																																																																																																																																																																																																																																																																																																												
벤	금	3	김	양	석	충	북	기	금	3	홍	문	주	서	울	1	박	종	범	충	북																																																																																																																																																																																																																																																																																																																																																																																																																																													
		3	김	훈	섭	경	기			2	구	기	정	경	남		2	구	기	정	경	남																																																																																																																																																																																																																																																																																																																																																																																																																																												
		3	김	훈	섭	경	기				3	송	진	진	경			남	3	강	승	수	개	우	남																																																																																																																																																																																																																																																																																																																																																																																																																																									
메	더	금	1	이	제	범	충	북	해비			금	1	김	종	배		광		수	2	송	근	배	광	수	3	박	종	범	충	북																																																																																																																																																																																																																																																																																																																																																																																																																																		
			2	송	근	배	광	수		2			송	근	배	광	수	3		최	종	훈	인	천																																																																																																																																																																																																																																																																																																																																																																																																																																										
			3	김	훈	섭	경	기		3	최		종	훈	인	천	3	최	종	훈	인	천																																																																																																																																																																																																																																																																																																																																																																																																																																												
																																																																																																																																																																																																																																																																																																																																																																																																																																																																		</

대학부 경기

대학부경기는 '86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를 비롯해 전·현 국가대표들이 준비하게 포진한 가운데 펼쳐져 예선전부터 예상할수 없는 치열한 접전으로 경기장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예선전에서 본 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시트배정으로 8체급이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부산이 7체급, 서울·경기·전남이 각6체급, 충북·제주가 각5체급, 강원·경남이 4체급, 광주 3체급, 충남 2체급, 경북·대구가 각1체급씩 통과하였다.

준준결승전에는 전북과 서울이 각6체급, 경기·충북이 각4체급, 전남 3체급, 인천·광주·제주가 2체급, 부산·강원·경북이 각1체급씩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동메달을 확보했다.

●핀급: 이종선(서울)선수는 '86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로서 관심을 모았으나 준준결승전에서 장종원(경남)선수를 맞아 2:2동점끝에 장선수가 경고를 받아 판정승으로 힘겹게 결승에 올랐다.

이종선선수는 김동은(광주)선수를 맞아 1회 우세로 경기의 흐름을 잡았으나 2회에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김선수의 공격을 낮은 발 끊어차기(컷트발)를 자주해 경고를 받았고 3회에서도 낮은발이 심해 김동은선수도 거칠게 공격을 시도, 서로 경고를 하나씩 받



대학부 체급별 우승자

고 우세판정이 김선수에게 내려져 이종선선수는 경고로 경기에 패한 결과를 낳았다.

●플라이급: 예선전에서 국가대표 하태경(서울)선수는 김철호(경북)선수를 맞아 1회 김철호의 앞돌려차고 제자리서 뛰어 몸돌려 뺏차기, 앞밀어차기 등에 밀려 1,2회에 리드를 당했고 3회에서 우세를 빼앗겨 예선 탈락했다.

김철호선수는 강원의 김용만선수와의 결승전에서 1,2회에 서로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선전하는 등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3회전에 1득점을 추가해 전국가대표선수로서의 자력을 과시하면서 승리를 안았다.

●밴텀급: 전국가대표 함준(전북)선수는 준준결승에서 리치가 긴 김현일(경남)선수

를 우세판정으로 힘겹게 이기고 준결승전에서도 충북의 조규식선수를 어렵게 뿌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강창모(부산)선수는 광주의 김우창선수를 우세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서 서울의 양춘열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노련한 함준선수와 1,2회에 득점을 주고 받는 접전끝에 3회에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 전국가대표 유명식(충남)선수가 체체불참으로 인천의 김병철선수는 가볍게 예선을 통과해 경남, 충북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울의 장혁선수는 중고교 시절의 화려한 명성이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경기운영으로 경기전체를 우세작전으로 몰고 가 결승에 진출했다.

김병철선수는 노련한 장혁 선수에게 이렇다할 공격을 못하고 1,2,3회전에서 계속 우세를 빼앗기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 라이트급: '87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서울의 양대승선수는 충북의 장주동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안착, 전남, 전북의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온 경기의 이종학 선수를 맞아 1,2회 우세를 주고 받으며 고전, 3회 우세를 빼내 힘겹게 우승을 차지하였다.

● 웰터급: 홈그라운드인 열기를 등에 업고 선전, 준결승에 오른 김종엽(전북)선수는 전남, 경기를 차례로 누르고 올라온 박종상(경남)선수를 맞아 막상막하의 대전을 펼쳤다. 1회에 1:1에 박선수 우세 2회에도 1:1에 박선수 우세 3회에서도 박선수가 우세판정으로 박종상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경기도중에 전북임원은 동점인데다가 우세판정으로 지게되자 판정에 불만, 심한 어필을 하기도 해 경기장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이는 전북협회와 공개사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박봉권(서울)선수는 준준결승에서 진정우(제주)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 1:1 막상막하의 경기중 진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내려졌으나 2회에 박선수가 득점을 올려 2:1이 되었고 3회전에 득점없이 박선수에게 판정승이 내려지자 재투합과 임원들은 3회전 경기결과를 해명하라며 경기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미들급: 정용석(인천)선수는 현국가대표선수답게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 전 국가대표선수인 윤순철(경기) 선수를 물리친 박은석(전남)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이용석(인천)선수와 대전을 합계로 치투며 인천에 첫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 헤비급: 국가대표 김현일(전북)선수는 추교일(충북)선수의 힘(체중115kg)에 밀리며 1:3으로 판정패함으로써 예선에서 탈락했다.

전국가대표인 노신(경기)선수는 강원, 광주의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을 놓고 추교일선수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두 선수는 수년간 헤비급 쟁탈전을 벌여온 라이벌로서 상대방의 기량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1, 2회전을 소강상태에서 마치고 3회에 노선수가 점프뎀차기 몸통공격 성공과 추선수의 받아차기 성공으로 각각 득점을 얻어 동점을 이루었으나 우세판정을 받은 노신(경기)선수가 헤비급 패권을 차지하였다.

입상자 명단 (대학부)

체급	등위	성명	시도명
권급	1	김동은	광주
	2	이종선	서울
	3	신민철	전북
	3	전수옥	전남
플라이급	1	김철호	경북
	2	김용만	강원
	3	성의천	제주
	3	김태화	전남
밴텀급	1	강창모	부산
	2	함준	전북
	3	조규식	충남
	3	양춘열	서울
페더급	1	장혁	서울
	2	김병철	인천
	3	이광로	전북
	3	김상래	충북

체급	등위	성명	시도명
라이트급	1	양대승	서울
	2	이종학	경기
	3	고봉수	전북
	3	장주동	충북
웰터급	1	박봉권	서울
	2	박종상	경남
	3	김종엽	전북
	3	진정우	제주
미들급	1	정용석	인천
	2	박은석	전남
	3	김민수	전북
	3	윤순철	경기
헤비급	1	노신	경기
	2	추교일	충북
	3	김동욱	서울
	3	정택주	광주

일반부 경기

현, 전국가대표선수가 19명이 포진한 일반부경기도 대학부 못지않게 예선전부터 치열한 접전으로 이변이 속출하는 등 경기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페더급경기에서 현국가대표 장명삼(강원)선수와 허현배(충남)선수의 대전은 1, 2회에 우세를 주고 받으며 3회에서 허선수가 경고를 받아 패색이 짙었으나 경기 종료직전 뒷차기 성공으로 현국가대표 장명삼선수가 고배를 마셨다.

전국가대표 정승환(서울)선수와 임석섭(부산)선수의 대전도 1, 2회 우세를 주고 받다가 3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공방전을 펼쳤다. 경기 종료 5초전 정선수의 원발내려차기 성공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전 국가대표 한홍식(충북)선수는 정승환(서울)선수를 준준결에서 만나 메달권에서 탈락하였다.

라이트급예선에서는 현국가대표 이창진(경북)선수와 최공집(광주)선수의 대전은 예상을 뒤엎고 1회 최선수가 선취득점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2회에서도 1득점을 뽑아 승세를 굳히고 3회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이선수의 공격을 과감히 강공으로 대처하던 중 라인 근처에서 최선수는 중심을 잃은 이선수를 갈려선언후 공격해 감점을 받았고 이선수는 부상이 심해 경기진행을 하



일반부 체급별 우승자

지 못하자 최공집선수에게 승리가 선언되는 판례(?)가 등장, 경북코치석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예선전부터 이변이 속출하였다.

헤비급경기에서는 출전선수 중 최고연장자인 31세의 김양기(광주)선수와 이경식(충남)선수의 대전은 헤비급경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각각 4득점을 올리며 노익장을 과시한 김양기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승리했다.

●핀급: 전국가대표 이해진(부산)선수를 준결승에서 당당히 누르고 결승에 오른 채상만(제주)선수는 전남의 정우식선수를 맞아 1회 1득점을 선취하며 경기흐름을 잡고 2회에서는 득점을 주고 받으며 선전우세를 뽑아 승세를 굳히고 3회에서 선방, 제주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플라이트급: 전국가대표 인해진(서울)선수는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영식(부산)

선수, 차상우(경남)선수를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전남의 함식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패기의 함식선수가 노련한 인해진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밴텀급: 전국가대표 권기문(전북)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전국가대표 최천(경기)선수를 맞아 판정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전국가대표 고정호(서울)선수와 김대환(충남)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임종환(전남)선수는 권기문선수와 결승에서 권선수가 기권함으로써 전남의 임종환선수가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 장명삼(강원), 정승환(서울), 한홍식(충북)선수 등 전·현국가대표가 3명이 포진한 페더급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현국가대표인 장명삼(강원)선수는 예선에서 허현배(충남)선수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셨

고, 준준결승에서 허현배선수는 신하철(광주)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한 반면 승승장구한 신하철선수는 결승에 진출했다.

전국가대표 정승환(서울)선수는 임석섭(부산), 한홍식(충북)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에서 윤희섭(제주)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정승환선수는 신하철선수를 맞아 1회에 우세를 뽑아내고 2회에 득점을 내줘 역전의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3회 1득점을 뽑아내 승리했다.

●라이트급: 국가대표 이창건(경북)선수는 예선에서 최공집(광주)선수에게 판정패함으로써 탈락했고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경기장의 불여우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기량과 운영의 묘를 살리던 한재구(충북)선수는 충남의 임익환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하는 등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승전은 오상운(전남)선수와 임익환(충남)선수의 대전으로 펼쳐져 1회에 오선수가 우세로 기선을 잡았으나 2회에 임선수가 득점으로 역전, 3회에 이를 만회하려는 오상운 선수의 역부족으로 금메달은 임익환선수에게 돌아갔다.

●웰터급: 광주의 박병호선수는 예선에서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문종국(경북)선수를 누르고 승리했으나 준준



치열한 접전 끝에 서울이 전국체전 1위, 2위는 전북, 3위는 전남이 차지했다.

결승에서 최상진(전북)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했다.

최상진선수는 준결에서 김구환(충북)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전남의 차영종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1회 5초경 전남의 차영종선수가 기권해 최상진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미들급: 전·현국가대표 선수가 4명이나 참가한 미들급 경기에서 김현곤(전북)선수는 준준결에서 이정진(서울)선수에게 패했고 임재억(충북)선수는 이계행(광주)선수에게 판정패로 탈락했다.

이정진선수는 이어 김병수(경남)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이계행(광주)선수를 맞이했는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이계행선수에게 근소하게 패했다.

●헤비급: 현국가대표 김종석(서울)선수는 국가대표선발 2차 평가전때 오른팔등 부상을 입어 대회출전을 고려해왔는데 본 대회에 출전, 김윤태(경북)선수와 최용규(전북)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까지 진

출했으나 고영철(전남)선수를 맞아 기권함으로써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정치호(경남)선수는 김양기(광주), 김재영(강원)선수를 차례로 누르면서 결승에 올랐다. 고영철선수와 정치호 선수의 결승전은 2회전에 정선수가 2득점을 올리며 승세를 굳혔고 3회에 고선수가 역전을 시도 했으나 정선수도 만만치 않게 대응 3:1로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체전 시·도별 성적 및 순위 (태권도경기)

1. 서 울	(2.177)
2. 전 북	(1.819)
3. 전 남	(1.399)
4. 충 남	(1.371)
5. 광 주	(1.236)
6. 부 산	(990)
7. 충 북	(977)
8. 경 남	(956)
9. 경 기	(924)
10. 인 천	(698)
11. 제 주	(678)
12. 감 원	(482)
13. 대 구	(331)
14. 경 북	(299)

입성자 명단 (일반부)

계급	등위	성명	시도명
편급	1	채상만	제주
	2	정우식	전남
	3	류철원	전북
	3	이배진	부산
플라이급	1	한식	전남
	2	이배진	서울
	3	이정희	광주
	3	차상우	경남
밴텀급	1	임종환	전남
	2	권기문	전북
	3	최인영	경남
	3	김대환	충남
페더급	1	정승환	서울
	2	신하철	광주
	3	김수철	경기
	3	윤희섭	제주

계급	등위	성명	시도명
라이트급	1	임익환	충남
	2	오삼운	전남
	3	최공필	광주
	3	박호상	서울
웰터급	1	최삼진	전북
	2	차영종	전남
	3	김구환	전북
	3	장익수	부산
미들급	1	이재형	광주
	2	이정진	서울
	3	김병수	경남
	3	이강식	충남
헤비급	1	정차호	경남
	2	고영철	전남
	3	김종석	서울
	3	김재영	강원

본 대회는 대회를 주관한 전 북협회의 세심한 배려로 환영 만찬회·기념품증정 등 태권도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손색이 없었으나 경기장 질서측면에서는 좁은 미숙하였던 것같았다. 이는 일부 열성(?)이 지나친 몇몇협회의 극성을 냉철히 뿌리치지 못한 인정(?)의 탓도 있으나, 주관 협회로서 승부에 대한 애착에도 다소 기인된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회본부에서는 황충선전무 이사를 임원장으로 매일 경기 종료후 대회진행 및 결과를 놓고 점검하며 일일의 경기준비 및 경기장 질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등 문제점, 각 부서별 임무등을 재확인하여 질서대책에 노력하였다.

본 대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나친 시도간의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전국에

서 모인 대표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으로 경기력향상에 기여하고 각 시도간의 태권도 보급 발전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태권도 지도자들이 출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력측면에서 본다면 이젠 유무명 선수의 기량의 차가 없어 실력은 가름하기 어렵고 실력차가 없음으로 우세판정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 「어필」이 많은 경기력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몇몇협회가 단골손님으로 경기장에 상주하며 고질적으로 행하는 어필과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경기 종료후 선수와 코치의 「매너」면에서도 코치는 경기종료후 의연하게 선수관리를 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뒤로하고 배심석의 판

정결과에 신경을 쓰느라 상대 선수의 인사하나 제대로 보며 격려하는 코치도 몇 없어 예시예종(禮始禮從)의 태권도의 부도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선수들도 판정에 불만, 경기가 끝나고 겨루었던 상대 선수와 악수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기 드물어 스포츠맨십의 교육이 아쉬웠다.

경기장에서 코치 이외의 임원단들이 선수의 코치로 둔갑하는 경우도 그 열성(?)은 대단하나 지정한 코치외에 코치석을 드나드는 것은 조직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대회에서 「매너」상을 준다면 강원도협회를 선정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는 똑같이 태권도 고단자로서 임원으로 참가한 사람들인데 어찌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없겠는가? 이는 어필이 심한 협회임원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88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전국춘계종별선수권대회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동안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신인강자들을 탄생시켰다.

중등부에 267명, 고등부 769명, 일반부 69명 등 총 1,105명이 출전한 본 대회는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및 일반부는 8체급으로 각부 체급별 토나먼트식 개인전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대학부가 일반부 속에 포함되어 펼쳐졌는데 이는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의 경우 입상경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부의 참가가 극히 저조해 올해부터는 일반부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등부 경기는 선수들이 대부분 처녀출전인 경우이거나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더라도 몇번 되지 않아 경기운영상에 미숙함이 많아 대회운영본부측에서는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대회 출전시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대회출전에 따른 행동요령을 일러주어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인 선수들의 참가에 따라 기량을 판가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회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차이가 두드러진 가운데 R.S.C승이 속출하였다. 특히 대회출전 경험이 많지 않은 중등부선수들의 경우 실력차이가 두드러졌고 일반부에서는 선수층이 얇고 성인 태권도선수가 활성화

되지 못해 더욱 불균형한 기량을 나타냈다.

청주중과 청주남중이 두각을 나타낸 중등부 경기

중등부 경기는 청주중이 플라이급 1위, 페더급2위, 라이트급2위, 라이트미들급2위 등 4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청주남중은 밴텀급 1위, 라이트웰터급 1위 등 두체급 석권과 페더급 3위, 라이트웰터급 3위 등 4체급에 입상자를



중등부 강팀으로 부상한 청주중의 태권도선수와 연규현코치.

했다.

청주중학교는 총8명이 참가한 가운데 4명이 입상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청주중의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연구현코치는 선수출신답게 거루기위주의 연습으로 기량을 쌓아가고 있다며 청주중을 맡은지 2년만인 지난해 추계종별대회에서 플라이급에 금메달을 배출한 이래 올해에도 좋은 성적으로 신인 유망주를 키워내 코치의 역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청주남중은 유망무실했던 기존의 태권도부를 지난해부터 이창석코치가 맡게 되면서 중학교 태권도의 강팀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창석코치는 정규수업을 다 마친 오후에 1시간 30분 동안 하드 트레이닝으로 기량을 쌓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남중의 이창석코치

이번 대회기간 동안에 청주남중선수단에는 조규탁 교장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경기장에 나와 열렬한 응원으로 격려를 보냈는데 이창석코치는 학교장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 부모님들의 열성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한다고 했다.

한편 영남중학교도 미들급의 김경삼선수와 라이트헤비급의 정기수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플라이급의 김대훈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해 태권도 강팀으로의 면모를 자랑했다.

중학교의 체급별 경기중 특기사항을 보면 플라이급 경기에서 청주중의 이원학선수와 영남중의 김대훈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막상막하의 경기 중 우세한 경기를 펼친 이원학선수에게 판정승이 선언되었는데 두 선수다 빠른 발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이 일품이었다.

밴텀급 경기에서는 오현중의 허원일선수가 신양중의 김정호선수를 맞아 월등한 실력차로 2회20초경 R.S.C승을 거두고 계속해 부천동중의 김성수선수, 풍생중의 오성주선수



영남중학교의 입상자들

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8강에서 같은 학교의 김기현선수와 대전을 펼치게 되자 기권함으로써 메달권에 들지 못하였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오현중학교는 김기현선수가 밴텀급 2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오선홍코치는 제주도의 선수들이 전국대회 경험면에서 뒤지고 있어 비등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대회출전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이라며 소년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대회 경험을 쌓고 기량을 점검해보기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

페더급 경기 중 성남동중의

제주도에서 올라온 중고등학교 태권도부선수들



이재성선수는 장충중의 권기영선수를 1회 40초만에 되돌아차기를 성공시켜 K.O승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라이트웰터급에서 허재학(경일중)선수는 김인수(영북중)선수를 맞아 2회10초경 앞발 들어차기로 K.O승을 거두었다.

라이트헤비급경기에서 정기수(영남중)선수는 김한기(청주남중)선수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해 고한중의 윤성희선수를 맞아 대결을 벌였는데 1회 20초경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주먹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자 고성희선수에게 감점패가 선언되었다. 부상으로 결승에 올라온 정기수선수는 대현중의 김진만선수를 맞아 12회전에 각각 우세를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3회에 필사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려 투혼을 자랑하며 패권을 차지했다.

관악고는 처녀출전해 3명의 입상자 내며 태권도 강팀으로 부상

고등부 경기는 핀급에 152명, 플라이급 150명, 밴텀급 161명, 페더급에 129명등이 출전한 가운데 평균40대1을 뚫고 체급별 4명의 입상자를 내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고등부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낸 학교는 관악고등학교로 지난 11월 28일에 태권도부를 창단한 이래 불과 3개월의 수련만에 21명 전원이 처녀 출전



쌍둥이 형제로 대회에 출전한 만경고의 송재광선수와 송재훈선수

한 가운데 박진영선수가 핀급 3위, 이영훈선수가 밴텀급2위, 김중수선수가 라이트급 3위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새로운 태권도 유망고교로 부상했다.

한편 동성고와 성동고는 태권도 명문고답게 각각 3명씩의 입상자를 냈고 대전체고도 3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대전체고에서 라이트급1위를 차지한 신경수선수와 웰터급 2위를 차지한 신광수선수는 형제지간으로 나란히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형인 신광수선수(3학년)와 동생인 신경수(2학년)선수는 중학교 3학년과 2학년 때 태권도를 함께 시작해 비슷한 기량으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다투어 왔는데 대전체고의 이계승코치는 두 선수다 순발력이

좋고 신광수선수는 들어찍기와 주먹이 강하고 신경수선수는 돌려차기, 뒷차기등을 주특기로 하고 있다며 두선수가 태권도 기술을 보완하며 장단점을 지적해 주는 등 열심히 수련하고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으며 대전체고의 유망주로 꼽았다.

한편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만경고의 송재광선수는 밴텀급에 참가심청을 낸 송재훈 선수와 쌍둥이 형제로 눈길을 모았는데 밴텀급의 송재훈 선수는 계체실적을 당했다. 두 선수다 기량이 좋아 본 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체급에 출전할 경우 같은 체급을 놓고 형제가 우승을 다투게 될지도 몰라 송재훈 선수가 체급을 내려 참가신청을 냈다가 계체실적을 당한 것

고등부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관악고의 열띤 응원모습



이었다. 이들 형제는 국민학교 6학년 때 태권도 수련을 시작해 소년체전에 도대표선수로 출전한 바 있는데 남궁 벽 체육교사는 두 선수다 전국체전 1,2차선발전에서 선발되었다며 기량점검과 대회경험면에서 송재훈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뛰지 못하게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핀급 1위를 차지한 송도상고의 구동신선수는 예선전에서 박철욱(예산고)선수와 박경화(인천체고), 이일선(관악고)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16강전에서 부산체고의 김태호선수를 2회10초에 R.S.C승으로 8강에 올라 성일상고의 장대진선수에게 1회전에 기권승을 거두는등 뛰어난 기량으로 승승장구, 패권을 차지했다. 준결승전에서 구동신선수에게 패해 핀급 3위를 차지한 서울체고의 김현용선수의 경우 기본기가 우수해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숭실고의 박철승선수가 청구상고의 이규호선수를 1회40초경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해 K.O승을 장식했고 지재기선수(통영고)는 이제혁(대원고)선수를 맞아 2회 중반 R.S.C승을 거두고 각각 2차전에 올랐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 김성진(송곡고)선수와 풍생고의 조경현선수와 대전은 1:1 득점에 우세를 주고 받는 막상 막하의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3회전에 김성진선수가 앞돌려차기로 득점을 빼앗고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올라가 경상공

고의 진 식선수를 맞아 3회1분 20초경 앞돌려차기 성공으로 다운을 뺏으며 패권을 차지했다.

밴텀급 경기 중 국찬호(동성고)선수는 1회20초경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한 후 계속해 돌려차기로 몸통을 공격해 임명섭(충암고)선수를 K.O시키며 승승장구 했으나 8강에서 성동고의 이육근선수에게 아깝게 패해 메달권에서 밀려났다. 한성고의 이동훈선수는 김충현(동명공고)선수를 맞아 2회초반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었다.

페더급경기는 다른 체급보다 특히 R.S.C승이 많았는데 김기종(향도실고)선수가 김용만(청구공고)선수를 3회1분45초경에, 이경철(동성고)선수는 김현배(한성고)선수를 3회1분 30초경에, 김기철(리라공고)선수는 강석봉(한성고) 선수를 1회1분20초경에, 김경수선수(남주고)는 서병선(부산체고)선수를 3회2분40초경에, 김호성(숭실고)선수는 김정기(정명고)선수를 3회1분20초경에, 박만진(남해상고)선수는 유현종(서울북공고)선수를 2회1분30초경에, 최성진(동양공고)선수는 이기종(대원고)선수를 3회 47초경에, 배만수(숭실고)선수는 이대혁(울곡고)선수를 1회 1분30초경에 각각 R.S.C승으로 물리쳤다.

한편 임영호(부산체고)선수는 1회35초경에 앞돌려차기로 김호성(숭실고)선수에게 K.O승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 3위

에 입상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는 대전체고의 신경수선수와 동성고의 최경복선수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두 선수가 좋은 기량을 발휘하며 득점을 올리는등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3회전에 우세한 판정을 받은 신경수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신경수선수의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B코트에서는 광성고의 최충묵선수와 대전체고의 신광수선수의 웰터급결승전이 펼쳐졌는데 대전체고의 신경수선수와 신광수선수 형제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패권을 다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형인 신광수선수는 득점을 빼앗겨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동명공고의 서영주선수와 한성고의 장홍수선수가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며 패권을 다투어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서영주선수가 한발 앞선 기량으로 기회를 포착, 득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한편 한성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부 30명 전원이 본 대회에 출전,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보며 대회경험을 쌓았는데 특히 중량급에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어 중량급이 약한 우리나라 태권도계를 젊어질 유망주들로 기대를 모으게 했다.

기량의 불균형 심하게 드러낸 일반부 경기

일반부경기는 중고부에 비해 기량의 불균형이 심하게 노

출되었다. 이는 일선도장에서 성인태권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판급의 경기중 김동환(흑룡체)선수는 허재일(전남체 본관)선수를 맞아 3회10초경 R.S.C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서재욱선수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이경기에서는 서재욱 선수가 1회전에 3득점, 2회전에 2득점 등 일방적인 경기를 운명하자 3회초반 R.S.C승이 선언되었다.

밴텀급경기에서 신동호(안성체)선수는 황현준(한국체)선수에게 1회 33초경 주먹으로 얼굴공격을 당하자 황현준 선수에게 반칙패가 선언되었다. 최덕희(한국체)선수는 김태진(진명체)선수를 맞아 3: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도 했다. 한편 허중욱(유도대)선수와 최진령(북아현도장)선수와 결승전에서는 최선수가 계속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 3회전에 허중욱선수가 발목부상으로 기권, 최진령 선수가 가볍게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경기에서 김수철(지산체)선수는 정호경(용호도장)선수를 2회 10초경 뒤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었다. 이어 4강전에서 허재명(부평고등기술OB)선수와 대전에서 막상막하의 대전으로 득점을 올렸는데 허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아쉽게 탈락했다.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전문희(북아현도장)선수는 예선에서 김석봉(화랑체)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8강전에 올라 이상길(남해체)선수를 월등한 실력차로 2회초 R.S.C승을 장

식했다.

라이트급 경기에서 신경환(유도대)선수도 김진우(서래체)선수를 R.S.C승으로 눌렀다. 또한 차영종(강진체)선수는 한규성(동명전문대)선수를 맞아 뛰어높이차기 등 두 선수가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득점을 올리는 가운데 2:3으로 차선수가 승리하며 메달권에 진출했다.

웰터급 경기에서 서재덕(예산도장)선수도 정 훈(동아체)선수를 1회에 2:0등 많은 득점차로 경기를 압도하자 3회전에 R.S.C승이 선언되었다.

헤비급결승전에서는 김태갑(동명전문대)선수가 권용환(경기도협회)선수를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역시 R.S.C승을 거두고 패권을 차지하여 헤비급 유망주로 부상했다.

입상자 명단

중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및 학교명
핀 급	1	석운용	개 성 중
	2	장사갑	효 성 중
	3	정연균	부 천 동 중
	3	조성일	성 남 동 중
플라이급	1	이원하	청 주 중
	2	김대훈	영 남 중
	3	유영훈	성 남 동 중
	3	윤종일	성 남 동 중
밴 텀 급	1	안현상	청 주 남 중
	2	김기현	오 현 중
	2	권혁성	효 성 중
	3	전재혁	송 도 중
페 더 급	1	박창길	백 제 중
	2	서동규	청 주 중
	3	전갑규	성 남 동 중
	3	홍중우	청 주 남 중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및 학교명
라이트급	1	정재훈	부 천 동 중
	2	김동민	청 주 중
	3	여원재	배 명 중
	3	최상동	배 명 중
L-웰터급	1	성태경	청 주 남 중
	2	김민식	오 류 중
	3	김경희	성 남 동 중
	3	민경환	청 주 남 중
웰 터 급	1	최형준	오 류 중
	2	양정모	부 천 남 중
	3	허영재	풍 생 중
	3	윤노석	부 천 동 중
L-미들급	1	정경수	효 성 중
	2	임종일	청 주 중
	3	장용국	개 성 중
	3	곽영만	영 북 중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미 들 급	1	김경삼	영 남	중
	2	정태성	부 천 남	중
	3	오승태	남 주	중
	3	박동일	구 안	중
L-해비급	1	정기주	영 남	중
	2	김진만	대 현	중
	3	윤성희	고 한	중
	3	김승범	신 칠 원	중
해 비 급	1	임상도	양 산	중
	2	최 용	제 천	중
	3	최훈필	오 류	중

고등부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 급	1	구동신	송 도 상	고
	2	조성호	동 성	고
	3	김현용	서 울	체 고
	3	박진영	관 악	고
플라이급	1	김성진	송 곡	고
	2	진 식	경 상	공 고
	3	조정현	풍 생	고
	3	황용한	경 남	체 고
벤 텀 급	1	배상오	부 평 기	술 고
	2	이영훈	관 악	고
	3	이옥근	성 동	고
	3	백영선	성 동	고
페 더 급	1	송재광	만 경	고
	2	민태남	동 성	고
	3	임영호	부 산	체 고
	3	손원기	경 상	공 고
라이트급	1	신경수	대 전	체 고
	2	최정복	동 성	고
	3	김재명	대 성	고
	3	김종수	관 악	고
웰 터 급	1	최홍목	광 성	고
	2	신광수	대 전	체 고
	3	안현상	전 북	체 고
	3	조준희	오 성	고
미 들 급	1	이승준	성 동	고
	2	구기정	대 전	체 고
	3	송철진	삼 천	포 공 고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해 비 급	3	임성호	익 산	중 고
	1	서영주	동 명	공 고
	2	장홍수	한 성	고
	3	임병수	육 천	공 고
	3	이은봉	성 일	상 고

일반부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 급	1	서재욱	부평고등학교OB	
	2	김동환	육 룡	체
	3	허재일	전 남	체, 본 관
	3	안훈기	전 남	체, B도 장
플라이급	1	김태우	유 도	대
	2	김동호	성 동	중 앙 체
	3	김민혁	광 주	경 상 대
	3	김홍근	충 효	체
벤 텀 급	1	최진림	북 아	현 체
	2	허중욱	유 도	대
	3	장철인	광 주	경 상 대
	3	김용길	북 아	현 체
페 더 급	1	전문희	북 아	현 체
	2	허재영	부 평고	등학교OB
	3	김수철	지 산	체
	3	박재호	유 도	대
라이트급	1	문철남	북 아	현 체
	2	김준범	신 광	체
	3	차영준	강 진	체
	3	김윤기	경 남	대
웰 터 급	1	남정열	경 남	대
	2	서재덕	예 산	도 장
	3	정 훈	동 아	체
	3	박득환	부 평고	등학교OB
미 들 급	1	최현호	평 태	체
	2	마영석	매 천	체
	3	김형준	경 선	체
	3			
해 비 급	1	김태감	동 명	전 문 대
	2	권용환	경 기	도 협 회
	3	하재호	동 명	전 문 대
	3	최종선	청 훈	도 장

'88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각종 여자 국제대회와 증가하는 여자 태권도의 경기력향상을 목적으로 '86년도에 창설된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가 3년째를 맞으며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이상의 여자로 국기원 단(품)증을 소지한 선수 149명이 출전하였는데 참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선수현황

구분 체급	종 량	인 원
핀 급	43kg이하	11명
플라이급	43kg초과 47kg이하	21명
밴텀급	47kg초과 51kg이하	26명
페더급	51kg초과 55kg이하	31명
라이트급	55kg초과 60kg이하	26명



체급별 2위 입상자들

웰터급	60kg초과 65kg이하	14명
미들급	65kg초과 70kg이하	12명
헤비급	70kg초과	8명
계		149명

대회는 준결승전까지 2분3회전 중간휴식 30초로, 결승전은 3분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을 모았던 선수는 수원에서 청룡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살과 4살난 두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 핀급에 출전

부별 구분없이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펼쳐진 이번



원선진선수와 서영애선수의 핀급 결승전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하며
신인강자로 부상한
여수중앙여고의 박은미선수.

한 서영애선수였다.

남편인 김승일사범이 코치로 나왔고 관중석의 두 딸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에 출전한 서영애선수는 1차 예선에서 선정여중의 강효정선수를 고전 끝에 겨우 우세판정으로 8강에 올랐는데 첫 경기의 부진을 씻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서는 제1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맞아 1회전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가 2회전에 들어찍기로 얼굴공격을 성공시켜 장이숙선수가 눈가에 부상을 입자 서영애선수에게 R.S.C승이 선언돼 예상을 뒤엎고 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결승전에서는 체력이 좋고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수성여중의 원선진선수가 왼발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으로 서영애선수의 주특기인 오른발을

어찌기를 차단해 서영애선수는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가정주부로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전했다」는 서영애선수의 출전동기처럼 본 대회를 통해 여자선수들의 조기은퇴경향에 경종을 울려주는 귀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 있다.

본대회를 통해 신인강자로 부상한 선수는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한 여수중앙여고의 박은미선수.

박은미선수는 예선전에서 상명여대의 강경숙선수를 가법계 판정승으로 누른 뒤 문성여상의 김도희선수, 인천체고의 이창분선수, 상인천여중의 이경남선수 등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며 기염을 토했다.

결승전에서는 전국대표로 '86년도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화여대의 신숙선수를 맞아 빠른발을 이용한 앞발찍어차기, 오른발 뒷차기를 주특기로 판정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박은미선수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여자국가대표선발전에서 플라이급 3위를 차지하며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본 대회에서 막강한 기량을 발휘해 여성태권도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박은미선수는 여수중앙여고에 태권도부가 없어 남동생이 다니는 여수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3년전부터 남매가 함께 여수중학교에서 태권도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남학생들이 발이 빠르고 대범해 연습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수련을 통해 많은 강점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박선수의 동생인 박종호선수도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 선발되는 등 남매가 태권도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밴텀급경기에서는 1차예선에서 인천체고의 백재은선수가 조선대부고의 임현진선수를 3회30초경에 들어찍기 성공으로 K.O승을 올려 기대를 모았으나 2차예선에서 같은 인천체고의 김성숙선수에게 패했다.

한편 밴텀급의 16강전에서는 8번의 경기에서 일곱번이나 R.S.C승이 속출해 본 대회가 여자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이기도 하고 전국여자선수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전국대회임에

도 선수층이 얇아 선수들간의 실력차가 두드러진 현상을 드러내 보였다.

유도대의 박현숙선수와 인천체고의 박동선선수의 결승전은 1,2회전을 박현숙선수가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승세를 잡아나갔다. 3회전에 들어와서는 얼굴들어찍기 등을 성공시키며 역전을 위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은 박동선선수의 선전이 돋보였으나 동점을 이루는데 그쳐 박현숙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페더급 8강전경기에서는 상명여대의 정은옥선수가 전국가대표인 경희대의 이영선수를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더니 결승전에서는 월등한 신장을 앞세워 유도대의 조인경선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해 1회전에 3득점이나 올리는 위력으로

1회2분50초경 R,S,C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8강전경기에서는 상명여대의 박진경선수와 인천체고의 홍상희선수가 메달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상명여대의 코치석에서는 인천체고와 경희대 출신의 임신자선수가 코치로 나와 자신의 후배를 제자에게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승부세계의 비정함을 갖게했다. 그러나 경기를 마치자 후배에게 격려를 보내는 선배의 모습은 또다른 정겨움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등 중량급 3개체급의 결승전에서는 인천체고와 성신여대의 경기로 계속 이어져 여자태권도 명문교로서의 위세를 자랑하는 가운데 열띤 응원진이 펼쳐

졌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성신여대의 고재경선수가 인천체고의 박애란 선수를 맞아 1,2회전에 우세를 주고 받는 가운데 3회전에도 1득점씩을 올리는 치열한 접전끝에 경기종료 30초를 남겨놓고 1득점을 얻은 고재경선수가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이어 벌어진 미들급 결승전에서도 성신여대의 방경애선수가 인천체고의 박혜영선수를 맞아 1:1동점끝에 우세판정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인천체고는 계속해서 패권을 놓치는 불운끝에 헤비급결승전에서는 인천체고의 백영미선수가 성신여대의 정완숙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3: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원 진 선	수 성 여 중
	2	서 영 애	청 룡 체
	3	이 남 숙	문 성 여 상
	3	장 이 숙	청 산 여 상
플라이급	1	박 은 미	여수중앙여고
	2	신 숙 이	화 여 대
	3	이 경 남	상 인 천 여 중
	3	장 복 순	문 산 종 고
밴 텀 급	1	박 현 숙	유 도 대
	2	박 동 선	인 천 체 고
	3	박 경 희	인 천 체 고
	3	손 미 경	청 산 여 상
페 더 급	1	정 은 옥	상 명 여 대
	2	조 인 경	유 도 대
	3	윤 회	인 천 체 고
	3	김 경 숙	문 산 여 종 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라이트급	1	노 경 미	문 산 종 고
	2	박 진 경	상 명 여 대
	3	백 정 자	문 산 종 고
	3	김 지 영	위 려 상 고
웰 터 급	1	고 재 경	성 신 여 대
	2	박 애 란	인 천 체 고
	3	김 유 숙	성 신 여 대
	3	김 문 경	세 화 여 고
미 들 급	1	방 경 애	성 신 여 대
	2	박 혜 영	인 천 체 고
	3	이 미 라	배 성 여 상
	3	이 윤 희	양 백 여 상
헤 비 급	1	백 영 미	인 천 체 고
	2	정 완 숙	성 신 여 대
	3	김 경	인 천 체 고
	3	유 설 아	덕 원 여 고

제15회 전국 대학 개인 태권도대회

4. 28 ~ 29, 대구실내체육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는 1988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15회 전국 대학개인태권도대회를 남대구 청년회의소 공동주최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선수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졌으며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지방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23개 대학에서 259명의 많은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이번대회는 남대구 청년회의소와 본 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경기 진행에서부터 심판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날 경기에서 95번 밴텀급에 고지형(인천전문대)선수는 예상을 뒤엎고 양춘열(한국체대)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여대부의 경기 빈호4번 웰터급 김유숙(성신여대)선수는 김현아(경희대)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서 우세



최 인 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로 밀리는 듯 하였으나 오른발 상단돌려차기로 김현아 선수의 턱을 강타하여 K.O승을 차지하였다.

첫날 경기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대구 파크 호텔에서 대구청년회의소 주최로 만찬이 준비되어 대회 임원진들과 각 대학의 코치,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다정다감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예선전과 달리 손에 땀을 쥐게하는 경기의 연속이었다. 179번 웰터급에 강철규(계명대)선수는

김제경(동아대)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2회전 1분 20초만에 원발 앞돌려차기로 기업을 토하여 김선수에게 K.O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전이 모두 끝나고 핀급 결승전에서는 이기현(인천전문대)선수와 오대환(계명대)선수가 격돌하였다. 1회전에서는 오선수의 1득점, 2회전에서는 이선수가 1득점으로 막상막하의 경기였으나 3회전에서 오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쳐 승리는 오대환 선수에게로 돌아갔다.

페더급 결승전은 김영준(동아대)선수가 임대락(한국체대)선수에게 2회전에서 얻은 1득점으로 승리하였고, 라이트급에서는 김상곤(경상대)선수가 1,2회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3회전에서 선전한 김태균(유도대)선수에게 판정패하고 말았다. 웰터급 결승에서는 준결승에서 통쾌한 K.O승을

한 강철규(계명대)선수가 그 역세를 몰아 김동섭(유도대) 선수에게 2회전에서 얻은 1득점으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B조 경기에서는 뱀텀급의 강동훈(제주대)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강선수는 경기보다 뛰어나 A조선수들의 강력한 라이벌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여대부 뱀텀급 결승에서는

박현숙(유도대)선수와 배은정(성신여대)선수가 우승을 놓고 격돌하였다. 박선수는 뛰어난 순발력과 힘으로 배선수를 공격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다친 무릎관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배은정 선수가 판정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각 선수들은 경기중의 상해에 방에도 전력을 기울여 갈고 닦은 기량을 100%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드

러났다.

금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계명대학교의 임성욱 선수가 차지하였고 우수상에는 강창모 선수(동아대), 김유숙선수(성신여대), 이기현선수(인천전문대)가 차지하였다.

금번 대회를 통하여 각팀의 경기력이 평준화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지방팀의 향상은 괄목할만하다고 하겠다.

●입상자명단 (남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오대환	계명대
	2	이기현	인천전문대
	3	왕무상	동명전문대
	3	권태성	경희대
플라이급	1	임성욱	계명대
	2	이창석	청주대
	3	송민한	경희대
	3	권혁신	한국체대
뱀텀급	1	강창모	동아대
	2	고지형	인천전문대
	3	화종민	계명대
	3	심무진	한국체대
페더급	1	김영준	동아대
	2	임내락	한국체대
	3	김상래	청주대
	3	함준한	한국체대
라이트급	1	김태균	유도대
	2	김상곤	경상대
	3	이광로	한국체대
	3	최운	유도대
웰터급	1	강철규	계명대
	2	조창현	한국체대
	3	김재경	동아대
	3	최기택	동아대
미들급	1	박은석	유도대
	2	공무환	경희대
	3	신우철	경기대
	3	황진철	청주대
헤비급	1	노신	경희대
	2	이건원	한국체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3	김재욱	동아대
	3	성필용	동희대

●입상자명단 (여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플라이급	1	신숙	이화여대
	2	신보영	한양대
	3	박지선	경희대
	3	안희정	유도대
뱀텀급	1	배은정	성신여대
	2	박현숙	유도대
	3	모미라	성신여대
	3	강경숙	상명여대
페더급	1	정은옥	상명여대
	2	박연실	성신여대
	3	김양우	청주대
	3	최형우	상명여대
라이트급	1	박진경	상명여대
	2	석소정	유도대
	3	남정동	성신여대
	3	박현순	성신여대
웰터급	1	김유숙	성신여대
	2	오현주	이화여대
	3	고재경	성신여대
	3	김숙희	인천전문대
미들급	1	김미화	인천전문대
	2	허지숙	인천전문대
	3	양인덕	상명여대
	3	고현정	성신여대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올림픽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대망의 '88년을 맞아 15년에 걸쳐 태권도 꿈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다듬어온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가 1988년 4월 19일~4월 23일(5일간) 부산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태권도 지방 보급에 기여함은 물론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고연맹은 지난 '83년 김천대회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여중부 12개교 45명, 여고부 14개교 122명, 남중부 34개교 381명, 남고부 43개교 583명 등 총 103개교에 1,131명이 참가하여 열띤 응원과 흥분속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꿈나무들의 대제전이였다.

대회는 불꽃튀는 경쟁속에서도 88년 서울 올림픽에 임하는 세계속의 태권도인 담겨 절



정 해 주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심판분과위원장

서정연하고, 수준높은 대회로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앞서 대한 태권도 협회장을 대신해서 엄운규 부회장이 본연맹 이병석 부회장, 문승국이사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권오현회장이 본연맹 이윤택회장, 이병석 부회장, 문승국이사, 김영환이사, 김인수전무이사, 김찬희이사, 이충구이사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중고연맹회장은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권오현회장과

최용수, 도종이 부회장, 이근우 전무이사, 최정권 총무이사, 안병로 부산체고교장, 김일회 동명공고교장, 손종식 영남중교장에게 감사패전달과 이택명 본연맹감사, 최재혁이사에게도 공로패가 전달됐다.

개회식은 수천명의 관중이 구덕체육관을 꽉메운 가운데 내빈 및 관중과 부산의 자랑인 광성공고의 밴드가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부산 배경국민학교 고지식 사범의 지도로 멋진 태권도 시범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부산직할시 권오현회장은 환영사에서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슬기를 담은 전통 무도로서 지금은 뻗어가는 우리의 국력과 국위에 힘입어 새로운 세계인의 스포츠로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국기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부산의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이우생회장이 우승자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선수들은 우승의 고지를 향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서 한국중·고 태권도연맹 이우생회장께서는 대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16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되어 미와 기와 힘을 겨루는 인류의 축제이며 평화의 제전인 '88서울 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92년 스페인 바셀로나 대회에서는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임을 강조하고 태권도가 세계평화와 긴장완화에 이바지하고 인류문화의 발전과 공존 공영의 복지향상에 기여 할수 있게 우리 태권도인은 기와 도를 함

께 닦아 인격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된은 물론 이대회는 교육의 연장으로서,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용수 부산직할시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중·고 태권도연맹은 경기 태권도인들의 산파역을 맡아 선봉 역할을 담당하면서 꾸준히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경기인들의 저변 확대에 주력 하였으며, 제15회 한국중·고연맹 회장이 쟁탈대회를 향도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대

권도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9월17일-20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 기술면에서는 물론 경기장의 모든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과 특히, 제8대 중·고연맹회장에 취임하여 첫행사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이우생 회장께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부산직할시협회 임원 및 중고연맹 임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중고연맹 장명식고문은 축사에서 그동안 모든 태권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날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체육의 기능을 담당할 스포츠로 성장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점은 남자고교 전국 각시도 대표선수들이 대거 출전하였으며, 특히 본대회는 금년 10월에 있을 본 연맹 대표선수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및 남미쪽으로 중고연맹 대표선수를 파견하여 스포츠 외교와 국위선양 및 중고연맹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A, B, C코트에서 경기가 계속되었는데 경기는 첫 게임부터 열띤 합성속에 떠나갈 듯하였다.



우승자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권오현 부산시 태권도협회장.

—대회 1일째 경기—

김건우(동명공고)는 남고부 편급 2회전에서 최낙성(협성고)을 2회1분12초만에 K·O로 제압 기염을 토했으며, 역시 같은 체급인 구동신(송도상고)도 2회전에서 김경일(항도실고)을 K·O로 물리치고 32강의 3회전에 진출했다. 플라이급에서는 1회전에서 이지한(동명공고)에게 K·O승을 거둔 이명철(경남체고)이 2회전에서 김종철(정동고)을 일방적인 리드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역시 3회전에 진출했다. 또한 이호범(동명공고)은 박영길(포항수산고)을 판정으로 연파 우승후보 강우석(동성고)과 3회전에서 맞붙게 됐다.

한편 여고부 플라이급에서는 강정선(은광여고)이 1,2차전에 이화연(익산종고)과 장복순(문산종고)을 잇따라 판정으로 제치고, 8강에 진출, 안의선(인천체고)을 누른 최희정(천안여고)과 준결 진출을 다투게 됐다.

—대회 2일째 경기—

여고부 라이트급 홍상희(인천체고)는 같은 학교 김영인에

게 1회 46초만에 R.S.C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여고부 라이트급 김지영(위례상고)은 최연숙(익산종고)에게 3회1분만에 역시 R.S.C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고부 김동구(부산체고)는 김형만(덕원공고)에게 R.S.C승을 거두고 3회전에 진출했으며 남고부 라이트급 김대산(한성고)은 신원덕(경남체고)을 1회 1분 20초만에 둘러차기 얼굴 강타로 K·O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남중부 라이트급 김형원(구월중)은 김재훈(재송중)을 2회 30초 R.S.C승으로 3회전에 진출했으며, 여고부 웰터급 송민준(익산종고)은 김민경(세화여고)을 3회 50초 R.S.C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대회 3일째 경기—

426번경기 이재화(항도실고) 선수와 김재호(전남체고)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항도실고측에서 소청서를 제시하여 소청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판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발표했으며, 남중부 라이트 헤비급 안금호(구월중)는 박덕일(전남체중)을 3회 23초 R.S.C승을 하여 준준결승에 진출하였으며, 남고부 라이트급 김혁원(서울체고)은 김형섭(한성고)을 1회 15초 경 오른쪽 뒷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한편, 남고부 밴텀급 김충현(동명고)과 신호동(송도상고)

의 경기에서 심판판정이 끝난 후 동명고 코치가 심판 판정에 불복 코치석 옆에 있는 물통을 들어 배심원으로 던지는 난동이 있어 대회가 약 5분간 정지되었으나, 집행부의 선처로 동명고 코치는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다시 진행하는 부끄러운 일면도 있었다.

—대회 4일째 경기—

남고부 및 남중부 메달권 진입이 3일째 오후부터 실시되어 4일째 오전까지 불꽃튀는 열전을 펼쳤다.

—대회 마지막 경기—

남여중·고등부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며 올라온 선수들이 체급별 우승의 고지를 향해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열띤 5일간의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에는 체급별 입상자와 단체상이 시상되었으며 특히 3년을 계속 우승한 인천체고 여고부는 우승기를 영원히 가져가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중고연맹 이유행회장은 강철남 배심위원, 전상민 심판위원, 장창연 심판위원, 유세종 심판위원, 민준원 심판위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중·고연맹 태권도 대회는 해가 갈수록 출전학교와, 선수가 많아지고, 웅변전도 치열해졌다. 한편 본대회가 상급학교 진학 특혜 및 문교부 체육특기자 인준 등으로 코치 감독들의 과열 경쟁에서 빚어진 약간의 이의제기는 태권도 중추국으로서의 면모와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지방해야 할 소중한

경험이있다고 사료되며, 임원 선수 코치 등은 반성과 함께 자기 발전의 계기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남중부(단체상)

우 승	동 성 중
준 우 승	재 송 중
3 위	풍 생 중
감 투 상	영 남 중
장려 상	초 장 중
최우수상	장대순(동성중)

여중부(단체상)

우 승	철 산 여 중
준 우 승	북 인 천 여 중
3 위	송 의 여 중
감 투 상	천 안 동 여 중
장려 상	남 주 중
최우수상	김지향(철산여중)

남고부(단체상)

우 승	성 동 고
준 우 승	서 울 채 고
3 위	대 전 체 고

감 투 상	청 주 기 공
장려 상	익 산 종 고
최우수상	박상로(성동고)

여고부(단체상)

우 승	인 천 체 고
준 우 승	영 신 여 고
3 위	은 광 여 고
감 투 상	문 성 여 상
장려 상	천 안 여 고
최우수상	박동선(인천체고)

임상자 명단 (남자 중등부)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황 호 준	영 남 중
	2	석 운 용	개 성 중
	3	소 병 관	동 성 중
	3	김 태 호	풍 생 중
플라이급	1	이 정 희	대 구 동 중
	2	김 대 훈	영 남 중
	3	유 영 택	재 송 중
	3	강 근 배	남 주 중
벤치급	1	국 정 훈	풍 생 중
	2	김 민 우	영 남 중
	3	김 동 원	동 성 중
	3	최 재 훈	경 일 중
페더급	1	장 대 순	동 성 중
	2	최 진 철	경 수 중
	3	정 기 원	구 월 중
	3	김 진 흥	동 성 중
라이트급	1	윤 용 식	재 송 중
	2	김 봉 관	천 남 체 중
	3	최 용 훈	동 성 중
	3	조 국 화	개 성 중
L-플터급	1	최 석 화	재 송 중
	2	정 중 서	경 수 중
	3	강 성 봉	동 성 중
	3		
웹터급	1	김 민 수	동 성 중
	2	이 낙 경	해 동 중
	3	유 창 열	삼 봉 중
	3	이 영 빈	풍 생 중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L-미플급	1	김 정 규	구 월 중
	2	임 종 일	청 구 중
	3	장 용 국	개 성 중
	3	만 재 철	단 대 부 중
미플급	1	김 정 호	동 성 중
	2	김 상 훈	재 송 중
	3	김 경 삼	영 남 중
	3	김 재 덕	구 월 중
L-헤비급	1	천 현 옥	동 성 중
	2	안 근 호	구 월 중
	3	김 용 권	동 두 천 중
	3		
헤비급	1	황 력 모	풍 생 중
	2	신 원 조	대 연 중
	3	추 문 식	강 곡 중
	3	유 상 번	구 월 중

(여자 중등부)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벤치급	1	김 지 향	철 산 여 중
	2	김 자 영	대 방 여 중
	3	이 선 자	구 의 중
	3	권 용 순	철 산 여 중
페더급	1	금 은 화	천 안 동 여 중
	2	조 화 완	철 산 여 중
	3	전 영 실	송 의 여 중
	3	홍 지 선	철 산 여 중
라이트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서 연 화	천 안 동 여 중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L-웰터급	3	김 미 례	북인천여중
	3	박 경 속	서귀중앙여중
	1	이 승 민	송 신 여 중
	2	김 혜 선	송 의 여 중
	3	권 은 주	철 산 여 중
웰 터 급	3	박 현 미	송 의 여 중
	1	조 향 미	북인천여중
	2	최 동 현	송 신 여 중
	3	이 화 연	송 의 여 중
L-미들급	3	백 미 화	철 산 여 중
	1	김 동 속	철 산 여 중
	2	이 재 임	구 의 중
	3	정 윤 경	박 학 중
미 들 급	3	한 지 연	북인천여중
	1	고 명 산	북인천여중
	2	이 수 영	송 의 여 중

(남자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 경 호	한 성 고
	2	구 동 신	송 도 상 고
	3	박 진	성 동 고
	3	강 윤 석	풍 생 고
플라이급	1	권 영 수	성 동 고
	2	박 병 익	리 라 공 고
	3	진 식	경 상 공 고
	3	이 창 환	전 남 체 고
밴 텡 급	1	백 영 선	성 동 고
	2	진 재 성	풍 생 고
	3	신 호 동	송 도 상 고
	3	조 회 진	대 전 체 고
페 더 급	1	박 상 로	성 동 고
	2	민 태 남	동 성 고
	3	손 원 기	경 상 공 고
라이트급	3	홍 성 철	청 주 기 공
	1	박 의 성	청주신흥고
	2	박 진 석	성 동 고
	3	경 우 찬	성 동 고
웰 터 급	3	김 득 영	포한수산고
	1	박 세 진	서울체고
	2	최 정 복	동 성 고
	3	김 영 주	동 명 공 고
	3	최 충 목	광 성 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미 들 급	1	박 종 범	청 주 기 공
	2	임 영 회	광 성 고
	3	추 광 식	송 실 고
해 비 급	3	이 종 섭	서 울 체 고
	1	김 용 귀	대 전 체 고
	2	이 호 근	경 남 체 고
	3	서 영 주	동 명 공 고
	3	송 근 배	전 남 체 고

(여자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장 이 숙	청 산 여 상
	2	조 현 주	보 영 여 중 고
	3	김 정 자	영 신 여 고
플라이급	3	김 보 영	천 안 여 고
	1	강 정 선	은 광 여 고
	2	김 도 희	문 성 여 상
	3	양 은 정	청 산 여 상
밴 텡 급	3	서 유 경	보 영 여 중 고
	1	박 동 선	인 천 체 고
	2	박 추 경	청 산 여 상
	3	김 성 숙	인 천 체 고
페 더 급	3	박 정 미	인 천 체 고
	1	이 현 화	청 산 여 상
	2	박 정 희	인 천 체 고
	3	노 경 미	문 산 중 고
라이트급	3	윤 회	인 천 체 고
	1	김 지 영	위례상고
	2	홍 상 희	인 천 체 고
	3	정 남 숙	천 안 여 고
웰 터 급	3	박 경 희	고 양 중 고
	1	박 에 란	인 천 체 고
	2	장 철	청 산 여 상
	3	송 민 준	의 산 중 고
미 들 급	3	손 정 애	인 천 체 고
	1	박 해 영	인 천 체 고
	2	정 현 숙	청 산 여 상
	3	최 귀 재	청 산 여 상
해 비 급	3	김 성 자	남 해 상 고
	1	백 영 미	인 천 체 고
	2	박 은 주	청 산 여 상
	3	류 설 아	덕 원 여 고
	3	이 성 미	문 성 여 상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5. 28~29, 잠실학생체육관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주최로 제9회 어린이 태권왕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5월 28일과 29일 2일동안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62개 국민학교가 출전한 가운데 겨루기부문에 남자부가 385명, 여자부가 49명 등 총 434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해 성황리에 대전을 펼쳤다.

대회 첫날인 5월 28일 오전 7시부터는 각체급별 출전선수 체계가 실시되었고 이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급별 예선이 펼쳐졌다.

5월 29일은 전날의 겨루기 예선전에 이어 오후 4시에 준결승전까지 마쳤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원을 얻어 KBS TV에 생방송이 시작되면서 개최식에 이어 결승전에 들어갔다.

개회식은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직대의 광파레로 시작되어 한국국민학교연맹의 김

중영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8회 태권왕겨루기대회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한 서울광희국교가 서영준회장에게 우승기를 반환했다.

서영준회장은 대회를 통해 「어린이태권도인들은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당부했다. 이어 서울광희국교 5학년에 재학중인 최학용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서울미동국민학교어린이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웅장하고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 펼쳐진 편집 결승전에는 대구지산국교의 김태상선수와 청주서원국교의 김양우선수가 올라왔는데 김양우선수가 우세한 기량을 보여 판정승을 거두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전남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가 경기용인국교의 김선웅선수를 맞아 내러찌기 등으로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돌려차기를 성공시켜 플라이급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출전 선수중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고도의 기술발휘로 미기상(美技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여수서국교에는 이창석 교치의 지도로 현재 100여명의 태권도부원들이 매일 방과후 2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밴텀급 결승전에서는 인천 동암국교의 김봉환선수와 용인신갈국교의 함용호선수가 올라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김봉환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으로 함용호선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안았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서울 면목국교의 김상익선수와 청주서원국교의 이진상선수가 태권왕의 자리를 다투었는데

청주서원국교의 이진상선수가 승리해 청주서원국교는 편급과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단체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청주서원국교의 지민규코치는 단체 1위의 영광은 예상밖의 성과라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어린이들의 딸의 결과라고 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 나와 학생들을 격려하며 응원을 보내준 안상만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의 뜨거운 후원으로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한 것이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했다.

안상만교장선생님도 지민규사범이 지도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자신감과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해준 어린이와 열성적으로 지도해준 지민규사범, 뜨거운 후원을

보내준 학부형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청주서원국교에는 150여명의 태권도부원들이 수업을 마치면 매일 1시간씩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선수부 30여명은 2시간씩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들급결승전에는 체격에서 월등히 앞선 서울연복국교의 홍경석선수는 용인신갈국교의 황선봉선수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고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비급결승전에서는 서울고일국교의 채현선수가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며 서울신석국교의 임세영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태권왕겨루기대회기간 동안 인천간석국민학교에서 나온 150여가량의 응원단이 다양한 악기로 박자를 맞추며 흥겨운 율동과 응원가로 대회에 출전한 태권도선수들을 응

원해 주어 대회 분위기를 한결 흥겹게 북돋아주었다.

인천간석국교는 여자선수만 15명이 출전했는데 문성여상의 김영수사범이 간석국교의 체육진흥후원회 회장으로서 태권도 특활부의 10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공덕교교장은 학교의 응원단에서 태권도대회에 응원나오기 위해 자의로 3일간 연습했다며 어린이들의 협동심과 출선수범을 대견스러워 했고 태권도선수들이 학교에서와는 달리 열심히 시합을 펼치는 것을 보니 놀랐으며 앞으로 태권도부 발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권왕겨루기대회 기간동안 잠실학생체육관은 미래의 태권도를 젊어지고 나갈 어린이 태권도인들의 축제였는데 떠나갈듯한 응원과 경기장에 마주선 하얀도복의 두 선수가 지르는 기합소리로 가득찼다.

입심자명단

계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김할수	서원국
	2	김태상	지산국
	3	박재용	서원국
	3	홍용호	개원국
플라이급	1	백훈	여수서국
	2	김선웅	용인국
	3	김순주	취경국
	3	최병운	북대국
밴텀급	1	김봉환	동안국
	2	함용호	신갈국
	3	이윤철	서릉국
	3	장명성	한삼국
페더급	1	정대영	개명국
	2	박유신	구원국
	3	조승원	성남하원하
	3	홍기현	지산국

계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라이트급	1	장동훈	북대국
	2	홍의익	주성국
	3	이정태	지산국
	3	이승일	잠원국
웰터급	1	이진상	서원국
	2	김상익	면목국
	3	유근부	천대국
	3	황문선	천현국
미들급	1	홍경석	면목국
	2	황선봉	신갈국
	3	이진	성산국
	3	박승윤	주성국
해비급	1	박열선	옥수국
	2	임세명	신석국
	3	오윤혁	서릉국
	3	심상훈	천현국

올림픽이후 태권도의 발전방향



사회체육의 내용과 방법은 관련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태권도와 같이 특별한 용구나 시설을 필요로하지 않는 스포츠는 국민모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체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임 번 장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I. 서 언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생활은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반면 이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즉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도시화에 의한 생활환경의 오염, 기계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폐쇄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사회적으로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주고, 국가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8올림픽 이후의 사회변동에 따른 삶의 질적 향상, 사회구조의 다원화 및 국제화는 일반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어서 사회체육의 질적·양적 향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사회체육의 내용과 방법은 관련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태권도와 같이 특별한 용구나 시설을 필요로하지 않는 스포츠는 국민모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체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

태권도가 갖는 시설도장의 지역적 분포, 지도자의 양성체제, 집단지도의 용이성 그리고 특별한 용기구가 필요없고, 시간과 기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태권도는 향후 사회체육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인 태권도는 '88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의 진흥을 주도해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무도관을 중심으로한 각종 무도가, 중국에서는 태극권을 중심으로한 "우수(武術)"가 국민모두가 즐기고 애호하는 국민스포츠로서 성행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태권도는 약 2천개의 시설도장과 2백만명의 유단자를 보유하고 있어 시설, 지도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체육의 목표를 전망하면서,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과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

1. 스포츠대중화의 견인역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레크레이션과 각종 스포츠에 참여토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몸과 안정된 마음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태권도는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직과 전국적으로 분포된 시설도장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포츠의 대중화와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에 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태권도장을 이용한 태권도의

기술전과뿐만 아니라 여타 스포츠종목의 활동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체육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시설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 있다.

2. 국민스포츠로서의 정착화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전통 문화를 많이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민족이다. 그중 우리의 민족놀이에는 강인한 정신력과 굳건한 체력을 길러주고, 협동심과 단결심을 고취하여 능률한 의지와 감투적 상무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우리 고유의 민족혼과 향토적 애郷심을 길러주는 전통적 민속놀이가 많이 전래되고 있다. 이러한 민속경기의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국민스포츠를 발굴·보급하는 것은 사회체육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통적 무도정신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지닌 태권도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행하여져 태권, 수박, 태권, 탁권 등으로 불리워오던 한국에서 발생한 고유의 전통 무술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였던 태권도는 국민스포츠로서의 요건을 고려해 볼 때 흥미성만 보완되면 훌륭한 국민스포츠로서의 정착은 가능하다.

3. 외국 사회체육과의 교량역

'88 올림픽의 개최로 한국은 스포츠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LA올림픽에서 세계 10강에 진입함으로써 '88 서울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그로 인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입증한 것이며 한국체육의 발전

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체육의 입장에선 선진 외국의 경우 에 비해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우 뒤진 실정이며 사회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회체육 전개방법 및 운영체제 등 그 사례에 대한 다양한 교류가 요구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사회체육 전반에 걸친 진흥의 폭과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권도의 경우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걸쳐 많은 국내 태권도인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태권도의 국제교류는 물론 사회체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합목적인 국제적 교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4. 국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

현대사회의 오염된 생활환경과 각종 업무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은 많은 질병으로 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만성질환, 성인병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신체활동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종래 치료에 국한하던 것을 예방에 더욱 치중하고 신체기능을 최대화함으로써 환경의 위협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평생체육 차원에서의 국민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앞으로 체육이 취해야 할 1차적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신체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특히 태권도와 같이 신체 각 부위를 고르게 운동시켜 주는 전신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태권도를 통해 개개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동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호신술을 위한 기술습득 이상으로 태권도가 갖는 중요한 신체적 효과이다.

Ⅲ. 태권도의 발전방향

1.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모두의 스포츠로

우리가 지향하는 '88 올림픽 이후의 복지사회 체육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 연령, 신체조건, 지역 및 사회계층에 구애없이 없이 국민 누구나가 복지화된 환경속에서 합리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의하면 남성이 약 90%, 유치부와 국민학생이상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남성과 아동에게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의 전환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나 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그들을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나친 기술지도보다는 흥미위주의 지도로

사회체육 진흥의 전제는 활동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신체활동의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시절에 태권도를 배워본 성인의 경우 대부분 흥미를 못느껴 다시 태권도장을 찾는 일이 드문 실정이다. 특히 요즘의 어린이들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태권도장을 다니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설도장의 지도자들은 틀에 박힌 기술지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태권도 동작을 이용한 리듬체조와 같은 흥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흥미를 갖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설도장 지도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도장운영의 자세가 태권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상업위주의 도장경영에서 교육위주로

현재 경영되고 있는 사설도장중 전체의 90% 정도가 임대건물이며 이중 월세 임대가 50%이상에 달해 도장경영의 경제적인 문제가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경제적 면만을 해결하려고 경영의 초점을 상업성에만 맞춘다면 올림픽 이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태권도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민역량의 최대 신장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태권도장 역시 엄연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설도장의 지도자에 대한 자격강화 및 전문성 제고와 연수교육의 체제를 재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설도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과 주변 환경의 재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태권도장과 지역사회체육의 연계성 확립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은 지역주민간의 친화력을 증진시키고 집단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은 한정돼 있으며 지도자의 부재나 운동방법의 미숙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분포된 태권도장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회체육의 전국적 확산에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 특히 이는 사회체육 시설 및 지도자의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인 동시에 프로그램의 합리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권도장과 지역사회체육의 연계성 확립은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직장태권도 동호인의 확대 및 지원

체육활동은 집단적 활동이 대부분이며 집단운동은 체육에의 참여동기를 강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조직구성을 통하여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권도의 경우 직장동호인의 활동은 현대, 포철 등의 기업체에서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을 뿐 전국적인 규모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태권도는 특별한 시설이나 용기구가 필요 없고 시간이나 기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활동 내용으로 적합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동이 미약하다.

따라서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자, 교재, 교육, 심사 등의 각종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직장태권도 동호인의 확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태권도 정책의 내실화

과거 태권도 정책은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입장에서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왔다. 특히 태권도를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운동의 외형적인 면에 많은 행·재정적 투자를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태권도의 정책은 무엇보다 국내의 태권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스포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은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전반에 걸쳐 초보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체육정책이 사회체육으로 전환될 경우 사회체육의 앞날은 희망적이며, 특히 올림픽의 막대한 체육시설이 국민모두에게 개방된다면 사회체육의 진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권도가 갖는 사설도장의 지역적 분포, 지도자의 양성체제, 집단지도의 용이성 그리고 특별한 용기구가 필요 없고, 시간과 기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태권도는 향후 사회체육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국민학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인국민학교와
조윤원 교장선생님.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체육시간에는 3, 4, 5, 6학년
2천5백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학년별로는 특활시간에
태권도를 수련한다.
또한 희망자들은 매일 방과후
태권도 전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그 수는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군청 소재지에 자리잡은 용인국민학교의 정오의 운동장은 어린이들의 체육수업과 등하교시의 교대 때문에 먼지를 날리며 소란스럽다. 그러나 시끄럽다기 보다는 맑고 명랑하고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성장을 보는 듯하여 싱그럽기만 하다. 특히, 교문을 들어설 때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소리높이 외치는 것을 보면 더욱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인다.

총 65학급에 3천5백54명의 재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용인국민학교는 1982년도에 근교에 서룡국민학교 분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큰 학교이다. 그래도 2부제 수업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지금과같은 교육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용인국교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은 지역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최근



1987년도에 거행된 경기도 태권도협회장기에서 단체 1위를 차지한 태권도부원들이 상장과 메달을 목에 걸고...

몇년전부터 용인에만 8개의 대학이 들어선 대학도시로의 변모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40분거리라 많은 인구가 이동해 온 위성도시로의 변모 등으로 인구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타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많은 경우 학교교육이 비중이 그만큼 커지는데 그것은 뿌리 내리지 못한 생활일수록 정신적, 경제적으로 생활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인 강인함과 건강한 육체단련으로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용인국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한 것은 1980년도부터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체육시간을 마련해 3,4,5,6학년 2천 5백여명이 운동장을 가득 채우며 김두희사범의 우렁찬 구령 소리에 맞추어 태권도 수련을



김 두 희 사범

시작하게 되었고 학년별로는 특별활동 시간에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또한 희망자들에 한해 매일 방과후에 한시간씩 학교에 마련된 태권도전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그 수는 2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최대한 태권도수련에 임하도록 배려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국민학교 졸업시에는 4년여에 걸친

태권도 수련을 통해 태권도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많은 태권도수련생들 중에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어린이도 많아 용인국교는 1987년도에 제8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단체3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장기 단체1위, 경기도 교육감기 단체1위 등을 차지하며 태권도 명문 국민학교로서의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8년간 태권도 지도를 담당해온 김두희 사범은 지난해 학교로부터 명예교사로 위촉되었는데 용인국교의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태권도를 수련하기 때문에 김두희 사범은 학교교직원들보다도 어린이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특히 방과후 매일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의 경우는 이들의 생활교육, 정신교육, 예의범절 등을 지도해 오고 있어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어린이 과외지도 교사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용인국교는 1915년 11월1일 금량공립보통학교(金良公立普通學校)로 개교,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조윤원교장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딱딱한 이론교육보다는 태권도와 같은 우리교육의 전통무예를 수련하게하고 각학년별로는 전통놀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목을 보면 1학년은 줄다리기, 2학년은 팽이치기, 3학년은 제기차기, 4학년은 연날리



용인국민학교
태권도 전용체육관

기, 5학년은 장치기, 6학년은 차절놀이를 하고 있다.

질서있고 생동하는 학교상을 정립하겠다는 용인국민학교의 구현처럼 태권도수련을 통한 질서교육, 생동하는 어린이를 통한 미래의 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는곳이 바로 용인국민학교이다.

한편 '82년도에 용인국교에서 분리된 서릉국민학교에도 김두희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해 80여명의 희망자들이 방과 후 매일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제8회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단체2위와 경기도교육감기 단체2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의 광희국교에 이어 단체2위와 3위를 각각 용인의 서릉국교와 용인국교가 차지해 태권도 명문국민학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용인국교는 '80년도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이래 제4회 태권왕겨루기대회에서 이현철선수, 제5회대회에서 김근석선수, 8회대회에서 강일구선수와 나호동선수가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서릉국교는 지난해

8회대회에서 임중혁선수와 유웅열선수가 웰터급과 미들급 태권왕을 차지했다.

한편 용인국교와 서릉국교의 태권도 우수선수들이 대거 용인의 태성중학교에 입학해 앞으로 중학교 태권도명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두희사범은 용인국교와 서릉국교뿐만 아니라 태성중학교 태권도선수단을 지도해



조순행 교감과 정상근 교감

태권도수련을 국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연결시켜 지도해 올해의 경기도 소년체전 대표선발전에서 태성중학의 정광호선수와 한송규선수가 라이트웰터급과 라이트미들급의 도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조윤원교장은 김두희사범을 외유내강의 본보기라며 어린이들의 태권도지도를 부드럽고 승쾌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좌우됨없이 성실하게 지도

하고 있다며 용인국교에서 김두희사범을 맞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처럼 학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 교사답게 김두희사범은 태권도 교육을 실천하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조순행 교과담당교감도 용인이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많고 맞벌이부부 등이 많아 생활기반이 약하여 어린이교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태권도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정신교육과 극기훈련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밝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태권도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정상근 체육담당교감도 어린이 기초체력향상으로 몸이 튼튼한 어린이를 길러줄 뿐더러 정신도 튼

튼한 어린이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두희사범은 학교장, 학교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보답하기위해 태권도수련에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정직하고 예의바른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용인국교는 앞으로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민학교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 장 탐 방

경기도 철산 여자 중학교



명실상부한 여자중등부 강팀으로 부상한 철산여중 태권도부원들.



조 재 원 교장

1983년도에 제1회신입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역사의 장을 연 철산여자중학교가 3회에 걸쳐 총18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재양성의 본원지로 자리잡아감은 물론 여중부 태권도 최강팀으로 부상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철산여중이 태권도계에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제23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조

화임선수가 밴텀급 1위를 차지했고 라이트급1위로 선발된 박금주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였다.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명실상부하게 여자 중등부 강팀으로 성장한 것이다.

올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거행된 제15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는 김지향선수가 밴텀급1위, 김동숙선수가 L-미들급1위를 차



이순규 체육주임 (좌) 과 이재원 사범 (우)

“1983년도에 문을 연 철산여중에 태권도부가 창단된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중부 태권도 최강팀으로 부상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지하는 등 철산여중이 2년째 계속해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김지향선수는 영예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는 현재 3학년에 6명, 2학년에 6명, 1학년에 10명의 수련생 등 총 22명의 태권도부원들이 태권도 수련의 길을 걷고있다.

2,3학년 12명 중에는 9명의 선수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및 시도대회 채급별 1위자로 학교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면제받는 장학혜택을 받고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는 매일 수업전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수업후에 3시간씩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달 마지

막주 토요일은 수업없이 태권도만을 전적으로 수련하게 된다. 이것은 철산여중이 특활의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 타학교에서 매주 1시간씩 갖는 특활 시간을 한달 중 마지막 토요일 하루에 몰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산여중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처음에 특활시간을 이용해 태권도지도를 담당한 셋별체육관의 이문창관장의 지도에 의해서 였다. 3년전 85년도에 처음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을 때는 특활반 학생들의 태권도지도에만 주력해 사실상 대회참가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초 이재원사범이 태권도사범으로 부임해 태권도 수

련을 전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오전 오후 수련을 실시하는 등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며 대회에 본격적으로 출전하기 시작해 종합우승의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가 창단된지 3년만에 여중부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발전을 이룩한데 비해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진학문제에 있어 경기도내에 태권도 특기생을 받는 고등학교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5명의 선수출신이 좋은 전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진학을 모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인천체고에 입학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태권도 여중부가 전국소년소녀들의 제천인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채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각 학교에서 체육 육성종목으로 전국체전과 연관있는 종목을 채택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여자 태권도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토양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의 학교에서 태권도부를 적극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시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할 학교가 없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조재원교장은 학교가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지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진



철산여중의 깨끗하고 아담한 학교전경

학지도를 해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임무인데 여자 태권도가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현실에서 진학지도에 애로점이 많아 학생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각종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경기도의 체력을 과시하는 등 자랑스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기를 살려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철산여중에서 대만의 신태국민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펼쳤는데 이 때 대만신태국민중학교교장으로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간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갖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문제를 감당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해 수락하지 못했다고 하며 양국 학생들의 친선경기를 통한 문화적교류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계기관이나 교육위원회 등에서 보조받을 길이 없었다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다양한 발전의 방법 모색이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순규 체육주임은 태권도가 학생들 사이에 붐을 일으키는 인기스포츠로 자리잡아 태권도부에 대한 인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부원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범절 등이 바르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모두 모범생이라고 태권도선수들을 칭찬했는데 진로만 보장된다면 앞으로 체력과 체력이 좋은 재목감을 임의

선발하여 양성시켜 훌륭한 태권도선수로 지도하고 싶다고 했다.

태권도부원들 중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5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밴텀급우승을 차지한 김지향선수는 국민학교4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 지난해에도 경기도협회장기와 중고연맹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유망주이다. 뒷차기가 일품인 김지향선수는 앞으로 계속 태권도 수련을 하겠다고 태권도 대표선수로서의 꿈을 키웠다. 또한 L-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동숙선수는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수련해 훌륭한 선수가 되어 사범님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김동숙선수의 경우 철산 여중에 입학해 태권도수련을 시작했으나 위력적인 내러차기기술 등을 주특기로 치너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두 선수외에도 모두들 태권도 수련을 계속해 태권도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서슴없이 밝혀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선택한 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들을 지도하는 이재원사범은 태권도 수련장소로 평일에는 운동장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기후변화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내 연습장이 하루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장 탐 방

경상북도 봉양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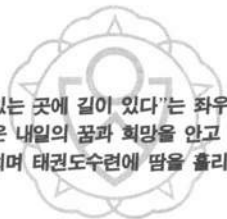


태권도부원과 신기철코치(좌측끝)와 강원규 체육주임(우측끝)

경상북도 의성군 교육청으로부터 1987년도 교육실적 우수학교로 지정된바 있는 봉양중학교는 1954년에 개교한 이래 3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젊어질 많은 일꾼들을 키워왔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아래 올바른 국가관을 길러 자주의식이 강한 애

국민, 스스로 공부하고 명량하고 순수한 품성을 지닌 지성인, 과학적인 사고력과 산업역군의 자질을 가진 과학기술인, 합리적인 보건관리와 체육활동으로 심신이 건전한 건강인,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는 사람을 기른다는 5대 교육목표의 실천에 힘쓰고 있다.



● 오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좌우명으로 봉양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안고 태권도 기합소리를 더욱 더 크게 외치며 태권도수련에 땀을 흘리고 있다. ●

교육목표의 실천사업으로 봉양중학교가 태권도를 교기로 정한 것은 3년전이다.

시작 당시 소수 학부형들이 왜 치고 받고 하는 태권도를 가르치느냐는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학교측과 학부형들이 태권도부 선수들의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태권도부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은 지난 3년동안 전용훈련장소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방학동안에는 스스로 기량향상에 힘쓰며 뒤떨어진 학과공부에도 충실히 임하여 태권도부원들은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봉양중학교는 특기생으로 입학한 선수들에게 수업료를 면제 해주는 것외에는 훈련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와 코치, 학교와 학부형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태권도부 활성화에 힘쓴 결과 지난해에 이창훈선수가 경북대표로 선발

되었고 제20회 경상북도 교육감기타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도내 중등부의 강팀으로 새로이 부각하였다.

신생 봉양중학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량을 닦으며 태권도강팀으로 성장하기까지 선수들의 노력도 대견했지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선수를 직접 지도한 신기철코치(도리원체육관관장)의 노력과 강원규체육주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오늘의 결과를 낳게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종혁교장선생님은 선수들의 훈련장 마련을 위해 의성군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건의하여 금년 내로 50평정도의 전용훈련장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학교 예산이 어려워도 각종 대회에 최대한 출전시켜 늦어도 내년쯤에는 우수태권도 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직원들도 태권도 선수들의 학업과 훈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코치,

선수가 삼위일체가 되어 태권도 명문학교로서의 비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좌우명으로 봉양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안고 태권도 기합소리를 더욱 더 크게 외치며 태권도수련에 땀을 흘리고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불암산 기슭에 자리잡은 영신여고 전경

여성 태권도 국가대표의 산실이며 여성태권도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해온 청산여상이 불암산 기슭에 5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교사(校舍)와 강당, 특별교실 등을 갖추고 '88학년도부터 정규모형으로 승격, 영신여자고등학교로 새로이 탄생하였다.

「믿음으로 사는 여성」을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형성에 교육의 바탕을 둔 영신여고는 여성태권도의 명문답게 국기태권도의 계승발전을 교육방침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영신여고의 이사장인 광성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태권도선수들에게 대회출전에 앞서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응원해주고 있다.

영신여고의 학교장인 고종성교장은 영신여고 태권도부의 빛나는 전통을 학생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와 12년간 꾸준히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 여자 선수들의 경



김 창 인 이사장



고 종 성 교장

기력 향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모형으로 꾸준히 지도해온 김영인코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태권도부의 위상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도자와 학생의 노력을 칭찬했다.

또한 「교사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며 앞날의 인재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또 이름난 학교는 좋은 시설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니 사명감을 가진 교사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기초위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며 영신여고의 앞날은 바로 태권도부의 학생과 김영인 체육교사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전통처럼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영신여고 전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굳건히 쌓아가자고 다짐했다.

영신여고의 전신인 청산여상이 30년의 역사 속에서 태권

도계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3월 김영인 체육교사가 이 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산여상 출신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만도 3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 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국기 태권도의 위력을 세계에 떨치는 것이 소개되면서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산여상의 이름은 널리 전파된 것이었다.

지난 해 11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회세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만을 예로 들더라도 8명의 대표선수중 청산여상 출신의 대표선수(재학생1명, 졸업생5명)가 6명이나 참가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이때 청산여상의 김영인 교사가 국가대표팀코치로 선임되어 이들을 지도한 것도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대회로는 11월에 국가원에서 거행된 제14회중

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여고부 9연패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며 여자 태권도 최강의 자리를 고수했다.

한편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에 여자국가대표선수선발전에서는 재학생 중 이화진선수가 핀급1위, 추난를선수가 플라이급1위로 선발되었고 졸업생 중에는 경희대의 박선영선수가 밴텀급1위, 성신여대의 김소영선수가 페더급1위, 경희대의 김지숙선수가 웰터급1위, 경희대의 김현희선수가 미들급1위로 선발되어 8체급 8명의 대표선수중 6명의 대표선수를 배출하는 영광을 차지하여 올림픽대회에서 역사적인 광파례를 올릴날을 기다리며 강화훈련에 돌입했고, 김영인교사 또한 국가대표코치로 선임되어 이들을 지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영신여고 태권도부가 어떻게 수련에 임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영신여고 태권도부원들이 각종 대회에서 땀 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국가대표를 키워온 김영인 체육교사와 대형체육관

사랑하는자들아우리가
서로사랑하자

요한일서사랑할렙교구선

학교중앙목도에 걸려있는 고종성교장의 친필이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도...

전통을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명문으로 있기에는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한다.
한국여자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명문여고로 자리잡아온
청산여상이 영신여고로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더욱 더 비상의
나래를 활짝 펼칠 날들을
기대해 본다.

다.

훈련목표는 전문체력강화,
경기력향상, 정신력강화로 두
고 있는데 전문체력강화는 개
인별 체력측정을 통해 평가 및
장단점을 보완하고 경기력 향
상은 전문기술 및 전술개발,
개인특기 기술개발을 해 평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신력강
화는 집중력, 담력, 사명감, 협
동심 배양 등으로 다지고 있다.
한편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
서 왕복달리기를 실시하고 순
발력을 키우기 위해 씨전트점
프, 배밀기, 복근운동을 한다.

인터발 트레이닝은 45도경사
스피드 달리기 및 크로스컨드
리를 하고 사이드스텝, 팔굽혀
펴기, 줄넘기, 등뛰어넘기 등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야외훈련으로는 학교 뒤 불
암산 언덕을 이용한 발차기 및
겨루기를 지도해 환경을 변화
시켜서 훈련의 강도를 높인 다
고 한다.

한편 시합을 앞두고는 기초
체력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근력,
전신지구력, 민첩성, 순발력을
증진지도하며 일주일에 한번
씩 측정평가하고 전문체력육
성을 위해서 유연성, 균형, 반
응, 순발력, 스피드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유연성운동은 기
술의 다양화와 어려운 동작을
개발하고 동작의 중심의 균형
을 잡아서 발차기의 정확성 및
스텝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겨루
기를 통해 찬스포차, 거리조정,
과감성있는 공격위주로 훈련
을 실시하고 타켓 이동 발차기
로 시합에서와 같은 발차기를
반복연습하며 스피드를 증진
시키고 연결발차기와 발의 순
발력을 키우며 원돌며 스피드
발차기를 통해 발차기횟수 및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수들의 상해예방이라
고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자
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
은 열과 성의를 다해 코치의
지시를 따르며 땀을 흘리고 있

는 영신여고의 대형체육관에
는 비디오 등 최선과확실비를
갖추고 선수들에게 시청각교
육을 통한 태권도 기술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여자 태권도가 세계선
수권대회까지는 물론 올림픽
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만
큼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발전
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전국체전에서조차 정식종목으
로 채택되지 않아 각 학교에서
의 태권도부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태
권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학교장
으로서 태권도계에 알려진 고
종성교장은 앞으로 여성태권
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
선 학교체육에서 태권도가 관
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각 학교의 학
교장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고 교육에 활용,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여자고등학교장들에게
태권도 경기시에 초청장이라
도 발송하면 어떻겠느냐는 의
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통을 쌓아 올리는 것도 힘
들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본다. 지
속적인 명문으로 있기에는 많
은 압박 노력을 요한다. 한
국여자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명문여고로 자리잡아온 청산
여상이 영신여고로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더욱 더 비상의 나
래를 활짝 펼칠 날들을 기대해
본다.

국 내 대 회 전 적

시 합 명	시 합 년 도	비 고
한국 중고 연맹전(추계)	1979-1987	9 연승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한국 중고연맹전(춘계)	1978-1980	3 연승
(중고 연맹 회장기)	1981	준우승
	1982-1985	4 연승
	1986-1987	준우승
연세대학 총장기	1978	준우승
	1979	우 승
	1980	준우승
	1981	우 승
	1982	준우승
	1983-1986	4 연승
	1987	준우승

역대 국가대표선수

번호	선수명	선발년도	대 회 명	해 급	개 회 장소
1	안철기	1980	국제원로 게임	해 비 급	서 울
2	안철기	1981	아시아 선수권대회	해 비 급	타이베이
3	이희환	-	-	해 비 급	-
4	이희환	-	-	해 비 급	-
5	전소순	1983	전신 국제대회	미 들 급	-
6	김소영	1983	-	세 더 급	-
7	신 숙	1985	제7회 세계선수권 대회	편 급	서 울
8	김정희	1985	-	중미급	-
9	김현희	1985	-	미 들 급	-
10	신 숙	1986	제7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편 급	호주 다윈시
11	박현영	1986	-	해 비 급	-
12	김지숙	1986	-	라이트급	-
13	김현희	1986	-	미 들 급	-
14	전소순	1986	-	해 비 급	-
15	장이숙	1987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편 급	스페인 마르셀로나
16	배은정	1987	-	플라이급	-
17	김소영	1987	-	세 더 급	-
18	김지숙	1987	-	해 비 급	-
19	김현희	1987	-	미 들 급	-
20	이화진	1988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유럽권 대표선발전	편 급	대한 카루만두 서 울
21	추남률	1988	-	플라이급	-
22	박현영	1988	-	해 비 급	-
23	김소영	1988	-	세 더 급	-
24	김지숙	1988	-	해 비 급	-
25	김현희	1988	-	미 들 급	-
26	조계선	1986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편 급	미 국
27	김지숙	1986	-	라이트급	-
28	전소순	1986	-	해 비 급	-
29	김현희	1986	-	미 들 급	-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태권도부

국립경상대학교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의 중간에 위치한 진주시에 있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이 지방의 교육, 문화,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도시로 발달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경남의 도청소재지였으며 임진왜란때에는 국가의 위난을 막기위해 진주시민 5만명이 왜적의 침공에 이 고장을 지키다가 진주성에 서 장렬히 목숨을 바친 애국충절의 기개를 만방에 알렸으며, 논개의 충절이 오늘날에도 이곳에 살아 숨쉬면서 현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호국정신과 국가를 사랑하는 도장으로 이용되는 고도 진주이다. 가까운 동으로 마산이, 서에는 지리산이 자리를 하여 옛부터 농업, 임업, 어업의 풍부한 자원과 생산으로 지방민의 의식주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1차산업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려수도라 웅장한 지리산 등의 관광자원으로 관광의 요충지로서 90년대에는 남쪽의 교통 중심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올해로 경상대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이 했다. 광복된 조국이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자립정부를 수립한 1948년 10월 20일에 「개척」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경남 독립 초급 진주농과대학이 탄생되었다. 1953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 1972년 국립경상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1980년 3월 1일부로 종합대학교로 개교되었다. 현재는 8개 단과대학 65개 학과에 총정원 11,720명, 대학원 석사과정 32개 학과 250명, 박사과정 17개 학과에 86명, 교육, 경영, 행정 대학원 500명으로 일만이천여명의 「개척인」이 40만평의 가좌벌에 새로운 캠퍼스를 완성하며 진리탐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진실과 학문적 이상을 추구하는 겨레의 일꾼 양성에 교육목표와 방침을 이정한총장은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도, 학내의 체육진흥과 지역사회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상대 태권도부는 1977년 이 학교에 부임한 현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강진홍교수(현 부교수)에 의해 '77년 5월부터 일반학생 및 체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동호인 클럽을 만들어 새벽과 오후반으로 약 250명이 모여서 심신의 단련과 순수 아마추어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생으로서의 호연지기를 향상시켰다. 78년부터 도내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서 학교당국으로부터의 격려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당시 체육부장 유 덕시 교수와 전학장 윤태규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980년도에 체육특기생으로 진 국가대표 하 석광균과 최 승룡군 2명을 선발하여 경상대 태권도부가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스포츠경기로서의 현대화된 태권도가 경남에서는 불모지였으며 일선학교나 사회에서조차 인식부재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당시로서는 전국체전에서 해군태권도부에게 의존하던 때이므로 이 지

방 선수 육성 및 저변확대나
신인발굴에 등한시하는 경향
이 많았으므로 우리팀으로서
는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경남
에 경상대 태권도부가 창단되
면서 소위 경남 태권도의 자생



이 정 한 총장



강 진 홍 감독
(체육교과과 교수)



산악훈련을 하는
태권도부원과
임홍택 코치



력이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했
던 여명기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대회
에 출전하면서 각 대회때마다
적개는 동메달 1개에서부터
많은 개는 작년(87년) 추계대학
대항전에서 종합준우승에 이
르기 까지 약 70차례의 포상을
체육단체로부터 수상하였다.
정식창단 만8년 동안에 국가대
표 1명(최 승룡 : 제4회 아시
아 선수권대회 밴텀급에서 우
승)를 배출하였고, 87년에 종
합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현
재까지 특기생 29명을 선발하
였는데(80년 2명, 81년 2명, 82
년 4명, 83년 3명, 84년 3명, 85
년 3명, 86년 4명, 87년 4명, 88
년 3명) 중등교사로 3명, 군입
대 10명, 3명은 발령대기, 13명
은 재학중에 있다.

국내 대학부 중 유일무이하
게 국립대학교에서 태권도부
를 처음 창단하면서 많은 어려
움과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학한 선수들의 학
업과 운동에 대한 각고의 노력
과 고군분투로 학교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운동부(현재
총 13개 운동부가 있음)로 발
전되었다. 따라서 경상대 태권
도부가 오늘날까지 꾸준히 성
장발전한 요인은 전국 각도에
서 선발된 선수들이 모여 강한
응집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다.

이제 경상대 태권도부는 국
내 어느 팀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
으며 학교당국이나 지방민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무

력무력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좀더
많은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학
교당국에서 적절한 경제적 지
원만 선행된다면 더욱 높은 질
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대의 선수선발 방법은
메달보다는 발전 지향적 측면
으로 기본기와 체격, 체력, 장
래성, 경기능력(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교고시절에
빛을 못보던 선수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더욱 더 열심히 공
부하고 운동에 심취하는 모습
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서 교
육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코
치로는 임 홍택사범이 82년 가
을부터 맡아오고 있다. 운동시
간은 주로 새벽운동과 방과후
오후운동 2시간 정도로 훈련
(training)과 연습(practice)을
하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남해
에서 해양훈련으로 겨울방학
에는 고산에서 산악훈련을 통
해 체력에서부터 개인주특기
훈련으로 보강하고 있다.

끝으로 경상대학교에는 「짧
게 살고도 오래사는 이」가 있
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그의 이름은 개척자다.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눈이요,
그의 가슴에는 보람으로 가
득차 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길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언제나 이것을 묻기 위
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호암체육관



좌로부터 둘째아들 권준철사범, 권영우사범, 장남 권오민사범

서울 구로구 시흥2동 셋별 A.P.T상가에 자리잡은 호암체육관에는 권영우사범의 대를 이은 두 아들 권오민사범과 권준철사범이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1970년 4월 8일에 설립된 호암체육관은 18년의 연륜이 쌓이는 동안 3부자의 열의와 성의로 지금은 유치부 40명, 국교부 70명, 중고등부 40명 등 총 150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는 대형 도장으로 발전하였다.

18년전 호암체육관의 문을 열고 태권도 지도를 담당해왔

던 태권도 7단인 권영우사범(56세)은 지금은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직접 지도하지는 않으나 승급·승단심사시에 심사위원으로 나와 두 아들이 지도한 수련생들의 품새와 겨루기를 심사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이어 받아 호암체육관을 물려받은 장남 권오민 사범은 태권도 5단으로 국민학교 때 아버지의 태권도수련광경을 보아 오며 자라 태권도에 입문한 것은 5학년 겨울방학 때 였으나 단기간내에 승단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계속된 태권도 수련으로 영각중학교 3학년 때 서울시대표로 출전할만큼 실력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송곡고와 인천체전에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였고 1984년도에는 3급 심판 자격증을 획득해 심판원으로 도 활약하고 있는 등 태권도지도자로서의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

권오민사범은 아버님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영리면에서는 발지를 못해 나중에 자신이 도장을 운영하게 되면 태권도 교육과 도장경영면에서 조화를 이루리라 다짐해 왔었다고 한다. 막상 도장을 운영하다보니 수련생들에게 늘 인간교육을 우선 시키기위해 애쓰셨던 아버님께서 왜 영리를 피하는데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가를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교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지도방침을 자기 도 따라가게 되는것 같다고 했다.

이에 권영우사범은 아들이

자신처럼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가는데 대해 처음에는 「태권도 수련은 시켰지만 직업으로서의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주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태권도지도자로서의 길을 잇겠다는 의지가 결연하여 이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무도인이 되어 주길 당부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도능력까지 겸비했다 해도 교육자로서의 열의와 성의가 없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이어받고 있고 친척으로서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택한 호암체육관의 아들들이 얼마나 우수한 지도자가 될지는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열심히 수련생들을 지도해야 알겠지만 매년 수련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이들 부자의 노력의 결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아들인 권준철사범도 호암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여 왔는데 이곳에서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4월중순에 송탄에 태권도장을 개관 하였다. 국교 6학년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권준철사범은 현재 4단으로 선수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이다.

막내 아들인 권오령씨도 태권도 4단인 태권도인이나 두



◀두아들의 대련모습

● 두 아들에게 도장운영 4·5년이 지나면 「이 길이 과연 나의 인생을 결정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회의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예견하며 그때 「평생 무도인으로서의 길이 참된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는 아버지...

형과는 달리 유일하게 회사원(기아산업)이 되었다.

아들 둘이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권영우 사범은 「옛날 서당에서의 교육이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우선한 것과 같이 태권도 교육도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보다 올바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인간교육 없이 기술만을 익히게 되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인간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무도로서의 태권도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의 효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들은 도장운영 후 4·5년이 지나면 「이 길이 과연 나의 인생을 결정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를 하게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본다며 그런 회의와 좌절의 시간이 앞으로 두 아들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 시기가 닥칠 때 두 아들 다 번민과 회의로 자신이 「평생 무도인으로서의 길이 참된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참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아들 외에도 모든 태권도사범들이 참된 무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 충효체육원

김 홍 수 사범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의 산실

강원도 강릉시에는 13개 체육관에 약 900여명의 수련생들이 있다. 이 중의 하나인 충효체육원은 50여평의 체육관에 120여명의 수련생들이 땀 흘리며 충효의 메아리를 진동시키며 강릉의 태권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충효체육원은 다른 체육관이 「관」자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자를 사용해 태권도를 수련하러 오는 수련생들에게 부드러운 느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딱딱한 「관」자를 빼고 「원」자를 쓰고있는 특색

있는 이름을 가진 도장이다.

충효체육원의 근본지도 이념은 내적으로는 충효사상고취와 예의규범을 제1로 삼고 체험적인 깨달음으로 인격형성에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강인한 정신과 체력향상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법으로 태권도를 수련시켜 조직활동에 능률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인간과 자립정신을 길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충(忠)과 부모님에 대한 효(孝)의 정신을 일깨워 부모

님과 스승님 모시기 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생활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태권도 수련시에 몸소 체험으로 익히게 하고있다.

우리사회에 점점 사라져가는 충과효, 그리고 정신적인 교육의 산실이 없는 요즈음 이러한 역할을 무도를 지도하는 일선 사범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태권도인이 짊어진 역사적사명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신교육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태권도 수련시 VTR 을 이용해 수련생들의 자세를 교정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태권도 수련시에는 태권도의 우수성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수련에 임하도록 하며 보다 엄하고 강한 지도이념으로 스파르타식 훈련과정을 통해 맘으로 법범이 되는 거듭되는 반복훈련으로 수련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엄한 과정을 통해 기강확립을 시키는 중에도 계속적인 수련으로 오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외수련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수련생들에게 수련시간에는 모든 잡념을 잊고 오로지 땀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행동거지를 바르게 실천해 수련생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무도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본연의 임무를 두고 있으나 수련생



들중 시험출전을 원하는 대상은 수련후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슬로건은 「전쟁은 이등이 없다. 시험은 연습때와 같이 한다. 시험은 우승이 목표이다」라는 정신적인 교육과 작전 계획에 의한 훈련에 치중한다고 한다.

특별히 수련시작과 수련후 관망약서나 삼지침(三指針)을 복창케 하는데 관망약서는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wider를 공경하고 관장 및 사범, 선배의 충의(忠意)와 체육원 발전에 헌신하며 관원 및 천우에 대하여 믿음과 신의로써 대할 것을 굳게 맹약한다.」는 것이다.

수행이 끝날 때 복창하는 삼지침은 「一. 直立人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一. 直言人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되라. 一. 直守人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또한 좌선을 통해 정신집중과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며 단전을 강화시켜 건강체질향상과 자아의 강함을 인식토록 하고 있다.

체육원 내에는 도서를 구비하여 조그마한 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업에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예의범절, 충효사상, 민족의 열, 단합과 화합 그리고 겸손, 진정한 땀의 진실을 찾고 금전만능으로 오는 자만심(자기이기주의), 책임감회피, 의존심 등을 국기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이겨나가기 위해 태권의 함성을 드높이는 곳이 바로 충효체육원이다.



서로돕고 공생하는 화목한 자연의 섭리를 되새기며...

한 국 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노정(人生路程)을 흔히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연의 섭리(攝理)에 비교하며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도 한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편안한 오솔길이 있고 뛰지 않을 수 없는 내리막 길도 있으며,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오르지 못하는 험한 길도 있다. 이 여러층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오르면 사방이 탁트인 정상에 서게되며 모두를 굽어 볼 수 있는 여유도 느낄 수 있다.

우리민족은 8할이 산으로 구성된 땅에서 태어나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활해 왔다.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개울이 되고, 내가 되며, 강이되고 바다가 되어서 모든것을 포용하고 용해시킨다.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땅으로 내려 모든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자연의 윤회(輪廻)속에서 우리네 인간은 살고 있다.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의 기후는 한국인의 독특한 철학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여유와

서로 돕고 양보하며 누구나
멋진 「킵」으로 멋진 「풀인」을
시킬 수 있도록 밀고 끌어
주는 가운데 멋진 작품이
탄생함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태권도인이 되어보자.



지혜를 일깨워 준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물질문명은 인간들의 여유와 지혜마저 앗
아가 버리고 있는 듯 싶어 안타깝다.

서로 돕고 공생하는 화목한 자연의 섭리를 파
괴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나」위주의 외곡
으로 치달는 유아독존(唯我獨尊)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자는 「功遂身退 天之道(공을 이루고 그 자
리를 물러남은 하늘의 도이다)」를 주장 하였다.

「봄은 봄의 활일을 끝내면 그 자리를 여름에
게 물려준다. 여름이나 가을도 일을 무성케하고
열매를 맺으면 겨울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물
러난다. 인간도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명
(功名)을 이루었으면 그 위치를 물러나는것이
천도(天道)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노자는 최상(最上)의 선(善)도 물과 같
다(上善若水)고 했다.

첫째로, 물은 만물에게 이택(利澤)을 주고 있
으며, 물이 없으면 천지간(天地間)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명(功名)을 다루는 법이 없으며,

둘째, 인간은 일보(一步)라도 높은 위치를 원
하나 물은 그 반대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셋째, 물은 낮은 곳에 있을 수록 커지는 무한

한 포용력이 있다. 계곡을 흘러내려 강을 이루
고 다시 흘러 바다가 되어 큰 존재가 된다고 설
파하며, 못 세간들에게 「물」이란 자연의 섭리를
따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물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
은 썩는다.

태양의 주변에 지구를 비롯한 각종위성이 운
해하듯 자연도 계절따라 윤회하고 모든 세간들
의 생활도 윤회하고 있다. 어떤 일인데 특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직책 또한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닐진대, 누가 보거나 안보
거나 봉사의 신념으로 생활을 일관할 때, 바람직
한 인간상, 바람직한 단체, 바람직한 사회가 이
루어 질 것이다.

축구의 멋진 플레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으며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센터링」이 이루어 져야
멋진 「풀인」을 시킬 수 있다. 혼자서 물을 물고
혼자서 「풀인」을 시켜야- 아니, 꼭 내가 「킵」을
해서 「풀인」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 아
니 내가 아닌지……?

서로 돕고 양보하며 누구나 멋진 「킵」으로 멋
진 「풀인」을 시킬 수 있도록 밀고 끌어 주는 가
운데 멋진 작품이 탄생함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태권도인이 되어보자.

“한국인 이미지 고양에 힘쓰겠다”

브라질 쌍빠울로 주 이신화 사범



재브라질 태권도협회 임원진들, 좌로부터 박봉서회장, 김광진 수석부회장, 김석우 부회장, 김교열 사무총장

미국이나 유럽에 태권도가 '60년대 부터 보급이 활성화되어 독일, 미국, 스페인 등이 상당히 높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는 '70년대에 보급이 시작되어 브라질의 태권도가 국제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건너간 사범들의 열과 성으로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어가고 있다.

쌍빠울로주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신화 사범(6단·32세)은 지난 4월에 국기원에서 개최된 국제 심판 강습회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브라질의 태권도현황에 대해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신화 사범이 출국한 것은

1980년도 국기원 성인시범단으로 활약하던 중 리오데자네이로 주에서 활약하던 김용민 사범의 초청으로 브라질에 태권도 보급을 심기 위해 출국해 현재는 쌍빠울로주 연방 경찰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연방 경찰은 원래 쌍빠울로주 태권도연맹 회장인 김상인 사범이 지도해왔는데 김상인 사범 후임으로 이신화 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브라질내 태권도 인구는 전국에 235개의 태권도 도장에 모두 35만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유단자만도 1천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이는 태권도 도장의 집계이고, 태권도는 연방경찰 뿐만아니라 쌍빠울로 경찰 사관학교에서는 6백여명의 생도가 태권도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있어 훨씬 많은 인구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셈이라고 한다.

태권도가 보급되어 발전해가면서 조직적인 태권도 단체의 성립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태권도가 처음 보급될 당시에는 「태권도 사범협회」가 유일한 단체였으나 그후 브라질에 대한체육회 지부가 생기면서 「재 브라질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었고 '86년도에는 쌍빠울로주 정부 체육회 산하기관으로 「쌍빠울로 태권도연맹」이 조직 되었다고 한다.

「태권도 사범협회」나 「재브라질 태권도 협회」는 모두 한국인 단체여서 '86년도에 재브

라질 태권도협회로 통합, 박봉서씨가 회장으로 피선되면서 한인 사범의 유일한 단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체육국 산하에는 「태권도협회」가 조직되어 쌍빠울로주의 김상인사범이 회장을 맡았다. 「태권도협회」는 그 밑에 각 주마다 연맹을 두고 있는데 김상인회장은 쌍빠울로주 태권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각 주의 태권도연맹은 김상인 회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브라질인들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의 태권도는 현재 팬아메리카대회 등 국제대회에 태권도가 공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유단자들만이 참가하는 대회가 열렸으나 앞으로 급급별로 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수련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태권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단자 기술교육과 함께 태권도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현재 20명정도인 브라질인 태권도심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신화 사범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과 브라질내 한국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며 특히 교포 2세들에게 한국의 예절을 가르키고 심신을 수양해 한국의 뿌리를 더욱더 다지게 하기 위해 태권도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본 태권도연맹 본부도장 상임 이재현사범

'88올림픽 출전할 일본대표선수 강화훈련 담당

태권도와 유사한 투기종목인 가라테의 종주국 일본에 태권도가 보급되어 한국인 이재현사범이 일본태권도연맹 본부도장의 상임사범으로 일본인들에게 태권도 기술을 전수하며 태권도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재현 사범은 전세계 112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유럽 쪽에서 인기가포츠로 각광받고 있음에 비해 일본에서의 태권도 보급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였는데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 각종 대륙대회에서의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과 '88서울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시범종목 채택 등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

포츠로 정착하는 물결을 타고 일본내에도 서서히 태권도 붐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고 일본의 태권도 현황을 들려주었다.

특히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는 이유로 가라테와 같은 투기종목이고 무도스포르츠라는 공통의 특성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세계적 스포츠로서의 지위적상과 가라테가 힘과 단련을 위주로 한 "정적 이미지"라면 태권도는 다양한 기술동작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스포츠로서 더 흥미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태권도연맹은 '88서울

올림픽태권도시범경기에 편급, 플라이급, 페더급, 라이트급 등 남자부 4개체급 출전티켓을 따놓고 지난 5월 3일 체급별 2명씩 8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했다고 한다. 이재현 사범은 이들에게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합숙훈련을 실시한 후 6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쌓고 최종선발전을 거쳐 4명의 대표를 선발한다고 했다.

이재현사범은 일본대표선수들이 선수층이 얇은 가운데 선발되어 우리나라선수들에게는 비길 수 없겠지만 가라테로 신체를 단련해 왔을 뿐더러 태권도 기술을 습득한 일본의 최강자들이라 '88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일본내에 태권도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화훈련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현사범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 수련을 시작해 서울체고와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3급 심판교육과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태권도 전문인으로 1987년 8월에 일본태권도연맹이 본부도장을 개설하면서 상임사범으로 초청해 출국한 것인데 앞으로 일본내에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심는 역군이 되리라 본다.

1m85cm의 훤히한 키에 85kg의 몸무게로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이재현사범이 한국의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사범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본의 가라테를 압도하는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1회 이란국제태권도경기대회에 출전한 이재현(둘째줄 중앙) 사범과 선수들.



아들의 산교육을 위해 종주국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대 기업가 수집토 로하르조씨



좌로부터 수집토 로하르조씨, 헨리로하르조, 구정회사범, 레자로하르조, 허영사범.

인도네시아의 대기업가의 한사람인 수집토 로하르조(SUT JIPTO LOHARDJO)씨는 태권도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할만큼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도네시아의 미션스쿨인 국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태권도클럽을 만들어 태권도수련생들의 후원자로 태권도수련생을 길러내고 있으며 8살부터 14살까지의 수련생들이

참가하는 프리주니어대회를 개최해 품새와 겨루기부문에 걸쳐 입상자를 뽑아 이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시상하였고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만큼 태권도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쿵후와 복싱선수수를 해봤을 정도로 운동에는 남다른 취미를 갖고 있으나 태권도를 접하게 되자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이 기술만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태권도정신을 기른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태권도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강한 정신력, 극기심, 인내심, 자립심 등은 사업을 하는 그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딸과 두아들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해 현재 딸이 2품이고 두 아들은 국기원1품이다.

이번에 수집토 로하르조씨가 데리고온 딸아들 헨리 로하르조와 둘째아들 레자 로하르조는 이들이 국고1학년 때부터인 7년전부터 자택에서 개인사범에게 일주일에 9시간씩 수련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작년에 두 아들이 국기원사진을 보고 태권도 종주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아 사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수집토 로하르조씨. 이들 부자는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건으로 나갔던 허영사범과 동행해 한국을 찾았는데 허영사범은 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인연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와 이번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는 두아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배우고 태권도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국기원 성인시범단의 구정회사범을 초청해 1달간 태권도수련



구정회사법에 태권도 품새를 지도받는 두 아들

을 지도하게 할만큼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구정회사법은 두아들의 태권도정신이 투철하고 품새동작이 정확할 뿐더러 수준급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정회사법은 이들이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을 방문해서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성지를 찾듯이 경건해하고 좋아했다고 전했다.

수집토 로하르조씨가 두아들을 직접 데리고 한달동안이나 태권도만을 위해서 나온 것은 어쩌면 땀방울의 삼천지교와 버금가다 할 것이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기업은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항로에서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45세인 그가 앞으로 10여년후에 그 엄청난 기업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

었을 때 그 때 두 아들에게 태권도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종주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야길 하면서 태권도 겨루기에는 단지 두사람만이 시합을 임하게 되는데 선수들은 누구의 도움도없이 경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심을 키우고 의지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또한 승리와 패배를 맛보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오랜 수련의 인내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과 패배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정신력을 키울 줄 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익히었다면 종주국을 방문하겠다는 것도 선뜻 승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그동안 두아들이 한국체대와 배명중학교를 방문해 태권도부원

들과 함께 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권도 수련시 정신교육과 품새교육에 치중하고 겨루기는 1주일에 한번정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태권도수련을 경기위주로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우리나라의 일선도장에서의 지도는 수련생들에게 품새나 정신교육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학교와 대학의 태권도부는 주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루기위주라는 설명을 해주자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인도네시아인에게 우리의 태권도가 겨루기위주로 비추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자랑거리인양 태권도마크를 자동차 등에 붙이고 다닐 정도라고 한다. 그것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태권도만이 갖는 무도정신을 인도네시아인들이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원 사진만 보아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외국의 많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종주국 태권도인들은 좀더 훌륭한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칼럼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규 인/본회 홍보실장

사회체육은 영어로 "Sport for All"로 표현하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Sport for All은 취학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성의 수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를 스포츠로 정의하고 이 스포츠를 범 국민적으로 보급 향상 발전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Sport for All을 단순히 노동시간이외에 행해지는 소극적인 여가 스포츠로 이해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각종 스포츠 및 신체운동을 모든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에 널리 보급시킬하는 국민운동을 사회체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사회체육을 대별하면,

○학교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

○체육의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전개되는 체육활동,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공공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체육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위하는 사회체육 활동 등으로 구분하며

※ 대상별로는

○유아체육 ○청소년체육 ○장년체육

○부인체육 등이 있고,

※ 장소 중심으로 분류하면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

등으로 구분하며

※ 기관별로 보면

○공공사회체육 ○민간단체 사회체육

○상업시설로서의 사회체육으로 구분하며,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조직적인 사회체육과 비조직적인 사회체육이 있다.

이러한 각종사회체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체력의 향상, 건강이나 미용, 자아와의 접촉, 사교나 친구와의 교류, 기술증진, 기분전환 및 즐거움 등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사회체육의 목적은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 및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체육을 통한 국민정신 순화로 국가부흥의 원동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체육현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발전해 왔다고 보다는 특정종목의 선수 중심의 체육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은 직접 체육에 참여하기 보다는 관람자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해온 우리의 현실로서는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엘리트선수 육성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였다고 보나 올림픽이후에는 선수중심의 스포츠에서 온 국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강유지를 위한 평생체육 차원에서 사회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이후 태권도를 사회체육으로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권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현재 태권도 인구의 수련층을 보면 유아기(2세~7세), 아동기(7세~12세), 청소년기(12세~18세)의 연령층은 일선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있으나 18세이상의 성인층은 전문한 실정으로 중·고교와 대학, 일부 실업팀 등에서 태권도 경기를 위한 전문인(선수육성)을 키우기 위하여 성인태권도 수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란에서는 88년 이후 사회체육활동으로서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태권도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사범님들이 도복입고 운동하기 「캠페인」도 벌일 것을 제의한다.

최근 우리의 태권도 도장은 상업시설로서 사회체육분야에서는 어느 종목보다 앞장서 유아기와 아동기의 신체발육 및 정서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땀흘리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좁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업화의 경영으로 치우치는 일부의 사범들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수련생들은 사회의 교육제도에상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과잉된 교육열에 학업성적을 염려하는 부형들에 의해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태권도 수련을 중단하여서, 태권도 수련은 어려서나 하는 운동으로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음도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태권도인은 이러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관장, 사범들이 몸소 도복을 입고, 남

녀노소가 동락하는 스포츠로의 변신을 위해 전직의식을 갖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태권도를 직업으로 생활하는 일선지도자들이 한눈을 팔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권도 고단자인 관장(사범)이 도복입기를 귀찮아하고 2·3단의 사범과 여교사 등에게 맡기면서 성인수련생이 없다고 옛날과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일선지도자 여러분!

세상일이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일이 많은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일광절약제가 실시된 후 후7~8시도 흰한 낮인데 체육관 문 닫고 퇴근하거나, 새벽부는 귀찮아 하지 않는 등) 관원이 준다는 등 운영이 어렵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혹 자신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직장이나 학부형을 대상으로 새벽부, 저녁부를 만들어 성인이 태권도 수련을 해야하는 필요성, 효과 등을 널리 알리어 태권도 수련의 인식을 성인들에게 심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좁은 피곤하더라도 사회체육으로 성인태권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대만의 아침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쿡쿡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우리 태권도도 새벽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태권도 품세를 수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야 「국가」 태권도로서의 위상이-아니 사회체육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특색에 맞게 봉사하는 자세로 성인태권도 보급에 일선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이 확고해 질 것이다.

정장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수련생 숫자 확인만하는 경영자 보다는 도복을 단정히 입고 수련생의 일거일동을 친 자녀처럼 관심을 기울이며 수련을 같이 하는 경영자가 많을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발전의 힘찬 시동(始動)이 걸릴 것이다.

김운용 회장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87DSA공로상」수상

김운용회장은 지난 3월 25일 잠실올림픽회관에서 미국 스포츠아카데미 Thomas P. Rosandich 박사로부터 1987년 한 해 동안 국제스포츠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87 DSA (Distinguished Service Award) 공로상을 수상했다.

미국스포츠 아카데미 평의회가 1979년 창설 이래 국제스포츠계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해온 DSA 공로상은 '87년도에 김운용회장을 비롯해 스위스인 Raymond Gafner IOC 사무총장 등 6명에게 수여되었다.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는 매

년 한 해 동안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전파 또는 개척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스포츠를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이고 체계있게 보급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국제체육계 인사를 선정해서 DSA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올림픽대회 기념품전시회」 개최

6월8일~13일, 롯데쇼핑 행사장

역대올림픽대회 역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롯데쇼핑8층 행사장에서 「역대올림픽대회 기념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내용을 보면 역대올림픽대회 공식포스터와 각종 기념품, 주요사진과 한국의 올림픽메달리스트 사진 및 소장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태권도대

표선수의 유니폼을 비롯한 각종목별 한국대표선수단 유니폼전시회가 있었다.

그밖에 서울올림픽대회 공

식경기용품전시, 한국국가대표선수 매세지 및 사인전시가 있었다.



태권도 뉴스

'88년도 전국심판 (1·2·3급 및 코치) 보수교육

총 193명 참가, 3월 10일과 11일 실시

본회에서는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국민회에서 '88년도 전국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판보수교육에는 전국에서 총 193명이 참가했는데 본회의 권경옥기술심의회의장, 안영택심판분과위원장, 김정대심

판분과부위원장이 경기규정, 심판규정, 심판원의 자세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한편 각 시도지부에서도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전남협회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1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대구협회는

3월 29일에서 31일까지 총 2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또한 경북협회는 5월 1일에서 3일까지 총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판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88대회 태권도운영요원 직무교육 단계별 실시

'88서울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태권도운영요원 직무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다.

태권도경기본부 1차 직무교육은 3월 30일 임운규 태권도경기본부 사무총장을 비롯한 32명의 핵심요원에게 실시되었고 5월 14일에는 전체 태권도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6월 11일에는 태권도 시범경기가 펼쳐질 장충체육관에서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어 태권도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수행

해야 할 것인가를 숙지시키는 교육이 있었다.

또한 6월 24일과 25일에는 1차예행연습이 모의대회로 실시되었고 2차 예행연습이 8월 22

일 실시된다.

최종리허설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후 9월 17일 대망의 올림픽대회 태권도시범경기의 막을 올리게 된다.



'88년도 1차 고단자심사 (5·6단)

5단 48명, 6단 21명 합격

국기원에서는 지난 3월 19일 88년도 1차 고단자심사대회를 개최하여 5단에 48명, 6단에 2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5단 합격자명단(48명)

김경모, 박영길, 이상용, 염상철, 정정식, 김용남, 정장열, 김익환, 남영호, 박인도, 이대

동, 지경순, 권성희, 장호범, 한완수, 김상익, 윤채중, 이상훈, 고광산, 안용규, 이춘우, 문석희, 최병우, 임한호, 이명영, 문영채, 박인춘, 박경한, 김희석, 이형로, 이승호, 한승만, 양희석, 김영일, 김홍기, 최윤필, 윤정우, 유기석, 정방영, 이석중, 김진기, 이정섭, 박구배, 이희

득, 고웅기, 이희선, 박현장, 전홍수

6단 합격자명단(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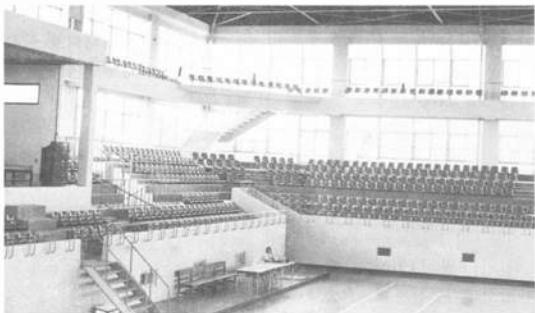
김장일, 이연, 신달승, 이백운, 강세형, 고명환, 김영국, 황용웅, 강대인, 배희동, 손명준, 양병석, 김창열, 서인원, 김원호, 류걸한, 김정철, 이춘식, 정인화, 김정렬, 설복만

서울올림픽 태권도 연습장으로 사용될 국기원 보수공사 완공으로 새롭게 단장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경기 참가국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국기원이 공사비 1억6천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쳐 새롭게 단장되었다.

보수공사로 경기장에는 1800석의 의자가 설치되었고 방송실이 마련되었으며 전기공사로 조명시설이 좋아졌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옥외화장실이 마련되었고 국기원 조경사업이 펼쳐져 아름답고 웅장한 태권도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텔레스실을 마련했고 도로포장을 실시, 진입로가

확장되었고 경비실이 증축되었다.

태권도 뉴스

'88대회 태권도 경기본부 간부임명장 수여식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88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본부 간부 임명장 수여식이 4월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올림픽

픽조직위원회 별관 2층 부위원장에서 거행되어 태권도경기본부 담당관 이상 간부 26명

이 김운용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구분	직책	성명	소속
경기부	경기부장	황준성	본회사무이사
	경기진행담당관	김봉기	본회심사분과위원장
	경기지원담당관	김영삼	본회경기분과위원장
	시상담당관	김대연	본회권검분과위원장
	심판담당관	안영택	본회심판분과위원장
	선수·임원담당관	고국환	본회상벌분과위원장
	국제연맹담당관	이규석	유도대학교수
	연습경기장담당관	이덕태	본회기회분과부위원장
	지원부장	김용희	본회사무국장
	보도담당관	이봉	본회총무부장
지원부	방송담당관	한태민	한국방송공사
	의전담당관	노우중	본회운영부장
	기술담당관	이명재	체신부

구분	직책	성명	소속
관리부	관리부장	권경옥	본회기술분과위원장
	시설담당관	임창석	서울시
	수송담당관	김명수	SLOOC
	출입안내담당관	김경지	본회선수강화분과위원장
	출입통제담당관	최동명	덕우회
의무부	의무담당관	강수용	중대응산병원
총무부	총무부장	장한중	SLOOC
	사무담당관	김원봉	교보부
	물자담당관	이효녕	SLOOC
	예산담당관	임재호	SLOOC
	후생담당관	박승진	동일여고
	상황실	상황담당관	윤진원
	안전담당관	황해은	국세청

'87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

태권도대표선수단 25명 수상의 영예안

6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정무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87국제경기대회유수선수단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전수식이 거행되어 태권도종목에서는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

태권도 수상자는 지난해 11월에 스페인에서 거행된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와 '87월드컵태권도대회 대표선수단으로 참가해 종합우승의 영

광을 차지한 공로로 거상장 7명, 백마장 8명, 기린장 1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1명, 장관표창 4명이 수상했다.

성명	소속	직위	훈격
김성태	제8회세계선수권대회	단장	체육훈장백마장
김용서	"	감독	"
유병호	"	코치	"
이재술	"	코치	"
장준식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코치	"
김영인	"	코치	"
임성욱	제8회세계선수권대회	선수	체육훈장거상장
장광모	"	"	"
할대승	"	"	"
이재형	"	"	"
장이숙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	"

성명	소속	직위	훈격
김소영	"	"	"
이은영	"	"	"
이연	"	"	체육훈장백마장
장윤철	"	"	체육훈장기린장
김지숙	"	"	체육훈장백마장
임형연	'87월드컵대회	단장	체육포장
송봉섭	"	감독	"
박수복	"	코치	"
연기호	"	선수	"
전용환	"	선수	"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

4. 2~11,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동안 국기원에서 국제심판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국기원 4단 이상으로서 각국 협회장이 추천한 131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한 이번 국제심판강습회는 태권도사, 태권도정신, 심판론, 심판규정해설, 경기운영, 경기분석 및 채점, 생체역학, 해부학, 태권도현황, 수신평범, 실기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실기 및 필기시험을 치루고 이에 합격해야만 국제심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심판강습회는 예년에 3.4일 동안에 경기규정 및 실기위주로 진행되던데 비해 올해부터는 10일간 태권도 이론은 물론 다양한 교과목으로 강의해 국제심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했다.

이번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한 131명의 수강생 중에는

외국에서 41명, 국내에서 90명이 참가했고 여자는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이 참가했다.

이번 국제심판강습회에는 수강생의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감안해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한글과 영어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했는데 태권도의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등으로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의 수강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앞으로는 동시통역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수강생들 중에는 태권도지도자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경기에 출전할 국가대표 코치인 이승국교수(한체대), 속리산 법주사의 김형택스님, 미국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채규영교수, 여순경으로 근무하는 지경순경사,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참가한 여성태권도인 TAMBERLAIN CONNELLY 양을 만나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 등

을 들어보았다.

한체대교수이며 국가대표코치인 이승국 교수는 「국가대표코치로서 먼저 태권도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을 완전히 파악해야만 지도자로서의 완벽한 전력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이승국 교수

강의중 시청각교육을 통해 경기분석 및 심판의 싸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고 하는데 국내의 심판보수교육 등에서도 전국대회 등을 비디오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태권도 수련중이나 경기시에 선수가 상해를 입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이 심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상해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과목을 설정해주길 당부했다.

속리산 법주사의 삭발한 김형택스님이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스님은 중고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한 바 있다며 태권도와와의 인연을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유도대학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원에서 체육학(3학기)을



김형택 스님

전공할 정도로 태권도와 관계가 깊다.

김형택 스승님은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 몸을 담고 있으며 학교때문에 상계동에 거처를 얻어 그곳에서 선(禪)체육관을 운영하며 태권도지도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남일리노이노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채규영교수는 「박사는 지식을 파는 것이나 태권도는 인간을 교육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태권도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자 참가했다고 밝혔다.



채규영 교수

미국에서 도장운영도 하고 있는 채규영박사는 이번 강습회 참가를 통해 알찬 강의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영어나 한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이론교육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동시통역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경기물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며 보다 합리적인 경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TAMBERLAIN CONNELLY 양은 1977년도부터 11년간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선수생활도 해왔으며 이의 연장으로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했다고 참가경위를 밝혔다.



코넬리 양

현재 카이로프라틱대학에 다니고 있는 TAMBERLAIN CONNELLY 양은 생체역학, 해부학 등의 교과목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라 어려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그밖의 여러가지를 유익하게 배웠으며 만족해 했다.

한편 국내 여자 수강생중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지경순경사는 태권도와의 인연으로 8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후 경찰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성경찰을 중심으로 한 여성태권도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우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이번 강습회에 참가했다며 의욕을 밝히기도 했다.



지경순 경사

지경순경사는 주부이며 한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여성 태권도발전 에 일익을 담당할 지 태권도인들이 주목해 볼직하다.

국제심판합격자명단

고국환	진귀윤	김영철
박정옥	박종명	권재열
김교준	황태진	김광성
최병열	전판선	남광신
정해주	김노걸	최돈오
고봉신	최상철	김원규
유옥규	서인원	이정효
이수판	오수곤	왕무창
박경호	이영기	황병재
민준원	서춘희	김용남
석영환	이덕태	김현성
고흥석	김종설	장명수
천상철	한상진	최정호
김형택	김용길	김길평
장순길	홍상원	장용갑
윤명길	박형원	문석희
이승국	서정두	최재무
김길래	조한우	김승기
이상언	김홍삼	진중의
권영훈	김정록	서정효
서영순	박호원	김희삼
이영곤	나송희	김영국
장세백	동신춘	황영갑
지경순	오정관	홍연화
이상순	박홍신	김영희
김갑식	임성섭	유병호
최충복	박수복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안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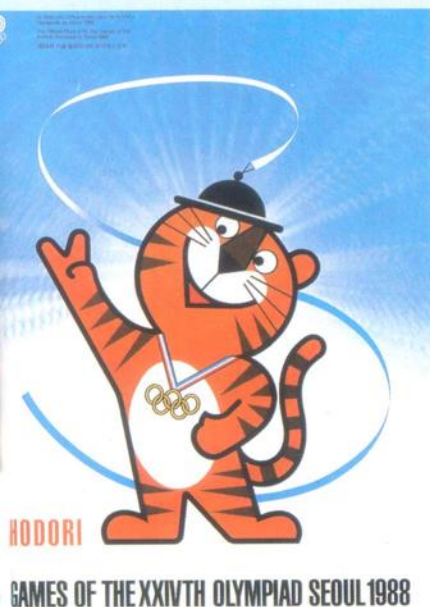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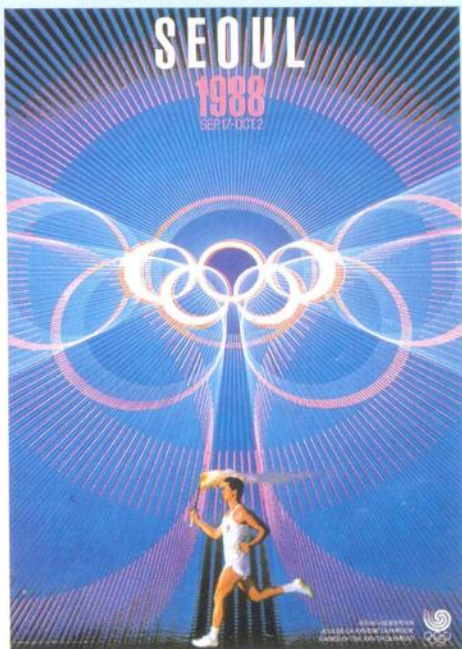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선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안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연기호선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선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게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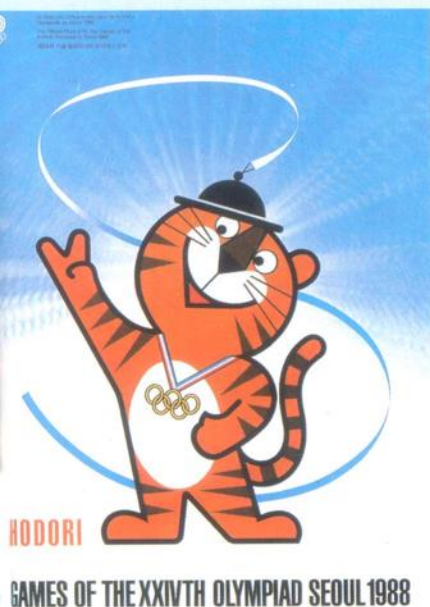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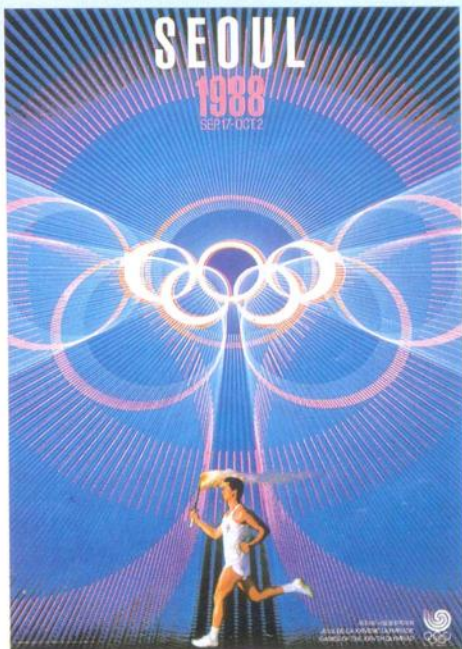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응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장과
염운규부회장과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안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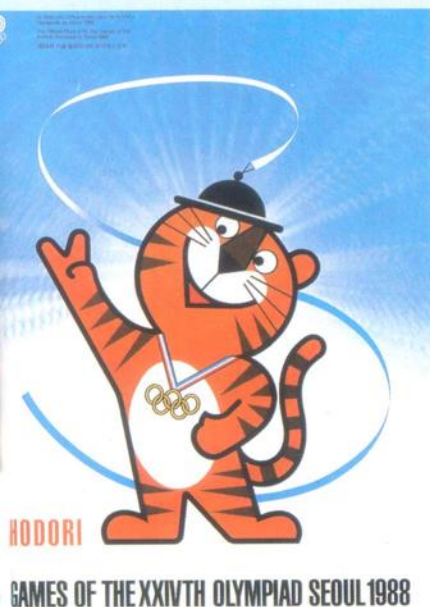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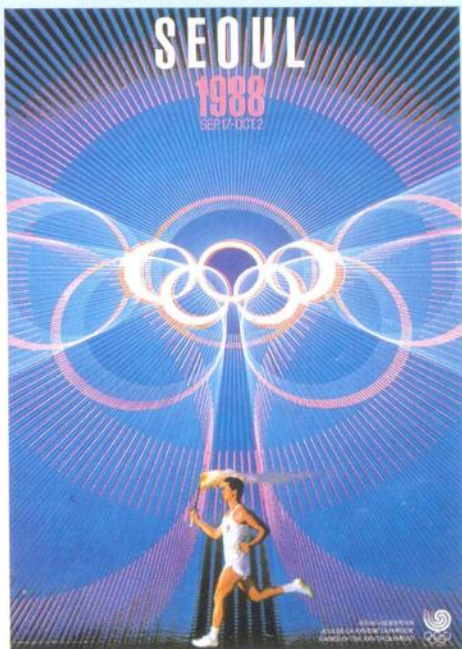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엄윤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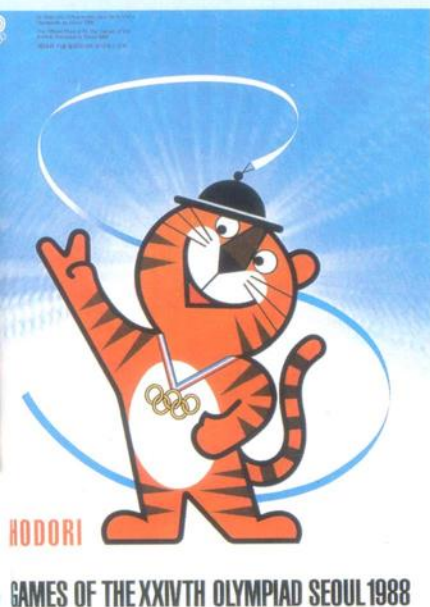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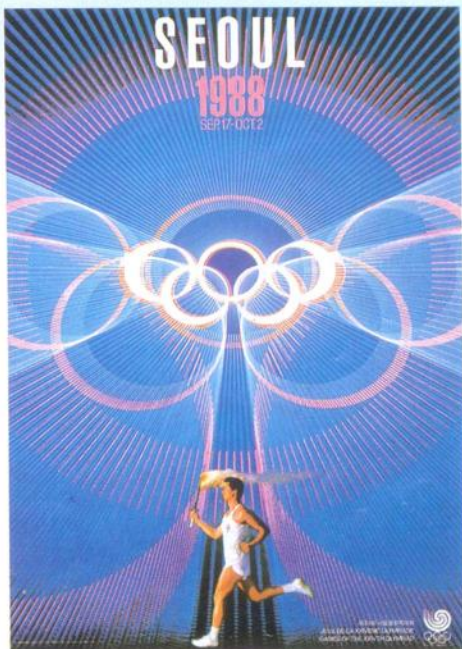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 경기종목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응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윤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교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춘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연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가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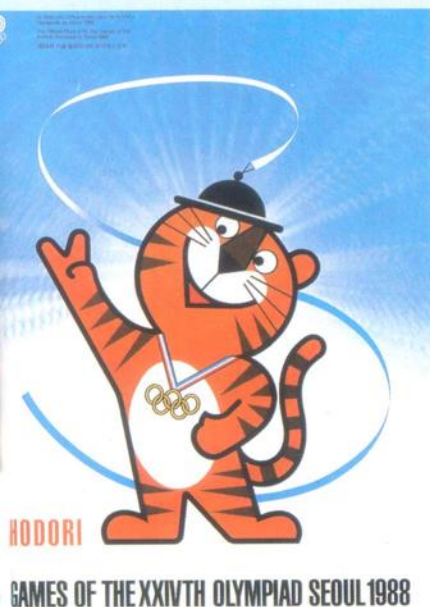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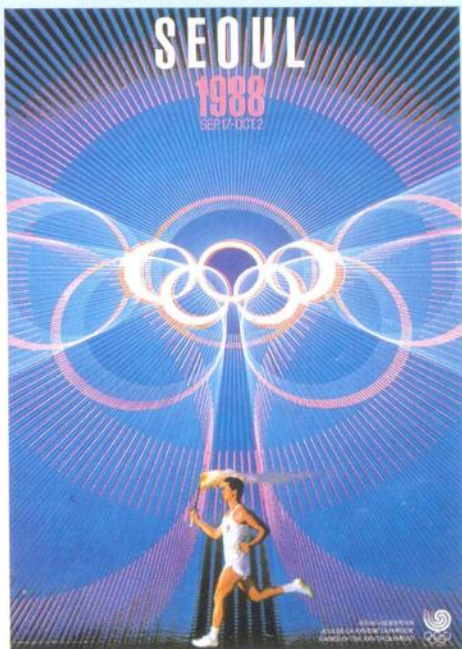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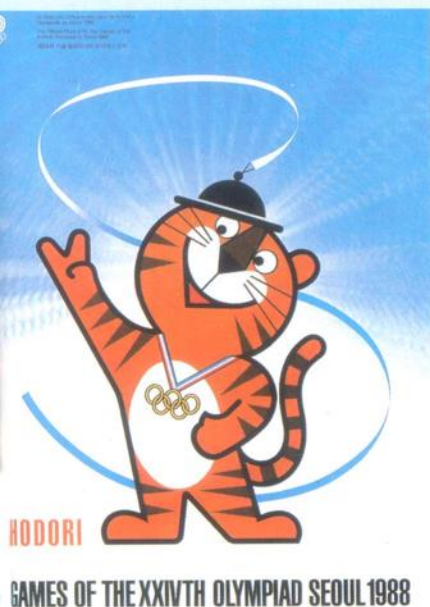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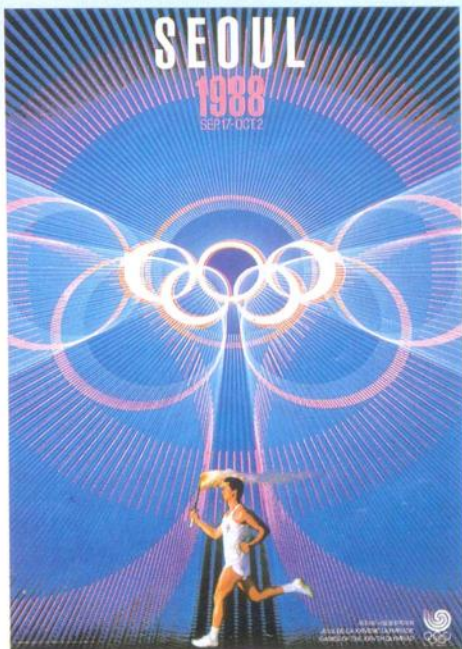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선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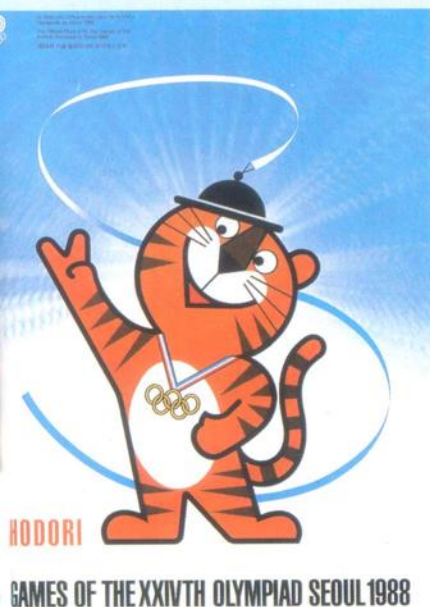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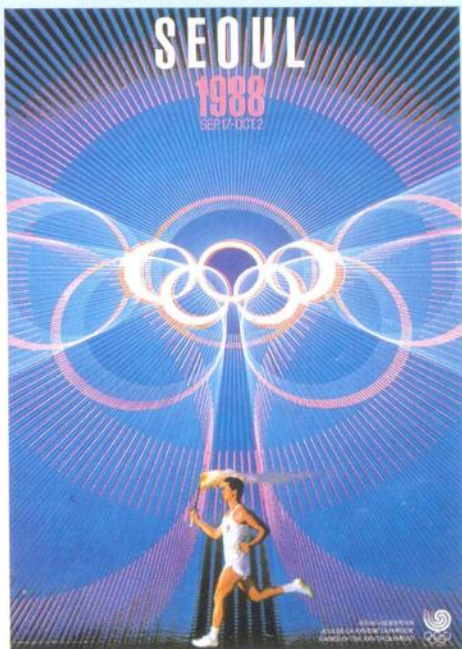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춘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안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연기호선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선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장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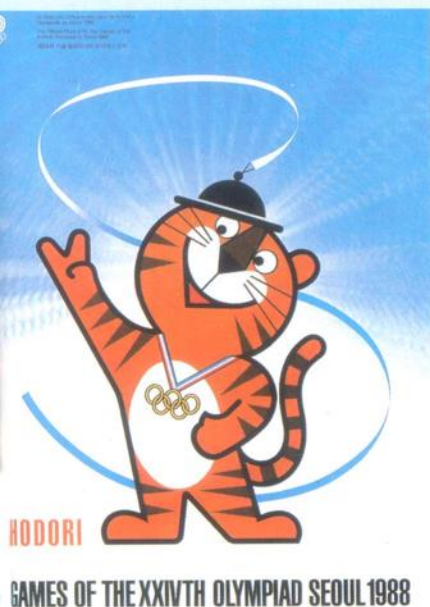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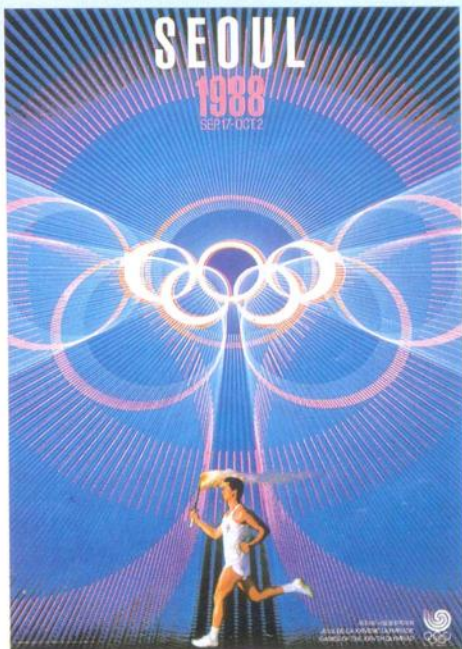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응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춘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와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고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형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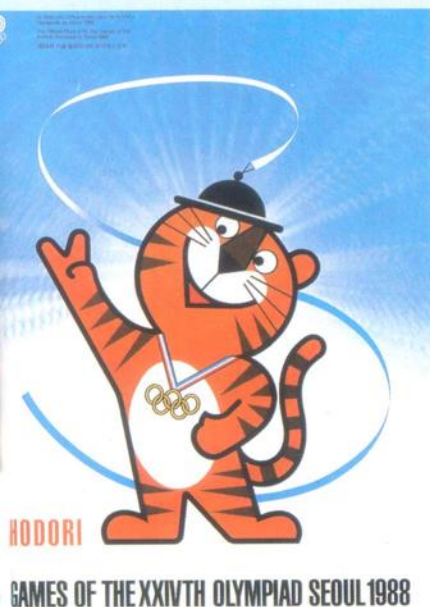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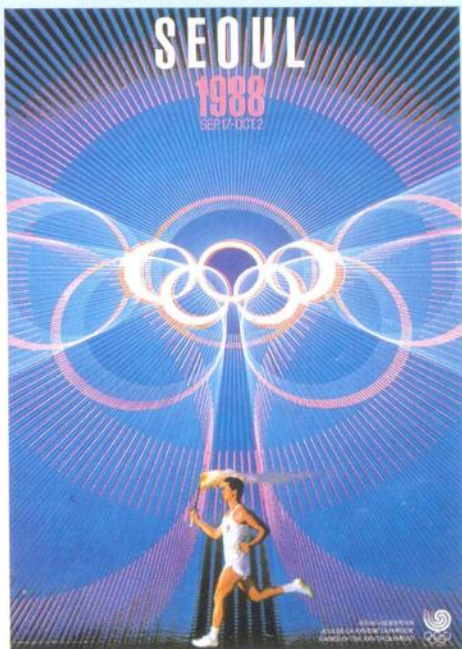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안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게 뛰어넘 기술발휘로 미가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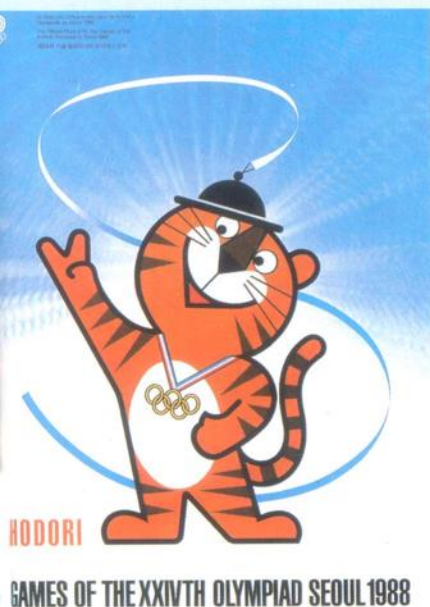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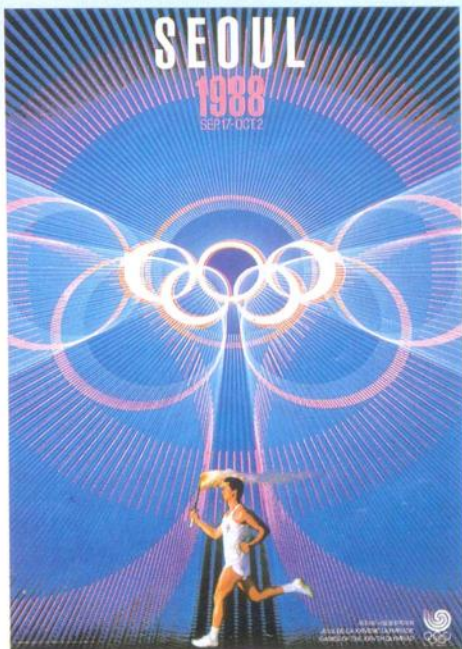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능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윤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선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열경쟁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회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 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연기호전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전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게 뛰어난 기술발휘로 미기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해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모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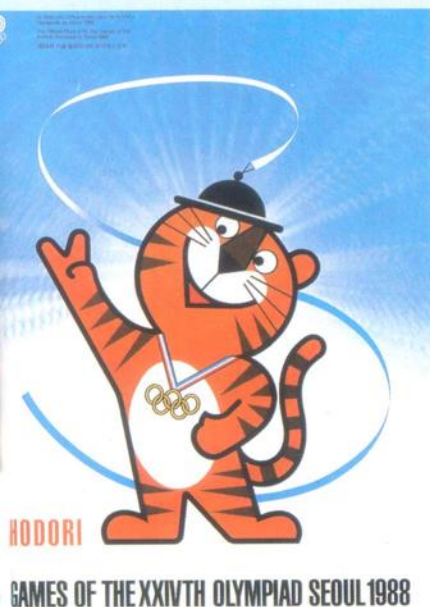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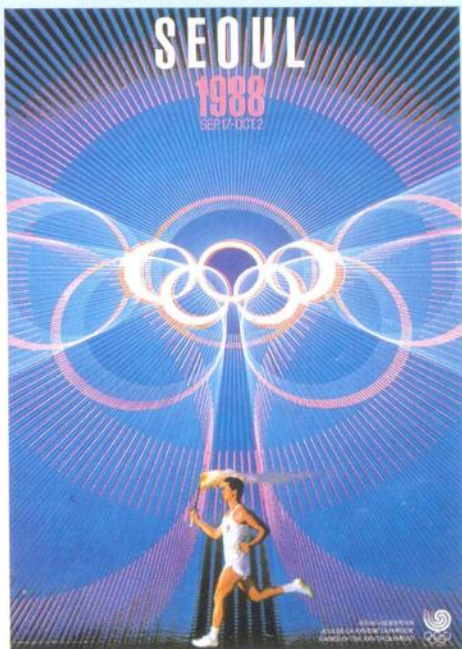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태권도 시범경기 남자 출전국 경기력을 진단한다

국가대표코치/이승국 · 김세혁

'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므로써 지구촌의 112개 WTF회원국중 출전티켓을 따낸 31개국의 128명의 남자선수들이 서울 강충체육관에서 분투할 시간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국가대표 1차 선발전과 최종선발전을 거쳐 각 체급에 2명을 선발하여 8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1개월에 1번씩 평가전을 하여 3번의 평가전을 마치고 올림픽에 출전할 대표선수 8명을 선발하였다.

'88서울 올림픽 국가대표선발평가전에서 체력면, 기술면, 정신면, 인격면을 종합하여 선발하였으며 지금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국제대회를 대비한 기술면에 치중하여 훈련하여 왔으며 각 선수들도 훈련의 강도를 잘 소화하여 코칭 스템과 일치된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코칭 스템에서는 기술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특히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서의 선수들의 생활과 일반상식(한문, 명상의시간) 및 토론을 통하여 선수들 각 개인의 심리적인 면도 꿰뚫어 보고 있다.

체력면에서는 새벽 06:00 기상해서 Cross Country (산악훈련), 힐(Hill) training, 8km road work 등 훈련을 통한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등을 기르고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유연성과 준비운동에 열을 가하고 있다.

지역별 경기력 진단

-아시아 지역-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한다.

체격과 체력조건이 거의 비슷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이지만 대만은 국제대회의 많은 경험과 국내에서의 태권도에 대한 대단한 열의와 관심으로 보아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본다. 또한 대만대표선수들은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스피드한 기술을 익혔으며 실전경험을 토대로 노련한 경기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칭 스템에 의한 태권도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였던 나라이다. 경량급의 선수들은 한국선수 수준에 있으며 스피드한 발차기 기술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다.

일본은 태권도를 받아들인 역사가 짧고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경기 기술이 숙달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며 태권도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나라이다.

-중동 및 대양주 지역-

요르단이나 이란은 체격조건이 서구인의 체격이므로 신장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자팀 대륙별 참가현황

지 역	참 가 국	인 원
아 시 아	5	17
중동 및 대양주	7	20
아 프 리 카	2	8
유 럽	12	57
칸 토	5	26
계	31	128



1987년 10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장면.

외국선수들은 활동한 신장과 체력으로 과감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국제대회를 통한 경기의 실전경험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에 임해서는 적극적인 공격 위주로 경기를 운영한다. 특히 뒷차기 기술을 주요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선수들은 대부분이 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공격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경기 기술은 없다.

-아프리카 지역-

에집트는 제3회 월드컵 국제 태권도 대회를 개

최하는 나라로서 중량급에서는 강한 나라이다.

미들급 선수는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자이며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로써 받아차는 기술이 스피드하며 실전경험이 풍부한 선수이다.

코트디부와르는 김영태사범이 태권도를 보급하여 검은 대륙의 태권도 강국으로 발돋움 한 나라이다. 태권도에 대한 열기는 국민학생에서부터 중년층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몇개월씩 합숙훈련을 통하여 전문 기술과 체력을 닦고 있다.

제7회 세계태권도 대회에서는 종합 2위라는 노력의 결실을 이루었으며 웰터급의 선수는 노련한 기술과 경기운영으로서 수준급의 선수이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경기수준이 뒤떨어지는 나라이다.

-유럽 지역-

유럽지역은 태권도 경기수준이 상위권에 있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나라가 참가하게 되는 것을 보아도 유럽지역의 태권도 보급과 경기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스페인인 차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지닌 나라다. 그들은 서울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력한 대표팀 구성을 위하여 각 체급에 2~3명의 후보선수들을 인솔하여 한 곳에서 1개월간의 전지 훈련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나라이다. 6회 세계대회 때는 중량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라이며 8회 세계대회 때는 경량급과 중량급의 기술수준이 평균화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특기할 기술은 받아차기 기술과 내려차기, 뒷차기, 주먹기술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경기운영에서도 스피드한 발차기로 이번 대회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는 나라이다.

스페인 외에도 터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도 기술 수준이 평균화 되어 있으며 터키의 선수 수준은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나라이며 공격형의 기술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량급에서 강한 선수층을 갖고 있다.

독일은 중량급 특히 미들급과 헤비급에 강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경량급에서도 플라이급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서 만만치 않은 상대로 대두될 수도 있다.

공산권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합을 뚫기 위한 참가국으로서 경기에 임할 것이 예상된다.

●팬암 지역

가장 태권도의 저변확대가 잘된 나라이며 팬암지역에서도 미국같은 나라는 한국 대표선수를 거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 2세의 자녀들이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국가대표 선발은 3~4차례의 평가전을 거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대표팀 합숙소에서 장기간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그룹이 되어 한국에 건너와 태권도 경기 기술을 배워 간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경기운영면이나 기술은 한국대표선수들과 대등하며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선수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이다. 헤비급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로서 빛차기와 돌려차기 기술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이다. 경량급에서도 상위 입상한 선수들이 많으며 이번 올림픽에도 상위 입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국가이다.

멕시코는 경량급에서 선수들이 많으며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된 나라중의 한 나라이다. 태권도의 전문기술은 대부분 선수들이 주먹치로기를 이용한 발기술로써 스피드한 동작을 지닌 감재력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나 에콰도르는 팬암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 경기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뛰어난 체력과 체격으로써 계속적인 경기기술을 익힌다면 조만간에 상위권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이 5개 지역에서 31개국이 참가하는 나라 중에서 대만, 이란, 요르단, 에집트, 코트, 디브아르,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독일,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들이 가장 한국 대표선수들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이며 경기력에서도 국제수준에 있는 나라이다.

앞으로 2개월 남은 훈련 기간중 한국대표 선수단은 각 나라 선수들의 기술을 최대한 입수하여 각 개인선수의 기술을 평가 분석하고 훈련방법도 체격보장 및 전문기술에 100% 치중하며 외국인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동중국 태권도 기술을 장충체육관에서 선보일 것이다. 그밖에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나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태권도와 유사한 가라데라는 무술의 종주국이라는 특성때문에 태권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일본 태권도의 양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게 확실하다.

경기에서 전문적인 경기 기술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받아치기 기술까지 구사하는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나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채급 선수들의 기량은 전반적으로 많은 향상을 가지고 온것이 확실하다. 특히 경량급 선수들은 태권도 경기기술의 고난위 동작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어 우수한 선수로 점차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리

이태리는 다양한 기술과 강한 체력을 가진 경험 많은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량급, 중량급의 기술의 평준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고 다양한 기술을 스피드하게 사용하는 경량급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상위권의 나라들과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시범경기 여자출전국 경기력을 진단한다

국가대표코치/김영인 · 박필순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의 대표 코치들은 한국팀의 전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로서는 국제 경기에서 국내 선수의 기술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노출되었으며,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하던 코치들이 국외로 파견되어 체계적이며 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전문 기술을 육성해 왔을 뿐더러 그들의 체격조건이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기술 육성을 위해 각종대회에 참가해 왔고 종주국으로의 전지훈련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 및 한국 선수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켜 왔다.

특히 '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하여 불태 선천적인 체격,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전술 뿐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까지 급성장하여 적극적 공격으로 우리 선수들과 대등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다.

현재 세계 여자 태권도의 상위권 판도는 아시아 지역의 한국, 자유중국과 유럽의 스페인, 터키, 미주 지역은 미국, 멕시코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스페인, 미국, 자유중국팀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부담스러운 팀들이며 '88 올림픽에

서 메달권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들이다.

제7회 세계 선수권 대회 및 제1회 세계 여자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제8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통하여 나타난 각국의 전적을 토대로 각국 여자팀의 경기력을 분석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팀 대륙별 참가현황

대	륙	참 가 국	인 원	
아	시	아	3	17
중	동	대양주	1	4
유	럽		5	24
팬	애팔		4	19
계		13	64	

●역대전적을 비교해 볼때

경량급에서는 스페인과 자유중국 선수들이 한국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로 한국, 자유중국, 스페인의 3파전이 예상되며, 중량급에서는 유럽과 미주세력이 강세이며 한국과 스페인, 미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전체급을 비교해 볼때 한국, 미국, 스페인, 자유중국 등 4개국의 치열한 접전 및 전술이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한국팀은 전체급에 다양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되어 있으나, 경량급에서 보다 중량급

에서 스페인과 미국팀을 경계하여야하며 역대 전적으로 보아 중량급이 열세인 만큼 충분한 전술 및 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역별 전력분석

그동안 국내에서 생각만 했던 장신 선수에 대한 약점이 몇번의 국제경기를 통하여 노출되었으며, 몸싸움이 강한 서구 및 미주 선수들에게 약하며 득점력 빈곤과 장신선수에 대한 공격과 수비의 한계점을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의 대비책으로 빠른 스텝과 모션을 이용한 전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의 공격력 둔화와

● 88올림픽에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국가 및 체급별 역대전적 비교

체급	국명	역대전적	비고 (금메달가능국)
플라이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자유중국
	멕시코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3위	
플라이	스페인	제1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1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1위	자유중국
	한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플라이	미국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1회 세계대회 1위	자유중국
	스페인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플라이	자유중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이탈리아	제7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1회 세계대회 1위	자유중국
플라이	스페인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자유중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미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1위	스페인
플라이	미국	제7회 세계대회 3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2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자유중국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3위	
플라이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2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자유중국
	자유중국	제1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3위	
플라이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한국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2위	스페인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플라이	캐나다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1위	한국
	미국	제7회 세계대회 2위, 제1회 세계대회 3위	스페인
	스페인	제7회 세계대회 3위	
플라이	미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1위	스페인
	한국	제7회 및 제1회 세계대회 3위	한국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한국
	독일	제7회 세계대회 2위	독일
플라이	캐나다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독일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독일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독일	제7회 세계대회 3위	독일

법실을 유도하여 확실한 득점위주의 공격을 하여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바르셀로나 세계대회 및 아시아 대회를 통하여 장신 선수들과 직접 실전경험을 통하여 전력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며, 우리 선수들이 장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스페인, 미국, 자유중국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팀들이며, 우리보다 우수한 체격과 체력을 토대로 그들 특유의 공격을 자랑하는 팀들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 할 팀들로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3개국에 대한 전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

●자유중국

한국 선수들과 유사한 유형으로 스텝과 모션에 의한 기술발차기의 공격과 받아차기의 찬스 포착을 잘하며 장신을 이용한 적극적 공격과 방어가 원활하고 정확한 발차기를 시도한다.

특히 공격적인 앞들어찍기와 뒷차기는 한국 선수를 능가하며 경기운영의 묘를 살려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단타 동작에서의 (특히 앞들어찍기와 뒷차기) 높은 득점력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끊으며, 몸싸움에 약한점과 한국선수들에게 소극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이급 선수는 제1회 세계대회, 제8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종합성적 ('87년 스페인)

번호	메달		금	은	동	나라별 메달합계	등위
	국명						
1	한국	국	3	2	1	6	1
2	대만	만	1	3	3	7	2
3	스페인	인	1	1	3	5	3
4	태국	키	1	-	1	2	5
5	네덜란드	드	1	-	1	2	5
6	미국	국	1	1	2	4	4
7	멕시코	코	-	1	1	2	6
8	독일	일	-	-	1	1	7
9	인도네시아	아	-	-	1	1	7
10	프랑스	스	-	-	1	1	7
11	캐나다	다	-	-	1	1	7
	계		8	8	16	32	

●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부) 종합성적
(’88년 네팔)

번호	메달		금	은	동	나 라 별 메달집계	순위
	국명						
1	한 국		7			7	1
2	대 만		1	5	2	8	2
3	호 주			1	4	5	3
4	네 팔				6	6	4
5	말레이시아			1	2	3	5
6	싱 가 폴			1		1	6
7	홍 콩				1	1	7
	계		8	8	15	31	

회 아시아 대회 우승자이며 연타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올림픽에서 유력한 우승후보이기도 하다.

—유럽 지역—

● 스페인

선천적인 기질과 체격, 체력을 앞세운 난타전에 강하며 특히 힘과 긴팔을 이용한 주먹공격에 자신감을 보였다.

단타공격에서 이제는 스텝을 이용한 공격과 받아차기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며 특히 경량급(핀,밴텀)은 백스텝을 이용한 받아 차기가 뛰어나며 주먹에 의한 연결 공격을 시도한다.

중량급은 장신을 이용하여 미는 동작, 컷트발 등을 자주쓰며 앞들어찍기와 돌려차기의 얼굴 공격이 인상적이다.

웰터급 선수는 제7회 및 제1회 여자 세계대회를 2연패한 선수이며 힘과 투지를 앞세운 스페인의 간판선수로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단점은 거리조정의 미숙함과 경기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주 지역—

● 미국, 멕시코, 캐나다

유럽형과 아시아형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형이다.

우수한 체격, 체력의 스텝모션에 의한 공격형이며 때에 따라 받아차기도 한다.

특히 주먹공격에 의한 발의 연결공격에서 몸통과 얼굴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발차기를 시도한다.

경기력에서 유럽선수들과 비슷한 점이 있

나 과감한 연결공격으로 경기력의 미숙함을 극복해 나간다. 발차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이며 컷트발과 앞후리기 동작을 자주 사용한다.

특히 헤비급선수는 제7회 및 제1회 여자세계대회를 2연패한 2m4cm의 거한이다. 큰 키를 이용한 컷트발 앞후리기는 일품이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이다.

●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비책

아시아 지역과의 시합에서는 확실한 포인트 위주의 경기를 이끌어 가야하며, 주먹공격에 의한 연결동작과 전술에 의한 경기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미주 지역과 유럽선수들에게는 스텝과 모션에 의한 상대선수의 동작을 일으켜 몸통과 얼굴에 다양한 공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체력안배에 신중을 기하여 한국선수 특유의 빠른 스텝과 스피드를 이용한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여, 상대선수의 공격의 맥을 끊은 다음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전술에 의한 경기를 할때 승산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팀은 핀, 페더, 라이트 3체급은 제1회 세계대회 우승에 이어 각체급이 고루 입상하였으며, 특히 제8회 아시아 대회에서 7체급석권은 고른전력과 경기력이 앞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중주국의 자부심과 홈팀의 잊음을 살려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본다.

이제 외국 선수들도 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며 국제경기를 통하여 경기운영의 기술만 익히면 우리 선수들과 비등한 경기의 결과가 올것으로 보인다.

항상 우리가 우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며 다양한 기술 동작을 구사하여 과감성 있는 공격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면 상대선수들을 제압할 수 있다.

과감성과 난이도가 높은 기술동작을 개발하여 실전에 적용시킨다면 관중은 물론 심판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며 중주국 선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올림픽에 출전할 태권도 남·여 국가대표 선수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경기에 종주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될 남녀국가대표 선수가 확정되었다.

남자 국가 대표 선수는 2월 11일과 12일에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를 통해 체급별 1·2위 자리를 선별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실시된 강화훈련에 들어가 3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이중 체급별 우수선수 1명씩을 최종 선발하여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제1차 평가전은 4월 25일, 2차 평가전은 5월 18일, 3차 평가전은 6월 22일에 있었는데 이렇게 3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국가 대표가 선발되었다.

평가기준은 3차례에 걸친 평가전 성적 뿐만 아니라 체체량, 부상여부, 합숙생활태도 등을 토대로 실시되었다.

선수들은 합숙훈련을 통한 강화훈련으로 경기력향상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체체량, 합숙시의 생활태도 등은 거의 문제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였다는 평가가 국가대표 코칭스텝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선발의 결정적인 역할은 3차에 걸친 평가전의 성적이라 할 수 있었다.

제1차 평가전과 제2차 평가전에서 핀급의 권태호선수, 플라이급의 하태경선수, 밴텀급의 조영남선수, 페더급의 장명삼선수, 라이트급의 박

봉권선수, 웰터급의 정국현선수, 미들급의 이계행선수 등은 연속 2연승을 거두며 국가대표로 거의 확정되었다. 다만 헤비급경기중 1차평가전에서 김종석선수가 김현일선수를 맞아 2:0으로 승리한데 비해 2차 평가전에서는 1회전에 김종석선수가 김현일선수를 공격하다 발등에 파상을 입어 1회전을 마치고 김종석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의 부상이라 심판은 김현일선수의 승리로 판정을 내려 1:1의 승부를 기록해 3차 평가전이 최종선발의 관건으로 남았다. 3차 평가전에서는 김종석선수의 부상이 완쾌된 듯 1회전에 김현일선수의 얼굴을 강타해 득점을 얻는 등 3회전에서도 득점을 추가하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둬으로써 올림픽에 출전할 영광을 안았다.

한편 여자 국가대표선수들은 2월 9일과 10일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된 '88년도 한국여자 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체급별 1위 자로 선발된 8명의 선수가 남자대표 1·2위자들과 함께 합숙훈련을 통해 강화훈련을 쌓아왔다. 여자선수들은 남자선수들과의 합숙훈련으로 보다 강도높은 강화훈련으로 기술을 보완하고 체력보강에 힘써 '88서울올림픽에서의 활동을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코칭스텝의 의견이다.

한국대표선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올림픽에 출전할 영광의 얼굴들은 다음과 같다.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 국가대표선수단

코치 이승국(한국체육대학교수)

(남) 김세혁(동성고교사)

코치 김영인(영신여고교사)

(여) 박필순(대한유도대학교수)

남자선수

체 급	성 명	소 속	국제대회 주요전적
핀 급	권 태 호	동 아 대	제 8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8)
플라이급	하 태 경	한 체 대	제 8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8)
밴 텀 급	지 용 석	국군체육부대	제 7 회아시아선수권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페 더 급	장 명 삼	설악케이틀카	제 5 회세계대회 1 위 (1982) 제 5·6·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2-1988) 제 1 회월드컵대회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라이트급	박 봉 권	한 국 체 대	제 7 회세계대회 1 위 (1985) 제 10 회아시아안게임 1 위 (1986) 제 2 회월드컵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웰 터 급	정 국 현	서울지하철공사	제 5·6·7·8 회세계대회 1 위 (1982-1987) 제 6·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6-1988)
미 들 급	이 계 행	조선대대학원	제 2 회월드게임 2 위 (1985) 제 10 회아시아안게임 1 위 (1986) 제 8 회세계대회 1 위 (1987)
헤 비 급	김 종 석	서울지하철공사	제 6 회아시아대회 1 위 (1984)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여자선수

체 급	성 명	소 속	국제대회 주요전적
핀 급	이 화 진	청 산 여 상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플라이급	추 난 물	청 산 여 상	
밴 텀 급	박 선 영	경 회 대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페 더 급	김 소 영	성 신 여 대	제 1 회세계여자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라이트급	이 은 영	경 회 대	제 1 회세계여자대회 1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웰 터 급	김 지 숙	경 회 대	제 7 회세계대회 1 위 (1985) 제 1 회세계여자대회 2 위 (1987) 세계대학대회 1 위 (1986)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미 들 급	김 현 회	경 회 대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헤 비 급	장 윤 정	경북태권도협회	제 1 회세계여자대회 3 위 (1987) 제 8 회아시아대회 1 위 (1988)

'88서울올림픽태권도국가대표선수단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될 얼굴들



이 승 국코치



김 세 혁코치



김 영 인코치



박 필 순코치



민규 · 권태호



플라이급 · 하태경



밴텀급 · 지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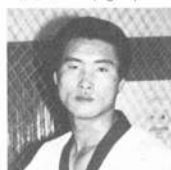
페더급 · 장명삼



라이트급 · 박봉권



웰터급 · 정국현



미들급 · 이계행



헤비급 · 김종석



민규 · 이화진



플라이급 · 추난물



밴텀급 · 박선영



페더급 · 김소영



라이트급 · 이은영



웰터급 · 김지숙



미들급 · 김현희



헤비급 · 장운정



우리는 올림픽 국민

■ 우리모두가 준비요원

올림픽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남김없이 동원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민족역량은 한 나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기본 바탕으로 가늠된다고 볼 때 국민모두 올림픽 준비요원인 것이다. 올림픽 개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식의 선진화가 아닐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이 의식의 선진화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올림픽에의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선진국민 의식의 기본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명예와 긍지를 중시하며 정직, 책임에 투철하고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 매사에 무리와 억지를 피하며 공공질서를 철저히 존중하는 생활양식 등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나의 일, 우리 집의 경사, 우리 모두의 축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정신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내가 바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세가 올림픽 개최 국민의 기본자세이다.

내 모습이 나라 얼굴이고 내 마음이 국민정신이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인을 맞아야 하겠다. 따라서 올림픽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선진외식의 정착을 위해서 범 국민적인 노력과 슬기를 집약시켜야 하겠다.



올림픽자원봉사요원 접수처에 몰려든 지원자들('85년 10월)

■ 주인의식

주인의식이란 개개인이 스스로 사회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작게는 동네일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비록 하잘것없는 역할이라도 자기 책임으로 맡아 치르겠다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자기생활에 직접적인 실익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봉사하는 자세야말로 투철한 주인의식의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이기적 자세에 대해 공분하고 나아가 이를 시정하는데 앞장서는 마음 또한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식의 발전, 정착은 바로 선진문화 사회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의식과 행동양태에 진정한 주인의식이 자리잡지 않고서는 선진문화 사회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진정한 주인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사회는 그 경제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야말로 항상 이웃과 따뜻한 인정을 나누고 공동선에의 동참을 자랑으로 여겨온 사람들이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이웃의 경사를 내일처럼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 생각해왔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하면 곱이 된다’는 인간관계의 미덕을 소중히 키워온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 겨레는 크고 작은 국난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 이를 극복해왔다. 역사의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5천년동안 찬란한 문화를 면면히 가꾸고 국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민족성 때문이었다.

제10회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보여준 번 국민적 호응은 바로 아름다운 민족 전통의 새로운 구현을 실증한 것이라 하겠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주인의식’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정착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 손님을 맞는 자세

올림픽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으레 개최국에 대한 갖가지 평가가 나오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동경올림픽’은 동양적인 섬세함과 친절함을 ‘멕시코’대회에선 아스테크 문명의 신비를 ‘민헨’대회에서는 독일인의 성실성과 과학에 바탕을 둔 정확성을 그리고 ‘몬트리올’대회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을, ‘LA’대회는 위대한 미국의 국력을 한껏 과시했다.

우리는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슬기를 마음껏 발휘하여 전통과 현대의 멋있는 조화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국민의 참모습을 보여 주어야겠다.

서울올림픽에는 전세계선수단과 대표, 임원, 국제경기연맹관계자, 보도진 등 3만여명이 한국에 모여들고 대회를 관람하러 오는 외국 관광객만도 24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우리의 자연경관, 문화재,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통수단 등의 겉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생활상, 관습, 역사 전통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보고 느끼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이미지로 결집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받아왔다. 완벽한 대회시설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인의 친절과 예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민족 고유의 인정미와 순박함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절이야말로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예의바른 한국인의 위상을 오래 심어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친절하게 예의바른 국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다. 이것은 비단 서울올림픽대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특

집Ⅱ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남자부경기

전체급석권으로 종합우승차지

이 용 환

국가대표코치
현재 광성고 태권도코치

아시아 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네팔 카투만두 다시라스 체육관 랑카스타홀에서 3월 23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중주국 한국을 비롯하여 18개국 1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아시아 태권도인의 대제전에서 한국 남자 대표선수들은 서울에서 개최된 1회대회 이후 14년만에 금메달 8개로 전체급을 석권 하는 쾌거를 올렸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단은 박 익 단장의 인솔하에 고국환 감독, 강선장 코치, 이용환 트레이너와 남,여 선수 16명 등 총 22명의 선수단이 파견되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은 국가대표 최종 선발이 확정된 후 대회 출전에 앞서 2월 10일 부터 3월 17일 까지 합숙 훈련에 들어가 강도높은 훈련으로 필승을 다짐하면서 3월 18일 우리 대표팀은 김 포공항에서 협회임원 및 태권도 관계자와 친지들의 선전을 다짐하는 전송을 받으며 네팔로 향했다.

대회에 앞서 선수들은 체중조절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간단한 워밍업으로 몸을 풀었으며 저녁에는 선수단과의 미팅을 통하여 시합전까지의 일정 및 훈련계획을 상의했다. 아울러 훈련상태 분석과 정신자세 확립에 주력 하였으며 특히 같은 호텔내에는 자유중국, 호주, 요르단, 카타르 선수단이 묵고 있어 외국선수단에 대한 선수 및 임원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중주국 선수다운 매너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하였다. 대회 전 날 22일에는 아시아 연맹 총회와 대표자 회의가 실시되어 늦게까지 진행되어 저녁 10시가 지나서야 끝날 수가 있었다. 숙소에서 가진 미팅에서는 경기일정과 체중 확인,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중주국선수답게 경기력 및 행동에 모범을 보여줄 것과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하였다.

경기일정을 보면 23일에는 남자 편급과 밴텀급, 24일에는 페더급, 웰터급, 라이트급, 25일 마



우승기와 우승컵을 안은 한국대표팀

지막날은 플라이급, 헤비급, 미들급 경기가 진행되었다.

3월 23일 대회 첫날은 8시 30분에 시작된 입장식에 이어 9시 30분부터 게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핀급에 권태호선수, 뱀팁급에 조영남 선수가 출전하여 대회첫날 두개의 금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핀급의 권태호선수는 예선 첫게임에서 7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는 강호 필리핀의 ARNOLBARAD 선수와 대전을 치루었는데 우세한 신장과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 득점으로 승리하는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였다. 한편 3차전에서는 7회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자유종국의 CHANG RONS 선수를 맞이하여 사실상 결승전 게임을 치루었는데 1회에 받아차기로 득점을 빼냈고 2회전에는 열세를 보였으며 3회전에서 우세를 지켜 점진끝에 승리를 안았다. 준결승전에서는 호주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승리, 결승에 진출하였는데 네팔의 BHI DAN BAMA 선수가 요르단 선수와의 준결승전 경기의 부상으로 기권하여 강창모선수는 한국에 첫번째 금메달

을 안겨주었다.

또한 조영남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진출하여 일본의 HIROKATUSAITO 선수를 맞이하여 몸통 공격과 얼굴득점으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승리했다. 준결승전에서는 필리핀의 STEDHEN FERNADE 선수를 월등한 기량 차이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자유종국의 CHANG HSIAO YONG 선수를 맞이하여 금메달을 놓고 격전을 벌였으나 힘과 장신을 바탕으로 한 우세한 경기로 판정으로 물리쳐 국제 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대망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으며 한국팀에 2번째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대회 둘째날인 3월 24일 경기에는 페더급에 장명삼선수, 웰터급에 정국현선수, 라이트급에 박봉권선수가 출전하였다. 장명삼선수는 23일 대회 첫날부터 컨디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감기 몸살 등 최악의 컨디션으로 게임에 임하였다. 1회전에서 호주 선수와의 커다란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과 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2차예선전에서는 이라크 선수를 다양

한 기술로 일방적인 경기를 벌여 판정승,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이경기에서 요르단의 SO-MIRJOBBER 선수를 맞이하여 게임 시작 1회 1분 40초 만에 원발 얼굴돌려차기로 강타 K.O승을 거두어 관중들과 각국 선수들로 부터 환호를 받았다. 페더급출전선수중 가장 강력한 라이벌 상대인 자유중국의 TZAN SHINSONG선수는 예선 1차전에서 부란 선수를 K.O로 이겼고 2차전에서 인도 선수를 일방적으로 누르고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준결승전에서는 홍콩선수를 우세한 신장과 경기 운영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대망의 우승을 놓고 장명삼 선수와 일전을 치르게 되었다. 자유중국의 거센 도전을 말해주듯 결승전 게임은 시종 신중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많은 국제 대회 참가의 축적된 경험으로 장명삼 선수가 우세로 승리하여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웰터급의 정국현 선수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여 필리핀 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호주 선수를 노련한 경기 운영과 다양한 동작으로 판정승을 거둔뒤 준결승에 진출, 일본 선수를 맞이하여 K.O승을 의식하여 득점위주의 공격을 시도 하였으나 판정승에 그쳤다. 결승전 경기에서는 자유 중국의 WU TSUNG CHE선수가 준결승 경기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기권 함으로써 한국팀은 4개의 금메달로 종합우승을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라이트급의 박봉근 선수는 현지에서 컨디션이 좋지않아 걱정을 했으나 1차전에서 일본 선수를 쉽게 판정승으로 누르고 말레이시아 선수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다양한 기술과 공격력으로 일방적인 승리를 하여 준결승전에 진출, 호주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순발력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로 판정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올랐다.

역시 결승전에 오른 자유중국의 CHEN YI HSIUNG선수는 박봉근 선수와 격돌, 서로 공격적인 동작과 자세로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 받는 일전을 벌였으나 경기 경험 부족으로 박 선수에게 3회 10초만에 회측으로 K.O패 함으로써 태권도 중주국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박봉근 선수의 우승으로 한국팀의 사기는 고조되었으나 자

(중 합 전 적)

(남자부)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 국	8		
2	대 만		4	
3	요르단		1	4
4	호 주			2
5	필리핀			3
5	카타르			2

유중국 선수단은 사기가 크게 떨어진 느낌이었나.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는 플라이급에 하태정선수, 헤비급에 김종석선수, 미들급에 정용석 선수가 출전하여 대망의 전체급 석권을 기대하며 선전을 다짐 하였다.

하태정 선수는 1차전 경기에서 긴 신장을 이용하여 몸통 얼굴공격 등 효과적인 공격으로 2차전에 진출, 이란 선수와의 게임에서는 첫게임과는 달리 게임이 안풀려 어려운 경기 운영으로 우세로 겨우 판정승을 거두어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하태정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IROQ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로 압도하며 득점을 내는등 선전했으나 2·3회전에서는 상대선수가 게임의 열세를 만회 하려는듯 거센 반격으로 나와 어렵게 득점을 지켜 판정승으로 승리함으로써 힘들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는 카타르, 자유중국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요르단의 JASAN 선수를 맞이하여 예선과 준결승 경기에서 보여준 고전에서 벗어나 시종 화이팅 넉친공격과 다양한 기술로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뒤이어 벌어진 헤비급 경기에서 김종석 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랐는데 2미터가 넘는 장신에다 힘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호주의 VIC-BATEMAR 선수를 맞아 체력이 딸려 다소 고전하였으나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기술로 커버하며 승리하였으나 2차전에서는 오른발등과

원발가락에 커다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자유중국의 SHIEH RONGTZORG 선수와의 대전은 코치진의 기권권유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팀 닥터의 응급 처치와 진통제 복용으로 게임에 임해 선전하여 한쪽발로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원발 얼굴 돌려차기로 득점을 얻으며 판정승함으로써 자유중국팀의 유일한 금메달 유망주를 탈락시켰다.

이어 홍콩의 CHONG PUCHIR 선수와의 결승전은 두발의 부상에도 뛰어난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해 원발로 얼굴 득점을 올리는 등 기술을 앞세운 공격으로 판정승, 감격적인 승리를 안았는데 이는 불굴의 투지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라고 본다.

이어서 한국 남자 선수단의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는 미들급에 출전한 정용석 선수는 1차예선에서 이란 선수를 맞아 1회 40초만에 원발 뒤후리기로 K.O로 승리하며 2차전에 진출해 네팔 선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며 승리, 준결승전에서 필리핀 선수를 다양한 공격과 우세한 동작으로 제압하였다. 정용석 선수는 카타르 선수와 자유중국 선수를 이기고 올라운 이라크의 HAIDER YOOSIF 선수가 시종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정용석 선수가 일방적인 공격으로 판정승,

한국팀에 마지막 금메달을 추가하여 한국팀은 대망의 전체급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대회를 마치고 거행된 시상식에서는 한국이 1위 대만이 2위 요르단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국은 대망의 전체급을 석권 하였으며 태권도를 통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경기력 뿐만 아니라 중주국 선수다운 행동과 자세를 보여 주었다고 본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종 세계대회 및 국제대회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특히, 자유중국 선수들의 기량은 우리 대표팀에겐 가장 거센 도전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압적이었다. 또한 필리핀과 일본 대표 선수들의 장신화를 대비해야하며 일본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 다른팀들도 한국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추격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은 외국 선수의 장신화와 기술 개발을 대비해 단일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지도 방법과 외국팀의 정보 파악 등에 주력할 것은 물론국제대회에는 반드시 비디오 촬영으로 외국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상자명단

체급	등위	성명	국명
권	1	권태호	한국
	2	Bidhan Lama	네팔
	3	Paul Lyons	호주
	3	Firas Rafiq Al-Jayousi	요르단
플라이	1	하태경	한국
	2	Ihsan S.Abu Shakaha	요르단
	3	Hwang Yao Han	대만
	3	Miguel ventosa	필리핀
밴텀	1	조영남	한국
	2	Chuang Hsiao Yong	대만
	3	Stephen Fernandez	필리핀
	3	Elorahim R. Qhiab	카타르
페더	1	장명상	한국
	2	Tzan Shih Song	대만
	3	Yeung Yin g Kwan	홍콩
	3	Samir Jaber	요르단

체급	등위	성명	국명
라이트	1	박봉권	한국
	2	Chen Yi Hs	대만
	3	Hussein Ibrahim Simrin	요르단
	3	Jinho Jo	호주
웰터	1	정국현	한국
	2	Wu Tsung Che	대만
	3	Hirokazu Shiokawa	일본
	3	Abedin Arab Bادهgh Abadi	이란
미들	1	정용석	한국
	2	Haider Yoosif	이라크
	3	Joalberto Pamintuan	필리핀
	3	Liu Chien Chung	대만
헤비	1	김종석	한국
	2	Chong Fu Chik	홍콩
	3	Shieh Rong Tzong	대만
	3	Almas Mohame	카타르

특

집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여자부경기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동안 18개국에서 총1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네발의 수도 카투만두 국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3일 오전 8시30분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경기에 들어갔으며 여자부 첫날 경기에서는 밴텀급, 페더급, 웰터급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펼쳐져 한국은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화려한 첫날을 장식했다.

밴텀급에 출전한 박선영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Torng Ya Lin선수를 맞아 득점없이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호주의 Carmela Hartnett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경기에서 김지숙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강호 Mira Thapa 선수를 맞아 상당히 고전했는데 3회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며 간신히 승리로 이끌고 결승전에 진출, 말레이시아의 Joyce Ong Bee Eng선수를 누르고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페더급의 김소영선수는 결승전에서 대만의 Chen Yiuan Feng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대만선수는 신장면에서 김소영선수보다 7cm나 컸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상당공격이 위력적이어서 1회전에 김선수가 1점을 먼저 빼앗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소영선수는 많은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기를 펼쳐나가다 기회를 포착, 2회전에 뒷차기로 1점을 얻었다. 3회전에서도 김선수가 공격의 우세로 세번째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4일 대회 이틀째 날에는 플라이급·라이트급·헤비급 경기가 펼쳐졌다.

플라이급에 출전한 추남윤선수는 1차예선전에서 기량과 화이팅이 좋은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를 맞아 선전했으나 아깝게 판정패를 당했다. 대만선수는 종주국선수를 1차예선에서 이기



한국여자대표코치
김 영 수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화진선수가 감격스러운듯...

고 올라가자 심리적 안정감을 찾은듯 승리를 거듭하며 결승전에 올라가 싱가포르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라이트급에서 이은영선수는 말레이시아, 네판, 호주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신장이 좋은 대만의 Chen Jiun Feng 선수를 맞아 신장의 열세로 공격이 차단당하는 가운데 1,2회전에서 우세판정을 빼앗기는 고전 끝에 3회에 코치주문대로 앞차기에 의한 뒷차기를 시도, 앞차기는 약했으나 뒷차기는 정확한 몸통공격으로 득점을 얻으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헤비급에서 장운정선수는 1차예선에서 네판의 Manju Tuladhar 선수를 일방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고 결승에서 대만의 Lee Show Lan 선수를 물리쳐 승리를 거두었다.

25일의 마지막날 경기는 핀급과 미들급 경기가 치루어졌다. 핀급의 이화진선수는 국제경기 경험이 전혀없는데다 신장면에서 타국에 비해 열세했기 때문에 코칭스텝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화진선수는 1,2차예선을 가볍게 승리로 이끌며 결승에 진출, 대만의 Chin Yu Fang 선수를 맞아 계속해 내려찍기를 성공시키



밴텀급에 출전한 박선영선수는 한국에 첫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며 득점을 올리는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승리했다.

여차 마지막경기인 미들급경기에서 김현희선수는 2차 예선전에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에게 신장과 체력의 열세로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코칭스텝을 초긴장시킨 가운데 겨우 우세승을 거두었다. 예선전을 힘겹게 마친 김현희선수는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결승전에

●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대만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ü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판정패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력을 분석하여 차기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올라가 대만의 강호 Wang Chih Yu 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과 화이팅 넘친 공격력을 바탕으로 관중을 매료시키는 가운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여자대표는 플라이급을 제외한 7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외국선수들이 신장과 체력을 앞세운 과감한 공격을 펼쳐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외국여자선수로는 대만의 페더급 2위를 차지한 Chen Yüan Feng 선수와 플라이급 우승을 차지한 대만의 Pai Yun Yiao 선수, 미들급 경기중 예선에서 김현희 선수에게 판정패당하기는 했으나 체력이 강하고 기술이 다양한 호주의 Denis Angela Parmley 선수 등으로 앞으로 이들 선수들에 대한 정보 및 경기력을 분석하여 차기 국제대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선수들이 보강해야 할 점으로는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위주의 단타보다는 관중과 심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크고 강하게 연결되는 공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종합전적

- 1위 한국(금7)
- 2위 대만(금1은5동2)
- 3위 호주(은1 동4)
- 4위 네판(동6)
- 5위 말레이시아(은1 동2)
- 6위 싱가포르(은1)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국 명
핀 급	1	이화진	한 국
	2	Chin Yu Fang	대 만
	3	Bronwyn Butterworth	호 주
	3	Shima Khadaga	네 판
플라이급	1	Pai Yun Yiao	대 만
	2	Wong Liang Meng	싱 가 폴
	3	Cheryl Smith	호 주
	3	Shita Rai	네 판
밴 텀 급	1	박선영	한 국
	2	Carmela Hartnett	호 주
	3	Torng Ya Lin	대 만
	3	Chai Saew Yuen	말레이시아
페 더 급	1	김소영	한 국
	2	Chen Yüan Feng	대 만
	3	Cheng Ma Ling	홍 콩
	3	Panny Glowacki	호 주
라이트급	1	이 은영	한 국
	2	Chen Jiun Feng	대 만
	3	Angela Gaye Coulson	호 주
	3	Rita Shrestha	네 판
웰 터 급	1	김 지숙	한 국
	2	Joyce Ong Bee Eng	말레이시아
	3	Mira Thapa	네 판
	3	Tang Huey Ting	대 만
미 들 급	1	김 현희	한 국
	2	Wang Chih Yu	대 만
	3	Laxmi Gurung	네 판
	3	Lau Choo Boon	말레이시아
헤 비 급	1	장 윤정	한 국
	2	Lee Show Lan	대 만
	3	Manju Tuladhar	네 판

특

집Ⅱ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남자부는 지난 7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에서 전체급을 석권한 이래 15년만에 8체급을 모두 휩쓸며 8연패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7개체급을 석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88서울올림픽 태권도시범경기의 청신호

▲사회: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앞두고 남·여대표선수들이 아시아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남자부는 지난 7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전체급을 석권한 이래 15년만에 8체급을 모두 휩쓸며 8연패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호주에서 개최된 제7회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우승한 이래 7체급을 석권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88서울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 청신호가 되리라 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까지 특히 단장께서 노고가 크셨을텐데 대회에 앞서 각오는

어떠했으며 이번 대회는 전체적인 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서울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중요성 커...

▲박익단장: 본 대회는 '88 서울올림픽의 전초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

회를 어떻게 치루느냐에 따라 남녀대표선수단이 앞으로 어떠한 마음자세로 '88대회를 맞게 되느냐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은 어느 국제대회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앞서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또 선수들에게는 각국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는 자세로 경기를 관전하고 경기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18개국에서 154명이 출전한 가운데 여자부 1체급을 제외한 전체급 우승으로 중주국 태권도 경기의 우수성을 발휘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수 모두가 중주국 대표로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중주국의 국위선양은 물론 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대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감독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따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각국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체급 메달석권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고국환감독: 이번 대회는 각국이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국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한국이 전체급 메달을 석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메달획득보다는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각각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사회: 이번 대회의 결과가 '88서울올림픽 출전을 앞둔 대표선수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보입니까?



선수들 모두 사기가 높아 이러한 분위기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면 올림픽에서의 전체급 석권도 가능하리라 낙관

▲강선장코치: 본대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이지만 아시아대회와 세계대회의 기량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선수들이 기량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대회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구나 남자부의 경우 전체급 석권이 14년만에 있는 일이라 선수들 모두 사기가 높아 이러한 분위기로 강화훈련에 돌입한다면 올림픽에서의 전체급 석권도 가능하리라 낙관합니다.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강하고 큰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공격법을 연구해야.

▲김영수코치: 여자부경기에서는 핀급과 헤비급외에는 외국선수들이 신장과 체력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신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안전위주의 단타보다는 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하고 큰 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공격법을 하루속히 연구해야만 앞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될 상대국은 어느 나

라입니까?



대만은 남녀 3체급이
결승에 진출, 한국의
강력한 적수로 부상

▲이용환코치 : 이번 대회에서 대만은 남녀 각각 3체급서 모두 결승에 진출, 한국의 강력한 적수로 부상했습니다. 대만선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대만선수 뿐만 아니라
호주와 필리핀선수도
앞으로 주시해야

▲김경주코치 : 여자부에서도 대만이 강력하게 중추국을 추격해와 가장 힘들게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필리핀선수도 앞으로 주시해야 되리라 봅니다.

▲사회 : 대만의 태권도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 코치가 계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강선장코치 : 25년전에 태권도가 처음 보급된 이래 최근에는 태권도가 아시아게임의 유력한 메달종목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만국가대표팀 여자부코치로 참가한 한국인 사범 한유근씨에 의하면 대만의 태권도 인구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이전부터 지금까지 2~3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해 4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공과의 스포츠 경쟁에서 유일한 우월종목으로 태권도를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아성을 깨칠날도 멀지 않았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사회 : 대만은 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남자 3체급, 여자 4체급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대만선수들에 대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용환코치 : 대만선수들은 신장위주로 선발되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 신장면에서 우세합니다. 신장과 체력을 앞세운 과감한 공격에 대비하고 장신에 대비한 상단공격의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국 선수단에서는 비디오로 경기를 찍어가 각국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이기기위한 전략, 전술 또는 작전을 수립하는데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라」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자에 대한 정보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이 아직 우리나라선수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선수층이 얇고 경기경험면에서 우리나라선수들보다 적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 : 내팔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경기운영면은 어떠했습니까?

▲고국환감독 : 대회 운영면에서는 우리나라 도장에서 친선경기를 하는 정도였을 정도로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각국의 선수들 기량은 높이 향상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회 : 내팔국민들의 대회 호응도나 관전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강선장코치 : 태권도경기에 앞서 국립경기장에서 90여명의 관중이 압사하는 대형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최측에서는 입장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해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또한 경기장의 통로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신원이 확인되어야만 경기장을 출입시켰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장에는 관중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 경기마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 내팔국민에게 태권도가 열

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관한 여러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녀 선수여러분들의 경기내용과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점, 각국의 경기력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비급에 출전한 김종석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하며 남자부가 전체급을 석권하는 영광을 갖도록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상을 당했습니까?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한 김종석선수

▲김종석선수: 1차예선전인 첫 시합에서 2m4cm의 호주선수를 맞아 우선 신장의 열세 때문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국내경기에서는 적보다 큰 선수와 대전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약간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회전을 우세로 이끈 뒤 2회전에 득점을 올리고 원발 발가락 골절상을 입어 3회전에 무척 고전했습니다.

▲사회: 계속 경기가 있어 부상 때문에 고전하였을텐데 어떻게 승리를 하였습니까?

▲김종석선수: 두번째 경기는 대만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테이핑한 후 시합에 들어갔는데 두차례나 코트에 쓰러지는 고전이었으나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경기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 무척 와일드하게 상대방 선수를 몰아붙였던 모양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발가락이 찢어진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회: 그야말로 눈물겨운 승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선수는 지난 제6회아시

아선수권대회에서 필리핀선수를 K.O로 누르고 우승한 이래 지난 수년간 계속 슬럼프 기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올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로 선발되는 등 재기전에 성공해 이번 대회의 감회는 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기전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종석선수: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서울지하철공사에 입단하면서부터 정신적 안정감과 함께 쟁쟁한 전력을 자랑하는 동료들과의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 같은 서울지하철공사팀의 정국현선수는 국제대회에서 꽤 쉽게 메달을 따낸다 싶은 정도인데 운이라고 보십니까 실력이라고 보십니까?



국제대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외국선수들의 공격의 흐름을 잡기 힘들고 신장이 우세해 힘들어

▲정국현선수: 대전운이 좋아 무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결승전에서는 대만의 우종제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가면 상대방 선수들이 저의 세계대회전적을 알고는 우선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는데다가 외국선수들의 공격의 흐름을 잡기가 힘들고 신장이 우세해 우리나라선수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대회는 아무리 여러번 치루어도 늘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국제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내대회에서 인정되는 특징이 국제대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경험 있는 선수들은 국내시합 스타일과 국제시합 스타일이 다르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내시합에서부터 크고 강하며 난이도 높은 기술구사로 국제대회스타일로 경기운영해야

▲장명삼선수 :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대회에서는 몸통공격이 성공하면 득점으로 인정하나 국제대회에서는 정확한 공격이라도 동작이 크고 소리가 크게 나서 강타라는 인상이 가아지만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국내시합에서부터 크고 강하며 난이도 높은 기술구사로 국제대회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회 : 장명삼선수는 국제대회의 경험이 많은 편이지요.

▲장명삼선수 : 아시아선수권대회 3차례,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각각 1회 등 모두 6번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땀습니다.

▲사회 : 결승에서 대만의 장스승선수에게 판정으로 이겼다고 했는데 출전선수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까?

▲장명삼선수 : 전히... 이란, 이라크 선수가 잘한다는 얘지만 들었을 뿐이었는데 예상보다 못하는 것 같았고 대만과 요르단이 기대이상으로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 박봉권선수는 결승에서 통쾌한 K.O 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박봉권선수 : 결승전에서 대만선수를 맞아 오른팔 후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시합전에 대만선수의 경기모습을 지켜보았더니 매우 기량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승에서 대만선수를 만나서는 큰 동작보다는 작은 동작으로 수비하다가 찬스를 포착했던 것이 승리



결승에서 큰 동작보다는 작은 동작으로 수비하다가 찬스를 포착했던 것이 승리 안겨줘

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회 : 가장 힘든 상대를 가장 통쾌하게 이긴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남선수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호 대만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우승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손이 높이 올라가자 기뻐하실 아버지의 얼굴 떠올라

▲조영남선수 : 대만선수를 맞아 결승전에 돌입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판정승을 거두고 손이 높이 올라가자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회 : 권태호선수는 고등학교생으로 유일하게 출전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관중은 별로 없었으나 네팔국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들어

▲권태호선수 : 결승에서 홈팀인 네팔의 선수

를 맞아 그곳 관중들의 응원이 대단하리라 생각했는데 기권승을 거두었습니다. 관중은 별로 없었으나 네팔국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팔인들에게는 스포츠 중에는 축구 다음으로 태권도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강산장코치: 국민소득 200불정도밖에 되지 않는 네팔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태권도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인기 스포츠라는 점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 미들급의 정용석선수는 이라크선수와 결승전을 치루었는데 이라크선수의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승전에서 붙은 이라크선수의 기술은 수준급

▲정용석선수: 이라크선수의 기술은 수준급이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한국선수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국현선수: 정용석선수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방적인 공격으로 몰아붙여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라크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한 것 만으로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회: 하태경선수도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누가 제일 기뻐하리라 생각했습니까?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의 영광차지

▲하태경선수: 우선 제 자신이 제일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용형트레이너: 하태경선수는 특히 1차예선에서 이라크선수를 맞아 회측, 뒷차기등 멋진 기술을 발휘하였고 결승전에서도 3:0으로 월등한 실력을 발휘하며 판정승을 거두는등 선전했습니다.

▲사회: 이제 여자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경기는 플라이급 외에 7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우승자보다도 패자에게 그 패인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데 추남룡선수는 그 패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올림픽에서는 이번대회를 거울삼아 설욕전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남룡선수: 예선전에서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대만의 패윤유선수를 맞아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해 떨어진데다가 첫시합에서 강자를 만나니까 당황하여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추남룡선수는 이번의 출전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올림픽대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의 작오는 어떻습니까?

▲추남룡선수: 저보다 훨씬 기량이 뛰어난 선배인들이 많아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 졌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설욕전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박선영선수는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래 이번 대회에서

는 금메달을 획득 하는 영광을 안았는데 그때의
초감을 들려주시지요.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애국자가 된 듯한
가슴 뭉클함 느낄 수 있어

▲박선영선수: 태극기가 오르고 애국가가 울
려퍼지자 애국자가 된 듯한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김소영선수는 경기할 때 탱크처럼
떨어붙인다는 의미에서 「탱크」라는 별명을 들
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국내에서처럼 떨어
붙었습니까?



상대가 키가 커서 선불리
들어가다가는 얼굴공격
당하기 쉬워...

▲김소영선수: 외국선수들은 대부분 신장면
에서 우월하고 체력이 좋은 편입니다. 결승에서
만난 대만선수의 경우도 신장이 좋아 앞발로 밀
어주고 뒷차기를 많이 구사했습니다. 상대가 키
가 커서 선불리 들어가다가는 얼굴공격을 당하
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다 기
회를 포착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사회: 김지숙선수는 7회아시아선수권 대회
와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대전을 펼친
바 있는 대만 선수와 이번에도 경기를 펼쳤다고
하는데 그 선수와의 승부는 어땠습니까?

▲김지숙선수: 첫개입을 치른 대만선수가 제



숙적 대만선수와의 대전에서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리한
아울림픽대회에서는 자신감
갖고 겨룰터

7회아시아선수권대회 때 저를 이긴 바 있고 지
난해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겨우 우세승으
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1,2회전에는 몸
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긴장해 공격다운 공
격을 펼치지 못하다가 3회에 「자신감을 갖고 경
기에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김경주트레이너: 김지숙선수는 3회전에 무
려 3득점이나 얻는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
다. 김지숙선수가 올림픽에서 다시 그 선수와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자신있게 경기를 펼치리
라 봅니다.

▲사회: 이은영선수는 국제대회에 여러번 참
가한 경험이 많은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가장 신
경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최선

▲이은영선수: 저같은 경우는 국제대회에 출
전해 부상을 당한 경우가 많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신경쓰입니다.

▲사회: 이화진선수는 여자선수들 중에 제일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강선장코치: 저는 이화진선수가 국제대회
에서 그렇게 잘싸우리라 생각지 못했는데 대회
에 임한 이화진선수는 국내대회보다 국제대회

에서 더 잘 싸우는 스타일 같았습니다.

▲남자선수들: 이화진선수는 조그마한 체구에 재일 큰 기함으로 상대를 압도해 관중들로부터 많은 격려박수를 받았을 뿐더러 좋은 기술을 발휘해 재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회: 이화진선수, 결승전에서 대만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주효했습니까?



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 받아

▲이화진선수: 1,2회전에서 계속 내려찍기가 유효했습니다.

▲사회: 김현희 선수도 결승전에서 대만선수와 대전을 펼쳤는데 신장과 체력면에서 비교를 한다면...



전무님의 특별한 최면술(?)로 자신의 기량을 십분 발휘

▲김현희선수: 다른 체급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신장이나 체력면에서 열세였는데 미들급에 출전한 대만선수는 저와 모든 면이 비슷했습니다.

▲강선장코치: 김현희선수는 결승전에 앞서 예선전에서 7회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신의 호주선수를 맞아 1,2회전을 고전하다 3회전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를 마

치고 김현희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치출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전무님께서 많은 국제 대회 경험으로 선수에게 안정감을 북돋아 주셨는데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해 몰라보게 기력을 내더니 자신의 실력을 150%나 발휘하며 선전해 주었습니다.

김현희선수는 예선전에 너무 고전한 탓이었는지 금메달을 목에 걸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정국현선수: 제가 보기에도 호주선수는 체격이 무척 좋았고 기량이 뛰어났습니다. 앞으로 그 선수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무님의 독특한 최면술이 김현희선수를 승리로 이끌게 한 것 같습니다.

▲사회: 김현희선수, 전무님의 독특한 최면술에 걸려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어떤 최면이 있었습니까?

▲김현희선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중석선수: 최면이 어떤 것인지 알면 최면이 걸리지 않겠습니까(일동웃음.....)

▲강선장코치: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정신무장을 시킨 것입니다.

▲사회: 장윤정선수는 제7회대회에 이어 연속 2연패를 차지하여 아시아권에서는 태권도 여왕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여 세계의 여성최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올림픽대회는 저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금메달을 목에 걸어드릴터

▲장윤정선수: 저는 당치는 크지만 늘 대회에 나가면 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을 갖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일종의 하나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 대

맞더라도 패고 오자는 각오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대회는 저의 마지막 시험이 되리라 봅니다.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금메달을 걸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좋은 성적을 올리고 개선하였습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 날까지 강화훈련에 들어가 세계의 최강자들을 이겨내기 위한 체력보강과 체적의 건강유지, 고

도의 기술언마로 젊음을 불사르는 나날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맘의 결정체는 자신의 영광 뿐만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나라의 체육사에 영광스런 한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좌담회가 여러분의 기량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88대회를 앞두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 간 안 내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



김석련 저·오성출판사 발행

청소년 수준에 맞도록 기술과 동작, 예절교육 등을 분리하여 엮은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이 오성출판사(1988년 5월 30일 발행)에서 발간되었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태권도의 이론과 실기의 양면을 여러가지로 조화있게 다루었다. 또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옛 선조들이 물려준 무예정신의 정통성을 심어주고 심신수련의 교육적 가치를 한층 더 고취시켜 문무겸비를 함양시

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중고생을 위한 태권도교본 발간 취지를 밝혔다.

책의 내용은 1장 태권도의 본질, 2장 태권도의 발달사, 3장 태권도와 무예정신, 4장 태권도의 기초, 5장 품새, 6장 겨루기, 7장 격파, 8장 중요급수 및 인체해부도, 9장 태권도와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9장에서 다른 태권도와 건강관리에서는 응급처치를 비롯해 알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스포츠 맛사지와 건강지압,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바른 자세와 운동방법, 심폐소생법(심장맛사지)등을 다루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 회장겸 IOC위원은 추천사를 통해 「오늘의 청소년들은 인격순화를 통해 참된 윤리관을 배양하는 태권도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태권도 종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아래 정신수양과 체력인마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필자인 김석련씨는 명지대 체육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서울대성중고등학교 체육교사이며 본회 편집분과위원이기도 하다.

필자는 태권도에 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 「태권도선수의 외상에 관한 조사연구」, 「태권도경기의 외상에 관한 비교고찰」, 「국내선수과 외국선수의 태권도 경기내용에 관한 연구」, 「태권도 국내학술 연구논문의 분류에 관한 연구」등의 논문과 「武道·스포츠 跆拳道」라는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88추계종별선수권대회 겸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소년체육대회

인류의 대제전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역량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실시되던 추계종별대회와 제69회 전국체전이 제17회 소년체육대회와 통합경기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거행되었다.

제17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는 1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25일과 26일에 실시되었고, 제69회 전국체육대회겸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동안 고등부 112명, 대학부 108명, 일반부 112명 등 총 483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였다.

—편집자주—

대표자회의

5월 24일 오후 5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표자회의는 임운규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황춘성진무이사의 대회운영에 관한 설명, 권경욱기술심의회회장의 경기장질서확립문제에 관한 당부 등으로 간략하게 마쳤다.

추계종별선수권대회겸 제17회 소년체육대회 및 제69회 전국체육대회에 따른 대표

자회의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서울 뉴서울호텔에서 이미 가진 바 있기 때문에 대회 전날에 가진 대표자회의는 대회운영진반에 관한 시도대표들의 주지사항만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각시도협회 임원선수단
환영 만찬

본 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환영만찬

이 전주시의 코아관광호텔에서 성대하게 펼쳐져 각시도협회임원 선수단은 우의를 다지며 각기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필승을 다짐하였다.

전북태권도협회장인 육종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후백제의 도읍인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각시도 선수단을 환영하였다.

본회 임운규부회장은 답사



서울 송 봉 섭



부산 이 근 우



대구 도 상 곤



인천 성 재 준



광주 윤 관 석



경기도 안종웅



충북 정 만 순



충남 이 진 수



전북 오 인 규



전남 박 창 웅



경북 예 조 해



경남 김 억 곤



제주도 양광호



강원 박 병 철

▲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협회 임원

에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애쓰신 전북협회 회장단 및 관계자들에게 전 태권도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고 전제한후 통합체전이라 대회의 규모가 클 뿐더러 각시도에서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한만큼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모범된 경기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

했다.

개회식

개회식은 황춘성전무이사의 대회선언, 김운용회장을 대신하여 임운규부회장의 대회사, 강현욱전북체육회회장겸 전북도지사의 치사, 육종진전북태권도협회회장겸 전주시장의 환

영사가 있었다.

이어 이규형사범의 구령에 맞추어 한국태권도어린이국가대표시범단인 미동국교 60명의 어린이들이 펼쳐보인 태권도 시범은 질서정연한 가운데 태권도의 기상과 위력을 보여주어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린이 국가대표시범단의 절묘한 시범

제17회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중등부경기로 이루어진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통합경기로 개최되어 단독경기 때와는 달리 각 시도에서 출전한 전국체전선수들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는 가운데 개최되 경기장의 분위기는 열기로 가득찼다.

A코트1번 김병석선수(제주) 대 김현식선수(강원)의 대전과 B코트2번 김철용선수(대구) 대 박동종선수(충남)의 대전으로 시작된 예선전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되고 향상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시트배정으로 11체급 모두 예선을 부전승으로 통과하였고 충청남도도는 1천만 인구를 자랑하는 강호 서울대표팀을 물리치고 10체급, 이어 서울이

9체급, 경상남도 8체급, 부산직할시와 충청북도가 6체급,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전라남도, 제주도가 각각 5체급이 예선을 통과했고 강원도에서 3체급이 준준결승에 올랐다.

메달권 진입을 놓고 치열하게 펼쳐진 준준결승전에서 편급경기는 김태실선수(전북)가 김현식선수(강원)를 3:2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며 메달권에 선착했다.

플라이급 준준결승전 중 이준태선수(전북)와 박종천선수(충북)의 대전은 박선수가 1회전에 3득점을 올리며 홈그라운드인 이선수들 4:1로 제압했다.

밴텀급 준준결승전에서는 진승태(전북)선수가 김성열(전남)선수를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로 메달권에 진입했다.

페더급 준준결승전에서는 부자가 선수와 코치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정동(전북)선수와 이영기코치(완산중학교코치)가 그 주인공. 이정동선수는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박창길선수(충남)에게 패하고 말았다.

전날에 이어 5월 26일은 라이트급 준준결승전부터 시작되었다.

A코트의 정관영(전북)선수와 유규택(충남)선수의 대전은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유규택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했다.

전북팀은 시트배정으로 유리한 고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급에 이어 L-웰터급, 웰터급, L-미들급, 미들급, L-헤비급, 헤비급에서 계속 연패를 감수해야 했다.

준준결승전에서는 충남이 8체급으로 가장 많이 준결승전에 돌입했고 서울과 경남이 6체급, 부산 5체급, 경북 4체급, 충북 3체급, 대구·광주·전북 제주가 각각 2체급, 인천·경기·전남·강원이 1체급씩 동메달권에 올랐다.

준결승전 및 결승전

●핀급:준결승전에서 김태실(전북)선수는 박동종(충남)선수를 막상막하의 경기중 우세판정으로 힘있게 승리를 거두었고 석운용(부산)선수는 이재필(경남)선수를 역시 우세로 이겨서 결승에 올랐다.

리치가 긴 김태실(전북)선



열띤 응원이
펼쳐져 경기분위
기를 더욱 고조
시켰다.

수를 맞아 석운룡(부산)선수는 빠른 몸놀림으로 계속 공격을 하였으나 10여센치의 신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회 1득점, 2,3회 우세를 빼앗겨 패배, 김태실선수가 전북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 박종천(충북)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이정희(대구)선수는 김대훈(부산)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정상수(경남)선수를 맞아 1회 우세를 빼앗겼으나 2회에 맹공으로 2:1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3회에 두 선수다 치열한 점진끝에 1:1 득점을 내 득점에서 앞선 이정희(대구)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밴텀급: 진승태(전북)선수는 박성열(경북)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 신인 유양주로 부상한 이동규(충남)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조재성(서울)선수를 맞아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패배, 서울이 승리의 영광을 안았다.

●페더급: 박창길(충남)선수와 장현술(경남)선수와의 대전으로 펼쳐진 결승전은 박창길선수가 1회에 우세, 2회에 장현술선수가 1득점을 얻는 가운데 3회전을 맞아 박창길선수가 역전을 위해 공격을 퍼붓자 장현술선수는 점수지키기에 급급하여 라인밖 경고를 받는 등 소극적인 공격끝에 힘겹게 승리, 경남에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라이트급: 강호 서울의 전만중선수를 누르고 올라온 충남의 유규택선수는 신장면에서 월등히 큰 광주의 김봉찬선수를 맞아 1회 우세와 2,3회에 각각 득점을 올리며 승리하였다. 뛰어난 기량과 과감한 공격 앞에는 건리치도 통용이 안되는 좋은 본보기였다.

●L-웰터급: 준결승전에서는 임병찬(충남)선수가 3-4년 전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 부산팀의 최성화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정충민(전남)선수는 본대회의 새로운 강팀

으로 부상한 경남의 이경환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1,2회전에서 득점과 우세를 주고받는 접전끝에 전남의 정충민선수가 어렵게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웰터급: 제주의 이광선선수와 서울의 김민수선수와의 대전으로 좁혀진 결승전은 1회 1득점을 얻은 김민수선수가 여세를 모아 2,3회전에도 계속 우세한 경기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L-미들급: 준결승전에서 서울의 강호 임성수선수를 백중세로 이기고 올라온 제주의 권혁훈선수는 결승에서 대구의 김진 선수를 맞아 1,2회를 득점이 없는 가운데 우세로 물고 3회전에는 우세관정으로 어렵게 금메달을 획득했다. 득점이 없이 우세승이라 패배한 대구·코치석에서는 어필을 하기도 했다.

●미들급: 김진만(경남)선수와 이지석(충남)선수의 대전으로 좁혀진 결승전은 본 대회

에서 새롭게 부상한 강자끼리의 한판이었다.

1회전을 1:2로 이지석선수가 앞섰고 2회전은 김진만선수가 우세판정을 받는 가운데 3회전에 김선수가 득점함으로써 동점을 이룬가운데 2회전의 우세판정으로 김진만선수가 경남에 금메달을 안겨주었고 전체1위를 꿈꾸던 충남팀은 이로써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다.

●L-헤비급: 준결승전에서 안금호(인천)선수는 김승범(강원)선수를 맞아 1회전에 1득점을 빼앗겼으나 2회전에 2득점으로 역전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희상(대구)선수와 서강호(광주)선수의 대전은 1회에 선취득점을 올린후 2회 초반 코치석에서 타움을 던져 기권하였다.

결승에 오른 안금호(인천)선수와 서강호(광주)선수의 대전은 1회 2득점으로 승세를 잡은 인천의 안금호선수를 맞아 2회에 서강호선수는 맹공으로 1득점을 만회했으나 3회에 안금호선수가 공격을 계속해 부우며 격돌을 벌이는 가운데 안금호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헤비급: 체급별 준결승전 중에서 가장 치열한 대전을 펼친 헤비급은 강호 서울의 이범석선수와 본대회의 최강팀으로 우승이 기대되는 충남 안성주선수의 대전으로 펼쳐져 득점에 돌전을 이루었으나 우세판정을 받은 서울이 승리, 충남은 아깝게 탈락했다. 이어



제17회 소년체전 종합1위는 서울, 2위는 충남, 3위는 경남이 차지했다.

벌어진 부산 신원조선수와 경남 박동일선수의 대전은 헤비급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득점을 내며 3:2로 부산의 신원조선수가 승리,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결승전에서는 부산의 신원조선수가 선취득점을 얻었으나 2회에 서울의 이범석선수가 1득점을 얻어 동점을 이룬뒤 3회전에 이범석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승리, 서울팀이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충남, 경남이 중등부 강호로 부상

본대회에서는 서울이 종합1위를 차지한데 이어 충남과 경남이 중등부강팀으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평균화됨에 따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우세판정

에 의한 판정승이 많았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다양한 기량을 펼치기 보다는 득점위주의 경기운영만을 노리는 경향이어서 경기분위기 자체는 흥미롭지 못했으나 지역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경기장은 열기에 가득찼다.

경기의 질적인 면에서 볼때 태권도의 미래를 짊어질 중등부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술발휘로 기량향상을 꾀하지 못했다는 점과 승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정신이 아쉬웠다.

그밖에 예시에종의 무도스포츠인 태권도경기장에서 심판 판정을 놓고 공식절차를 무시한 심한 어필, 경기종료 후 선수들은 상대편 코치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정신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선수들의 선전을 격려해주는 모

습이 보기 드물어 무도정신이
깨나친 승부욕에 의해 점차 퇴
색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태권도인들이 이러한 경기장
풍토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해
야만 앞으로 진정한 무도스포
츠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
리라 본다.

소년체전 종합 성적 및 순위 (태권도경기)

1. 서 울	(1.868)
2. 충 남	(1.828)
3. 경 남	(1.245)
4. 전 북	(922)
5. 제 주	(773)
6. 부 산	(750)

7. 인 천	(704)
8. 경 북	(680)
9. 광 주	(632)
10. 경 기	(595)
11. 전 남	(586)
12. 충 북	(563)
13. 대 구	(513)
14. 강 원	(281)

입상자 명단

체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핀 급	1	김 태 실	전 북
	2	석 윤 용	부 산
	3	박 동 중	충 남
플라이급	1	이 재 필	경 남
	2	정 상 수	대 구
	3	박 종 현	충 북
밴 텀 급	1	김 대 훈	부 산
	2	조 재 성	서 울
	3	진 승 태	전 북
페 더 급	1	박 만 은	경 북
	2	이 동 규	충 남
	3	장 현 술	경 남
라이트급	1	박 창 길	충 남
	2	김 성 현	서 울
	3	허 성 진	경 북
L-웰터급	1	유 규 태	충 남
	2	김 경 회	경 기
	3	전 만 중	서 울
L-웰터급	1	김 봉 찬	광 주
	2	정 충 민	전 남
	3	임 병 찬	충 남

체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L-웰터급	1	최 성 화	부 산
	2	이 경 환	경 남
	3	김 민 수	서 울
웰 터 급	1	이 광 진	제 주
	2	김 동 근	충 남
	3	신 보 현	충 북
L-미들급	1	권 혁 훈	제 주
	2	김 진 진	대 구
	3	임 성 수	서 울
미 들 급	1	장 용 국	부 산
	2	김 진 만	경 남
	3	이 지 석	충 남
L-헤비급	1	이 덕 회	충 북
	2	김 재 덕	인 천
	3	안 금 호	인 천
헤 비 급	1	서 강 호	광 주
	2	김 승 범	강 원
	3	이 회 상	경 북
헤 비 급	1	이 번 석	서 울
	2	신 원 조	부 산
	3	안 성 주	충 남
헤 비 급	1	박 동 일	경 남
	2		
	3		

제69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고등부 경기

11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

룬 고등부경기는 소년체전의
결승전과 시상식후 바로 이어
져 고조되었던 열기가 전국체
전에도 계속돼 예선전부터 열

띤 집전을 펼쳤다.

예선전에서는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충남에서 6명
이 준준결승에 진출하는 패조
의 스타트를 보였고 시트배정
으로 예선전을 통과한 전북팀
이 5명, 서울팀이 4명, 충북팀
이 3명, 부산·인천·광주·경
기·경남에서 각각 2명씩, 대



고등부 체급별 우승자

구·강원·전남·제주에서 각각 1명씩 동메달권에 진입하였다.

●핀급: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후 승승장구하는 전북의 윤철선수는 강팀으로 부상한 충남의 신상준선수를 맞아 선전 결승에 올랐고 경남의 지재기 선수도 강원의 채우병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윤철(전북)선수와 지재기(경남)선수의 대전은 1회 윤철선수의 선취득점을 2,3회전에 지재기선수가 맹공으로 추격하였으나 우세를 그쳐 은메달에 머물렀고 윤철선수가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전북의 신재근코치와 경남의 김영국코치는 동년배로 같은 시기에 선수생활을 한 막역한 친구 사이였으나 경기장에서는 필승의 신념으로 맞섰고 판정후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국체전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주기도 했다.

●플라이급: 쌍둥이 형제로 소년체육대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의 박세성선수가 전국체전대표로 출전, 홈팀인 전북의 김양식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 충남의 윤희준선수도 경기의 김훈섭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충남의 윤희준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부산의 박세성선수는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았다.

●밴텀급: 준결승전에서 정을진(전북)선수는 양정석(서울)선수를 맞아 2:3으로 석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고, 이국재(인천)선수는 권오철(충북)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양정석선수와 이국재선수의 결승전은 양선수가 1,2,3 회전에서 우세판정을 받으며 승리, 금메달을 차지했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 전

북의 송준호선수는 대구의 신춘호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올라 연속 2체급에서 동메달에 머무는 부진을 씻었거나 결승에서 경기의 이체법선수에게 1,2,3 회전에서 계속 우세를 빼앗기며 아깝게 탈락, 은메달에 머물렀다.

●라이트급: 장덕훈(광주)선수는 신경수(충남)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박의성(충북)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강호 서울의 박세진선수와 결승전에서 1회 우세를 빼앗기고 2회 우세를 빼앗아 동물을 이룬 가운데 3회에 우세를 빼앗겨 서울팀에 금메달이 돌아갔다.

한편 라이트급 예선전에서는 서울의 박세진선수가 1회중반 원발돌려차기로 공격해오는 강원의 이철우선수를 뒤통자로 받아차 몸통에 적중, 다운되었으나 카운트없이 바로 경기를 속행시켜 선수보호 측면이나 판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웰터급: 홈팀인 전북의 임성호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부산의 장영태선수는 광주, 제주, 서울의 선수들을 제압하고 올라온 강호 충남의 신광수선수를 맞아 1회 12초에 원발돌려차기를 시도하려는 신선수에게 오른발뺏차기로 맞공격, 복부를 강타하여 결승에서 보기도문 K.O승의 영광을 안았다.

●미들급: 새롭게 강팀으로 부상한 충남팀과 경남팀의 대전에서 승리한 충남의 구기정

선수는 제주의 강승수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충북의 박종범
선수와 결승에서 만났다.

충청도선수끼리의 한판이었
으나 경기내용은 한치의 양보
도 없는 열전으로 1회에 득점
에 가까운 공격을 많이한 충북
이 우세, 2회에서는 득점을 주
고 받으며 충북이 우세, 3회에
서는 중반에 오른반돌려차기
로 1득점을 충북이 뽑아 강호
충남의 구기정선수가 은메달
에 머물렀고 충북은 첫 금메달
을 따냈다.

● 해비급: A코트의 예선전
에서 전남선수가 서울신수에
게 우세로 패하자 전남에서는
관정에 불복, 선행책을 검토하
는 등 심한 어쩔모 경기의 중
단되기도 했다.

또한 B코트의 예선전에서
충북의 임명수선수는 경남의
이호근선수를 맞아 2득점을
선취하고 우세하게 경기를 끝

고 나가나 3회전에 침침을 만
회하려고 맹공을 가하는 경남
의 이호근선수를 주먹공격으
로 얼굴을 강타하여 만취패를
당하였다.

준결승전에 오른 이호근
(경남)선수는 인천의 최운중
선수에게 관정패하여 메달적
전에 부상과 패배의 아픔을 동
시에 감수해야 했다.

송근배(광수)선수와 최종훈
(인천)선수의 결승전은 1회에
우세를 선취한 최선수가 2,3회
전에서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
데 관정승을 거두어 해비급왕
좌를 차지했다.

우세판정이 문제

고등부상기의 전반적인 호
름은 가상 패기있게 기량을 발
휘하여 파감한 공격을 하여야
할 인명인데도 불균하고 소극
적인 공격과 득점에만 집착해
확실한 득점없는 가운데 우세
판정이 많았다. 우세판정에 있

어서는 두 선수다 정확한 득점
차나 공격에 우열을 가리기 힘
들때 내려지기 때문에 관정에
시비요소가 많았다. 특히 집착
채신처럼 각 시도별 강쟁이 치
열하게 벌어지고 있을때 우세
판정은 더욱이 문제가 심각하
게 노출되었다.

우세판정을 축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심판위원들이 보다 적
극적으로 득점을 찾아 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득점을
취도 그만 우세를 취도 그만」
이라는 얘기는 경기장에서 사
라져야 되겠으며, 강타를 맞아
다운이 되어 카운트를 해도 1
득점, 얼굴을 맞아 카운트를
해도 1득점, 몸통을 막동으로
삼 끊어차 소리가 크게 나도
1득점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득점판정은 재연구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
기법에 의해 승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입상자 명단(고등부)

세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세	급	등	위	성	명	시도명							
권	금	1	윤	천	전	북	라이트	금	1	박	재	진	서	울						
		2	지	세	기	경			남	2	송	근	배	광	수	경	남			
		3	전	상	준	충			남	3	신	강	수	충	남	3	박	의	성	충
플라이	금	3	제	우	병	강	원	3	신	광	수	충	남	3	양	영	태	부	전	북
		1	박	재	진	무	산	1	양	영	태	부	전	북	3	임	명	수	서	울
		2	윤	희	준	충	남	2	김	원	호	전	북	3	홍	문	주	서	울	
밴텀	금	3	김	양	석	충	북	3	김	원	호	전	북	3	박	종	범	충	북	
		3	김	훈	섭	경	기	3	구	기	정	경	남	3	김	승	수	경	남	
		1	양	정	석	서	울	3	김	승	수	경	남	3	김	원	호	전	북	
페더	금	2	이	국	재	인	천	북	1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3	정	윤	진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3	권	오	진	충	북	3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세	터	금	1	이	제	병	강	기	1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2	송	근	배	광	수	경	남	2	송	근	배	광	수	경	남		
			3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3	김	원	호	전	북

대학부 경기

대학부경기는 '86아시아경기대회 출전선수를 비롯해 전·현 국가대표들이 준비하게 포진한 가운데 펼쳐져 예선전부터 예상할수 없는 치열한 접전으로 경기장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예선전에서 본 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시트배정으로 8체급이 부전승으로 예선을 통과했고 부산이 7체급, 서울·경기·전남이 각6체급, 충북·제주가 각5체급, 강원·경남이 4체급, 광주 3체급, 충남 2체급, 경북·대구가 각1체급씩 통과하였다.

준준결승전에는 전북과 서울이 각6체급, 경기·충북이 각4체급, 전남 3체급, 인천·광주·제주가 2체급, 부산·강원·경북이 각1체급씩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동메달을 확보했다.

●핀급: 이종선(서울)선수는 '86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로서 관심을 모았으나 준준결승전에서 장종원(경남)선수를 맞아 2:2동점끝에 장선수가 경고를 받아 판정승으로 힘겹게 결승에 올랐다.

이종선선수는 김동은(광주)선수를 맞아 1회 우세로 경기의 흐름을 잡았으나 2회에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김선수의 공격을 낮은 발 끊어차기(컷트발)를 자주해 경고를 받았고 3회에서도 낮은발이 심해 김동은선수도 거칠게 공격을 시도, 서로 경고를 하나씩 받



대학부 체급별 우승자

고 우세판정이 김선수에게 내려져 이종선선수는 경고로 경기에 패한 결과를 낳았다.

●플라이급: 예선전에서 국가대표 하태경(서울)선수는 김철호(경북)선수를 맞아 1회 김철호의 앞돌려차고 제자리서 뛰어 몸돌려 뺏차기, 앞밀어차기 등에 밀려 1,2회에 리드를 당했고 3회에서 우세를 빼앗겨 예선 탈락했다.

김철호선수는 강원의 김용만선수와의 결승전에서 1,2회에 서로 득점을 주고 받는 가운데 선전하는 등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3회전에 1득점을 추가해 전국가대표선수로서의 저력을 과시하면서 승리를 안았다.

●밴텀급: 전국가대표 함준(전북)선수는 준준결승에서 리치가 긴 김현일(경남)선수

를 우세판정으로 힘겹게 이기고 준결승전에서도 충북의 조규식선수를 어렵게 뿌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강창모(부산)선수는 광주의 김우창선수를 우세로 제압한 뒤 준결승에서 서울의 양춘열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노련한 함준선수와 1,2회에 득점을 주고 받는 접전끝에 3회에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 전국가대표 유명식(충남)선수가 체체불참으로 인천의 김병철선수는 가볍게 예선을 통과해 경남, 충북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서울의 장혁선수는 중고교 시절의 화려한 명성이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경기운영으로 경기전체를 우세작전으로 몰고 가 결승에 진출했다.

김병철선수는 노련한 장혁 선수에게 이렇다할 공격을 못하고 1,2,3회전에서 계속 우세를 빼앗기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 라이트급: '87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서울의 양대승선수는 충북의 장주동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안착, 전남, 전북의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온 경기의 이종학 선수를 맞아 1,2회 우세를 주고 받으며 고전, 3회 우세를 빼내 힘겹게 우승을 차지하였다.

● 웰터급: 홈그라운드인 열기를 등에 업고 선전, 준결승에 오른 김종엽(전북)선수는 전남, 경기를 차례로 누르고 올라온 박종상(경남)선수를 맞아 막상막하의 대전을 펼쳤다. 1회에 1:1에 박선수 우세 2회에도 1:1에 박선수 우세 3회에서도 박선수가 우세판정으로 박종상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경기도중에 전북임원은 동점인데다가 우세판정으로 지게되자 판정에 불만, 심한 어필을 하기도 해 경기장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이는 전북협회와 공개사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박봉권(서울)선수는 준준결승에서 진정우(제주)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 1:1 막상막하의 경기중 진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내려졌으나 2회에 박선수가 득점을 올려 2:1이 되었고 3회전에 득점없이 박선수에게 판정승이 내려지자 제주협회 임원들은 3회전 경기결과를 해명하라며 경기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미들급: 정용석(인천)선수는 현국가대표선수답게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 전 국가대표선수인 윤순철(경기) 선수를 물리친 박은석(전남)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이용석(인천)선수와 대전을 합계로 치투며 인천에 첫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 헤비급: 국가대표 김현일(전북)선수는 추교일(충북)선수의 힘(체중115kg)에 밀리며 1:3으로 판정패함으로써 예선에서 탈락했다.

전국가대표인 노신(경기)선수는 강원, 광주의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을 놓고 추교일선수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두 선수는 수년간 헤비급 쟁탈전을 벌여온 라이벌로서 상대방의 기량을 잘 알고 있는 가운데 1, 2회전을 소강상태에서 마치고 3회에 노선수가 점프뎀차기 몸통공격 성공과 추선수의 받아차기 성공으로 각각 득점을 얻어 동점을 이루었으나 우세판정을 받은 노신(경기)선수가 헤비급 패권을 차지하였다.

입상자 명단 (대학부)

체급	등위	성명	시도명
권급	1	김동은	광주
	2	이종선	서울
	3	신민철	전북
	3	전수옥	전남
플라이급	1	김철호	경북
	2	김용만	강원
	3	성의천	제주
	3	김태화	전남
밴텀급	1	강창모	부산
	2	함준	전북
	3	조규식	충남
	3	양춘열	서울
페더급	1	장혁	서울
	2	김병철	인천
	3	이광로	전북
	3	김상래	충북

체급	등위	성명	시도명
라이트급	1	양대승	서울
	2	이종학	경기
	3	고봉수	전북
	3	장주동	충북
웰터급	1	박봉권	서울
	2	박종상	경남
	3	김종엽	전북
	3	진정우	제주
미들급	1	정용석	인천
	2	박은석	전남
	3	김민수	전북
	3	윤순철	경기
헤비급	1	노신	경기
	2	추교일	충북
	3	김동욱	서울
	3	정택주	광주

일반부 경기

현, 전국가대표선수가 19명이 포진한 일반부경기도 대학부 못지않게 예선전부터 치열한 접전으로 이변이 속출하는 등 경기장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특히 페더급경기에서 현국가대표 장명삼(강원)선수와 허현배(충남)선수의 대전은 1, 2회에 우세를 주고 받으며 3회에서 허선수가 경고를 받아 패색이 짙었으나 경기 종료직전 뒷차기 성공으로 현국가대표 장명삼선수가 고배를 마셨다.

전국가대표 정승환(서울)선수와 임석섭(부산)선수의 대전도 1, 2회 우세를 주고 받다가 3회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공방전을 펼쳤다. 경기 종료 5초전 정선수의 원발내려차기 성공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전 국가대표 한홍식(충북)선수는 정승환(서울)선수를 준준결에서 만나 메달권에서 탈락하였다.

라이트급예선에서는 현국가대표 이창진(경북)선수와 최공집(광주)선수의 대전은 예상을 뒤엎고 1회 최선수가 선취득점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2회에서도 1득점을 뽑아 승세를 굳히고 3회에서 이를 만회하려는 이선수의 공격을 과감히 강공으로 대처하던 중 라인 근처에서 최선수는 중심을 잃은 이선수를 갈려선언후 공격해 감점을 받았고 이선수는 부상이 심해 경기진행을 하



일반부 체급별 우승자

지 못하자 최공집선수에게 승리가 선언되는 판례(?)가 등장, 경북코치석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예선전부터 이변이 속출하였다.

헤비급경기에서는 출전선수 중 최고연장자인 31세의 김양기(광주)선수와 이경식(충남)선수의 대전은 헤비급경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각각 4득점을 올리며 노익장을 과시한 김양기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승리했다.

●핀급: 전국가대표 이해진(부산)선수를 준결승에서 당당히 누르고 결승에 오른 채상만(제주)선수는 전남의 정우식선수를 맞아 1회 1득점을 선취하며 경기흐름을 잡고 2회에서는 득점을 주고 받으며 선전우세를 뽑아 승세를 굳히고 3회에서 선방, 제주에 금메달을 선사하였다.

●플라이트급: 전국가대표 인해진(서울)선수는 '86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김영식(부산)

선수, 차상우(경남)선수를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해 전남의 함식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패기의 함식선수가 노련한 인해진선수를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밴텀급: 전국가대표 권기문(전북)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전국가대표 최천(경기)선수를 맞아 판정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전국가대표 고정호(서울)선수와 김대환(충남)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오른 임종환(전남)선수는 권기문선수와 결승에서 권선수가 기권함으로써 전남의 임종환선수가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 장명삼(강원), 정승환(서울), 한홍식(충북)선수 등 전·현국가대표가 3명이 포진한 페더급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현국가대표인 장명삼(강원)선수는 예선에서 허현배(충남)선수에게 패배의 고배를 마셨

고, 준준결승에서 허헌배선수는 신하철(광주)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한 반면 승승장구한 신하철선수는 결승에 진출했다.

전국가대표 정승환(서울)선수는 임석섭(부산), 한홍식(충북)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에서 윤희섭(제주)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정승환선수는 신하철선수를 맞아 1회에 우세를 뽑아내고 2회에 득점을 내줘 역전의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3회 1득점을 뽑아내 승리했다.

●라이트급: 국가대표 이창건(경북)선수는 예선에서 최공집(광주)선수에게 판정패함으로써 탈락했고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경기장의 불여우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다양한 기량과 운영의 묘를 살리던 한재구(충북)선수는 충남의 임익환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하는 등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승전은 오상운(전남)선수와 임익환(충남)선수의 대전으로 펼쳐져 1회에 오선수가 우세로 기선을 잡았으나 2회에 임선수가 득점으로 역전, 3회에 이를 만회하려는 오상운 선수의 역부족으로 금메달은 임익환선수에게 돌아갔다.

●웰터급: 광주의 광병호선수는 예선에서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문종국(경북)선수를 누르고 승리했으나 준준



치열한 접전 끝에 서울이 전국체전 1위, 2위는 전북, 3위는 전남이 차지했다.

결승에서 최상진(전북)선수에게 패해 메달권에서 탈락했다.

최상진선수는 준결에서 김구환(충북)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전남의 차영종선수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1회 5초경 전남의 차영종선수가 기권해 최상진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미들급: 전·현국가대표 선수가 4명이나 참가한 미들급 경기에서 김현곤(전북)선수는 준준결에서 이정진(서울)선수에게 패했고 임재억(충북)선수는 이계행(광주)선수에게 판정패로 탈락했다.

이정진선수는 이어 김병수(경남)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 이계행(광주)선수를 맞이했는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이계행선수에게 근소하게 패했다.

●헤비급: 현국가대표 김종석(서울)선수는 국가대표선발 2차 평가전때 오른팔등 부상을 입어 대회출전을 고려해왔는데 본 대회에 출전, 김윤태(경북)선수와 최용규(전북)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준결까지 진

출했으나 고영철(전남)선수를 맞아 기권함으로써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정치호(경남)선수는 김양기(광주), 김재영(강원)선수를 차례로 누르면서 결승에 올랐다. 고영철선수와 정치호선수의 결승전은 2회전에 정선수가 2득점을 올리며 승세를 굳혔고 3회에 고선수가 역전을 시도 했으나 정선수도 만만치 않게 대응 3:1로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체전 시·도별 성적 및 순위 (태권도경기)

1. 서 울	(2.177)
2. 전 북	(1.819)
3. 전 남	(1.399)
4. 충 남	(1.371)
5. 광 주	(1.236)
6. 부 산	(990)
7. 충 북	(977)
8. 경 남	(956)
9. 경 기	(924)
10. 인 천	(698)
11. 제 주	(678)
12. 감 원	(482)
13. 대 구	(331)
14. 경 북	(299)

입성자 명단 (일반부)

계급	등위	성명	시도명
편급	1	채상만	제주
	2	정우식	전남
	3	류철원	전북
	3	이배진	부산
플라이급	1	한식	전남
	2	이배진	서울
	3	이정희	광주
	3	차상우	경남
밴텀급	1	임종환	전남
	2	권기문	전북
	3	최인영	경남
	3	김대환	충남
페더급	1	정승환	서울
	2	신하철	광주
	3	김수철	경기
	3	윤희섭	제주

계급	등위	성명	시도명
라이트급	1	임익환	충남
	2	오삼운	전남
	3	최광집	광주
	3	박호상	서울
웰터급	1	최삼진	전북
	2	차영종	전남
	3	김구환	전북
	3	장익수	부산
미들급	1	이재형	광주
	2	이정진	서울
	3	김병수	경남
	3	이강식	충남
헤비급	1	정차호	경남
	2	고영철	전남
	3	김종석	서울
	3	김재영	강원

본 대회는 대회를 주관한 전 북협회의 세심한 배려로 환영 만찬회·기념품증정 등 태권도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손색이 없었으나 경기장 질서측면에서는 좁은 미숙하였던 것같았다. 이는 일부 열성(?)이 지나친 몇몇협회의 극성을 냉철히 뿌리치지 못한 인정(?)의 탓도 있으나, 주관 협회로서 승부에 대한 애착에도 다소 기인된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회본부에서는 황충선전무 이사를 임원장으로 매일 경기 종료후 대회진행 및 결과를 놓고 점검하며 일일의 경기준비 및 경기장 질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등 문제점, 각 부서별 임무등을 재확인하여 질서대책에 노력하였다.

본 대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나친 시도간의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전국에

서 모인 대표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으로 경기력향상에 기여하고 각 시도간의 태권도 보급 발전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태권도 지도자들이 출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력측면에서 본다면 이젠 유무명 선수의 기량의 차가 없어 실력은 가름하기 어렵고 실력차가 없음으로 우세판정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 「어필」이 많은 경기력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몇몇협회가 단골손님으로 경기장에 상주하며 고질적으로 행하는 어필과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경기 종료후 선수와 코치의 「매너」면에서도 코치는 경기종료후 의연하게 선수관리를 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뒤로하고 배심석의 판

정결과에 신경을 쓰느라 상대 선수의 인사하나 제대로 보며 격려하는 코치도 몇 없어 예시예종(禮始禮從)의 태권도의 부도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선수들도 판정에 불만, 경기가 끝나고 겨루었던 상대 선수와 악수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기 드물어 스포츠맨십의 교육이 아쉬웠다.

경기장에서 코치 이외의 임원단들이 선수의 코치로 둔갑하는 경우도 그 열성(?)은 대단하나 지정한 코치외에 코치석을 드나드는 것은 조직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대회에서 「매너」상을 준다면 강원도협회를 선정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는 똑같이 태권도 고단자로서 임원으로 참가한 사람들인데 어찌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없겠는가? 이는 어필이 심한 협회임원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다.

'88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전국춘계종별선수권대회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동안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신인강자들을 탄생시켰다.

중등부에 267명, 고등부 769명, 일반부 69명 등 총 1,105명이 출전한 본 대회는 중등부 11체급, 고등부 및 일반부는 8체급으로 각부 체급별 토나먼트식 개인전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대학부가 일반부 속에 포함되어 펼쳐졌는데 이는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의 경우 입상경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부의 참가가 극히 저조해 올해부터는 일반부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등부 경기는 선수들이 대부분 처녀출전인 경우가거나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더라도 몇번 되지 않아 경기운영상에 미숙함이 많아 대회운영본부측에서는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대회 출전시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대회출전에 따른 행동요령을 일러주어 대회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인 선수들의 참가에 따라 기량을 판가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회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차이가 두드러진 가운데 R.S.C승이 속출하였다. 특히 대회출전 경험이 많지 않은 중등부선수들의 경우 실력차이가 두드러졌고 일반부에서는 선수층이 얇고 성인 태권도선수가 활성화

되지 못해 더욱 불균형한 기량을 나타냈다.

청주중과 청주남중이 두각을 나타낸 중등부 경기

중등부 경기는 청주중이 플라이급 1위, 페더급2위, 라이트급2위, 라이트미들급2위 등 4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청주남중은 밴텀급 1위, 라이트웰터급 1위 등 두체급 석권과 페더급 3위, 라이트웰터급 3위 등 4체급에 입상자를



중등부 강팀으로 부상한 청주중의 태권도선수와 연규현코치.

했다.

청주중학교는 총8명이 참가한 가운데 4명이 입상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청주중의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연구현코치는 선수출신답게 거루기위주의 연습으로 기량을 쌓아가고 있다며 청주중을 맡은지 2년만인 지난해 추계종별대회에서 플라이급에 금메달을 배출한 이래 올해에도 좋은 성적으로 신인 유망주를 키워내 코치의 역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청주남중은 유망무실했던 기존의 태권도부를 지난해부터 이창석코치가 맡게 되면서 중학교 태권도의 강팀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창석코치는 정규수업을 다 마친 오후에 1시간 30분 동안 하드 트레이닝으로 기량을 쌓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남중의 이창석코치

이번 대회기간 동안에 청주남중선수단에는 조규탁 교장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경기장에 나와 열렬한 응원으로 격려를 보냈는데 이창석코치는 학교장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 부모님들의 열성이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한다고 했다.

한편 영남중학교도 미들급의 김경삼선수와 라이트헤비급의 정기수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플라이급의 김대훈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해 태권도 강팀으로의 면모를 자랑했다.

중학교의 체급별 경기중 특기사항을 보면 플라이급 경기에서 청주중의 이원학선수와 영남중의 김대훈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막상막하의 경기 중 우세한 경기를 펼친 이원학선수에게 판정승이 선언되었는데 두 선수다 빠른 발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이 일품이었다.

밴텀급 경기에서는 오현중의 허원일선수가 신양중의 김정호선수를 맞아 월등한 실력차로 2회20초경 R.S.C승을 거두고 계속해 부천동중의 김성수선수, 풍생중의 오성주선수



영남중학교의 입상자들

를 누르고 8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8강에서 같은 학교의 김기현선수와 대전을 펼치게 되자 기권함으로써 메달권에 들지 못하였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오현중학교는 김기현선수가 밴텀급 2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오선홍코치는 제주도의 선수들이 전국대회 경험면에서 뒤지고 있어 비등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대회출전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이라며 소년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이 대회 경험을 쌓고 기량을 점검해보기 위해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

페더급 경기 중 성남동중의

제주도에서 올라온 중고등학교 태권도부선수들



이재성선수는 장충중의 권기영선수를 1회 40초만에 되돌아차기를 성공시켜 K.O승을 거두기도 했다.

또한 라이트웰터급에서 허재학(경일중)선수는 김인수(영북중)선수를 맞아 2회10초경 앞발 들어차기로 K.O승을 거두었다.

라이트헤비급경기에서 정기수(영남중)선수는 김한기(청주남중)선수를 누르고 8강에 진출해 고한중의 윤성희선수를 맞아 대결을 벌였는데 1회 20초경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주먹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자 고성희선수에게 감점패가 선언되었다. 부상으로 결승에 올라온 정기수선수는 대현중의 김진만선수를 맞아 12회전에 각각 우세를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3회에 필사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올려 투혼을 자랑하며 패권을 차지했다.

관악고는 처녀출전해 3명의 입상자 내며 태권도 강팀으로 부상

고등부 경기는 핀급에 152명, 플라이급 150명, 밴텀급 161명, 페더급에 129명등이 출전한 가운데 평균40대1을 뚫고 체급별 4명의 입상자를 내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고등부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낸 학교는 관악고등학교로 지난 11월 28일에 태권도부를 창단한 이래 불과 3개월의 수련만에 21명 전원이 처녀 출전



쌍둥이 형제로 대회에 출전한 만경고의 송재광선수와 송재훈선수

한 가운데 박진영선수가 핀급 3위, 이영훈선수가 밴텀급2위, 김중수선수가 라이트급 3위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새로운 태권도 유망고교로 부상했다.

한편 동성고와 성동고는 태권도 명문고답게 각각 3명씩의 입상자를 냈고 대전체고도 3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대전체고에서 라이트급1위를 차지한 신경수선수와 웰터급 2위를 차지한 신광수선수는 형제지간으로 나란히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

형인 신광수선수(3학년)와 동생인 신경수(2학년)선수는 중학교 3학년과 2학년 때 태권도를 함께 시작해 비슷한 기량으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다투어 왔는데 대전체고의 이계승코치는 두 선수다 순발력이

좋고 신광수선수는 들어찍기와 주먹이 강하고 신경수선수는 돌려차기, 뒷차기등을 주특기로 하고 있다며 두선수가 태권도 기술을 보완하며 장단점을 지적해 주는 등 열심히 수련하고 있어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으며 대전체고의 유망주로 꼽았다.

한편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만경고의 송재광선수는 밴텀급에 참가심청을 낸 송재훈 선수와 쌍둥이 형제로 눈길을 모았는데 밴텀급의 송재훈 선수는 계체실격을 당했다. 두 선수다 기량이 좋아 본 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체급에 출전할 경우 같은 체급을 놓고 형제가 우승을 다투게 될지도 몰라 송재훈 선수가 체급을 내려 참가신청을 냈다가 계체실격을 당한 것

고등부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관악고의 열띤 응원모습



이었다. 이들 형제는 국민학교 6학년 때 태권도 수련을 시작해 소년체전에 도대표선수로 출전한 바 있는데 남궁 벽 체육교사는 두 선수다 전국체전 1,2차선발전에서 선발되었다며 기량점검과 대회경험면에서 송재훈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뛰지 못하게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핀급 1위를 차지한 송도상고의 구동신선수는 예선전에서 박철욱(예산고)선수와 박경화(인천체고), 이일선(관악고)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16강전에서 부산체고의 김태호선수를 2회10초에 R.S.C승으로 8강에 올라 성일상고의 장대진선수에게 1회전에 기권승을 거두는등 뛰어난 기량으로 승승장구, 패권을 차지했다. 준결승전에서 구동신선수에게 패해 핀급 3위를 차지한 서울체고의 김현용선수의 경우 기본기가 우수해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플라이급 경기에서는 숭실고의 박철승선수가 청구상고의 이규호선수를 1회40초경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해 K.O승을 장식했고 지재기선수(통영고)는 이제혁(대원고)선수를 맞아 2회 중반 R.S.C승을 거두고 각각 2차전에 올랐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 김성진(송곡고)선수와 풍생고의 조경현선수와 대전은 1:1 득점에 우세를 주고 받는 막상 막하의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3회전에 김성진선수가 앞돌려차기로 득점을 빼앗고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올라가 경상공

고의 진 식선수를 맞아 3회1분 20초경 앞밀어차기 성공으로 다운을 뺏으며 패권을 차지했다.

밴텀급 경기 중 국찬호(동성고)선수는 1회20초경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한 후 계속해 돌려차기로 몸통을 공격해 임명섭(충암고)선수를 K.O시키며 승승장구 했으나 8강에서 성동고의 이육근선수에게 아깝게 패해 메달권에서 밀려났다. 한성고의 이동훈선수는 김충현(동명공고)선수를 맞아 2회초반 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었다.

페더급경기는 다른 체급보다 특히 R.S.C승이 많았는데 김기종(향도실고)선수가 김용만(청구공고)선수를 3회1분45초경에, 이경철(동성고)선수는 김현배(한성고)선수를 3회1분 30초경에, 김기철(리라공고)선수는 강석봉(한성고) 선수를 1회1분20초경에, 김경수선수(남주고)는 서병선(부산체고)선수를 3회2분40초경에, 김호성(숭실고)선수는 김정기(정명고)선수를 3회1분20초경에, 박만진(남해상고)선수는 유현종(서울북공고)선수를 2회1분30초경에, 최성진(동양공고)선수는 이기종(대원고)선수를 3회 47초경에, 배만수(숭실고)선수는 이대혁(울곡고)선수를 1회 1분30초경에 각각 R.S.C승으로 물리쳤다.

한편 임영호(부산체고)선수는 1회35초경에 앞돌려차기로 김호성(숭실고)선수에게 K.O승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 3위

에 입상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는 대전체고의 신경수선수와 동성고의 최경복선수가 패권을 다투었는데 두 선수가 좋은 기량을 발휘하며 득점을 올리는등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3회전에 우세한 판정을 받은 신경수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신경수선수의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B코트에서는 광성고의 최충묵선수와 대전체고의 신광수선수의 웰터급결승전이 펼쳐졌는데 대전체고의 신경수선수와 신광수선수 형제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패권을 다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형인 신광수선수는 득점을 빼앗겨 2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헤비급 결승전에서는 동명공고의 서영주선수와 한성고의 장홍수선수가 우수한 기량을 자랑하며 패권을 다투어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는데 서영주선수가 한발 앞선 기량으로 기회를 포착, 득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한편 한성고등학교에서는 태권도부 30명 전원이 본 대회에 출전,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보며 대회경험을 쌓았는데 특히 중량급에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어 중량급이 약한 우리나라 태권도계를 젊어질 유망주들로 기대를 모으게 했다.

기량의 불균형 심하게 드러낸 일반부 경기

일반부경기는 중고부에 비해 기량의 불균형이 심하게 노

출되었다. 이는 일선도장에서 성인태권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판급의 경기중 김동환(흑룡체)선수는 허재일(전남체 본관)선수를 맞아 3회10초경 R.S.C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서재욱선수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이경기에서는 서재욱 선수가 1회전에 3득점, 2회전에 2득점 등 일방적인 경기를 운명하자 3회초반 R.S.C승이 선언되었다.

밴텀급경기에서 신동호(안성체)선수는 황현준(한국체)선수에게 1회 33초경 주먹으로 얼굴공격을 당하자 황현준 선수에게 반칙패가 선언되었다. 최덕희(한국체)선수는 김태진(진명체)선수를 맞아 3: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도 했다. 한편 허중욱(유도대)선수와 최진령(북아현도장)선수와 결승전에서는 최선수가 계속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 3회전에 허중욱선수가 발목부상으로 기권, 최진령 선수가 가볍게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경기에서 김수철(지산체)선수는 정호경(용호도장)선수를 2회 10초경 뒤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었다. 이어 4강전에서 허재명(부평고등기술OB)선수와 대전에서 막상막하의 대전으로 득점을 올렸는데 허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아쉽게 탈락했다.

페더급 우승을 차지한 전문희(북아현도장)선수는 예선에서 김석봉(화랑체)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8강전에 올라 이상길(남해체)선수를 월등한 실력차로 2회초 R.S.C승을 장

식했다.

라이트급 경기에서 신경환(유도대)선수도 김진우(서래체)선수를 R.S.C승으로 눌렀다. 또한 차영종(강진체)선수는 한규성(동명전문대)선수를 맞아 뛰어높이차기 등 두 선수가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며 득점을 올리는 가운데 2:3으로 차선수가 승리하며 메달권에 진출했다.

웰터급 경기에서 서재덕(예산도장)선수도 정 훈(동아체)선수를 1회에 2:0등 많은 득점차로 경기를 압도하자 3회전에 R.S.C승이 선언되었다.

헤비급결승전에서는 김태갑(동명전문대)선수가 권용환(경기도협회)선수를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역시 R.S.C승을 거두고 패권을 차지하여 헤비급 유망주로 부상했다.

입상자 명단

중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및 학교명
핀 급	1	석운용	개 성 중
	2	장사갑	효 성 중
	3	정연균	부 천 동 중
	3	조성일	성 남 동 중
플라이급	1	이원하	청 주 중
	2	김대훈	영 남 중
	3	유영훈	성 남 동 중
	3	윤종일	성 남 동 중
밴 텀 급	1	안현상	청 주 남 중
	2	김기현	오 현 중
	2	권혁성	효 성 중
	3	전재혁	송 도 중
페 더 급	1	박창길	백 제 중
	2	서동규	청 주 중
	3	전갑규	성 남 동 중
	3	홍중우	청 주 남 중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및 학교명
라이트급	1	정재훈	부 천 동 중
	2	김동민	청 주 중
	3	여원재	배 명 중
	3	최상동	배 명 중
L-웰터급	1	성태경	청 주 남 중
	2	김민식	오 류 중
	3	김경희	성 남 동 중
	3	민경환	청 주 남 중
웰 터 급	1	최형준	오 류 중
	2	양정모	부 천 남 중
	3	허영재	풍 생 중
	3	윤노석	부 천 동 중
L-미들급	1	정경수	효 성 중
	2	임종일	청 주 중
	3	장용국	개 성 중
	3	곽영만	영 북 중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미 들 급	1	김경삼	영 남	중
	2	정태성	부 천 남	중
	3	오승태	남 주	중
	3	박동일	구 안	중
L-해비급	1	정기주	영 남	중
	2	김진만	대 현	중
	3	윤성희	고 한	중
	3	김승범	신 칠 원	중
해 비 급	1	임상도	양 산	중
	2	최 용	제 천	중
	3	최훈필	오 류	중

고등부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 급	1	구동신	송 도 상	고
	2	조성호	동 성	고
	3	김현용	서 울	체 고
	3	박진영	관 악	고
플라이급	1	김성진	송 곡	고
	2	진 식	경 상 공	고
	3	조정현	풍 생	고
	3	황용한	경 남	체 고
벤 텀 급	1	배상오	부 평 기	술 고
	2	이영훈	관 악	고
	3	이옥근	성 동	고
	3	백영선	성 동	고
페 더 급	1	송재광	만 경	고
	2	민태남	동 성	고
	3	임영호	부 산	체 고
	3	손원기	경 상 공	고
라이트급	1	신경수	대 전	체 고
	2	최정복	동 성	고
	3	김재명	대 성	고
	3	김종수	관 악	고
웰 터 급	1	최홍목	광 성	고
	2	신광수	대 전	체 고
	3	안현상	전 북	체 고
	3	조준희	오 성	고
미 들 급	1	이승준	성 동	고
	2	구기정	대 전	체 고
	3	송철진	삼 천 포	공 고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해 비 급	3	임성호	익 산	중 고
	1	서영주	동 명 공	고
	2	장홍수	한 성	고
	3	임병수	육 천	공 고
	3	이은봉	성 일 상	고

일반부

세	급	등위	성명	소속 및 학교명
편 급	1	서재욱	부평고등학교OB	
	2	김동환	육 룡	체
	3	허재일	전 남	체, 본 관
	3	안훈기	전 남	체, B도 장
플라이급	1	김태우	유 도	대
	2	김동호	성 동	중 앙 체
	3	김민혁	광 주	경 상 대
	3	김홍근	충 효	체
벤 텀 급	1	최진림	북 아	현 체
	2	허중욱	유 도	대
	3	장철인	광 주	경 상 대
	3	김용길	북 아	현 체
페 더 급	1	전문희	북 아	현 체
	2	허재영	부 평고	등학교OB
	3	김수철	지 산	체
	3	박재호	유 도	대
라이트급	1	문철남	북 아	현 체
	2	김준범	신 광	체
	3	차영중	강 진	체
	3	김윤기	경 남	대
웰 터 급	1	남정열	경 남	대
	2	서재덕	예 산	도 장
	3	정 훈	동 아	체
	3	박득환	부 평고	등학교OB
미 들 급	1	최현호	평 택	체
	2	마영석	매 천	체
	3	김형준	정 선	체
	3			
해 비 급	1	김태감	동 명	전 문 대
	2	권용환	경 기 도	협 회
	3	하재호	동 명	전 문 대
	3	최종선	청 훈	도 장

'88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각종 여자 국제대회와 증가하는 여자 태권도의 경기력향상을 목적으로 '86년도에 창설된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가 3년째를 맞으며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이상의 여자로 국기원 단(품)증을 소지한 선수 149명이 출전하였는데 참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선수현황

구분 체급	종 량	인 원
핀 급	43kg이하	11명
플라이급	43kg초과 47kg이하	21명
밴텀급	47kg초과 51kg이하	26명
페더급	51kg초과 55kg이하	31명
라이트급	55kg초과 60kg이하	26명



체급별 2위 입상자들

웰터급	60kg초과 65kg이하	14명
미들급	65kg초과 70kg이하	12명
헤비급	70kg초과	8명
계		149명

대회는 준결승전까지 2분3회전 중간휴식 30초로, 결승전은 3분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을 모았던 선수는 수원에서 청룡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살과 4살난 두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 핀급에 출전

부별 구분없이 체급별 토너먼트 개인전으로 펼쳐진 이번



원선진선수와 서영애선수의 핀급 결승전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하며
신인강자로 부상한
여수중앙여고의 박은미선수.

한 서영애선수였다.

남편인 김승일사범이 코치로 나왔고 관중석의 두 딸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에 출전한 서영애선수는 1차 예선에서 선정여중의 강효정선수를 고전 끝에 겨우 우세판정으로 8강에 올랐는데 첫 경기의 부진을 씻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서는 제1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맞아 1회전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가 2회전에 들어찍기로 얼굴공격을 성공시켜 장이숙선수가 눈가에 부상을 입자 서영애선수에게 R.S.C승이 선언돼 예상을 뒤엎고 결승에 진출한 것이다.

결승전에서는 체력이 좋고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수성여중의 원선진선수가 왼발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으로 서영애선수의 주특기인 오른발을

어찌기를 차단해 서영애선수는 은메달에 그쳤다. 그러나「가정주부로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전했다」는 서영애선수의 출전동기처럼 본 대회를 통해 여자선수들의 조기은퇴경향에 경종을 울려주는 귀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 있다.

본대회를 통해 신인강자로 부상한 선수는 플라이급 패권을 차지한 여수중앙여고의 박은미선수.

박은미선수는 예선전에서 상명여대의 강경숙선수를 가법계 판정승으로 누른 뒤 문성여상의 김도희선수, 인천체고의 이창분선수, 상인천여중의 이경남선수 등을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며 기염을 토했다.

결승전에서는 전국대표로 '86년도 제7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화여대의 신숙선수를 맞아 빠른발을 이용한 앞발찍어차기, 오른발 뒷차기를 주특기로 판정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다.

박은미선수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여자국가대표선발전에서 플라이급 3위를 차지하며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본 대회에서 막강한 기량을 발휘해 여성태권도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박은미선수는 여수중앙여고에 태권도부가 없어 남동생이 다니는 여수중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3년전부터 남매가 함께 여수중학교에서 태권도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남학생들이 발이 빠르고 대범해 연습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수련을 통해 많은 강점을 보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박선수의 동생인 박종호선수도 전국소년체전 도대표로 선발되는 등 남매가 태권도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밴텀급경기에서는 1차예선에서 인천체고의 백재은선수가 조선대부고의 임현진선수를 3회30초경에 들어찍기 성공으로 K.O승을 올려 기대를 모았으나 2차예선에서 같은 인천체고의 김성숙선수에게 패했다.

한편 밴텀급의 16강전에서는 8번의 경기에서 일곱번이나 R.S.C승이 속출해 본 대회가 여자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이기도 하고 전국여자선수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전국대회임에

도 선수층이 얇아 선수들간의 실력차가 두드러진 현상을 드러내 보였다.

유도대의 박현숙선수와 인천체고의 박동선선수의 결승전은 1,2회전을 박현숙선수가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승세를 잡아나갔다. 3회전에 들어와서는 얼굴들어찍기 등을 성공시키며 역전을 위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은 박동선선수의 선전이 돋보였으나 동점을 이루는데 그쳐 박현숙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페더급 8강전경기에서는 상명여대의 정은옥선수가 전국가대표인 경희대의 이영선수를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더니 결승전에서는 월등한 신장을 앞세워 유도대의 조인경선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해 1회전에 3득점이나 올리는 위력으로

1회2분50초경 R,S,C승을 거두었다.

라이트급 8강전경기에서는 상명여대의 박진경선수와 인천체고의 홍상희선수가 메달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상명여대의 코치석에서는 인천체고와 경희대 출신의 임신자선수가 코치로 나와 자신의 후배를 제자에게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승부세계의 비정함을 갖게했다. 그러나 경기를 마치자 후배에게 격려를 보내는 선배의 모습은 또다른 정겨움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등 중량급 3개체급의 결승전에서는 인천체고와 성신여대의 경기로 계속 이어져 여자태권도 명문교로서의 위세를 자랑하는 가운데 열띤 응원진이 펼쳐

졌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성신여대의 고재경선수가 인천체고의 박애란 선수를 맞아 1,2회전에 우세를 주고 받는 가운데 3회전에도 1득점씩을 올리는 치열한 접전끝에 경기종료 30초를 남겨놓고 1득점을 얻은 고재경선수가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이어 벌어진 미들급 결승전에서도 성신여대의 방경애선수가 인천체고의 박혜영선수를 맞아 1:1동점끝에 우세판정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인천체고는 계속해서 패권을 놓치는 불운끝에 헤비급결승전에서는 인천체고의 백영미선수가 성신여대의 정완숙선수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3: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원 진 선	수 성 여 중
	2	서 영 애	청 룡 체
	3	이 남 숙	문 성 여 상
	3	장 이 숙	청 산 여 상
플라이급	1	박 은 미	여수중앙여고
	2	신 숙 이	화 여 대
	3	이 경 남	상 인 천 여 중
	3	장 복 순	문 산 종 고
밴 텀 급	1	박 현 숙	유 도 대
	2	박 동 선	인 천 체 고
	3	박 경 희	인 천 체 고
	3	손 미 경	청 산 여 상
페 더 급	1	정 은 옥	상 명 여 대
	2	조 인 경	유 도 대
	3	윤 회	인 천 체 고
	3	김 경 숙	문 산 여 종 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라이트급	1	노 경 미	문 산 종 고
	2	박 진 경	상 명 여 대
	3	백 정 자	문 산 종 고
	3	김 지 영	위 려 상 고
웰 터 급	1	고 재 경	성 신 여 대
	2	박 애 란	인 천 체 고
	3	김 유 숙	성 신 여 대
	3	김 문 경	세 화 여 고
미 들 급	1	방 경 애	성 신 여 대
	2	박 혜 영	인 천 체 고
	3	이 미 라	배 성 여 상
	3	이 윤 희	양 백 여 상
헤 비 급	1	백 영 미	인 천 체 고
	2	정 완 숙	성 신 여 대
	3	김 경	인 천 체 고
	3	유 설 아	덕 원 여 고

제15회 전국 대학 개인 태권도대회

4. 28 ~ 29, 대구실내체육관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는 1988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15회 전국 대학개인태권도대회를 남대구 청년회의소 공동주최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선수는 대학생들로 구성되어졌으며 토너먼트식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지방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23개 대학에서 259명의 많은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이번대회는 남대구 청년회의소와 본 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의 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경기 진행에서부터 심판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날 경기에서 95번 밴텀급에 고지형(인천전문대)선수는 예상을 뒤엎고 양춘열(한국체대)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고, 여대부의 경기 빈호4번 웰터급 김유숙(성신여대)선수는 김현아(경희대)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서 우세



최 인 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전무이사

로 밀리는 듯 하였으나 오른발 상단돌려차기로 김현아 선수의 턱을 강타하여 K.O승을 차지하였다.

첫날 경기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대구 파크 호텔에서 대구청년회의소 주최로 만찬이 준비되어 대회 임원진들과 각 대학의 코치,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다정다감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예선전과 달리 손에 땀을 쥐게하는 경기의 연속이었다. 179번 웰터급에 강철규(계명대)선수는

김제경(동아대)선수를 맞이하여 1회전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2회전 1분 20초만에 원발 앞돌려차기로 기업을 토하여 김선수에게 K.O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전이 모두 끝나고 핀급 결승전에서는 이기현(인천전문대)선수와 오대환(계명대)선수가 격돌하였다. 1회전에서는 오선수의 1득점, 2회전에서는 이선수가 1득점으로 막상막하의 경기였으나 3회전에서 오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쳐 승리는 오대환 선수에게로 돌아갔다.

페더급 결승전은 김영준(동아대)선수가 임대락(한국체대)선수에게 2회전에서 얻은 1득점으로 승리하였고, 라이트급에서는 김상곤(경상대)선수가 1,2회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3회전에서 선전한 김태균(유도대)선수에게 판정패하고 말았다. 웰터급 결승에서는 준결승에서 통쾌한 K.O승을

한 강철규(계명대)선수가 그 역세를 몰아 김동섭(유도대) 선수에게 2회전에서 얻은 1득점으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B조 경기에서는 뱀팀급의 강동훈(제주대)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강선수는 경기보다 뛰어나 A조선수들의 강력한 라이벌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여대부 뱀팀급 결승에서는

박현숙(유도대)선수와 배은정(성신여대)선수가 우승을 놓고 격돌하였다. 박선수는 뛰어난 순발력과 힘으로 배선수를 공격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다친 무릎관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배은정 선수가 판정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각 선수들은 경기중의 상해에 방에도 전력을 기울여 갈고 닦은 기량을 100%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드

러났다.

금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계명대학교의 임성욱 선수가 차지하였고 우수상에는 강창모 선수(동아대), 김유숙선수(성신여대), 이기현선수(인천전문대)가 차지하였다.

금번 대회를 통하여 각팀의 경기력이 평준화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지방팀의 향상은 괄목할만하다고 하겠다.

●입상자명단 (남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오대환	계명대
	2	이기현	인천전문대
	3	왕무상	동명전문대
	3	권태성	경희대
플라이급	1	임성욱	계명대
	2	이창석	청주대
	3	송민한	경희대
	3	권혁신	한국체대
뱀팀급	1	강창모	동아대
	2	고지형	인천전문대
	3	화종민	계명대
	3	심무진	한국체대
페더급	1	김영준	동아대
	2	임내락	한국체대
	3	김상래	청주대
	3	함준한	한국체대
라이트급	1	김태균	유도대
	2	김상곤	경상대
	3	이광로	한국체대
	3	최운	유도대
웰터급	1	강철규	계명대
	2	조창현	한국체대
	3	김재경	동아대
	3	최기택	동아대
미들급	1	박은석	유도대
	2	공무환	경희대
	3	신우철	경기대
	3	황진철	청주대
헤비급	1	노신	경희대
	2	이건원	한국체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3	김재욱	동아대
	3	성필용	동희대

●입상자명단 (여자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플라이급	1	신숙	이화여대
	2	신보영	한양대
	3	박지선	경희대
	3	안희정	유도대
뱀팀급	1	배은정	성신여대
	2	박현숙	유도대
	3	모미라	성신여대
	3	강경숙	상명여대
페더급	1	정은옥	상명여대
	2	박연실	성신여대
	3	김양우	청주대
	3	최형우	상명여대
라이트급	1	박진경	상명여대
	2	석소정	유도대
	3	남정동	성신여대
	3	박현순	성신여대
웰터급	1	김유숙	성신여대
	2	오현주	이화여대
	3	고재경	성신여대
	3	김숙희	인천전문대
미들급	1	김미화	인천전문대
	2	허지숙	인천전문대
	3	양인덕	상명여대
	3	고현정	성신여대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올림픽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 대망의 '88년을 맞아 15년에 걸쳐 태권도 꿈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다듬어온 제15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기 쟁탈대회가 1988년 4월 19일~4월 23일(5일간) 부산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지방체육의 활성화와 태권도 지방 보급에 기여함은 물론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고연맹은 지난 '83년 김천대회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여중부 12개교 45명, 여고부 14개교 122명, 남중부 34개교 381명, 남고부 43개교 583명 등 총 103개교에 1,131명이 참가하여 열띤 응원과 흥분속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꿈나무들의 대제전이였다.

대회는 불꽃튀는 경쟁속에서도 88년 서울 올림픽에 임하는 세계속의 태권도인 담겨 절



정 해 주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심판분과위원장

서정연하고, 수준높은 대회로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앞서 대한 태권도 협회장을 대신해서 엄운규 부회장이 본연맹 이병석 부회장, 문승국이사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고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권오현회장이 본연맹 이윤택회장, 이병석 부회장, 문승국이사, 김영환이사, 김인수전무이사, 김찬희이사, 이충구이사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중고연맹회장은 부산직할시 태권도협회 권오현회장과

최용수, 도종이 부회장, 이근우 전무이사, 최정권 총무이사, 안병로 부산체고교장, 김일회 동명공고교장, 손종식 영남중교장에게 감사패전달과 이택명 본연맹감사, 최재혁이사에게도 공로패가 전달됐다.

개회식은 수천명의 관중이 구덕체육관을 꽉메운 가운데 내빈 및 관중과 부산의 자랑인 광성공고의 밴드가 우렁차게 울리는 가운데 부산 배경국민학교 고지식 사범의 지도로 멋진 태권도 시범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부산직할시 권오현회장은 환영사에서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슬기를 담은 전통 무도로서 지금은 뻗어가는 우리의 국력과 국위에 힘입어 새로운 세계인의 스포츠로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국기임을 강조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부산의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이우생회장이 우승자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선수들은 우승의 고지를 향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서 한국중·고 태권도연맹 이우생회장께서는 대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16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되어 미와 기와 힘을 겨루는 인류의 축제이며 평화의 제전인 '88서울 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92년 스페인 바셀로나 대회에서는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임을 강조하고 태권도가 세계평화와 긴장완화에 이바지하고 인류문화의 발전과 공존 공영의 복지향상에 기여 할수 있게 우리 태권도인은 기와 도를 함

께 닦아 인격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된은 물론 이대회는 교육의 연장으로서,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최용수 부산직할시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중·고 태권도연맹은 경기 태권도인들의 산파역을 맡아 선봉 역할을 담당하면서 꾸준히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경기인들의 저변 확대에 주력 하였으며, 제15회 한국중·고연맹 회장이 생탈대회를 향도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역대

권도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9월17일-20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되는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 기술면에서는 물론 경기장의 모든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과 특히, 제8대 중·고연맹회장에 취임하여 첫행사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이우생 회장께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부산직할시협회 임원 및 중고연맹 임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중고연맹 장명식고문은 축사에서 그동안 모든 태권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날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체육의 기능을 담당할 스포츠로 성장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점은 남자고교 전국 각시도 대표선수들이 대거 출전하였으며, 특히 본대회는 금년 10월에 있을 본 연맹 대표선수 1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 및 남미쪽으로 중고연맹 대표선수를 파견하여 스포츠 외교와 국위선양 및 중고연맹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A, B, C코트에서 경기가 계속되었는데 경기는 첫 게임부터 열띤 합성속에 떠나갈 듯하였다.



우승자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권오현 부산시 태권도협회장.

—대회 1일째 경기—

김건우(동명공고)는 남고부 편급 2회전에서 최낙성(협성고)을 2회1분12초만에 K·O로 제압 기염을 토했으며, 역시 같은 체급인 구동신(송도상고)도 2회전에서 김경일(항도실고)을 K·O로 물리치고 32강의 3회전에 진출했다. 플라이급에서는 1회전에서 이지한(동명공고)에게 K·O승을 거둔 이명철(경남체고)이 2회전에서 김종철(정동고)을 일방적인 리드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역시 3회전에 진출했다. 또한 이호범(동명공고)은 박영길(포항수산고)을 판정으로 연파 우승후보 강우석(동성고)과 3회전에서 맞붙게 됐다.

한편 여고부 플라이급에서는 강정선(은광여고)이 1,2차전에 이화연(익산종고)과 장복순(문산종고)을 잇따라 판정으로 제치고, 8강에 진출, 안의선(인천체고)을 누른 최희정(천안여고)과 준결 진출을 다투게 됐다.

—대회 2일째 경기—

여고부 라이트급 홍상희(인천체고)는 같은 학교 김영인에

게 1회 46초만에 R.S.C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여고부 라이트급 김지영(위례상고)은 최연숙(익산종고)에게 3회1분만에 역시 R.S.C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고부 김동구(부산체고)는 김형만(덕원공고)에게 R.S.C승을 거두고 3회전에 진출했으며 남고부 라이트급 김대산(한성고)은 신원덕(경남체고)을 1회 1분 20초만에 둘러차기 얼굴 강타로 K·O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남중부 라이트급 김형원(구월중)은 김재훈(재송중)을 2회 30초 R.S.C승으로 3회전에 진출했으며, 여고부 웰터급 송민준(익산종고)은 김민경(세화여고)을 3회 50초 R.S.C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대회 3일째 경기—

426번경기 이재화(항도실고) 선수와 김재호(전남체고)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항도실고측에서 소청서를 제시하여 소청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판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발표했으며, 남중부 라이트 헤비급 안금호(구월중)는 박덕일(전남체중)을 3회 23초 R.S.C승을 하여 준준결승에 진출하였으며, 남고부 라이트급 김혁원(서울체고)은 김형섭(한성고)을 1회 15초 경 오른쪽 뒷차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한편, 남고부 밴텀급 김충현(동명고)과 신호동(송도상고)

의 경기에서 심판판정이 끝난 후 동명고 코치가 심판 판정에 불복 코치석 옆에 있는 물통을 들어 배심원으로 던지는 난동이 있어 대회가 약 5분간 정지되었으나, 집행부의 선처로 동명고 코치는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다시 진행하는 부끄러운 일면도 있었다.

—대회 4일째 경기—

남고부 및 남중부 메달권 진입이 3일째 오후부터 실시되어 4일째 오전까지 불꽃튀는 열전을 펼쳤다.

—대회 마지막 경기—

남여중·고등부에서 예선전을 통과하고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며 올라온 선수들이 체급별 우승의 고지를 향해 팽팽한 대결을 펼쳤다.

열띤 5일간의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에는 체급별 입상자와 단체상이 시상되었으며 특히 3년을 계속 우승한 인천체고 여고부는 우승기를 영원히 가져가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중고연맹 이유행회장장은 강철남 배심위원, 전상민 심판위원, 장창연 심판위원, 유세종 심판위원, 민준원 심판위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중·고연맹 태권도 대회는 해가 갈수록 출전학교와, 선수가 많아지고, 웅변전도 치열해졌다. 한편 본대회가 상급학교 진학 특혜 및 문교부 체육특기자 인준 등으로 코치 감독들의 과열 경쟁에서 빚어진 약간의 이의제기는 태권도 중추국으로서의 면모와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지방해야 할 소중한

경험이있다고 사료되며, 임원 선수 코치 등은 반성과 함께 자기 발전의 계기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남중부(단체상)

우 승	동 성 중
준 우 승	재 송 중
3 위	풍 생 중
감 투 상	영 남 중
장려 상	초 장 중
최우수상	장대순(동성중)

여중부(단체상)

우 승	철 산 여 중
준 우 승	북 인 천 여 중
3 위	송 의 여 중
감 투 상	천 안 동 여 중
장려 상	남 주 중
최우수상	김지향(철산여중)

남고부(단체상)

우 승	성 동 고
준 우 승	서 울 채 고
3 위	대 전 체 고

감 투 상

장려 상	청 주 기 공
최우수상	익 산 종 고
	박상로(성동고)

여고부(단체상)

우 승	인 천 체 고
준 우 승	영 신 여 고
3 위	은 광 여 고
감 투 상	문 성 여 상
장려 상	천 안 여 고
최우수상	박동선(인천체고)

임상자 명단 (남자 중등부)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황 호 준	영 남 중
	2	석 운 용	개 성 중
	3	소 병 관	동 성 중
	3	김 태 호	풍 생 중
플라이급	1	이 정 희	대 구 동 중
	2	김 대 훈	영 남 중
	3	유 영 택	재 송 중
	3	강 근 배	남 주 중
벤치급	1	국 정 훈	풍 생 중
	2	김 민 우	영 남 중
	3	김 동 원	동 성 중
	3	최 재 훈	경 일 중
페더급	1	장 대 순	동 성 중
	2	최 진 철	경 수 중
	3	정 기 원	구 월 중
	3	김 진 흥	동 성 중
라이트급	1	윤 용 식	재 송 중
	2	김 봉 관	천 남 체 중
	3	최 용 훈	동 성 중
	3	조 국 화	개 성 중
L-플터급	1	최 석 화	재 송 중
	2	정 중 서	경 수 중
	3	강 성 봉	동 성 중
	3		
윙터급	1	김 민 수	동 성 중
	2	이 낙 경	해 동 중
	3	유 창 열	삼 봉 중
	3	이 영 빈	풍 생 중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L-미플급	1	김 정 규	구 월 중
	2	임 종 일	청 구 중
	3	장 용 국	개 성 중
	3	만 재 철	단 대 부 중
미플급	1	김 정 호	동 성 중
	2	김 상 훈	재 송 중
	3	김 경 삼	영 남 중
	3	김 재 덕	구 월 중
L-헤비급	1	천 현 옥	동 성 중
	2	안 근 호	구 월 중
	3	김 용 권	동 두 천 중
	3		
헤비급	1	황 력 모	풍 생 중
	2	신 원 조	대 연 중
	3	추 문 식	강 곡 중
	3	유 상 번	구 월 중

(여자 중등부)

채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벤치급	1	김 지 향	철 산 여 중
	2	김 자 영	대 방 여 중
	3	이 선 자	구 의 중
	3	권 용 순	철 산 여 중
페더급	1	금 은 화	천 안 동 여 중
	2	조 화 완	철 산 여 중
	3	전 영 실	송 의 여 중
	3	홍 지 선	철 산 여 중
라이트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서 연 화	천 안 동 여 중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L-웰터급	3	김 미 례	북인천여중
	3	박 경 속	서귀중앙여중
	1	이 승 민	송 신 여 중
	2	김 혜 선	송 의 여 중
	3	권 은 주	철 산 여 중
웰 터 급	3	박 현 미	송 의 여 중
	1	조 향 미	북인천여중
	2	최 동 현	송 신 여 중
	3	이 화 연	송 의 여 중
L-미들급	3	백 미 화	철 산 여 중
	1	김 동 속	철 산 여 중
	2	이 재 임	구 의 중
	3	정 윤 경	박 학 중
미 들 급	3	한 지 연	북인천여중
	1	고 명 산	북인천여중
	2	이 수 영	송 의 여 중

(남자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이 경 호	한 성 고
	2	구 동 신	송 도 상 고
	3	박 진	성 동 고
	3	강 윤 석	풍 생 고
플라이급	1	권 영 수	성 동 고
	2	박 병 익	리 라 공 고
	3	진 식	경 상 공 고
	3	이 창 환	전 남 체 고
밴 텀 급	1	백 영 선	성 동 고
	2	진 재 성	풍 생 고
	3	신 호 동	송 도 상 고
	3	조 회 진	대 전 체 고
페 더 급	1	박 상 로	성 동 고
	2	민 태 남	동 성 고
	3	손 원 기	경 상 공 고
라이트급	3	홍 성 철	청 주 기 공
	1	박 의 성	청주신흥고
	2	박 진 석	성 동 고
	3	경 우 찬	성 동 고
웰 터 급	3	김 득 영	포한수산고
	1	박 세 진	서 울 체 고
	2	최 정 복	동 성 고
	3	김 영 주	동 명 공 고
	3	최 충 목	광 성 고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미 들 급	1	박 종 범	청 주 기 공
	2	임 영 회	광 성 고
	3	추 광 식	송 실 고
해 비 급	3	이 종 섭	서 울 체 고
	1	김 용 귀	대 전 체 고
	2	이 호 근	경 남 체 고
	3	서 영 주	동 명 공 고
	3	송 근 배	전 남 체 고

(여자 고등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핀 급	1	장 이 숙	청 산 여 상
	2	조 현 주	보 영 여 중 고
	3	김 정 자	영 신 여 고
플라이급	3	김 보 영	천 안 여 고
	1	강 정 선	은 광 여 고
	2	김 도 희	문 성 여 상
	3	양 은 정	청 산 여 상
밴 텀 급	3	서 유 경	보 영 여 중 고
	1	박 동 선	인 천 체 고
	2	박 추 경	청 산 여 상
	3	김 성 숙	인 천 체 고
페 더 급	3	박 정 미	인 천 체 고
	1	이 현 화	청 산 여 상
	2	박 정 희	인 천 체 고
	3	노 경 미	문 산 중 고
라이트급	3	윤 회	인 천 체 고
	1	김 지 영	위례상고
	2	홍 상 희	인 천 체 고
	3	정 남 숙	천 안 여 고
웰 터 급	3	박 경 희	고 양 중 고
	1	박 에 란	인 천 체 고
	2	장 철	청 산 여 상
	3	송 민 준	의 산 중 고
미 들 급	3	손 정 애	인 천 체 고
	1	박 해 영	인 천 체 고
	2	정 현 숙	청 산 여 상
	3	최 귀 재	청 산 여 상
해 비 급	3	김 성 자	남 해 상 고
	1	백 영 미	인 천 체 고
	2	박 은 주	청 산 여 상
	3	류 설 아	덕 원 여 고
	3	이 성 미	문 성 여 상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5. 28~29, 잠실학생체육관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주최로 제9회 어린이 태권왕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5월 28일과 29일 2일동안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62개 국민학교가 출전한 가운데 겨루기부문에 남자부가 385명, 여자부가 49명 등 총 434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해 성황리에 대전을 펼쳤다.

대회 첫날인 5월 28일 오전 7시부터는 각체급별 출전선수 체계가 실시되었고 이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급별 예선이 펼쳐졌다.

5월 29일은 전날의 겨루기 예선전에 이어 오후 4시에 준결승전까지 마쳤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원을 얻어 KBS TV에 생방송이 시작되면서 개최식에 이어 결승전에 들어갔다.

개회식은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직대의 광파레로 시작되어 한국국민학교연맹의 김

중영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8회 태권왕겨루기대회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한 서울광희국교가 서영준회장에게 우승기를 반환했다.

서영준회장은 대회를 통해 「어린이태권도인들은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경기를 펼쳐주길 당부했다. 이어 서울광희국교 5학년에 재학중인 최학용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서울미동국민학교어린이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웅장하고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 펼쳐진 편집 결승전에는 대구지산국교의 김태상선수와 청주서원국교의 김양우선수가 올라왔는데 김양우선수가 우세한 기량을 보여 판정승을 거두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전남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가 경기용인국교의 김선웅선수를 맞아 내러찌기 등으로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돌려차기를 성공시켜 플라이급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출전 선수중 가장 정확하고 다양한 고도의 기술발휘로 미기상(美技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여수서국교에는 이창석 교치의 지도로 현재 100여명의 태권도부원들이 매일 방과후 2시간씩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밴텀급 결승전에서는 인천 동암국교의 김봉환선수와 용인신갈국교의 함용호선수가 올라와 패권을 다투었는데 김봉환선수가 적극적인 공격으로 함용호선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안았다.

웰터급 결승전에서는 서울 면목국교의 김상익선수와 청주서원국교의 이진상선수가 태권왕의 자리를 다투었는데

청주서원국교의 이진상선수가 승리해 청주서원국교는 편급과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단체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을 뿐만 아니라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청주서원국교의 지민규코치는 단체 1위의 영광은 예상밖의 성과라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어린이들의 따의 결과라고 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에 나와 학생들을 격려하며 응원을 보내준 안상만교장선생님과 학부형들의 뜨거운 후원으로 어린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한 것이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했다.

안상만교장선생님도 지민규사범이 지도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자신감과 정신력으로 경기에 임해준 어린이와 열성적으로 지도해준 지민규사범, 뜨거운 후원을

보내준 학부형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청주서원국교에는 150여명의 태권도부원들이 수업을 마치면 매일 1시간씩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선수부 30여명은 2시간씩 수련하고 있다고 한다.

미들급결승전에는 체격에서 월등히 앞선 서울연목국교의 홍경석선수는 용인신갈국교의 황선봉선수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고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비급결승전에서는 서울고일국교의 채현선수가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며 서울신석국교의 임세영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태권왕겨루기대회기간 동안 인천간석국민학교에서 나온 150여가량의 응원단이 다양한 악기로 박자를 맞추며 흥겨운 율동과 응원가로 대회에 출전한 태권도선수들을 응

원해 주어 대회 분위기를 한결 흥겹게 북돋아주었다.

인천간석국교는 여자선수만 15명이 출전했는데 문성여상의 김영수사범이 간석국교의 체육진흥후원회 회장으로서 태권도 특활부의 10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공덕교교장은 학교의 응원단에서 태권도대회에 응원나오기 위해 자의로 3일간 연습했다며 어린이들의 협동심과 출선수범을 대견스러워 했고 태권도선수들이 학교에서와는 달리 열심히 시합을 펼치는 것을 보니 놀랐으며 앞으로 태권도부 발전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권왕겨루기대회 기간동안 잠실학생체육관은 미래의 태권도를 젊어지고 나갈 어린이 태권도인들의 축제였는데 떠나갈듯한 응원과 경기장에 마주선 하얀도복의 두 선수가 지르는 기합소리로 가득찼다.

입심자명단

계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핀급	1	김할수	서원국
	2	김태상	지산국
	3	박재용	서원국
	3	홍용호	개원국
플라이급	1	백훈	여수서국
	2	김선웅	용인국
	3	김순주	취경국
	3	최병운	북대국
밴텀급	1	김봉환	동안국
	2	함용호	신갈국
	3	이원철	서릉국
	3	장명성	한삼국
페더급	1	정대영	개명국
	2	박유신	구원국
	3	조승원	성남하원하
	3	홍기현	지산국

계급	등위	성명	소속및학교명
라이트급	1	장동훈	북대국
	2	홍의익	주성국
	3	이정태	지산국
	3	이승일	잠원국
웰터급	1	이진상	서원국
	2	김상익	연목국
	3	유근부	천대국
	3	황문선	천현국
미들급	1	홍경석	연목국
	2	황선봉	신갈국
	3	이진	성산국
	3	박승윤	주성국
해비급	1	박열선	옥수국
	2	임세명	신석국
	3	오윤혁	서릉국
	3	심상훈	천현국

올림픽이후 태권도의 발전방향



사회체육의 내용과 방법은 관련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태권도와 같이 특별한 용구나 시설을 필요로하지 않는 스포츠는 국민모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체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임 번 장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I. 서 언

현대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생활은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반면 이에 따른 많은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즉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도시화에 의한 생활환경의 오염, 기계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폐쇄 등의 사회병리 현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사회적으로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주고, 국가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회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88올림픽 이후의 사회변동에 따른 삶의 질적 향상, 사회구조의 다원화 및 국제화는 일반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어서 사회체육의 질적·양적 향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사회체육의 내용과 방법은 관련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이다. 특히 태권도와 같이 특별한 용구나 시설을 필요로하지 않는 스포츠는 국민모두에게 보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회체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

태권도가 갖는 시설도장의 지역적 분포, 지도자의 양성체제, 집단지도의 용이성 그리고 특별한 용기구가 필요없고, 시간과 기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태권도는 향후 사회체육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인 태권도는 '88올림픽 이후 사회체육의 진흥을 주도해갈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무도관을 중심으로한 각종 무도가, 중국에서는 태극권을 중심으로한 "우수(武術)"가 국민모두가 즐기고 애호하는 국민스포츠로서 성행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태권도는 약 2천개의 시설도장과 2백만명의 유단자를 보유하고 있어 시설, 지도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체육의 목표를 전망하면서,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과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역할

1. 스포츠대중화의 견인역

현대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레크레이션과 각종 스포츠에 참여토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몸과 안정된 마음을 찾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태권도는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직과 전국적으로 분포된 시설도장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포츠의 대중화와 스포츠인구의 저변확대에 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태권도장을 이용한 태권도의

기술전과뿐만 아니라 여타 스포츠종목의 활동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체육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시설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 있다.

2. 국민스포츠로서의 정착화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전통 문화를 많이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민족이다. 그중 우리의 민족놀이에는 강인한 정신력과 굳건한 체력을 길러주고, 협동심과 단결심을 고취하여 능률한 의지와 감투적 상무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우리 고유의 민족혼과 향토적 애郷심을 길러주는 전통적 민속놀이가 많이 전래되고 있다. 이러한 민속경기의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국민스포츠를 발굴·보급하는 것은 사회체육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통적 무도정신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지닌 태권도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행하여져 태권, 수박, 태권, 탁권 등으로 불리워오던 한국에서 발생한 고유의 전통 무술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였던 태권도는 국민스포츠로서의 요건을 고려해 볼 때 흥미성만 보완되면 훌륭한 국민스포츠로서의 정착은 가능하다.

3. 외국 사회체육과의 교량역

'88 올림픽의 개최로 한국은 스포츠분야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LA올림픽에서 세계 10강에 진입함으로써 '88 서울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그로 인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입증한 것이며 한국체육의 발전

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체육의 입장에선 선진 외국의 경우 에 비해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양적·질적 수준이 매우 뒤진 실정이며 사회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회체육 전개방법 및 운영체제 등 그 사례에 대한 다양한 교류가 요구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사회체육 전반에 걸친 진흥의 폭과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권도의 경우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걸쳐 많은 국내 태권도인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태권도의 국제교류는 물론 사회체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합목적인 국제적 교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4. 국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

현대사회의 오염된 생활환경과 각종 업무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은 많은 질병으로 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만성질환, 성인병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신체활동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종래 치료에 국한하던 것을 예방에 더욱 치중하고 신체기능을 최대화함으로써 환경의 위협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평생체육 차원에서의 국민의 건강유지와 체력증진은 앞으로 체육이 취해야 할 1차적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신체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특히 태권도와 같이 신체 각 부위를 고르게 운동시켜 주는 전신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태권도를 통해 개개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동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호신술을 위한 기술습득 이상으로 태권도가 갖는 중요한 신체적 효과이다.

Ⅲ. 태권도의 발전방향

1.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모두의 스포츠로

우리가 지향하는 '88 올림픽 이후의 복지사회 체육은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 연령, 신체조건, 지역 및 사회계층에 구애없이 없이 국민 누구나가 복지화된 환경속에서 합리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의 경우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의하면 남성이 약 90%, 유치부와 국민학생이상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남성과 아동에게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평생체육의 차원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의 전환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성인이나 여성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그들을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나친 기술지도보다는 흥미위주의 지도로

사회체육 진흥의 전제는 활동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신체활동의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시절에 태권도를 배워본 성인의 경우 대부분 흥미를 못느껴 다시 태권도장을 찾는 일이 드문 실정이다. 특히 요즘의 어린이들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태권도장을 다니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설도장의 지도자들은 틀에 박힌 기술지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태권도 동작을 이용한 리듬체조와 같은 흥미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수련생들에게 흥미를 갖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설도장 지도자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도장운영의 자세가 태권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상업위주의 도장경영에서 교육위주로

현재 경영되고 있는 사설도장중 전체의 90% 정도가 임대건물이며 이중 월세 임대가 50%이상에 달해 도장경영의 경제적인 문제가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경제적 면만을 해결하려고 경영의 초점을 상업성에만 맞춘다면 올림픽 이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태권도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민역량의 최대 신장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태권도장 역시 엄연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설도장의 지도자에 대한 자격강화 및 전문성 제고와 연수교육의 체제를 재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설도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과 주변 환경의 재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태권도장과 지역사회체육의 연계성 확립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은 지역주민간의 친화력을 증진시키고 집단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은 한정돼 있으며 지도자의 부재나 운동방법의 미숙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분포된 태권도장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회체육의 전국적 확산에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 특히 이는 사회체육 시설 및 지도자의 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인 동시에 프로그램의 합리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권도장과 지역사회체육의 연계성 확립은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직장태권도 동호인의 확대 및 지원

체육활동은 집단적 활동이 대부분이며 집단운동은 체육에의 참여동기를 강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체육의 활성화는 조직구성을 통하여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권도의 경우 직장동호인의 활동은 현대, 포철 등의 기업체에서 부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을 뿐 전국적인 규모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태권도는 특별한 시설이나 용기구가 필요 없고 시간이나 기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장체육의 활동 내용으로 적합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활동이 미약하다.

따라서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자, 교재, 교육, 심사 등의 각종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직장태권도 동호인의 확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태권도 정책의 내실화

과거 태권도 정책은 우리나라가 태권도의 종주국이라는 입장에서 국내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왔다. 특히 태권도를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려는 운동의 외형적인 면에 많은 행·재정적 투자를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 태권도가 사회체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태권도의 정책은 무엇보다 국내의 태권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스포츠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은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전반에 걸쳐 초보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국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과 체육정책이 사회체육으로 전환될 경우 사회체육의 앞날은 희망적이며, 특히 올림픽의 막대한 체육시설이 국민모두에게 개방된다면 사회체육의 진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권도가 갖는 사설도장의 지역적 분포, 지도자의 양성체제, 집단지도의 용이성 그리고 특별한 용기구가 필요 없고, 시간과 기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태권도는 향후 사회체육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국민학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인국민학교와
조윤원 교장선생님.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체육시간에는 3, 4, 5, 6학년
2천5백여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학년별로는 특활시간에
태권도를 수련한다.
또한 희망자들은 매일 방과후
태권도 전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데 그 수는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군청 소재지에 자리잡은 용인국민학교의 정오의 운동장은 어린이들의 체육수업과 등하교시의 교대 때문에 먼지를 날리며 소란스럽다. 그러나 시끄럽다기 보다는 맑고 명랑하고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성장을 보는 듯하여 싱그럽기만 하다. 특히, 교문을 들어설 때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소리높이 외치는 것을 보면 더욱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인다.

총 65학급에 3천5백54명의 재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용인국민학교는 1982년도에 근교에 서룡국민학교 분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큰 학교이다. 그래도 2부제 수업을 해야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학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지금과같은 교육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용인국교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것은 지역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최근



1987년도에 거행된 경기도 태권도협회장기에서 단체 1위를 차지한 태권도부원들이 상장과 메달을 목에 걸고...

몇년전부터 용인에만 8개의 대학이 들어선 대학도시로의 변모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40분거리라 많은 인구가 이동해 온 위성도시로의 변모 등으로 인구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타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많은 경우 학교교육이 비중이 그만큼 커지는데 그것은 뿌리 내리지 못한 생활일수록 정신적, 경제적으로 생활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인 강인함과 건강한 육체단련으로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용인국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한 것은 1980년도부터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합동체육시간을 마련해 3,4,5,6학년 2천 5백여명이 운동장을 가득 채우며 김두희사범의 우렁찬 구령 소리에 맞추어 태권도 수련을



김 두 희 사범

시작하게 되었고 학년별로는 특별활동 시간에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또한 희망자들에 한해 매일 방과후에 한시간씩 학교에 마련된 태권도전용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그 수는 2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최대한 태권도수련에 임하도록 배려하고 있어 어린이들은 국민학교 졸업시에는 4년여에 걸친

태권도 수련을 통해 태권도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많은 태권도수련생들 중에는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어린이도 많아 용인국교는 1987년도에 제8회 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단체3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장기 단체1위, 경기도 교육감기 단체1위 등을 차지하며 태권도 명문 국민학교로서의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8년간 태권도 지도를 담당해온 김두희 사범은 지난해 학교로부터 명예교사로 위촉되었는데 용인국교의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태권도를 수련하기 때문에 김두희 사범은 학교교직원들보다도 어린이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특히 방과후 매일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의 경우는 이들의 생활교육, 정신교육, 예의범절 등을 지도해 오고 있어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어린이 과외지도 교사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용인국교는 1915년 11월1일 금량공립보통학교(金良公立普通學校)로 개교,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조윤원교장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딱딱한 이론교육보다는 태권도와 같은 우리교육의 전통무예를 수련하게하고 각학년별로는 전통놀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목을 보면 1학년은 줄다리기, 2학년은 팽이치기, 3학년은 제기차기, 4학년은 연날리



용인국민학교
태권도 전용체육관

기, 5학년은 장치기, 6학년은 차절놀이를 하고 있다.

질서있고 생동하는 학교상을 정립하겠다는 용인국민학교의 구현처럼 태권도수련을 통한 질서교육, 생동하는 어린이를 통한 미래의 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는곳이 바로 용인국민학교이다.

한편 '82년도에 용인국교에서 분리된 서릉국민학교에도 김두희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해 80여명의 희망자들이 방과 후 매일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제8회어린이태권왕겨루기대회 단체2위와 경기도교육감기 단체2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의 광희국교에 이어 단체2위와 3위를 각각 용인의 서릉국교와 용인국교가 차지해 태권도 명문국민학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용인국교는 '80년도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이래 제4회 태권왕겨루기대회에서 이현철선수, 제5회대회에서 김근석선수, 8회대회에서 강일구선수와 나호동선수가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했고 서릉국교는 지난해

8회대회에서 임중혁선수와 유웅열선수가 웰터급과 미들급 태권왕을 차지했다.

한편 용인국교와 서릉국교의 태권도 우수선수들이 대거 용인의 태성중학교에 입학해 앞으로 중학교 태권도명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두희사범은 용인국교와 서릉국교뿐만 아니라 태성중학교 태권도선수단을 지도해



조순호 교감과 정상근 교감

태권도수련을 국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연결시켜 지도해 올해의 경기도 소년체전 대표선발전에서 태성중학의 정광호선수와 한송규선수가 라이트웰터급과 라이트미들급의 도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조윤원교장은 김두희사범을 외유내강의 본보기라며 어린이들의 태권도지도를 부드럽고 승쾌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좌우됨없이 성실하게 지도

하고 있다며 용인국교에서 김두희사범을 맞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처럼 학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예 교사답게 김두희사범은 태권도 교육을 실천하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조순호 교과담당교감도 용인이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많고 맞벌이부부 등이 많아 생활기반이 약하여 어린이교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태권도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정신교육과 극기훈련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밝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태권도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정상근 체육담당교감도 어린이 기초체력향상으로 몸이 튼튼한 어린이를 길러줄 뿐더러 정신도 튼

튼한 어린이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두희사범은 학교장, 학교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보답하기위해 태권도수련에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정직하고 예의바른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용인국교는 앞으로 태권도를 대표하는 국민학교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 장 탐 방

경기도 철산 여자 중학교



명실상부한 여자중등부 강팀으로 부상한 철산여중 태권도부원들.



조 재 원 교장

1983년도에 제1회신입생 입학식을 시작으로 역사의 장을 연 철산여자중학교가 3회에 걸쳐 총18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인재양성의 본원지로 자리잡아감은 물론 여중부 태권도 최강팀으로 부상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철산여중이 태권도계에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에 개최된 제23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조

화임선수가 밴텀급 1위를 차지했고 라이트급1위로 선발된 박금주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중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였다.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명실상부하게 여자 중등부 강팀으로 성장한 것이다.

올해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거행된 제15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는 김지향선수가 밴텀급1위, 김동숙선수가 L-미들급1위를 차



이순규 체육주임 (좌) 과 이재원 사범 (우)

“1983년도에 문을 연 철산여중에 태권도부가 창단된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중부 태권도 최강팀으로 부상하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지하는 등 철산여중이 2년째 계속해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김지향선수는 영예의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는 현재 3학년에 6명, 2학년에 6명, 1학년에 10명의 수련생 등 총 22명의 태권도부원들이 태권도 수련의 길을 걷고있다.

2,3학년 12명 중에는 9명의 선수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및 시도대회 채급별 1위자로 학교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면제받는 장학혜택을 받고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는 매일 수업전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수업후에 3시간씩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달 마지

막주 토요일은 수업없이 태권도만을 전적으로 수련하게 된다. 이것은 철산여중이 특활의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 타학교에서 매주 1시간씩 갖는 특활 시간을 한달 중 마지막 토요일 하루에 몰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산여중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처음에 특활시간을 이용해 태권도지도를 담당한 셋별체육관의 이문창관장의 지도에 의해서 였다. 3년전 85년도에 처음 태권도부가 창단 되었을 때는 특활반 학생들의 태권도지도에만 주력해 사실상 대회참가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초 이재원사범이 태권도사범으로 부임해 태권도 수

련을 전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오전 오후 수련을 실시하는 등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며 대회에 본격적으로 출전하기 시작해 종합우승의 고지를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산여중의 태권도부가 창단된지 3년만에 여중부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발전을 이룩한데 비해 학교에서는 선수들의 진학문제에 있어 경기도내에 태권도 특기생을 받는 고등학교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5명의 선수출신이 좋은 전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진학을 모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인천체고에 입학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태권도 여중부가 전국소년소녀들의 제천인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채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각 학교에서 체육 육성종목으로 전국체전과 연관있는 종목을 채택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여자 태권도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토양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태권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의 학교에서 태권도부를 적극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시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할 학교가 없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조재원교장은 학교가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들의 학업지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진



철산여중의 깨끗하고 아담한 학교전경

학지도를 해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중요한 임무인데 여자 태권도가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현실에서 진학지도에 애로점이 많아 학생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해 각종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경기도의 체력을 과시하는 등 자랑스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기를 살려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철산여중에서 대만의 신태국민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펼쳤는데 이 때 대만신태국민중학교교장으로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간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갖자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문제를 감당할 방도를

마련하지 못해 수락하지 못했다고 하며 양국 학생들의 친선경기를 통한 문화적교류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계기관이나 교육위원회 등에서 보조받을 길이 없었다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다양한 발전의 방법 모색이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순규 체육주임은 태권도가 학생들 사이에 붐을 일으키는 인기스포츠로 자리잡아 태권도부에 대한 인식이 좋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부원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예의범절 등이 바르고 공부도 잘해 학교에서는 모두 모범생이라고 태권도선수들을 칭찬했는데 진로만 보장된다면 앞으로 체력과 체력이 좋은 재목감을 임의

선발하여 양성시켜 훌륭한 태권도선수로 지도하고 싶다고 했다.

태권도부원들 중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5회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밴텀급우승을 차지한 김지향선수는 국민학교4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 지난해에도 경기도협회장기와 중고연맹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유망주이다. 뒷차기가 일품인 김지향선수는 앞으로 계속 태권도 수련을 하겠다고 태권도 대표선수로서의 꿈을 키웠다. 또한 L-미들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동숙선수는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수련해 훌륭한 선수가 되어 사범님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김동숙선수의 경우 철산 여중에 입학해 태권도수련을 시작했으나 위력적인 내러차기기술 등을 주특기로 치너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두 선수외에도 모두들 태권도 수련을 계속해 태권도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서슴없이 밝혀 이들이 얼마나 스스로 선택한 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들을 지도하는 이재원사범은 태권도 수련장소로 평일에는 운동장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수련생들이 기후변화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내 연습장이 하루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장 탐 방

경상북도 봉양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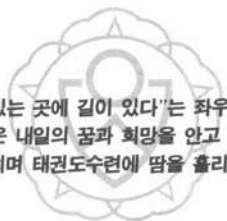


태권도부원과 신기철코치(좌측끝)와 강원규 체육주임(우측끝)

경상북도 의성군 교육청으로부터 1987년도 교육실적 우수학교로 지정된바 있는 봉양중학교는 1954년에 개교한 이래 3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젊어질 많은 일꾼들을 키워왔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라는 교훈아래 올바른 국가관을 길러 자주의식이 강한 애

국민, 스스로 공부하고 명량하고 순수한 품성을 지닌 지성인, 과학적인 사고력과 산업역군의 자질을 가진 과학기술인, 합리적인 보건관리와 체육활동으로 심신이 건전한 건강인,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는 사람을 기른다는 5대 교육목표의 실천에 힘쓰고 있다.



● 오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좌우명으로 봉양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안고 태권도 기합소리를 더욱 더 크게 외치며 태권도수련에 땀을 흘리고 있다. ●

교육목표의 실천사업으로 봉양중학교가 태권도를 교기로 정한 것은 3년전이다.

시작 당시 소수 학부형들이 왜 치고 받고 하는 태권도를 가르치느냐는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지금은 학교측과 학부형들이 태권도부 선수들의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태권도부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은 지난 3년동안 전용훈련장소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방학동안에는 스스로 기량향상에 힘쓰며 뒤떨어진 학과공부에도 충실히 임하여 태권도부원들은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봉양중학교는 특기생으로 입학한 선수들에게 수업료를 면제 해주는 것외에는 훈련비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와 코치, 학교와 학부형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태권도부 활성화에 힘쓴 결과 지난해에 이창훈선수가 경북대표로 선발

되었고 제20회 경상북도 교육감기타기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서 중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도내 중등부의 강팀으로 새로이 부각하였다.

신생 봉양중학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량을 닦으며 태권도강팀으로 성장하기까지 선수들의 노력도 대견했지만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하여 선수를 직접 지도한 신기철코치(도리원체육관관장)의 노력과 강원규체육주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오늘의 결과를 낳게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홍종혁교장선생님은 선수들의 훈련장 마련을 위해 의성군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건의하여 금년 내로 50평정도의 전용훈련장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학교 예산이 어려워도 각종 대회에 최대한 출전시켜 늦어도 내년쯤에는 우수태권도 학교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직원들도 태권도 선수들의 학업과 훈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코치,

선수가 삼위일체가 되어 태권도 명문학교로서의 비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좌우명으로 봉양중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은 내일의 꿈과 희망을 안고 태권도 기합소리를 더욱 더 크게 외치며 태권도수련에 땀을 흘리고 있다.



영신여자고등학교



불암산 기슭에 자리잡은 영신여고 전경

여성 태권도 국가대표의 산실이며 여성태권도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해온 청산여상이 불암산 기슭에 50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교사(校舍)와 강당, 특별교실 등을 갖추고 '88학년도부터 정규모형으로 승격, 영신여자고등학교로 새로이 탄생하였다.

「믿음으로 사는 여성」을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형성에 교육의 바탕을 둔 영신여고는 여성태권도의 명문답게 국기태권도의 계승발전을 교육방침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영신여고의 이사장인 광성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태권도선수들에게 대회출전에 앞서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응원해주고 있다.

영신여고의 학교장인 고종성교장은 영신여고 태권도부의 빛나는 전통을 학생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와 12년간 꾸준히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 여자 선수들의 경



김 창 인 이사장



고 종 성 교장

기력 향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모형으로 꾸준히 지도해온 김영인코치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태권도부의 위상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도자와 학생의 노력을 칭찬했다.

또한 「교사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며 앞날의 인재를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또 이름난 학교는 좋은 시설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니 사명감을 가진 교사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기초위에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며 영신여고의 앞날은 바로 태권도부의 학생과 김영인 체육교사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전통처럼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영신여고 전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굳건히 쌓아가자고 다짐했다.

영신여고의 전신인 청산여상이 30년의 역사 속에서 태권

도계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3월 김영인 체육교사가 이 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산여상 출신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만도 3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 일간지와 방송을 통하여 국기 태권도의 위력을 세계에 떨치는 것이 소개되면서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산여상의 이름은 널리 전파된 것이었다.

지난 해 11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4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만을 예로 들더라도 8명의 대표선수중 청산여상 출신의 대표선수(재학생1명, 졸업생5명)가 6명이나 참가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다. 이때 청산여상의 김영인 교사가 국가대표팀코치로 선임되어 이들을 지도한 것도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대회로는 11월에 국가원에서 거행된 제14회중

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여고부 9연패라는 신기록을 달성하며 여자 태권도 최강의 자리를 고수했다.

한편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에 여자국가대표선수선발전에서는 재학생 중 이화진선수가 핀급1위, 추난를선수가 플라이급1위로 선발되었고 졸업생 중에는 경희대의 박선영선수가 밴텀급1위, 성신여대의 김소영선수가 페더급1위, 경희대의 김지숙선수가 웰터급1위, 경희대의 김현희선수가 미들급1위로 선발되어 8체급 8명의 대표선수중 6명의 대표선수를 배출하는 영광을 차지하여 올림픽대회에서 역사적인 광파례를 올릴날을 기다리며 강화훈련에 돌입했고, 김영인교사 또한 국가대표코치로 선임되어 이들을 지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영신여고 태권도부가 어떻게 수련에 임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영신여고 태권도부원들이 각종 대회에서 땀 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국가대표를 키워온 김영인
체육교사와 대형체육관

사랑하는자들아우리가
서로사랑하자

요한일서사랑할렙교구선

학교중앙목도에 걸려있는 고종성교장의 친필이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도...

전통을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명문으로 있기에는
많은 땀과 노력을 요구한다.
한국여자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명문여고로 자리잡아온
청산여상이 영신여고로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더욱 더 비상의
나래를 활짝 펼칠 날들을
기대해 본다.

다.

훈련목표는 전문체력강화,
경기력향상, 정신력강화로 두
고 있는데 전문체력강화는 개
인별 체력측정을 통해 평가 및
장단점을 보완하고 경기력 향
상은 전문기술 및 전술개발,
개인특기 기술개발을 해 평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신력강
화는 집중력, 담력, 사명감, 협
동심 배양 등으로 다지고 있다.
한편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
서 왕복달리기를 실시하고 순
발력을 키우기 위해 씨전트점
프, 배밀기, 복근운동을 한다.

인터발 트레이닝은 45도경사
스피드 달리기 및 크로스컨드
리를 하고 사이드스텝, 팔굽혀
펴기, 줄넘기, 등뛰어넘기 등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야외훈련으로는 학교 뒤 불
암산 언덕을 이용한 발차기 및
겨루기를 지도해 환경을 변화
시켜서 훈련의 강도를 높인 다
고 한다.

한편 시합을 앞두고는 기초
체력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근력,
전신지구력, 민첩성, 순발력을
증진지도하며 일주일에 한번
씩 측정평가하고 전문체력육
성을 위해서 유연성, 균형, 반
응, 순발력, 스피드를 키우고
있는데 특히 유연성운동은 기
술의 다양화와 어려운 동작을
개발하고 동작의 중심의 균형
을 잡아서 발차기의 정확성 및
스텝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겨루
기를 통해 찬스포차, 거리조정,
과감성있는 공격위주로 훈련
을 실시하고 타켓 이동 발차기
로 시합에서와 같은 발차기를
반복연습하며 스피드를 증진
시키고 연결발차기와 발의 순
발력을 키우며 원돌며 스피드
발차기를 통해 발차기횟수 및
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수들의 상해예방이라
고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자
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방법을 모색하고 학생들
은 열과 성의를 다해 코치의
지시를 따르며 땀을 흘리고 있

는 영신여고의 대형체육관에는 비디오 등 최신과학설비를 갖추고 선수들에게 시청각교육을 통한 태권도 기술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여자 태권도가 세계선수권대회까지는 물론 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세계인의 스포츠로서 발전해 온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전국체전에서조차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각 학교에서의 태권도부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태권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대표적인 학교장으로서 태권도계에 알려진 고종성교장은 앞으로 여성태권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체육에서 태권도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각 학교의 학교장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육에 활용,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여자고등학교장들에게 태권도 경기시에 초청장이라도 발송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통을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명문으로 있기에는 많은 압박과 노력을 요한다. 한 국여자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명문여고로 자리잡아온 청산여상이 영신여고로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더욱 더 비상의 나래를 활짝 펼칠 날들을 기대해 본다.

국 내 대 회 전 적

시 합 명	시 합 년 도	비 고
한국 중고 연맹전(추계)	1979-1987	9 연승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한국 중고연맹전(춘계)	1978-1980	3 연승
(중고 연맹 회장기)	1981	준우승
	1982-1985	4 연승
	1986-1987	준우승
연세대학 총장기	1978	준우승
	1979	우 승
	1980	준우승
	1981	우 승
	1982	준우승
	1983-1986	4 연승
	1987	준우승

역 대 국 가 대 표 선 수

번호	선수명	선발년도	대 회 명	해 급	개 회 장 소
1	안철기	1980	국제원로 게임	해 비 급	서 울
2	안철기	1981	아시아 선수권대회	해 비 급	타이베이
3	이희환	-	-	해 비 급	-
4	이권영	-	-	해 비 급	-
5	전소순	1983	전신 국제대회	미 들 급	-
6	김소영	1983	-	해 비 급	-
7	신 숙	1985	제7회 세계선수권 대회	편 급	서 울
8	김정원	1985	-	중미급	-
9	김현희	1985	-	미 들 급	-
10	신 숙	1986	제7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편 급	호주 다윈시
11	박선영	1986	-	해 비 급	-
12	김지숙	1986	-	라이트급	-
13	김현희	1986	-	미 들 급	-
14	전소순	1986	-	해 비 급	-
15	장이숙	1987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편 급	스페인 파르셀로나
16	배은정	1987	-	플라이급	-
17	김소영	1987	-	해 비 급	-
18	김지숙	1987	-	해 비 급	-
19	김현희	1987	-	미 들 급	-
20	이화진	1988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유럽권 대표선발전	편 급	대한 카루만두 서 울
21	추남률	1988	-	플라이급	-
22	박선영	1988	-	해 비 급	-
23	김소영	1988	-	해 비 급	-
24	김지숙	1988	-	해 비 급	-
25	김현희	1988	-	미 들 급	-
26	조계선	1986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편 급	미 국
27	김지숙	1986	-	라이트급	-
28	전소순	1986	-	해 비 급	-
29	김현희	1986	-	미 들 급	-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태권도부

국립경상대학교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의 중간에 위치한 진주시에 있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이 지방의 교육, 문화,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도시로 발달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경남의 도청소재지였으며 임진왜란때에는 국가의 위난을 막기 위해 진주시민 5만명이 왜적의 침공에 이 고장을 지키다가 진주성에 서 장렬히 목숨을 바친 애국충절의 기개를 만방에 알렸으며, 논개의 충절이 오늘날에도 이곳에 살아 숨쉬면서 현대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호국정신과 국가를 사랑하는 도장으로 이용되는 고도 진주이다. 가까운 동으로 마산이, 서에는 지리산이 자리를 하여 옛부터 농업, 임업, 어업의 풍부한 자원과 생산으로 지방민의 의식주 생활에 크게 기여하는 1차산업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한려수도라 웅장한 지리산 등의 관광자원으로 관광의 요충지로서 90년대에는 남쪽의 교통 중심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올해로 경상대학교는 개교 40주년을 맞이 했다. 광복된 조국이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자립정부를 수립한 1948년 10월 20일에 「개척」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경남 독립 초급 진주농과대학이 탄생되었다. 1953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 1972년 국립경상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1980년 3월 1일부로 종합대학교로 개교되었다. 현재는 8개 단과대학 65개 학과에 총정원 11,720명, 대학원 석사과정 32개 학과 250명, 박사과정 17개 학과에 86명, 교육, 경영, 행정 대학원 500명으로 일만이천여명의 「개척인」이 40만평의 가좌벌에 새로운 캠퍼스를 완성하며 진리탐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진실과 학문적 이상을 추구하는 겨레의 일꾼 양성에 교육목표와 방침을 이정한총장은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도, 학내의 체육진흥과 지역사회체육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상대 태권도부는 1977년 이 학교에 부임한 현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강진홍교수(현 부교수)에 의해 '77년 5월부터 일반학생 및 체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동호인 클럽을 만들어 새벽과 오후반으로 약 250명이 모여서 심신의 단련과 순수 아마추어정신에 입각하여 대학생으로서의 호연지기를 향상시켰다. 78년부터 도내와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서 학교당국으로부터의 격려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당시 체육부장 유 덕시 교수와 전학장 윤태규교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980년도에 체육특기생으로 진 국가대표 하 석광군과 최 승룡군 2명을 선발하여 경상대 태권도부가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스포츠경기로서의 현대화된 태권도가 경남에서는 불모지였으며 일선학교나 사회에서조차 인식부재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당시로서는 전국체전에서 해군태권도부에게 의존하던 때이므로 이 지

방 선수 육성 및 저변확대나
신인발굴에 등한시하는 경향
이 많았으므로 우리팀으로서
는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경남
에 경상대 태권도부가 창단되
면서 소위 경남 태권도의 자생



이 정 한 총장



강 진 홍 감독
(체육교과과 교수)



산악훈련을 하는
태권도부원과
임홍택 코치

력이 그때부터 움트기 시작했
던 여명기였다고 할 수 있다.
8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대회
에 출전하면서 각 대회때마다
적개는 동메달 1개에서부터
많은 개는 작년(87년) 추계대학
대항전에서 종합준우승에 이
르기 까지 약 70차례의 포상을
체육단체로부터 수상하였다.
정식창단 만8년 동안에 국가대
표 1명(최 승룡 : 제4회 아시
아 선수권대회 밴텀급에서 우
승)를 배출하였고, 87년에 종
합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현
재까지 특기생 29명을 선발하
였는데(80년 2명, 81년 2명, 82
년 4명, 83년 3명, 84년 3명, 85
년 3명, 86년 4명, 87년 4명, 88
년 3명) 중등교사로 3명, 군입
대 10명, 3명은 발령대기, 13명
은 재학중에 있다.

국내 대학부 중 유일무이하
게 국립대학교에서 태권도부
를 처음 창단하면서 많은 어려
움과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학한 선수들의 학
업과 운동에 대한 각고의 노력
과 고군분투로 학교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운동부(현재
총 13개 운동부가 있음)로 발
전되었다. 따라서 경상대 태권
도부가 오늘날까지 꾸준히 성
장발전한 요인은 전국 각도에
서 선발된 선수들이 모여 강한
응집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본
다.

이제 경상대 태권도부는 국
내 어느 팀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
으며 학교당국이나 지방민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며 무

력무력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좀더
많은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학
교당국에서 적절한 경제적 지
원만 선행된다면 더욱 높은 질
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대의 선수선발 방법은
메달보다는 발전 지향적 측면
으로 기본기와 체격, 체력, 장
래성, 경기능력(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교고시절에
빛을 못보던 선수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더욱 더 열심히 공
부하고 운동에 심취하는 모습
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서 교
육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코
치로는 임 홍택사범이 82년 가
을부터 맡아오고 있다. 운동시
간은 주로 새벽운동과 방과후
오후운동 2시간 정도로 훈련
(training)과 연습(practice)을
하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남해
에서 해양훈련으로 겨울방학
에는 고산에서 산악훈련을 통
해 체력에서부터 개인주특기
훈련으로 보강하고 있다.

끝으로 경상대학교에는 「짧
게 살고도 오래사는 이」가 있
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그의 이름은 개척자다.

그의 눈은 앞을 보는 눈이요,
그의 가슴에는 보람으로 가
득차 있다.

그대는 무슨 일을 남길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언제나 이것을 묻기 위
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호암체육관



좌로부터 둘째아들 권준철사범, 권영우사범, 장남 권오민사범

서울 구로구 시흥2동 셋별 A.P.T상가에 자리잡은 호암체육관에는 권영우사범의 대를 이은 두 아들 권오민사범과 권준철사범이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1970년 4월 8일에 설립된 호암체육관은 18년의 연륜이 쌓이는 동안 3부자의 열의와 성의로 지금은 유치부 40명, 국교부 70명, 중고등부 40명 등 총 150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는 대형 도장으로 발전하였다.

18년전 호암체육관의 문을 열고 태권도 지도를 담당해왔

던 태권도 7단인 권영우사범(56세)은 지금은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직접 지도하지는 않으나 승급·승단심사시에 심사위원으로 나와 두 아들이 지도한 수련생들의 품새와 겨루기를 심사하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이어 받아 호암체육관을 물려받은 장남 권오민 사범은 태권도 5단으로 국민학교 때 아버지의 태권도수련광경을 보아 오며 자라 태권도에 입문한 것은 5학년 겨울방학 때 였으나 단기간내에 승단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이며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계속된 태권도 수련으로 영각중학교 3학년 때 서울시대표로 출전할만큼 실력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송곡고와 인천체전에서 태권도 수련을 계속하였고 1984년도에는 3급 심판 자격증을 획득해 심판원으로 도 활약하고 있는 등 태권도지도자로서의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

권오민사범은 아버님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영리면에서는 발지를 못해 나중에 자신이 도장을 운영하게 되면 태권도 교육과 도장경영면에서 조화를 이루리라 다짐해 왔었다고 한다. 막상 도장을 운영하다보니 수련생들에게 늘 인간교육을 우선 시키기위해 애쓰셨던 아버님께서 왜 영리를 피하는데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가를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교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지도방침을 자기 도 따라가게 되는것 같다고 했다.

이에 권영우사범은 아들이

자신처럼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가는데 대해 처음에는 「태권도 수련은 시켰지만 직업으로는 선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주지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태권도지도자로서의 길을 잇겠다는 의지가 결연하여 이제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무도인이 되어 주길 당부 한다는 것이다.

지도자가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지도능력까지 겸비했다 해도 교육자로서의 열의와 성의가 없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길을 아들이 이어받고 있고 친척으로서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택한 호암체육관의 아들들이 얼마나 우수한 지도자가 될지는 앞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열심히 수련생들을 지도해야 알겠지만 매년 수련생들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이들 부자의 노력의 결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아들인 권준철사범도 호암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여 왔는데 이곳에서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4월중순에 송탄에 태권도장을 개관 하였다. 국교 6학년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권준철사범은 현재 4단으로 선수생활을 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해온 태권도인이다.

막내 아들인 권오령씨도 태권도 4단인 태권도인이나 두



◀두아들의 대련모습

● 두 아들에게 도장운영 4·5년이 지나면 「이 길이 과연 나의 인생을 결명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회의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예견하며 그때 「평생 무도인으로서의 길이 참된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는 아버지...

형과는 달리 유일하게 회사원(기아산업)이 되었다.

아들 둘이 태권도사범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권영우 사범은 「옛날 서당에서의 교육이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우선한 것과 같이 태권도 교육도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보다 올바른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기에 인간교육 없이 기술만을 익히게 되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인간이 될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무도로서의 태권도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태권도 교육의 효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들은 도장운영 후 4·5년이 지나면 「이 길이 과연 나의 인생을 결명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를 하게되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본다며 그런 회의와 좌절의 시간이 앞으로 두 아들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 시기가 닥칠 때 두 아들 다 번민과 회의로 자신이 「평생 무도인으로서의 길이 참된 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참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아들 외에도 모든 태권도사범들이 참된 무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 충효체육원

김 홍 수 사범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정신교육의 산실

강원도 강릉시에는 13개 체육관에 약 900여명의 수련생들이 있다. 이 중의 하나인 충효체육원은 50여평의 체육관에 120여명의 수련생들이 땀 흘리며 충효의 메아리를 진동시키며 강릉의 태권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충효체육원은 다른 체육관이 「관」자를 쓰는 것이 대부분인데 「원」자를 사용해 태권도를 수련하러 오는 수련생들에게 부드러운 느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딱딱한 「관」자를 빼고 「원」자를 쓰고있는 특색

있는 이름을 가진 도장이다.

충효체육원의 근본지도 이념은 내적으로는 충효사상고취와 예의규범을 제1로 삼고 체험적인 깨달음으로 인격형성에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강인한 정신과 체력향상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법으로 태권도를 수련시켜 조직활동에 능률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인간과 자립정신을 길러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충(忠)과 부모님에 대한 효(孝)의 정신을 일깨워 부모

님과 스승님 모시기 운동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생활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태권도 수련시에 몸소 체험으로 익히게 하고있다.

우리사회에 점점 사라져가는 충과효, 그리고 정신적인 교육의 산실이 없는 요즈음 이러한 역할을 무도를 지도하는 일선 사범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태권도인이 짊어진 역사적사명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신교육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태권도 수련시 VTR 을 이용해 수련생들의 자세를 교정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태권도 수련시에는 태권도의 우수성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수련에 임하도록 하며 보다 엄하고 강한 지도이념으로 스파르타식 훈련과정을 통해 맘으로 법범이 되는 거듭되는 반복훈련으로 수련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엄한 과정을 통해 기강확립을 시키는 중에도 계속적인 수련으로 오는 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외수련을 겸하고 있다.

수련생들에게 수련시간에는 모든 잡념을 잊고 오로지 땀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행동거지를 바르게 실천해 수련생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무도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연마하는데 그 본연의 임무를 두고 있으나 수련생



들중 시험출전을 원하는 대상은 수련후 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슬로건은 「전쟁은 이등이 없다. 시험은 연습때와 같이 한다. 시험은 우승이 목표이다」라는 정신적인 교육과 작전 계획에 의한 훈련에 치중한다고 한다.

특별히 수련시작과 수련후 관망약서나 삼지침(三指針)을 복창케 하는데 관망약서는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wider를 공경하고 관장 및 사범, 선배의 충의(忠意)와 체육원 발전에 헌신하며 관원 및 천우에 대하여 믿음과 신의로써 대할 것을 굳게 맹약한다.」는 것이다.

수행이 끝날 때 복창하는 삼지침은 「一. 直立人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一. 直言人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되라. 一. 直守人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또한 좌선을 통해 정신집중과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며 단전을 강화시켜 건강체질향상과 자아의 강함을 인식토록 하고 있다.

체육원 내에는 도서를 구비하여 조그마한 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학업에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예의범절, 충효사상, 민족의 열, 단합과 화합 그리고 겸손, 진정한 땀의 진실을 찾고 금전만능으로 오는 자만심(자기이기주의), 책임감회피, 의존심 등을 국기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이겨나가기 위해 태권의 함성을 드높이는 곳이 바로 충효체육원이다.



서로돕고 공생하는 화목한 자연의 섭리를 되새기며...

한 국 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노정(人生路程)을 흔히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자연의 섭리(攝理)에 비교하며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고도 한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편안한 오솔길이 있고 뛰지 않을 수 없는 내리막 길도 있으며,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오르지 못하는 험한 길도 있다. 이 여러층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오르면 사방이 탁트인 정상에 서게되며 모두를 굽어 볼 수 있는 여유도 느낄 수 있다.

우리민족은 8할이 산으로 구성된 땅에서 태어나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활해 왔다.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개울이 되고, 내가 되며, 강이되고 바다가 되어서 모든것을 포용하고 용해시킨다.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는 다시 땅으로 내려 모든 만물을 윤택하게 하는 자연의 윤회(輪廻)속에서 우리네 인간은 살고 있다.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의 기후는 한국인의 독특한 철학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여유와

● 서로 돕고 양보하며 누구나
멋진 「킵」으로 멋진 「풀인」을
시킬 수 있도록 밀고 끌어
주는 가운데 멋진 작품이
탄생함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태권도인이 되어보자. ●



지혜를 일깨워 준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물질문명은 인간들의 여유와 지혜마저 앗
아가 버리고 있는 듯 싶어 안타깝다.

서로 돕고 공생하는 화목한 자연의 섭리를 파
괴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나」위주의 외곬
으로 치달는 유아독존(唯我獨尊)적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자는 「功遂身退 天之道(공을 이루고 그 자
리를 물러남은 하늘의 도이다)」를 주장 하였다.

「봄은 봄의 활일을 끝내면 그 자리를 여름에
게 물려준다. 여름이나 가을도 일을 무성케하고
열매를 맺으면 겨울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물
러난다. 인간도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고 공명
(功名)을 이루었으면 그 위치를 물러나는것이
천도(天道)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노자는 최상(最上)의 선(善)도 물과 같
다(上善若水)고 했다.

첫째로, 물은 만물에게 이택(利澤)을 주고 있
으며, 물이 없으면 천지간(天地間)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명(功名)을 다루는 법이 없으며,

둘째, 인간은 일보(一步)라도 높은 위치를 원
하나 물은 그 반대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셋째, 물은 낮은 곳에 있을 수록 커지는 무한

한 포용력이 있다. 계곡을 흘러내려 강을 이루
고 다시 흘러 바다가 되어 큰 존재가 된다고 설
파하며, 못 세간들에게 「물」이란 자연의 섭리를
따은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물은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
은 썩는다.

태양의 주변에 지구를 비롯한 각종위성이 운
해하듯 자연도 계절따라 윤회하고 모든 세간들
의 생활도 윤회하고 있다. 어떤 일یدن 특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직책 또한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닐진대, 누가 보거나 안보
거나 봉사의 신념으로 생활을 일관할 때, 바람직
한 인간상, 바람직한 단체, 바람직한 사회가 이
루어 질 것이다.

축구의 멋진 플레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으며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센터링」이 이루어 져야
멋진 「풀인」을 시킬 수 있다. 혼자서 물을 물고
혼자서 「풀인」을 시켜야- 아니, 꼭 내가 「킵」을
해서 「풀인」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 아
니 내가 아닌지……?

서로 돕고 양보하며 누구나 멋진 「킵」으로 멋
진 「풀인」을 시킬 수 있도록 밀고 끌어 주는 가
운데 멋진 작품이 탄생함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태권도인이 되어보자.

“한국인 이미지 고양에 힘쓰겠다”

브라질 쌍빠울로 주 이신화 사범



재브라질 태권도협회 임원진들, 좌로부터 박봉서회장, 김광진 수석부회장, 김석우 부회장, 김교열 사무총장

미국이나 유럽에 태권도가 '60년대 부터 보급이 활성화되어 독일, 미국, 스페인 등이 상당히 높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는 '70년대에 보급이 시작되어 브라질의 태권도가 국제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건너간 사범들의 열과 성의로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어가고 있다.

쌍빠울로주에서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신화 사범(6단·32세)은 지난 4월에 국기원에서 개최된 국제 심판 강습회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브라질의 태권도현황에 대해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신화 사범이 출국한 것은

1980년도 국기원 성인시범단으로 활약하던 중 리오데자네이로 주에서 활약하던 김용민 사범의 초청으로 브라질에 태권도 보급을 심기 위해 출국해 현재는 쌍빠울로주 연방 경찰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연방 경찰은 원래 쌍빠울로주 태권도연맹 회장인 김상인 사범이 지도해왔는데 김상인 사범 후임으로 이신화 사범이 태권도를 지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브라질내 태권도 인구는 전국에 235개의 태권도 도장에 모두 35만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유단자만도 1천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이는 태권도 도장의 집계이고, 태권도는 연방경찰 뿐만아니라 쌍빠울로 경찰 사관학교에서는 6백여명의 생도가 태권도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있어 훨씬 많은 인구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셈이라고 한다.

태권도가 보급되어 발전해가면서 조직적인 태권도 단체의 성립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태권도가 처음 보급될 당시에는 「태권도 사범협회」가 유일한 단체였으나 그후 브라질에 대한체육회 지부가 생기면서 「재 브라질 태권도협회」가 설립되었고 '86년도에는 쌍빠울로주 정부 체육회 산하기관으로 「쌍빠울로 태권도연맹」이 조직 되었다고 한다.

「태권도 사범협회」나 「재브라질 태권도 협회」는 모두 한국인 단체여서 '86년도에 재브

라질 태권도협회로 통합, 박봉서씨가 회장으로 피선되면서 한인 사범의 유일한 단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체육국 산하에는 「태권도협회」가 조직되어 쌍빠울로주의 김상인사범이 회장을 맡았다. 「태권도협회」는 그 밑에 각 주마다 연맹을 두고 있는데 김상인회장은 쌍빠울로주 태권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각 주의 태권도연맹은 김상인 회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브라질인들이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의 태권도는 현재 팬아메리카대회 등 국제대회에 태권도가 공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유단자들만이 참가하는 대회가 열렸으나 앞으로 급급별로 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수련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태권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단자 기술교육과 함께 태권도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현재 20명정도인 브라질인 태권도심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신화 사범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과 브라질내 한국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며 특히 교포 2세들에게 한국의 예절을 가르키고 심신을 수양해 한국의 뿌리를 더욱 더 다지게 하기 위해 태권도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본 태권도연맹 본부도장 상임 이재현사범

'88올림픽 출전할 일본대표선수 강화훈련 담당

태권도와 유사한 투기종목인 가라테의 종주국 일본에 태권도가 보급되어 한국인 이재현사범이 일본태권도연맹 본부도장의 상임사범으로 일본인들에게 태권도 기술을 전수하며 태권도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재현 사범은 전세계 112개국에 보급된 태권도가 유럽 쪽에서 인기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음에 비해 일본에서의 태권도 보급은 지극히 저조한 상태였는데 세계선수권대회는 물론 각종 대륙대회에서의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과 '88서울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시범종목 채택 등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

포츠로 정착하는 물결을 타고 일본내에도 서서히 태권도 붐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고 일본의 태권도 현황을 들려주었다.

특히 태권도가 일본의 가라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는 이유로 가라테와 같은 투기종목이고 무도스포르츠라는 공통의 특성을 갖는 데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세계적 스포츠로서의 지위적상과 가라테가 힘과 단련을 위주로 한 "정적 이미지"라면 태권도는 다양한 기술동작을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스포츠로서 더 흥미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태권도연맹은 '88서울

올림픽태권도시범경기에 편급, 플라이급, 페더급, 라이트급 등 남자부 4개체급 출전티켓을 따놓고 지난 5월 3일 체급별 2명씩 8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했다고 한다. 이재현 사범은 이들에게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합숙훈련을 실시한 후 6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쌓고 최종선발전을 거쳐 4명의 대표를 선발한다고 했다.

이재현사범은 일본대표선수들이 선수층이 얇은 가운데 선발되어 우리나라선수들에게는 비길 수 없겠지만 가라테로 신체를 단련해 왔을 뿐더러 태권도 기술을 습득한 일본의 최강자들이라 '88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일본내에 태권도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화훈련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현사범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 수련을 시작해 서울체고와 성균관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3급 심판교육과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태권도 전문인으로 1987년 8월에 일본태권도연맹이 본부도장을 개설하면서 상임사범으로 초청해 출국한 것인데 앞으로 일본내에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심는 역군이 되리라 본다.

1m85cm의 훗칠한 키에 85kg의 몸무게로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이재현사범이 한국의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사범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본의 가라테를 압도하는 태권도를 보급,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올해 2월에 개최된 제1회 이란국제태권도대회에 출전한 이재현(둘째줄 중앙) 사범과 선수들.



아들의 산교육을 위해 종주국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대 기업가 수집토 로하르조씨



좌로부터 수집토 로하르조씨, 헨리로하르조, 구정회사법, 레자로하르조, 허영사법.

인도네시아의 대기업가의 한사람인 수집토 로하르조(SUTJIPTO LOHARDJO)씨는 태권도정신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할만큼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도네시아의 미션스쿨인 국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태권도클럽을 만들어 태권도수련생들의 후원자로 태권도수련생을 길러내고 있으며 8살부터 14살까지의 수련생들이

참가하는 프리주니어대회를 개최해 품새와 겨루기부문에 걸쳐 입상자를 뽑아 이들에게 상장과 메달을 시상하였고 올해 8월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만큼 태권도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쿵후와 복싱선수수 해봤을 정도로 운동에는 남다른 취미를 갖고 있으나 태권도를 접하게 되자

무엇보다도 태권도 수련이 기술만을 배우는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태권도정신을 기른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태권도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강한 정신력, 극기심, 인내심, 자립심 등은 사업을 하는 그에게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딸과 두아들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해 현재 딸이 2품이고 두 아들은 국기원1품이다.

이번에 수집토 로하르조씨가 데리고온 딸아들 헨리 로하르조와 둘째아들 레자 로하르조는 이들이 국고1학년 때부터인 7년전부터 자택에서 개인사범에게 일주일에 9시간씩 수련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작년에 두 아들이 국기원사진을 보고 태권도 종주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내년에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아 사업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수집토 로하르조씨. 이들 부자는 인도네시아에 정부와 건으로 나갔던 허영사범과 동행해 한국을 찾았는데 허영사범은 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인연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와 이번에 동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는 두아들에게 태권도 정신을 배우고 태권도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국기원 성인시범단의 구정회사범을 초청해 1달간 태권도수련



구정회사법에 태권도 품새를 지도받는 두 아들

을 지도하게 할만큼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구정회사법은 두아들의 태권도정신이 투철하고 품새동작이 정확할 뿐더러 수준급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구정회사법은 이들이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을 방문해서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성지를 찾듯이 경건해하고 좋아했다고 전했다.

수집토 로하르조씨가 두아들을 직접 데리고 한달동안이나 태권도만을 위해서 나온 것은 어쩌면 땀방울의 삼천지교와 버금가다 할 것이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기업은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인생항로에서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45세인 그가 앞으로 10여년후에 그 엄청난 기업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

었을 때 그 때 두 아들에게 태권도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종주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이야길 하면서 태권도 겨루기에는 단지 두사람만이 시합을 임하게 되는데 선수들은 누구의 도움도없이 경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립심을 키우고 의지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또한 승리와 패배를 맛보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오랜 수련의 인내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과 패배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정신력을 키울 줄 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익히었다면 종주국을 방문하겠다는 것도 선뜻 승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집토 로하르조씨는 그동안 두아들이 한국체대와 배명중학교를 방문해 태권도부원

들과 함께 수련을 해왔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권도 수련시 정신교육과 품새교육에 치중하고 겨루기는 1주일에 한번정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태권도수련을 경기위주로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우리나라의 일선도장에서의 지도는 수련생들에게 품새나 정신교육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학교와 대학의 태권도부는 주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겨루기위주라는 설명을 해주자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인도네시아인에게 우리의 태권도가 겨루기위주로 비추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자랑거리인양 태권도마크를 자동차 등에 붙이고 다닐 정도라고 한다. 그것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태권도만이 갖는 무도정신을 인도네시아인들이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기원 사진만 보아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외국의 많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종주국 태권도인들은 좀더 훌륭한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칼럼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규 인/본회 홍보실장

사회체육은 영어로 "Sport for All"로 표현하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서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Sport for All은 취학전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신체적성의 수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활동 및 신체운동의 총체를 스포츠로 정의하고 이 스포츠를 범 국민적으로 보급 향상 발전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Sport for All을 단순히 노동시간이외에 행해지는 소극적인 여가 스포츠로 이해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각종 스포츠 및 신체운동을 모든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에 널리 보급시킬하는 국민운동을 사회체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사회체육을 대별하면,

○학교체육을 제외한 모든 체육활동,

○체육의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전개되는 체육활동,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로 공공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체육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위하는 사회체육 활동 등으로 구분하며

※ 대상별로는

○유아체육 ○청소년체육 ○장년체육

○부인체육 등이 있고,

※ 장소 중심으로 분류하면

○가정체육 ○지역사회체육 ○직장체육

등으로 구분하며

※ 기관별로 보면

○공공사회체육 ○민간단체 사회체육

○상업시설로서의 사회체육으로 구분하며,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조직적인 사회체육과 비조직적인 사회체육이 있다.

이러한 각종사회체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체력의 향상, 건강이나 미용, 자아와의 접촉, 사교나 친구와의 교류, 기술증진, 기분전환 및 즐거움 등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사회체육의 목적은 건강하고 유능한 사회인 및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체육을 통한 국민정신 순화로 국가부흥의 원동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체육현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발전해 왔다가 보다는 특정종목의 선수 중심의 체육으로 발전하여 국민들은 직접 체육에 참여하기 보다는 관람자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해온 우리의 현실로서는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엘리트선수 육성위주의 정책이 불가피하였다고 보나 올림픽이후에는 선수중심의 스포츠에서 온 국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강유지를 위한 평생체육 차원에서 사회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이후 태권도를 사회체육으로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태권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현재 태권도 인구의 수련층을 보면 유아기(2세~7세), 아동기(7세~12세), 청소년기(12세~18세)의 연령층은 일선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있으나 18세이상의 성인층은 전문한 실정으로 중·고교와 대학, 일부 실업팀 등에서 태권도 경기를 위한 전문인(선수육성)을 키우기 위하여 성인태권도 수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본란에서는 88년 이후 사회체육활동으로서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태권도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사범님들이 도복입고 운동하기 「캠페인」도 벌일 것을 제의한다.

최근 우리의 태권도 도장은 상업시설로서 사회체육분야에서는 어느 종목보다 앞장서 유아기와 아동기의 신체발육 및 정서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캠프오리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좁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업화의 경영으로 치우치는 일부의 사범들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수련생들은 사회의 교육제도에상의 문제라고 지적되는 과잉된 교육열에 학업성적을 염려하는 부형들에 의해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태권도 수련을 중단하여서, 태권도 수련은 어려서나 하는 운동으로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음도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태권도인은 이러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관장, 사범들이 몸소 도복을 입고, 남

녀노소가 동락하는 스포츠로의 변신을 위해 전직의식을 갖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태권도를 직업으로 생활하는 일선지도자들이 한눈을 팔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권도 고단자인 관장(사범)이 도복입기를 귀찮아하고 2-3단의 사범과 여교사 등에게 맡기면서 성인수련생이 없다고 옛날과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일선지도자 여러분!

세상일이 최선을 다해도 안되는 일이 많은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일광절약제가 실시된 후 오후 7~8시도 흰한 낮인데 체육관 문 닫고 퇴근하거나, 새벽부는 귀찮아 하지 않는 등) 관원이 준다는 등 운영이 어렵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혹 자신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직장이나 학부형을 대상으로 새벽부, 저녁부를 만들어 성인이 태권도 수련을 해야하는 필요성, 효과 등을 널리 알리어 태권도 수련의 인식을 성인들에게 심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좁은 피곤하더라도 사회체육으로 성인태권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대만의 아침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쿡쿡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우리 태권도도 새벽 공원이거나 운동장에서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태권도 품세를 수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야 「국가」 태권도로서의 위상이-아니 사회체육으로서의 자리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특색에 맞게 봉사하는 자세로 성인태권도 보급에 일선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이 확고해 질 것이다.

정장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수련생 숫자 확인만하는 경영자 보다는 도복을 단정히 입고 수련생의 일거일동을 친 자녀처럼 관심을 기울이며 수련을 같이 하는 경영자가 많을 때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발전의 힘찬 시동(始動)이 걸릴 것이다.

김운용 회장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 「'87DSA공로상」수상

김운용회장은 지난 3월 25일 잠실올림픽회관에서 미국 스포츠아카데미 Thomas P. Rosandich 박사로부터 1987년 한 해 동안 국제스포츠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87 DSA (Distinguished Service Award) 공로상을 수상했다.

미국스포츠 아카데미 평의회가 1979년 창설 이래 국제스포츠계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해온 DSA 공로상은 '87년도에 김운용회장을 비롯해 스위스인 Raymond Gafner IOC 사무총장 등 6명에게 수여되었다.

미국 스포츠 아카데미는 매

년 한 해 동안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전파 또는 개척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보였고 스포츠를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이고 체계있게 보급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국제체육계 인사를 선정해서 DSA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올림픽대회 기념품전시회」 개최

6월8일~13일, 롯데쇼핑 행사장

역대올림픽대회 역사의 재조명을 통하여 국민의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롯데쇼핑8층 행사장에서 「역대올림픽대회 기념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시내용을 보면 역대올림픽대회 공식포스터와 각종 기념품, 주요사진과 한국의 올림픽메달리스트 사진 및 소장품이 전시되었다. 또한 태권도대

표선수의 유니폼을 비롯한 각종목별 한국대표선수단 유니폼전시회가 있었다.

그밖에 서울올림픽대회 공

식경기용품전시, 한국국가대표선수 매세지 및 사인전시가 있었다.



태권도 뉴스

'88년도 전국심판 (1·2·3급 및 코치) 보수교육

총 193명 참가, 3월 10일과 11일 실시

본회에서는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국민회에서 '88년도 전국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판보수교육에는 전국에서 총 193명이 참가했는데 본회의 권경옥기술심의회의장, 안영택심판분과위원장, 김정대심

판분과부위원장이 경기규정, 심판규정, 심판원의 자세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한편 각 시도지부에서도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전남협회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1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대구협회는

3월 29일에서 31일까지 총 2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또한 경북협회는 5월 1일에서 3일까지 총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판보수 교육을 실시하였다.

'88대회 태권도운영요원 직무교육 단계별 실시

'88서울올림픽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태권도운영요원 직무교육이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다.

태권도경기본부 1차 직무교육은 3월 30일 임운규 태권도경기본부 사무총장을 비롯한 32명의 핵심요원에게 실시되었고 5월 14일에는 전체 태권도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6월 11일에는 태권도 시범경기가 펼쳐질 장충체육관에서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어 태권도 운영요원이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수행

해야 할 것인가를 숙지시키는 교육이 있었다.

또한 6월 24일과 25일에는 1차예행연습이 모의대회로 실시되었고 2차 예행연습이 8월 22

일 실시된다.

최종리허설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후 9월 17일 대망의 올림픽대회 태권도시범경기의 막을 올리게 된다.



'88년도 1차 고단자심사 (5·6단)

5단 48명, 6단 21명 합격

국기원에서는 지난 3월 19일 88년도 1차 고단자심사대회를 개최하여 5단에 48명, 6단에 2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5단 합격자명단(48명)

김경모, 박영길, 이상용, 염상철, 정정식, 김용남, 정장열, 김익환, 남영호, 박인도, 이대

동, 지경순, 권성희, 장호범, 한완수, 김상익, 윤채중, 이상훈, 고광산, 안용규, 이춘우, 문석희, 최병우, 임한호, 이명영, 문영채, 박인춘, 박경한, 김희석, 이형로, 이승호, 한승만, 양희석, 김영일, 김홍기, 최윤필, 윤정우, 유기석, 정방영, 이석중, 김진기, 이정섭, 박구배, 이희

득, 고웅기, 이희선, 박현장, 전홍수

6단 합격자명단(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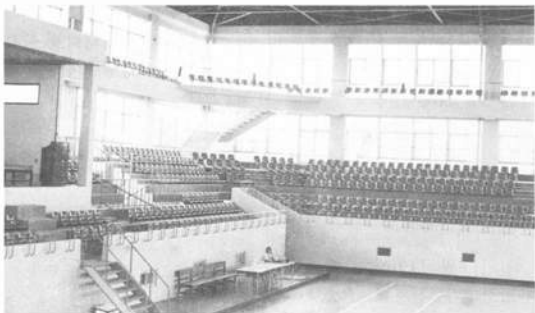
김장일, 이연, 신달승, 이백운, 강세형, 고명환, 김영국, 황용웅, 강대인, 배희동, 손명준, 양병석, 김창열, 서인원, 김원호, 류걸한, 김정철, 이춘식, 정인화, 김정렬, 설복만

서울올림픽 태권도 연습장으로 사용될 국기원 보수공사 완공으로 새롭게 단장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경기 참가국들의 연습장으로 사용될 국기원이 공사비 1억6천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쳐 새롭게 단장되었다.

보수공사로 경기장에는 1800석의 의자가 설치되었고 방송실이 마련되었으며 전기공사로 조명시설이 좋아졌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옥외화장실이 마련되었고 국기원 조경사업이 펼쳐져 아름답고 웅장한 태권도 메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 텔레스실을 마련했고 도로포장을 실시, 진입로가

확장되었고 경비실이 증축되었다.

태권도 뉴스

'88대회 태권도 경기본부 간부임명장 수여식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88올림픽대회 태권도경기본부 간부 임명장 수여식이 4월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올림픽

픽조직위원회 별관 2층 부위원장에서 거행되어 태권도경기본부 담당관 이상 간부 26명

이 김운용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구분	직책	성명	소속
경기부	경기부장	황준성	본회사무이사
	경기진행담당관	김봉기	본회심사분과위원장
	경기지원담당관	김영삼	본회경기분과위원장
	시상담당관	김대연	본회권검분과위원장
	심판담당관	안영택	본회심판분과위원장
	선수·임원담당관	고국환	본회상벌분과위원장
	국제연맹담당관	이규석	유도대학교수
	연습경기장담당관	이덕태	본회기회분과부위원장
	지원부장	김용희	본회사무국장
	보도담당관	이봉	본회총무부장
지원부	방송담당관	한태민	한국방송공사
	의전담당관	노우중	본회운영부장
	기술담당관	이명재	체신부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관리부	관리부장	권경옥	본회기술분과위원장
	시설담당관	임창석	서울시
	수송담당관	김명수	SLOOC
	출입안내담당관	김경지	본회선수강화분과위원장
	출입통제담당관	최동명	덕우회
의무부	의무담당관	강수용	중대응산병원
총무부	총무부장	장한중	SLOOC
	사무담당관	김원봉	교보부
	물자담당관	이효녕	SLOOC
	예산담당관	임재호	SLOOC
	후생담당관	박승진	동일여고
	상황실	상황담당관	윤진원
	안전담당관	황해은	국세청

'87국제경기대회 유공자 포상전수식

태권도대표선수단 25명 수상의 영예안

6월 3일 오전 10시30분에 정무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87국제경기대회유수선수단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전수식이 거행되어 태권도종목에서는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

태권도 수상자는 지난해 11월에 스페인에서 거행된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와 '87월드컵태권도대회 대표선수단으로 참가해 종합우승의 영

광을 차지한 공로로 거상장 7명, 백마장 8명, 기린장 1명, 포장 4명, 대통령표창 1명, 장관표창 4명이 수상했다.

성명	소속	직위	훈격
김성태	제8회세계선수권대회	단장	체육훈장백마장
김용서	"	감독	"
유병호	"	코치	"
이재술	"	코치	"
장준식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코치	"
김영인	"	코치	"
임성욱	제8회세계선수권대회	선수	체육훈장거상장
장광모	"	"	"
할대승	"	"	"
이재형	"	"	"
장이숙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	"

성명	소속	직위	훈격
김소영	"	"	"
이은영	"	"	"
이연	"	"	체육훈장백마장
장윤철	"	"	체육훈장기린장
김지숙	"	"	체육훈장백마장
임형연	'87월드컵대회	단장	체육포장
송봉섭	"	감독	"
박수복	"	코치	"
연기호	"	선수	"
전용환	"	선수	"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

4. 2~11,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동안 국기원에서 국제심판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국기원 4단 이상으로서 각국 협회장이 추천한 131명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한 이번 국제심판강습회는 태권도사, 태권도정신, 심판론, 심판규정해설, 경기운영, 경기분석 및 채점, 생체역학, 해부학, 태권도현황, 수신평범, 실기 등의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은 실기 및 필기시험을 치루고 이에 합격해야만 국제심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심판강습회는 예년에 3.4일 동안에 경기규정 및 실기위주로 진행되던데 비해 올해부터는 10일간 태권도 이론은 물론 다양한 교과목으로 강의해 국제심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했다.

이번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한 131명의 수강생 중에는

외국에서 41명, 국내에서 90명이 참가했고 여자는 미국인 1명을 포함해 5명이 참가했다.

이번 국제심판강습회에는 수강생의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감안해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한글과 영어 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했는데 태권도의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등으로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의 수강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앞으로는 동시통역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수강생들 중에는 태권도지도자외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들 중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경기에 출전할 국가대표 코치인 이승국교수(한체대), 속리산 법주사의 김형택스님, 미국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채규영교수, 여순경으로 근무하는 지경순경사,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참가한 여성태권도인 TAMBERLAIN CONNELLY 양을 만나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 등

을 들어보았다.

한체대교수이며 국가대표코치인 이승국 교수는 「국가대표코치로서 먼저 태권도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을 완전히 파악해야만 지도자로서의 완벽한 전력을 구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동기를 밝혔다



이승국 교수

강의중 시청각교육을 통해 경기분석 및 심판의 싸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고 하는데 국내의 심판보수교육 등에서도 전국대회 등을 비디오로 촬영해 이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태권도 수련중이나 경기시에 선수가 상해를 입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이 심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상해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과목을 설정해주길 당부했다.

속리산 법주사의 삭발한 김형택스님이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스님은 중고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한 바 있다며 태권도와와의 인연을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유도대학을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원에서 체육학(3학기)을



김형택 스님

전공할 정도로 태권도와 관계가 깊다.

김형택 스승님은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 몸을 담고 있으며 학교때문에 상계동에 거처를 얻어 그곳에서 선(禪)체육관을 운영하며 태권도지도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남일리노이노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채규영교수는 「박사는 지식을 파는 것이나 태권도는 인간을 교육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태권도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자 참가했다고 밝혔다.



채규영 교수

미국에서 도장운영도 하고 있는 채규영박사는 이번 강습회 참가를 통해 알찬 강의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영어나 한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이론교육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동시통역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경기물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며 보다 합리적인 경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TAMBERLAIN CONNELLY 양은 1977년도부터 11년간 태권도를 수련해 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선수생활도 해왔으며 이의 연장으로 국제심판강습회에 참가했다고 참가경위를 밝혔다.



코넬리 양

현재 카이로프라틱대학에 다니고 있는 TAMBERLAIN CONNELLY 양은 생체역학, 해부학 등의 교과목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라 어려움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그밖의 여러가지를 유익하게 배웠으며 만족해 했다.

한편 국내 여자 수강생중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지경순경사는 태권도와의 인연으로 82년도에 대학을 졸업한 후 경찰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순경을 중심으로 한 여성태권도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우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이번 강습회에 참가했다며 의욕을 밝히기도 했다.



지경순 경사

지경순경사는 주부이며 한 자녀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앞으로 어떻게 여성 태권도발전 에 일익을 담당할 지 태권도인들이 주목해 볼직하다.

국제심판합격자명단

고국환	진귀윤	김영철
박정옥	박종명	권재열
김교준	황태진	김광성
최병열	전판선	남광신
정해주	김노걸	최돈오
고봉신	최상철	김원규
유옥규	서인원	이정효
이수판	오수곤	왕무창
박경호	이영기	황병재
민준원	서춘희	김용남
석영환	이덕태	김현성
고흥석	김종설	장명수
천상철	한상진	최정호
김형택	김용길	김길평
장순길	홍상용	장용갑
윤명길	박형원	문석희
이승국	서정두	최재무
김길래	조한우	김승기
이상언	김홍삼	진중의
권영훈	김정록	서정효
서영순	박호원	김희삼
이영곤	나송희	김영국
장세백	동신춘	황영갑
지경순	오정관	홍연화
이상순	박홍신	김영희
김갑식	임성섭	유병호
최충복	박수복	

한강에서 온 체육계거인 - 김운용IOC위원

中時晚報 1988년6월11일자

오늘 오전 “中國時報” “工商時報” 및 “中時晚報”를 방문한 김운용 박사는 현재 19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세계태권도 연맹 총재직을 맡고 있다.

한국이 최근 국제정치와 국제체육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기 까지 왕성한 의욕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올해 57세, 검은 머리색과 품위있는 외모때문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운용씨.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그를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시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올림픽을 세계에 선전하는데 있어 김운용씨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 체육계에서의 위치는 대단하다.

그가 국제체육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된 배경으로 그의 정치외교적 능력과 왕성한 의욕 그리고 경력을 꼽을 수 있다.

김운용씨는 한국 연세대학

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후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학 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1961년, 김운용씨는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한국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함과 동시에 한국 모 여자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1963년-68년 김운용씨의 외교관 생활이 시작된다. 주미, 주영 참사관을 지낸뒤, 주UN 대표단을 맡는다.

68-74년까지 김운용씨는 풍부한 국제정보와 외교경험을 얻은뒤, 국방부장관보좌관을 역임한다.

73년에 김운용씨는 한국군의 격투무술로서 국제적으로 익히 잘 알려진 태권도를 세계 각지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여, 지금까지 15년간 총재직을 맡아 오고 있다.

1974년부터 김운용씨는 정식으로 체육계에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부위원장 겸 비서실장을 맡아오다가, 2

년전 국제올림픽 (IOC)위원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다.

김운용씨의 활동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태권도인과 올림픽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과 부회장의 경력을 거쳐 국제경기연맹회장이된다.

또한 몇년전 영국 런던 버킹검궁전에서 비올림픽경기종목인 “국제경기대회총회”를 주최하여,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영국사회에, 동방의 황인종을 대표해서 김운용씨는 당당하게 체면을 세워주었다.

물론 김운용씨는 교섭과 판단의 귀재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현재 그가 맡고 있는 IOC TV 위원회 부위원장을 심분 활용하여, 이번 서울올림픽TV 방영권료 협상과정에서 한국에게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운용씨보다 2년 뒤늦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한 우리나라 올림픽위원 吳經國 박사는 영국에서 공부한 건축

가로서 체육에 남다른 정열을 갖고, 대북시 농구 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체육계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되, 각 방면의 운동을 섭렵하고 국제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여 무난히 IOC위원으로 당선되었다.

42세의 吳經國박사는 김운

용씨에 비해, 더 순조롭게, 더 속 빨리 그리고 더 젊은 나이로 운 좋게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다시말해서, 김운용씨가 한국정부의 장기적인 배양과, 다방면의 경력을 갖춘후 55세의 나이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진출한 것에 비해서는 경력이

궁색할수 밖에 없음으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김운용씨는 정치, 외교, 군사 등 다방면으로 풍부한 경험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체육계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심판이 국제태권도 대회를 주관하는것 김운용씨, 이상적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인정해

中央日報 1988년6월12일자

(대북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세계태권도 연맹총재인 김운용씨가 어제 저녁 "國賓Hotel"에서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을 통해 태권도의 성패는 '88올림픽 시범종목인 태권도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한국, 미국, 스페인, 서독 등의 국가가 이번 올림픽에서 팽팽히 맞설것이라고 점쳤다.

'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종목에 대만에서는 7개종목 (남 3, 여4)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운용씨는 과거 15년간 세계적인 대회의 성적을 근거로 볼때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과 차기 올림픽개최국인 스페인 그리고 중주국 한국이 남, 여 각체급의 금메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이는 1985년 제7회 서울세계대회에서 이미 확인된바 있

으며, 92년스페인올림픽에 태권도가 순조롭게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세계태권도대회 심판이 모두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의는 없는지에 대해, 김운용씨는 기타 올림픽종목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비해 태권도의 국제적역사는 15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및 국가별 체육대회를 통해 세계태권도 연맹이 국제심판을 중점 육성하여 심판의 자질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제대회 심판을 모두 한국인이 맡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올림픽에서는 태권도종목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점수판을 이용할 계획이며, 1990년 대북에서 열릴 아시아대회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할 것들었다.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는 비록 시범종목이나 정식종목과 다를바 없이 선수들은 메달을 받으며, 개회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용부회장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은 6개 내지 10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권투, 레슬링, 유도, 탁구, 양궁, 사격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국가들의 참가가 이들 종목에서의 금메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84년 L.A 올림픽에서 한국은 6개의 금메달을 땀지만, 서울올림픽에서는 동구와 공산권국가들의 강력한 도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운용씨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안 吳經國 IOC위원, 李黎明전국 태권도협회 총무가 동행했다.

전국 태권도연맹羅張이사장은 이 세계적인 유명인사를 접대하기 위해 특별히 여경 순찰차를 동원했다.

태권도, 올림픽까지의 험로

THE KOREA HERALD (코리아 헤럴드)

1988년5월7일(토)

한국 고유무술인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목표로 순항중이나 2가지의 역풍이 불어 어려운 항해가 예상된다.

4개대륙 112개국에 퍼져있는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접근하는 듯 싶으나, 두가지의 검은 징조가 올림픽 인정을 위한 항해의 선봉인 세계태권도 연맹에 어두운 구름을 씌우고 있다.

그 첫번째 장애물은 중공으로 90년 북경아시안게임 종목에서 태권도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북경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OCA 회장단회의에서 정식종목에서 태권도를 제외시킬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KOC김종하회장은 중공이 북경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대신 우슈(wusu)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는 무술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에서 중공이 태권도를 배제코자 할 경우 WTF 산하의 아시아지역 34개 회원국이 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90년 북경아시안게임의 메달종목은 9월에 있을 OCA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중공의 태권도 배제계획은 북경아시안 게임 메달레이스에서 최대 라이벌인 한국을 누르려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한 스포츠 전문가는 말했다.

중공은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금93개, 은 55개, 동76개를 기록한 한국을 금94개, 은 82개, 동46개로 눌렀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당시 한국은 태권도 8개 메달 중 7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은 OCA총회기간 중 WTF 회원국들의 협조와 스포츠외교를 통해 계속 정식종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IOC에 있다. IOC사마란치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연해카누와 여자소형요트 종목을 '92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추가하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가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자주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국내 관계자는 IOC수뇌부에서 태권도에 관해 언급이 없었던 것에 다소, 실망하였다고 말했다.

태권도 회원국수 하나만 보더라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WTF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기구 중의 하나이다. WTF는 아시아 34개국, 아프리카 26개국, 팬암지역 28개국, 유럽 24개국 등 112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올림픽헌장 제44조를 보면 「남성경기는 적어도 3개대륙 50개국, 여성경기는 적어도 3개대륙 및 35개국」에 걸쳐 널리 치러지고 있는 경기를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WTF 김병운 사무차장은 "태권도는 올림픽헌장상의 모든 조건을 초과하고 있어 올림픽 종목으로서 충분하다"고 했다.

김운용 IOC위원겸 WTF총재는 태권도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도록 뒷받침을 해왔다. 그는 1972년도에 태권도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국기원을 세우고 이듬해 WTF를 창설하여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게끔 다짐을 사용했다. 이제 국기원, WTF 모두 재정적으로 독립기구가 되었고 태권도의 국제적 메카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태권도는 이미 팬암게임과 아프리카게임, 남아메리카게임 등 대부분 대륙별 종합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87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팬암게임에서는 입장권이 가장 많이 팔린 인기종목이었다.

WTF의 김차장은 "WTF는 이제 가장 큰 국제스포츠기구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2500여명의 한국사범이 세계 곳곳에 태권도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했는데 WTF는 세계의 태권도 인구를 약 3천만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만도 750개 도장에 2만 여 명의 수련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공산세계의 철의 장막은 뚫지 못하고 있다. WTF의 김차장은 "유고와 폴란드를 제외한 공산국가들은 태권도를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것이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이 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한국의 스포츠지도자들이 태권도가 1990년대의 주요한 스포츠라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F는 태권도가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시행되며 19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WTF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 8회, 매년 열리는 월드컵대회 2회, 격년제인 지역선수권대회 4회를 주최한 바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봉 총무부장은 "태권도의 세계선수권

대회나 월드컵대회, 지역선수권대회에서처럼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종목은 불과 몇개가 안된다"며 태권도는 서울아시안게임에 17개 OCA회원국 참가를 유도시켰고 이는 육상과 사격, 펜싱, 수영에 이은 5번째로 큰 인기종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공이 그러한 인기종목을 탈락시키고 중공과 극소수동남아 국가밖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슈를 채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태권도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 이상 현재 일본의 유도처럼 한국의 절대우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유도가 정식종목이 되었지만 유럽, 미국, 한국의 유도가 이제 일본의 유도를 누르게 된 것이다. 한국은 서울아시안게임 유도경기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내 일본(2개)을 누른바 있다.

태권도, '92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식종목채택 가능성

Sport intern (스포츠인턴) 잡지 1988년 5월 16일 (월)

1. 태권도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정식종목이 될 전망이다.

고메즈나바로 스페인 체육부장관겸 바르셀로나 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은 태권도를 정식종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할 작정이다.

그는 서울에 와서 WTF의 김운용 총재를 만났을 때 92년 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이같은 그의 약속은 스페인이 92년 올림픽에서

메달획득을 위한 것이다. 스페인은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의 태권도 강국이다.

'88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시범종목이다.

2. 김운용 회장(GAISF 회장)은 동구권의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육지도자 및 정치지도자를 방문했다.

이것은 네비올로 하계 올림픽종목 회장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김회장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뜻한다.

태권가족



이항우권.

무학의 최고수 청산도사는
마음착한 똥수를 제자로 삼고



알시에 무공을
전달해 주니



그 날선동작은 비조와 같은
힘은 코끼리와 같았다.



똥수는 스승의 걸을 떠나
보래의 뜻을 이루기위해
하산 하는데...



가~
나도 이런
승을 만날수만
있으면



88 올림픽에 나가
나의 명성을 세계
만방에 떨칠수있을
텐데



크~
안타깝다



아!
그렇지



청산도인의
실력 가진 안되
더라도



혹시,
모르는
일이다.



사범님.
사범님.
우리
사범님!



이렇게 중
행주셔요
두손을 마주
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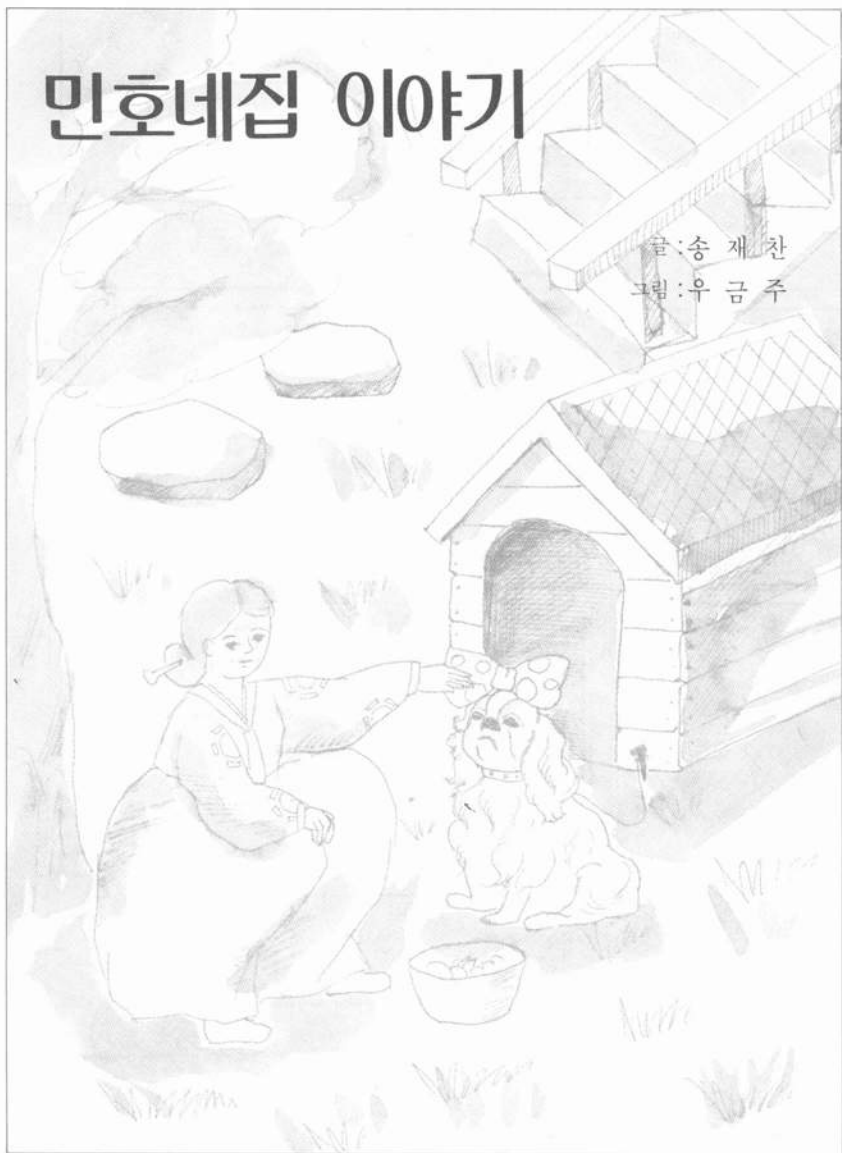
"아침 배랑
잔 비상에...
하자는
거냐?"

아!
사범님의
실력이 속속
전달 되는듯
하구나.



민호네집 이야기

글: 송재찬
그림: 우금주



민호네 집은 '서울 슈퍼마켓'이 있는 골목에서 제일 안길, 파란 철문이 있는 집입니다. 그집에는 네 식구가 사는데 아빠, 엄마, 민호, 할머니가 삽니다. 그러나 낮에는 할머니 혼자 뿐입니다. 아빠는 회사로 엄마는 학교로 민호는 유치원으로 갑니다. 민호 엄마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민호도 요즘은 도시락을 가지고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도시락을 먹고 그곳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민호네 할머니가 아닙니다. 민호 할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외할머니도 대구에 계십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할머니는 민호네 집안 일을 해주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참 부지런합니다. 할머니 때문에 민호네 집은 늘 깨끗한데다 깨끗합니다.

어느 날이었읍니다. 민호 아빠는 회사 친구가 준 선물이라며 아주 예쁜 강아지를 가져 오셨읍니다. 그 강아지는 털이 얼마나 길고 탐스러운지 마치 멋진 털옷을 입은 사람 같았읍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빨간 리본을 머리에 꽂아 주었읍니다.

"할머니 이개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절대 밖에 내놓지 마세요. 예쁜 개는 훔쳐가는 세상이예요."

강아지는 늘 예쁘게 목욕하고 리본장식까지 하고 있었지만 늘 매여 살았읍니다. 할머니가 마당을 쓸며 이야기 친구가 되어주긴 했지만 강아지는 심심하고 갑갑했어요.

강아지는 민호 아빠, 민호 엄마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집을 비우면 할머니에게 말했읍니다.

"멍멍멍—할머니"

"왜 또 시끄럽게 그래. 아침밥도 주었는데."

마당을 쓸다말고 할머니는 강아지에게 다가 옵니다.

"멍멍멍멍멍 멍멍멍멍—풀어주세요. 답답해요."

강아지는 할머니에게 소리쳤읍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자나고... 할머니는 마침내 강아지가 하는 소리

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저런 우리 방울이가 답답한 게로구나. 풀어달라고? 아저씨가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명명명명—괜찮아요.”

“명명 명명명명명—놀다 들어올게요.”

“알았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들어와 알았지? 내 목욕물 준비했다가 씻겨줄께. 그럼 아주머니도 모를 거야. 깨끗이 씻어놓으면”

“명명명명—고마워요.”

할머니는 방울이를 풀어주었습니다. 방울이는 한참 놀다가 점심 때가 되어서야 온몸에 흙을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하얗던 털이 시꺼멓게 더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이렇게 옷을 다 더럽혔노 어서 씻자.”

할머니는 삼푸물로 방울이를 깨끗이 씻고 다시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젖었던 털이 다 마른 다음에는 빗질도하고 머리의 리본도 새것을 낳았습니다. 민호 엄마는 방울이를 위해 미리별 리본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이건 비밀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민호 엄마는 딸은 키우고 싶어했는데 민호를 낳았어요. 그래서 방울이를 딸로 생각하고 방울이 리본, 방울, 목에 매는 스카프... 예쁜 것들을 많이 사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울이와 할머니는 날마다 다른 식구들 몰래 뽕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읍니다. 그날 민호 엄마는 학교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몸살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민호엄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픈 것도 잊고 대뜸 방울이 부터 찾았습니다.

“할머니 방울이가 어디갔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오늘 그동안 일이 모두 탄로나게 된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하도 씻어서...”

“그래서 풀어 주었어요?”

“곧 돌아올거예요,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때요? 그러다 누가 데려가 버리면 어쩔려고 그래요.”

“우리 방울이도 이제 다 컸는데, 데려가긴 누가 데려가겠어요. 날마다 풀어놔도 잘 들어오던걸요 뭐.”

“그럼 날마다 풀어 놓았던 맘예요?”

“그, 그러니까 그런셈이지요.”

“어휴 할머니는 그게 어떤 개인줄 아세요? 아주 비싼 개란 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거 아니잖아요.”

“하도 답답하다고 찾아서.”

“참, 할머니도 개가 답답하다고 이야기 해요?”

“그렇게 말을 안해도 내가 듣기에는…”

“알았어요. 아이구 머리아. 이번에 들어오면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민호엄마는 들어가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지요? 방울이는 점심 때가 지나고 저녁 때가 되어서 민호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틀어오자 앉았습니다.

집안이 발라 뒤집혔습니다. 식구들이

“방울아?”

“방울아?”

하며 끔목 끔목을 찾아 다녔지만 방울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끝내 방울이는 잃어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그놈 방울이가 이 할미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오지 않고…”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쩔 수 없지요. 할머니도 일부러 풀어논게 아니고 방울이를 사랑해서 풀어논 건데.”

민호 아빠는 할머니의 등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식구라고는 아무도 없는 할머니. 민호네 식구가 보살피 드리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데없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강아지 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한요. 걱정마세요. 그러다 병나겠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없어져서 우리 식구 모두가 놀란 것 뿐이에요.”

“그래도 이 할머니보다 더 귀한 강아지인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예요, 할머니가 더 소중한요. 정말이에요. 이제 강아지 이야긴 꺼내지도 않은께요.”

그후 아무도 방울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아포게 헤드리지 않으려고 서로 서로 조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방울이가 들어오지 않은 날 아빠는 방울이 집을 치워버렸습니니다. 맑은 안해도 혹시나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아빠도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하 창고에 개집을 넣어버렸습니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구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새집이 역설히 밖에, 예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새집을 꺼냈지요?”

아빠가 묻는 말에

“내가 꺼냈어요. 방울이 들어올거야.”

하고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니다.

“예?”

“그날, 조금만 놀다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

“아이참 할머니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안그래요. 동물들이 더 약속을 잘 지켜요. 동물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개 집 도로 치웁시다. 개도 없는데 개 집을 놓으면 뭐해요.”

“안돼. 방울이가 왔다가 제 집이 없어진줄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민호아빠의 고집도 대단한 고집이지만 할머니 고집이 더 세었습니니다. 엄마까지 아빠편을 들었지만 결국은 할머니가 이겼습니니다. 허긴 민호는 마음 속으로 할머니 편이 였으니까 2대 2의 맞다툼이었지요.

게 집이야 있지만 망울이를 모두 잊어버린 때쯤 아빠는 새한쌍을 사오셨읍니다. 새 이름이 어려워서 한번씩 들어서는 외울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진 새인데 아주 미끈 새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한번 물을 주시고 먹이는 떨어지면 주세요. 이 새들은 망울이처럼 물어달라고 조르지 않음테니 염려마세요.”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새를 돌아놓은 다음 부터는 민호네 집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새들은 좋은 음악처럼 맑고 고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속상한 일도 새소리를 들으면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를 사온 다음부터 민호집에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겼읍니다. 민호는 그리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고 아빠는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엄마의 얼굴은 더 예뻐졌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드나 새 한마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새 먹이를 주고 나서 문 닫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한 마리가 포르릉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늦게서야 새장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구 아 일을 어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새장에 한 마리의 새만이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구 이일을 어쩐담. 세도 제대로 못 지키는 한망구라고 흉을 본텐데.”

할머니는 짐을 나와 여기 서기 새를 찾아 다녔읍니다.

“여보슈, 우리 카나리 못 보셨수?”

“키나리요? 그게 누군데요, 미국 강아지인가요?”

“강아지는 망울이였고 이번은 새야.”

“새요? 키나리요?”

“키나리.”

할머니는 카나리아라는 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 다녔지만 새는 어디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새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던지 집에 식구들이 돌아왔을 때는 전혀 딴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새는 다사 사면 돼요. 너무 걱정마세요.”

“그래요. 그까진 새가 뭐 중요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울이도 카나리아도 돌아올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이렇게 할머니를 위로 했지만 할머니는 밤새

“나 때문에 비싼 새를 잃어버렸어.”

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새장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두번다시 강아지나 새같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건강하시던 할머니는 여름이 끝날 즈음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가을 바람이 불던 날 아주 위독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위독하신 몸으로 누워계시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가 자꾸 대문을 발로 쳤습니다. 아니 어쩌보면 나무로 굽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요?”

아빠가 짜증을 내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멍멍멍!”

대문을 때린 것은 뜻밖에도 시꺼먼 개였습니다.

“방울아!”

아빠는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보! 민호야! 방울이가 돌아왔다.”

아빠 소리를 듣고 엄마와 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독하시던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거뜬히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멍멍”

방울이는 냉큼 할머니 품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우리 키나리가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그런데 왜 혼자 왔어. 키나리는 어디갔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한마리가 포르르 흰관 안으로 날아갔습니다.

“야! 우리 카나리아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봐라, 모두 들어왔지? 저 키나리가 우리 방울이를 찾으러 갔다니
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부랴부랴 개집을 꺼내고 새집에 가서 팔아버린 새장과 새를
사왔습니다.

“하마터면 너희들 때문에 눈도 못감을뻔 했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이튿날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주 인자한 얼
굴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할머니셨는데.”

“그래요, 깨끗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아빠, 책임감도 아주 강한 할머니셨어요.”

민호네 식구는 지금도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할머니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



필자약력
송 재 찬

- 1950년 제주출생
-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
- 한국아동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수상
- 『작은 그림책』, 『먼나라 이야기집』,
『돌마당에 뜨는 해』 등의 작품집이 있음.
- 서울 한신국민학교 교사

Q.케이! (O.K.)

글·김 진 중
그림·고 우 영



올림픽을 석달 앞둔 유월 중순이다.

이제 막 봄이 꼬리를 감추고 여름이 얼굴을 내미는 그런 계절이지만 한낮에는 삼복더위를 방불할 정도로 후덥지근 했다. 차라리 삼복더위라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웅달진 시원한 곳을 찾아 등쪽을 높혀 퍼들어지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요즈막 며칠전부터 동녘 하늘에 해가 두세쌍만 떠도 입안에 갈증이 나며 등줄기가 후덥지근해지는 것이었다.

천정에서 아래로 목직하게 매달여 있는 땀을 차고 있던 두철이는 아무래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등쪽에 달라붙는 도복 상의를 훌쩍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다시땀 땀을 향해 발길질을 퍼부었다.

그때였다.

이곳 천하체육관의 분위기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전혀 걸맞지 않는 사내 서너명이 현관앞

에 나타났다. 외국인이었다. 두철이는 그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군 병사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얼마간 두철이의 땀차는 모습을 지켜보다 두철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뒤라고 쭈알라 거렸다. 그제서야 두철이는 구경꾼이 아니고 방문객이라는 걸 알아차렸는지 휘딱 내갈기던 발길을 끊더니 그들 앞으로 스택스걸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유난히도 털복숭이였다. 반팔 상의 밖으로 나온 팔뚝에서부터 손등까지 완전히 누리기러한 잔털로 덮혀 있었다. 두철이가 다가서자, 그들중 하관이 빠르고 콧수염이 짙막하게 붙어 있는 사내가 그 털복숭이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찾아온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 말로 었다.

그들의 말을 간추려보면 인근에 있는 비행장에 근무하는 주한 미군 병사들인데, 이번에 부대대항 태권도 대회가 있어 연습장소로 이곳 체육관을 빌려 쓸 수가 있는나는 것이었다.

정확히 알아 듣지는 못했어도 그들의 손짓 발짓으로 대충 그런 내용임을 파악한 두철이는 자신의 쥐꼬리만한 회화실력을 알고 있는터라 그저 한마디로 오 케이하며 쾌히 승락해 버렸다. 물론, 이런 경우 도사범에게 상의해 볼 일이었지만 두철이로서는 그 순간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고 다만 빨리 그들의 말을 받아 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들은 두철이가 흔쾌하게 승락한 오 케이라는 말에 땀방울을 연발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음인지 히히덕대며 천하체육관 계단을 쿵터덕거리며 내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신이 나서 밟는 계단의 소음은 두철이의 가슴에 걱정과 불안이 되어 방아질치고 있었다.

「사범님과 상의도 없이 승락해서 혼나는 것 아닐까? 아나 사범님은 늘 외국인에게 우리의 태권도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었어.」

중얼거리며 수련장을 풀기없이 서성이는 두철이의 얼굴에는 밝은 표정과 어두운 표정이 한꺼번에 물러들고 있었다.

「야, 너 뭐하고 있어?」

경기장에 갔던 도사범이 현관에 들어서며 두철이의 꼴세를 보고 소리쳤다.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수습하며 인사말을 건네자, 도사범은 두철이의 표정으로 부터 무슨 낱새라도 말았는지 대뜸 다그치듯 물었다.

「너 무슨 일 있었지?」

「...저어...」

두철이가 머뭇거리자

「괜찮아 말해봐.」

도사범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재근했다.

「실은 방금전에 미군들이 다녀갔어요. 저희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겠다고 해서...」

도사범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는 두철이의 음성이 꼬리를 흐리며 끊겼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범님께 여쭙어 보지도 않고 그만, 빌려 준다고 했어요.」

「음...처리는 잘 했지만 네 멋대로 해선 안돼. 알았나?」

「죄송합니다.」

「됐어 임마!」

시원스럽게 도사범이 말하자, 그제서야 숙였던 머리를 쳐들고 이마에 흐르는 뚝뚝뚝한 땀을 손등으로 훑쳐내는 두철이의 표정은 밝게 살아났다.

「두철아 너 미군들이라고 했지?」

「네에.」

「한국말로 하던, 미국말로 하던?」

「미국말이죠.」

「그으래? ! 아니 내가 그렇게 회화실력이 좋아?」

「...그뉘 뻔한 애길 하길래 오우케이 해 버렸죠.」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는 두철이의 어깨가 평소보다 약간은 으쓱 올라가 보였다.

「짜식! 허허허...」

도사범이 대견하다는 듯이 너털웃음을 흘렸다.

「사범님, 고맙습니다.」

「두철아, 넌 임마 미군들이 장소가 없어서 우리체육관을 빌려달래는 줄알아?」

「그럼요?」

의혹스런 눈망울로 고개를 약간 기우뚱하며 두철이가 반문했다.

「물론 장소도 필요했겠지, 하지만 그 보다는 태권도 종주국의 모든크 더 궁금했던거야.」

「네에... 그랬었군요.」

「그러니 앞으로 그들이 오면 종주국 수련생답게 행동하고 엄격히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것을 배우게하는 거야. 이것도 애국이고 일종의 국위선양이란 말야.」
눈을 습먹이며 듣고 있던 두철이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깨달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두철이의 가슴에서 자라는 꿈나무는 싱그럽고 푸르렀다. 좁전에 다녀간 미군병사들의 파란 눈보다도 더 파란 잎새들이 무성하고 싱싱하게 두철이의 가슴속에서 내일을 향해 자라고 있었다. 그 꿈나무는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푸른 하늘에 태극기를 울리며 애국가가 울려 퍼



지는 그날의 꿈을 늘상 그려왔다. 그렇게 국위를 선양한 뒤, 후진육성의 최일선에 서서 진정한 태권도인을 길러내는 태권도 사범이 되는 것이 두철이의 가슴속에서 소리없이 자라고 있는 꿈나무의 목표였다. 그 목표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수련의 권태기에서 느끼는 게으름도, 시합에서 참패했을 때 맛보는 좌절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 또한 남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는 길이라 믿어, 죽자고 노력해도 몇 손구락의 등위에 들지 못하면서도 안간힘을 다해 파고 들었다.

두철이의 꿈나무는 가끔씩 가슴저미는 아픔을 맛 보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터였다. 이른 새벽 동녘이 트이기 전에 비린내 물씬나는 생선 담은 함치박을 머리에 이고 동네를 누비는 어머니의 쉼 목소리와 저녁때면 그 함치박에 푸성귀를 담아 껌찐 음성으로 돌아오는 축 처진 어머니의 모습들은 꿈나무의 심성함에 명들게도 했지만 웅동그라진 꿈나무의 결심을 단단하게도 만들었다.

사실 좀 전의 그 미군병사들이 들어 닥쳤을 때 두철이는 앞이 캄캄했었다.

고등학교 2년생인 자신이, 학교에서 거의 매

일같이 배우는 영어임에도 막상 그들과 회화를 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손짓발짓이 얼마무려진 말이고보니 그 내용은 얼마간 파악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두철이는 뒤마려운 강아지처럼 끄공대며 답답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 싱긋싱긋 미소를 보내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내부를 감추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대충 내용 파악이 되자 오우케이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어쨌거나 두철이로서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곤욕을 치룬 셈이었다. 하지만 그 곤욕은 수치심으로 변해 그로 하여금 영어회화를 배워야겠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임마, 뭘 생각을 해?」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열빠진 녀석처럼 침묵에 잠겨있는 두철이의 모습을 보며 도사범이 침묵을 갈랐다.

「...아, 네 아무일도 아녜요.」

그제서야 자세를 수습하며 찌린한 표정으로 돌아온 두철이는 싱그레 미소를 흘렸다.

「두철아, 앞으로는 말이다 우리만이 사는 시대는 지났다. 온 세상이 한 마을이 되는 지구

촌 시대가 온단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것만 알고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를테면 우물안의 개구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우리것은 물론 외국에 대해서도 모든 분야, 언어, 풍습, 문화 등등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고 또한 그들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인 평화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거야.」

선명 하듯이 두철이를 향해 도사범의 말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였다.

현관의 계단 오르는 소리에 이어 서투른 발음의 인기척이 들렸다. 그 소리에 두철이는 껌싸게 현관으로 나왔다.

「아하…」

미군병사들이었다. 반갑다는 듯이 두철이가 웃어보이자

「아녕하십니까여?」

미군병사들은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었다.

(아라! 이사람들 또 왔네.)

이미 도사범으로부터 체육관을 빌려줘도 된다는 승락이 있었으니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아까는 영접절에 정신없이 오케이 해버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턱 놓였다. 그래서였음인지 두철이의 어깨는 제법 확퍼져 있었다.

얼마간 미군병사들이 수련장을 가르키며 쭉 알라 대더니 두철이의 답변을 듣고져 과란눈을 치켜뜨며 잠시 말을 끊었다. 두철이는 속으로, 장소를 빌려 놓고도 확인을 하려고 다시 찾아온 그들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오우케이!」

두철이는 신바람이 난 사람처럼 검지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올리며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그 모습을 보고 미군병사들은 맹규와 넘버원과 베리굿을 뒤섞어 연발하며 돌아갔다.

「뭐야?」

웃음을 머금으며 사무실에 들어서는 두철에게 도사범이 물었다.

「네에 미군병사들이 체육관 빌리는 걸 확인하러구 다시 왔어요.」

「그래,」

「사범님 승락을 맡은 분재니까 이번엔 제가 큰소리치며 승락했지요.」

「그러고보니 두철이 회화실력이 좋구나. 다시 봐야겠는 걸.」

도사범이 담배에 성냥불을 그어대며 칭찬을 했다.

「원요…」

검연작을 맨 습관처럼 으레 미라를 굵적이는 두철이의 뺨이 오늘날따라 유난히도 발강게 상기되고 있었다.

「쪽뚝—」

노크소리가 들리며 고운이가 들어섰다.

「안녕하세요…너 또 무슨 일 있었구나.」

도사범에게 인사를 마친 다음 두철이의 팔그레한 붉은 보고 고운이가 굉장선인 어감으로 살며시 눈을 흘겼다.

「그게 아냐 임마. 두철이가 훌륭한 외교를 했어.」

「네애? 훌륭한 외교라니요?」

의외라는 듯이 고운이의 두눈이 호동그레했다. 도사범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나서 고운이의 커진 눈망울은 더욱 커지는 것 같았다.

「이머! 두철이가 그렇게 회화실력이 좋아요. 전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다니? 내가 있었는데.」

「그렇담 두철이를 다시 봐야겠어요.」

고운이가 두철이를 향해 혀끝을 뽀뽀내밀더니, 비양거리는 부로 데굴렀다.

「워래 두철이는 숨은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 야외수련 때도 병일이 오빠를 넘다운 시켰잖아요.」

「아하! 그렇지, 하하하…」

「저게…」

사무실을 나가는 고운이의 뒤통수에 대고 주먹을 불끈 쥐는 두철이를 보고 도사범은 또 한번 너털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이튿날 토요일 오후.

정확히 말해 국민학생부 시간을 앞둔 때였다. 토요일은 국민학생부와 중급학생부가 합동으로 수련하기 때문에 이미 두철이며 고운이며 도복을 갈아 입고 품세연습을 하고 있었다.

두철이가 요즈막 배운 태백 품세의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고 있는데, 준태 동생 준준이가 수련장으로 들어왔다.

「굳 에프터 눈。」

국민학교 오학년짜리 준준이가 대뜸 영어로 인사말을 던지자

「뭐 임마?」

고운이가 까르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누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우리 선생님이 영어회화를 배우려면 인사부터 영어로 하면서 습관화하라고 했던말야。」

준준이가 입을 뻐어 물며 시큰둥하며 내뱉듯 투덜댔다.

「야! 너도 두철이 형 닮잖아。」

「피! 아이엠어 보이, 유아라 걸인데 내가 왜 닮아。」

준준이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영어를 억지로 꿰맞추어 말하자 일동은 모두 폭소를 터트렸다.

「아, 좋아 좋아. 너희들이 요즘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주부터 우리 친하체육관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

「.....」

도사범의 말을 금금히 여기는 일동의 시선이 쏠렸다.

「그러니까 수련이 끝난 뒤 매일 십분씩 영어회화 공부를 하는거다 알겠나?」

「네에?」

일동은 의아해하며 도사범의 다음말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공부하는 방법은 회화태임을 가지고 하되 그 담당은 아무래도 두철이가 적격일 것 같다.

「키야, 두철이 출세했다。」

준태와 고운이가 키득대며 말했다.

「누구야 감격하는게」

「아니예요。」

고운이가 우물대며 생긋 웃었다.

그때였다. 현관 입구에 미군병사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칠팔명의 숫자였지만 체격이 크다보니 십여명쯤 물러온 것처럼 체육관 입구가 꽉들어왔다. 그들중 콧수염을 기른 병사가 두철이를 발견하더니 반가운듯이 인사말을 건네왔다.



잠시후 두철이의 안내로 그들은 탈의실로 안내 되었다. 마약 그들을 안내하고 수련장으로 나오는데, 체육관 입구에 또 한패의 미군병사들이 웅성대며 뒤라고 떠돌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두철이를 발견하자 히죽 웃으며 체육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열명이 넘는 숫자였다. 그들이 수련장에 들어와서 뒤라고 쫓알라거리는데, 먼저 도착해서 탈의실에 들어갔던 미군병사들이 도복차림으로 수련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한패인줄 알았는데 그들은 서로가 빈정대는 듯한 묘한 웃음만 주고 받을 뿐 서로가 어울리지 않았다. 도복을 갈아 입은 팀은 한줄로 서서 뺨을 차기 시작했고, 나중에 온 미군병사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낀채 창가에 기대어 쫓알라거리는 것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도사범이 두철이를 향해 물었다.

「글쎄요?」

두철이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머리를 가우뚱 꺾으며 양팀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거 우리 운동할 자리도 없잖아. 두철이 넌 양팀에 한사람씩 사무실로 오라구 해。」

도사범이 사무실로 들어가며 지시했다. 잠시 후 두철이의 안내로 콧수염을 기른 미군병사와

늦게 도착한 무리중에 유난히도 키가 컸던 병사 한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두철이는 자신이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방아질을 치고 있었다. 두철이의 그런 심정과는 반대로 고운이는 급세라도 터지려는 웃음을 참고 있었고, 준준이는 부산하게 그들 사이를 오가며 아이엘이 보이며 유아라 걸을 느르러지게 외워대고 있었다.

얼마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수련장의 분위기는 파장의 분위기마냥 어수선하고 시끄럽기만 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두 미군병사가 수련장으로 나왔다. 이내 뒤따라 나오는 도사범의 얼굴엔 웃음기가 잔뜩 배어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키 큰 미군병사팀은 도사범에게 깎듯한 인사를 한뒤, 조용히 천하체육관 수련장을 떠났다.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콧수염 미군병사 팀은 킬킬거리며 뺨을 향해 신나게 앞돌려차기를 퍼붓고 있었다.

「암마! 무조건 오케이하면 어떻게?」

도사범이 웃음을 참으며 두철이를 향해 말했다.

「.....」

두철이는 물론 고운이, 준태, 준준이 등 일등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도사범을 쳐다볼 뿐이었다.

「먼저 간 팀과 이 팀은 서로 다른 부대란 말

야. 제대로 회화를 하던가, 똑바로 사람구분을 하던가 해야지 이녀석아 무조건 오케이하면 어떻게하느냐구.」

도사범이 너털웃음을 날리며 사무실로 들어가자 일등은 또한번 폭소를 터트렸다.

「그럼 그렇지, 두철이 네가... 피! 오우케이?」

고운이의 비앙거림이 쏟아지자

「뭐? 내눈에는 그사람이 그사람 같더라 그래서 확인할려구 다시온줄 알고 오우케이 했다, 그게 뭐 잘못이니?」

두철이가 궁색한 변명으로 우물거렸다.

「그래 두철이 넌 무조건 오우케이 해라.」

고운이가 두철이의 말을 받아 면박을 주는데, 뺨을 차고 있던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두철이를 향해 뭐라고 묻자, 두철이는 부아가 끓는 바람에 시큰둥하게 내뱉었다.

「오우 케이!」

두철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운이를 향해 그 병사는 거루기 자세를 잡고 달겨들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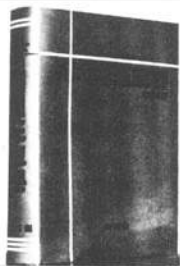
「어머, 어머!」

고운이가 그 미군병사를 비켜서며 눈을 흘기자, 두철이는 신이나서 한층 목청을 돋구었다.

「오우 케이?」

순간, 사무실에서 도사범의 킬킬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암마! 아직도 오우 케이야!」



고급양장가 18,000원

「국기 태권도 교본」구입안내

국기원은 대방의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됨은 물론 국기원 개원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11월 3일에 「국기태권도교본」을 발간한 바 있다.

태권도 교본은 총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쪽으로 태권도 사관의 합리성을 다지고 기술상의 용어를 학술적으로 고증하여 보완했다. 또한 기본 및 품새의 기법과 기술에 따르는 동작을 입체적으로 분해하여 용이한 지도와 수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기 및 거루기 실기와 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태권도 교본」은 국기원 기술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편찬된 세계태권도 공인지도서로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국기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기원 : 567-1058-9)

태권도 수련에 기공법 (氣功法)을!



이 경 명
오스트리아 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시도 호흡을 멈출 수 없듯 인간의 생명은 바로 호흡과 맥을 같이 한다. 호흡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호흡이란 숨을 내쉬고 들이 마쉬를 말하는데, 운동호흡이란 산소를 섭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운동현상이다. 어떠한 운동이든 몸통을 굽힐 때나 쫓힐 때는 호흡을 뱉고, 몸통을 바로 세울 때는 들이 마시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호흡¹⁾을 보면 목적물을 질러려 나갈 때는 뱉고 목적물을 지르는 순간은 호흡을 갑자기 중지해야 타격에 유효하다. 호흡을 내뱉는 것은 내저항을 줄이게 되고 또 몸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타격순간의 호흡을 중지하는 것은 힘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호흡법이다. 태권도에서 타격할 때 <이얏!>하는 것

은 보통 주먹이 나갈 때 가슴의 공기를 빼면서 기합 즉 정신집중을 넣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3대 양생법으로 단전호흡, 심호흡(吐納), 그리고 관절운동(搖支節)이 있는데 태권도 등 무도에서 호흡조절이란 바로 이 단전호흡을 의미한다.

단전(丹田)이란 무엇인가?

단전은 배꼽아래 5~10cm 부위의 하복부를 말하는데, 하복부라 해도 표면에 있는 건 아니고 복중인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힘을 주면 긴장과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단전호흡은 정신(의식이라고도 함)을 집중하면서 행하는 복식호흡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학에서 신체의 기(氣)를 관장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직립한 인간의 몸의 중심이 있는 곳이다. 옛 동양의 지혜에 의하면 인간의 근원의 힘은 단전에 있고 모든 활동은 단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의학에서 단전호흡이란 정신통일을 겸한 심도있는 복식호흡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1)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잡념이 없어져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2) 가슴의 움직임은 멈추고 횡경막을 이용하여 배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부 장기의 혈액순환을 도와 사소한 위장질환이나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 3) 단전호흡이 될 때 바른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통 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들숨과 날숨의 양을 한껏 늘림으로써 산소공급이 충분해져 혈액이 낮아진다.

즉 호흡→자세→내장이라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되며, 무도에서 항상 기본자세를 중요시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고 도(道)는 정자세(正姿勢)라는 말이 이 원리에 바탕을 둔다.

단전호흡의 방법으로는 들숨(吸氣), 날숨(呼氣), 그리고 숨멈춤(停氣)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숨멈춤이란 숨을 참았을 때 심신의 힘이 몸의 중심부인 단전으로 통일되어 내부의 힘이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들은 주의를

해야할 때 숨을 멈춘다. 또 아픈 것을 참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예, 역도)라든가 사격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리고 태권도에서 일격필살의 시범을, 기와장이나 벽돌을 놓고 격파할 때의 직전 등 무서운 힘이나 초연한 위력을 발할 때는 전부 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의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경계통을 중심으로 생리적 순환상태에 기(氣)와 경락과 혈(血)이 일정한 초점을 향하여 집결되는 현상을 정신과 힘이라고 한다. 이 정신은 기적작용이고 힘은 혈작용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흡조절이란 기혈의 통합으로 정신통일을 하자는 것이요, 정신통일은 「기」를 집중시켜 이 「기」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무도에서 「한치의 틈을 주지말라」 또는 「틈이 있다」 등의 말은 이 호흡(정신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도약할 때나 몸을 활짝펴기 전에 사람은 몸을 구부러뜨린다. 그런 구부러져서 힘을 비축한 용수철과도 같은 원리로 「기」를 집중, 발산하는 법인 것이다.

호흡법은 바로 기공(氣功)훈련을 말하는데 이 기공훈련을 통해 인간은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 곧잘 우리는 「기(정신)가 빠졌다」, 저 사람은 「기(힘)가 펄펄 넘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기의 집합소를 단전이라 일컫는다.

단전은 어떠한 형태나 동작을 취할 때는 전신을 통일하고 조화를 취하고 있는 곳으로 운동을 할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단전에 중심을 두고 구심점 역할을 해서 그때 그때 동작을 변형해 나가도록 수행해야 한다.

호흡법 역시 우리 고전(古典)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선도(仙道)나 고승들의 행공(行功)을 살펴보면 수도(修道)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으로서 건강 장수와 무념 무상, 무아경의 경지까지 이르는 단전호흡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기공법(氣功法)에는 좌선(坐禪)과 단전호흡 등과 같이 조용히 앉아서 행하는 정공(靜功)이 있고 동공(動功) 그리고 맥을 따라 지압(指壓) 같은 것을 하는 안공(按功)이 있다.

동공훈련은 동작을 곁들이며 호흡법을 행하는 선도(仙道)체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수행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너무 격렬하지 않고 여유있게 행하면서 정신적운동으로 「기」가 온몸에 두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

무도에서 단전호흡과 같은 정공 그리고 동공에 앞서 심공(心功·정신수양)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운동전후에 행하는 목념이나 준비자세를 취하는 것은 심공을 하자는 뜻이다. 또 공법(功法)²⁾에는 심공이외에 신체의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을 단련하는 외공법(外功法)과 신체의 내부기관을 단련하는 내공법(內功法)이 있으며 여기에도 16가지 외공법과 5가지 내공법이 있다고 한다.

태권도는 팔·다리를 좌우전후, 상하로 움직여 공방을 수행하는 전신운동이다. 각종 동작에 있어 공방의 기법을 정확히 익혀 기공법을 응용, 다스려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태권도에서 막고 지르는 여러 형태의 동작은 동양철학의 음양원리가 잘 적용되어 있다. 하나 하나의 동작은 몸속에 내재해 있는 기(잠재력)를 호흡법을 통해 두루 다스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어 태권도수련은 바로 신체내에 잠재해 있는 능력(=의식, 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한 수련을 요구한다.

한의학의 기(氣)의 원리, 그리고 동양철학의 태극사상은 태권도의 무도철학성을 특징지우는데 태극사상의 무(無)의 설(說)인 음양의 원리로부터 태동되는 철학사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인체의 음양원리에 「기」의 원리를 응용한 태권도의 동작표현은 운동효과면에서 속도, 위력, 평형성, 그리고 백방치료의 의학적 효과 등 무에서 유로 달리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기공법은 태권도 수련에서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방면에 사범들은 관심을 갖고 수련정진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가 무도스포츠로서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리기 위한 소인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1) 태권도교본 p.26 (1972발행)

2) 「易筋經」 제4절 功法



남미순회시범중 브라질에서의 시범은 현지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등으로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대표시범단 - 남미6개국 순회시범을 마치고

국가대표시범단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동안 남미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6개국 순회 시범을 갖었다. 이를 통해 남미인들에게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고취하고 한국의 외교사절로서 '88서울올림픽을 소개하고 올림픽시범 경기로서의 태권도를 홍보하였다.

본고에서는 시범단의 일원으로 남미순회시범에 참가한 구정희시범요원의 순회일지를 통해 남미에서의 태권도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구 정 희
국가대표시범단

시범단명단

단장: 김봉식(WTF 사무총장) 주무: 강정도(WTF 운영부장)
감독: 송상근(WTF 사무차장) 코치: 이규형(국기원 시범분과부위원장)
시범요원: 구정희, 윤준철, 표낙선, 장 권, 최광근,
조성철, 박병분, 정우영, 오배균

남미 6개국 순회시범을 앞둔 시범단의 시범 연습은 국기원보수공사로 인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는 불편함과 10명의 시범단으로 구성되어 시범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봉식단장(WTF 사무총장)은 순회시범에 앞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앞두고 모든 단원들은 태권도의 높은 정신과 기술로 국위를 선양하는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범단은 4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 미국 뉴욕 케네디공항을 거쳐 베네주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도착하였다.

28일 오전 7시에 기상한 시범단은 Running으로 몸을 풀었는데 평지는 거의 없고 작은 산과 계곡이 많고 산과 계곡사이엔 꼭 들어찬 건물들이 꼭 인상적이었다.

오전 10시에 베네주엘라 체육회를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그곳의 유명한 신문인 UNIVERSAL과 EL NACIONAL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들은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베네주엘라의 태권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올림픽시범경기에서는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남미에서는 어느 나라가 메달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질문했다.

29일에는 베네주엘라 현지 원주민 사범 및 수련생 3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첫시간은 김봉식단장이 태권도 역사 및 무도태권도와 스포츠태권도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 이규형코치와 본인이 품새교육을 실시했고 시범단원들이 이들에게 경기스텝을 지도 하였다.

저녁에는 한국대사관저에서 조광래대사님으로부터 저녁만찬초대가 있었는데 베네주엘라 올림픽위원장 및 체육회장이 참석해 시범단들과 함께 태권도 및 한국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4월 30일에는 Pargue Miranda체육관에서 제1차시범 및 경기가 있었다.

시범전에 이곳의 체육회장에게 명예단증과 도복을 증정했다. 이어 펼쳐진 시범은 스피드, 테크닉, 공중3방·4방 및 몸위로 뒤집어차기, 호신술 등 각종 묘기를 다양하게 펼쳐 열광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이들 국민에게 아낌없는 찬사

를 받았다.

이어 친선경기가 펼쳐졌는데 핀급경기에 윤준철선수가 뛰었다. 상대방선수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회전을 탐색전을 피다 2회전에 받아차기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다 기회를 포착해가며 날카롭게 파고들어왔다. 3회전에 상대의 움직임을 눈치챈 윤준철선수가 한스텝 주면서 뒷차기로 들어오는 상대를 슬립다운시키자 상대선수는 위축된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빠지다 뒷차기에 걸려 다운당했다. 두번째 경기와 세번째경기에 출전한 정우영선수와 최광근선수의 대전은 거칠고 두서없는 발차기로 공격해오는 상대를 맞아 힘겹게 경기를 마쳤다. 이들 선수들은 이기면 영웅이고 저도 종주국선수에게 졌다는 생각으로 저돌적인 공격을 해와 우리팀은 항상 염려속에 경기를 치루어야 했다.

5월 1일 대사관 직원 및 이종구협회장, 주창복사범, 김홍기사범, 강호진사범 등 한인사범과 교포의 전송을 받으며 카라카스를 출발해 오전 10시 콜롬비아 보고타에 도착하니 콜롬비아태권도협회장인 GUILLERMO FULLEDA씨와 이경덕 한·콜친선협회장 강병욱사범이 원주민 사범들과 함께 마중을 나와 주었다. 이곳 협회장은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며 역시 태권도는 최고라는 표시로 우리팀을 환영했다.

이어 강병욱사범의 안내로 시내 MARIAISABEL 호텔에 여장을 풀고 짧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곧바로 그 유명한 소금산 관광에 나섰다.

보고타시에서 3시간 거리인 소금산은 해발 2천7백미터로 산 전체가 소금으로 쌓여 있으며 원주민(인디언)들이 5백년전부터 소금을 파기 시작해 매일 50만kg을 캐내고도 앞으로 200년 이상 캐낼수 있는 소금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산안에는 소금으로된 성당이 있는데 의자, 책상, 마리아상과 천장을 받친 기둥까지 소금으로 깎아져 있어 세계 명물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5월 2일 시범에 앞서 보고타시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호흡을 적응하기 위해 뛰었으나 오후 7시 2천5백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펼쳐보인 시범은 한종목 한종목 끝날 때마다 호흡곤란으로 건디기 힘든 최악의 시범이었는데 시범이 끝나자 관중들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멋있었다는 환호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저녁 대사관측 초청 저녁만찬에서 시범을 본 교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은 태권도가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이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겠느냐며 감탄어린 말씀을 해 우리 시범단은 새로운 사명감에 가슴 뜨겁기도 했다.

5월 3일 보고타를 출발한지 약3시간만에 페루의 리마에 도착해 이곳의 협회장과 대사관의 장태신서기관 및 한인사범들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을 나오니 현지의 TV와 신문사기자들이 나와 인터뷰를 요청해 단장님이 이에 응했는데 기자들은 주로 한국에서는 어떤식으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한국의 태권도 수련인구와 세계태권도 인구 그리고 중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질문했다.

공항을 출발해 리마시로 접어들니 이곳은 초겨울이라하지만 우리나라 날씨로는 초여름 날씨에 가까웠다. 우리 시범단은 Club Country호텔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가까운 바닷가로 나갔다. 그동안 쌓인 피로를 바닷물로 씻어 흘려보내고 오후7시 한국대사관저에서 시범단을 위해 마련한 저녁만찬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대사는 이곳을 북한 대표부가 있고 북한태권도사범이 활발히 활동중에 있다고 했다. 현지 한국사범들은 군부를 지도하며 북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시범단들이 한국의 태권도의 기상을 펼쳐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4일 시범단은 오전7시에 기상하여 가벼운 트레이닝과 축구로 몸을 풀뒤 오전11시에 체육회를 방문하였는데 체육회는 우리나라의 서울운동장만한 시설에 테니스코트, 농구장 등이 눈에 띄었으며 각경기단체 사무실이 있었다.

김봉식단장님으로부터 명예단장과 도복을 수여받는 체육회장은 도복으로 갈아 입고서는 함



김봉식단장 (WTF사무총장)은 페루 체육회장에게 명예단장과 도복을 수여하며 태권도발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웃음을 지으며 태권도 동작을 보여주었다.

제3차시범이 이날 오후7시에 펼쳐졌는데 체육관에는 3천5백여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고 김재훈대사, 페루 체육회장과 태권도협회장과 임직원, 페루 국영 TV와 각 신문사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도있는 겨루기 품새, 호신술 등을 펼쳐 보이자 관중들의 환호는 그칠줄 몰랐다.

이날 저녁 페루 태권도협회 주최 저녁만찬에서 협회장 및 관계자들은 그렇게 많은 관중이 몰릴줄 알았다면 더욱 큰 체육관을 빌렸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5월 5일은 정의황, 이기형사범의 안내로 페루 박물관을 견학한 뒤 오후 7시에 이기형사범의 체육관에서 기술세미나를 실시하였다.

5월 6일은 칠레로 출발하는 날이었으나 비행기사정으로 호텔에서 대기하다 오후 늦게 2명씩조를 짜서 현지 한국인사범 체육관으로 나가 기술지도도를 하기도 했다.

5월 7일 페루의 국영 TV방송국에서 시범내용 해설 및 '88서울올림픽대회에 대한 홍보좌담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오후 2시에는 리마시에서 약 40분거리인 파차카막(pachacamac)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5월 8일에는 리마를 출발해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해 사보이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5월 9일 시범단은 오전 11시에 아르헨티나의 TV생방송「스산나와 함께」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서울올림픽에 대한 소개와 내일 있을 태권도 시범 몇 종목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후7시에는 이곳 원주민 사범들 및 수련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5월 10일에는 ESTADIO DE RIVER PLATE 체육관에서 제4차시범을 보였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다른 나라에 비해 동양의 무술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히 심했는데 이곳에서의 일본 가라테의 역사만도 70여년에 이르고 중국의 쿵후, 검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에 대한 책자들이 많았다. 잡지 판매대에는 우리 시범단의 명단과 사진을 실은 잡지가 판매되어 있었다. 체육관에는 장내가 초만원일 이루어 입장을 하지 못한 수많은 관중들이 체육관밖에 서 서성이기도 했다.

시범단은 ITF와 가라테가 강세를 보인 이곳에 유럽에 본부를 둔 ITF가 아르헨티나로 본부를 옮긴다는 말을 듣고는 이기회에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범에 임하였다.

시범에 이어 한국교포 여학생들의 부채춤 역시 화려하게 펼쳐져 한국인의 한마당을 멋있게 장식했다.

아르헨티나 한인협회 김한창회장과 최남성사범은 아르헨티나의 이민 역사 20여년 사상 이러한 행사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월 11일 시범단은 다음 일정지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로 향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은 올림픽개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에는「서울로 가는길」이란 프로를 방영하기까지 했다.

오후 7시 30분 TIJUCA TENIS CLUB체육관에서 권태웅대사 및 브라질올림픽위원장, 체육계,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김용민브라질협회장은 고국의 후배사범들이 브라질에까지 와서 보여준 태권도 시범은 길이 남을 것이라고 치하하며 브라질에서의 태권도 현황과 발전의 경로를 들려주었다.

브라질에서는 1987년 6월에 브라질 태권도협회가 인가되었고 1987년 11월에 올림픽위원회에 가입되었다고 했다.

5월 13일 제7차 시범이 이비라뿌에라 체육관에서 관중 3천2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은 마침 브라질 흑인 해방 기념일이고 또 브라질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이 모였고 브라질 5개 TV방송국에서 중계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5월 16일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인 칠레의 산타아고에 도착해 그곳에서 2시간 거리인 VINA로 갔다.

VINA는 태평양연안의 제1급 휴양지이며 칠레가요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시범은 가라테 사범들의 방해와 태권도 협회의 무성으로 시범 바로 직전에 시범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 칠레에서는 정부의 승인없이 어떠한 발표회나 경기도 치를수가 없다고 한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아쉬움과 야유를 퍼부우며 되돌아가야 했고 우리 시범단도 칠레협회장인 LUIS GALINDO씨의 사과를 들으며 산티아고로 돌아왔다.

5월 17일 제8차시범이 산티아고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본 VINA의 조남수사범은 이렇게 훌륭한 시범을 VINA에서 치루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VINA에는 30여개의 가라테 도장이 있으니 우리 태권도 시범단이 반드시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날짜를 연기할 수 없느냐고 애를 태우기도 했다.

5월 18일 시범단은 산티아고를 출발해 12시간만에 LA에 도착해 하루를 묵은 뒤 21일 오후 6시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시범단은 남미 6개국 순회시범을 통하여 태권도 외교사절로서 각국 태권도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현지 국가와의 우호증진 및 서울올림픽에 대한 홍보와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시범경기를 널리 알렸다. 그밖에 일본 가라테와 ITF사범 및 수련생에게 WTF로 의 전향을 유도하고 세미나를 통해 태권도 정신 및 기술을 남미인들에게 고취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논 단



선수들의 부상방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 실기론(I)



송 기 택

한국환기도교정협회회장
한세대·유도대·한양대
스포츠마사지 강사

1. 마사지의 사용 기법

- ①경찰법: 가볍게 쓰다듬는 방법
주로 입과 맞사지에 이용되는 술기법이다.
- ②강찰법: 강하게 쓰다듬는 방법
주로 경기전에 행하는 편-플랫트 마사지에
서 사용을 하는 기법이다.
- ③유념법: 짜내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중국
에서는 일명 추난이라고 한다.
- ④압박법: 압박 자극하는 방법으로 지압, 권
압, 장압, 주압, 족압, 슬압 등의 방법이 있
다.
- ⑤고타법: 두드리는 방법으로 절타법, 권타법,
합장타법, 축기타법 등의 술기가 있다.
- ⑥진동법: 인체내에 진동, 다시말해서 바이브
레이션을 주는 방법으로 두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타율적인 운동에 의한 진
동법이고 두번째로는 기(氣)를 손끝에 집
중시켜 행하는 방법이 있다.
- ⑦운동법: 수동 및 능동 저항 운동을 행하는

기법으로 근 저항 운동이라 수 있는 조제
운동법 등을 말한다.

- ⑧특수 교정 운동법: 골격 관절의 조정 운동
법으로 한국 특유의 고래의 기법으로 퇴계
선생의 활인심방 등도 그 중의 일부라 말할
수 있다.

이상이 주로 스포츠 마사지에서 행하는 술기
방법으로써 모든 체육인들 또는 체육 지도자들
이 필히 익히두어야할 방법임에는 재론의 여지
가 없다.

스포츠 마사지만 사람의 손으로 직접 상대방
의 피부에 접촉하여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두
들기거나 당기거나 해서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
게 움직이게 하는 맨손에 의한 자극법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부나 근육에의 혈액순환, 임
파액의 유통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피부나 근육에 영양 공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근육·관절을 자극함으로써 근육의 수
축력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힘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피부 자극에 의한 반사
효과로 내장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근육의 명칭)

※ 편의상 안면부와 두개저부, 흉복부, 흉배
부, 상지부, 하지부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근
육의 명칭과 마사지 술기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안면부

①-1 전두근: 안면중에서 앞 이마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이 근육의 역할은 주름살을 만드는 데 있다. 이 근육을 맞사지 하는데 필요한 술기법은 압박법, 유념법, 경찰법 등의 술기가 주로 사용 되는데 그 시술방법은 아래와 같이 행하면 된다.

●압박법

I 의 방향에서 II, III, IV의 방향으로 시술해 나가며 이때 사용하는 접촉부위는 모지(엄지 손가락)만을 사용한다. 맞사지의 특성은 피술자의 신체에 술자의 피부를 접촉하였을 경우 맞사지 가 끝날 때까지 손을 떼어서는 안된다. (그림1 참조)

●유념법

양손의 모지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좌모지와 우모지를 수평으로 빠르게 비비는 방법으로 서 순서는 I에서 II, III으로 연결지어 가는 것이다. (그림2, 2-1 참조)

●경찰법

유념법과 마찬가지로 양손의 모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볍게 아래로 문지르는 방법이다. 좌우 모지를 붙인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그림3, 3-1 참조)

①-2 피미근: 안면부의 눈썹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추미근이라고도 한다.

피미근에서 사용하는 술기방법은 경찰법과 유념법이다.

피미근에 대한 시술 방법은 그림4와 5를 참조.

●경찰법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눈썹의 중앙부위에서 눈썹의 밑뿌리쪽으로 3회 정도 강하게 마찰하여 반복하는 술기법이다. (그림4 참조)

●유념법

검지 손가락을 눈썹 아래부분에 접촉한뒤 모지로서 피미근을 가볍게 쥐어 검지 손가락쪽으로 쓸어 내리듯이 행하는 방법으로 좌우로 검지 손가락의 접촉점을 바꾸어 가며 행하는 술기법이다. (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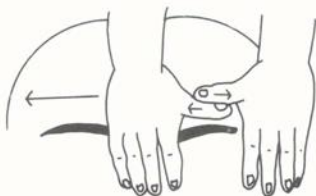
①-3 안륜근: 글자 그대로 눈둘레에 있는 근



(그림1) 압박법에 의한 술기 도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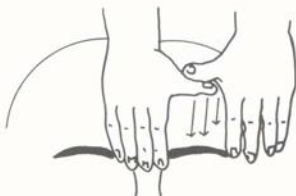
(그림2) 유념법에 의한 술기 도해도



(그림2-1) 유념법을 행할때의 좌우모지의 모양



(그림3) 경찰법에 의한 술기도해도



(그림3-1) 경찰법을 행할때의 좌·우모지의 모양

육을 말한다. 안륜근의 역할은 눈동자의 보호와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을 갖고있다. 안륜근 맛사지에 이용되는 술기법은 경찰법이다.

● 경찰법

장지의 지점으로 상안륜근을 가볍게 마사지시킨후 (그림6 참조)모지의 지점으로 하안륜근을 마사지한다. (그림7 참조)

그후에 양손바닥으로 눈을 덮듯이 얹어놓은 다음에 가볍게 좌우로 약간만 마사지해준다. (그림8 참조) 그후에 그상태에서 눈동자를 좌로3번, 우로3번 돌리게 한 다음 안륜근에서 손을 떼낸다. 이것이 바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륜근 맛사지이다. (지두, 지복, 지침은 별첨참조)

①-4 비근: 안면부의 코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코막힘이나 또는 각종 비염으로인한 두통 및 두중증상을 해소시켜 머리를 맑게 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근이다. 비근의 맛사지에 있어서 사용하는 술기법은 강찰법이고 집촉주는 장지의 지두면이다. (그림9 참조)

①-5 협근및상악근: 협근은 협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으로서 양쪽 코망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고 상악근은 협근옆에 위치한 근육으로서 상악골을 감싸고 있으며 입을 벌리는데 이용하는 근육이다. 협근과 상악근에 필요한 맛사지 기법은 경찰법이다. (그림10 참조)

①-6 구륜근: 안면부의 입둘레에 산재한 근육으로 입둘레의 근육 전체를 총칭한다. 아랫입술 바로 아래에 있는 근육중에 이근이라는 근육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근도 구륜근에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맛사지 방법은 경찰법이다.

● 경찰법

먼저 양손의 모지를 이용하여 상구륜근을 가볍게 마사지한다(그림11 참조) 하구륜근을 모지로서 가볍게 마사지한다. (그림12 참조)

①-7 하악근및 설근: 안면부의 아랫턱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하악근은 입을 다무릴때 동작하는 근육이고 설근은 혀를 움직일때 이용되는 근육이다.

또, 설근 내부에는 침샘이 있어 그것을 압박, 자극하면 소화액(침)이 분비가 되어 소화 기능



(그림4)강찰법을 행할때의 좌우지두의 모양



(그림5)유념법을 행할때의 양손의 모양



(그림6)상안륜근 경찰법을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7)하안륜근 경찰법을 행할때의 모지의모양



(그림8)안륜근 (안구)전체 경찰법을 행할때의 손의모양



(별첨)

을 촉진시킨다. 하악근 맛사지에 주로 이용되는 술기법은 강찰법이고 설근을 맛사지할때 이용되는 맛사지 기법은 압박법이다.

하악근을 맛사지하는 방법은 모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지점으로서 조금 강하게 압박 마찰시키면 된다. (그림13 참조)

설근을 맛사지 할때에는 양손의 검지와 장지의 지점을 접촉수로 하여 지국이 수회 반복, 압박자극하면 된다. (그림14 참조)

①-8 이근: 여기서 말하는 이근은 구륵근에 포함된 이근이 아니고 안면부의 귀부위에 해당되는 근육으로서 형태는 모태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본뜬 형상이다. 또, 귀에는 전신의 경혈이 모여있음이 수년전 발견되어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국가에선 이혈, 또는 이침이나 귀만을 전문적으로 맛사지하는 “귀 맛사지 팔머”까지 생길 정도이다. 인체에 있는 많은 표재근들중에 특히 이근의 맛사지에 신경을 써야되는데 이근을 맛사지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은 경찰또는 강찰법을 혼용하면 된다. (그림15 참조)

①-9 교근: 교근은 심근(내부에 있는 근육)으로서 교근의 역할은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는데 있어서 입을 벌리거나 닫는데 사용되는 주동근(주로 많이 움직이는 근육)이다. 교근 맛사지에 사용되는 술기법은 모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지점면을 이용한 지점 맛사지로서 3회 반복해서 리드미컬하게 행한다. (그림16 참조)

안면부의 맛사지 중에서 피미근이나 안륵근, 비근 그리고 이근 등의 근육은 경기도중에 발생하는 타박상이나 또는 경기후의 선수관리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안륵근이나 비근의 맛사지를 해줌으로써 선수들의 시야를 청명하게 해주고 시합에 임할때 선수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데 이는 맛사지의 중요한 효과라 말할 수 있다. 피미근의 맛사지는 피부에 탄력을 주어 타박부위에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면부의 맛사지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서술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손의 접촉점(contact point)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17 참조)

이외에도 신체의 어떤 부위로부터 맛사지가 가



(그림9) 경찰법을 행할때의 장지의 모양



(그림10) 협근 및 삼각근을 맛사지 할때의 손의 모양



(그림11) 삼구륵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12) 하구륵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능하다. 다만 맛사지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정작용과 흥분작용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만 한다면은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맛사지를 행할 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엄두에 두어야 할 일은 근육의 결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근(세로무늬근)을 횡단면으로 마찰 또는 압박하면 아무런 맛사지의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횡근(가로무늬근)을 종단면으로 맛사지 하여도 아무런 맛사지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맛사지를 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진정작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아지 한마리를 품에 안고 머리 쪽에서 꼬리쪽으로 가볍게 쓰다듬는다면 강아지는 주인의 품안에서 편안하게 안겨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작용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꼬리쪽에서 머리 방향으로 쓰다듬는다면 강아지는 것이대면서 주인을 물려고 덤벼들 것이다. 이것이 흥분 작용이다. 다시말해서 말초부에서 중추부로 맛사지하면 생체는 흥분하게 되어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임파이다. 바로 이 임파액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벼운 경찰법으로 마찰시키는 임파 맛사지이다.

시험전의 선수에게 2~3분정도 말초부에서 중추부로 임파 맛사지를 행하게 된다면 그 선수는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이분 발휘하게 됨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않는 바이다. 아울러 시험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도중 지나치게 흥분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다. 인간은 흥분하게 되면 자신의 사물판단에 관한 지각능력이 순간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다이거 놓은 경기를 망치게되는 경우가 있다. 코치나 트레이너가 휴식중인 선수의 뺨을 가볍게 두들겨주는것은 바로 선수의 지나친 흥분에 대한 각성으로서 진정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는 경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의 맛사지 및 선수들의 자기관리와 그에 따른 처치법을 연재합니다.)



(그림 13) 하악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 14) 설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 15) 아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 16) 교근 맛사지를 행할때의 손의모양



(그림 17) 손의 접촉점



올림픽 이상과 제문제

박 대 근

중앙대 대학원 체육학과

I. 머리말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은 '올림픽 개최'라는 실로 큰 과제를 안고 국운의 대세를 가름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올림픽,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 들어왔듯이 세계 평화의 제전으로서 세계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올림픽은 스포츠의 종합체로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이상을 제시하여 왔다. 즉 인간 개인의 지적·도덕적·신체적인 조화를 갖춘 인간완성을 향한 노력을 제시해 주고, 국가와 국가간에는 이념과 대립을 떠나 스포츠로서 서로 교류하며 우정을 나누게 하였다. 고대올림픽의 경우에도 올림픽 제전이 있기 한달전 부터는 서로 싸우던 국가간에 전쟁을 멈추고 경기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살린 근대 올림픽은 그 고결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로 얼룩져 있다. 세계의 모든 올림픽 개최국은 올림픽을 통하여 자국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질적 보상없이 스포츠에 대한 비직업인으로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는 아마추어 정신은 상업주의와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체제상의 차이

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올림픽 경기가 인종차별과 남녀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참가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면에서 거대해져서 그에 따른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극단론자들은 올림픽이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허황된 제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우리가 개최하는 서울 올림픽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정확한 시각으로 올림픽을 바라보고 추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올림픽에 임할 때 우리의 올림픽은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인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의미와 올림픽의 제문제를 통한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정확한 올림픽관을 갖도록 하자.

II. 올림픽의 탄생과 근대 올림픽즘

1896년 4월 5일에 제1회 아테네 대회를 개최한 근대 올림픽경기는 쿠베르탕의 평등·평화·선의라는 이념과 근대 올림픽이 성립되기까지의 19세기 후반의 시대적 배경으로 부활되었다. 쿠베르탕은 전쟁에 패배한 프랑스 청년에게 신

체와 정신을 단련하며 그를 통하여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이상을 심어 주려 하였다. 또한 국제 스포츠가 전 세계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근대 올림픽의 설립을 생각하게 되었다.

올림픽의 이념적 배경에는 쿠베르탱이 처음 사용한 '근대 올림픽즘'이 있다. 이 말은 1894년 이래 올림픽 경기부활과 올림픽 경기의 사상에 관련된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올림픽즘의 본질을 논할 때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첫째로 올림픽즘은 인간교육과 관계되어 있어서 인간의 지적·도덕적·신체적 능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올림픽으로 하여금 단순히 4년마다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한 삶의 철학을 내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올림픽즘은 국제적 이해를 통하여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 준다. 19세기 후반의 올림픽 부활은 인간 자신과 인류에게 이러한 양 측면을 부여하면서 태어났던 것이다.

올림픽즘을 대표하는 올림픽의 주요 4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마추어리즘
- (2) 건강과 도덕성의 발달
- (3)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국제적 운동경기
- (4) 문화적 요소로서의 스포츠

올림픽의 성격과 이상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도덕성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념의 변질을 초래하였다. 그것의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올림픽이 이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올림픽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실현을 부르짖는 올림픽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대립을 스포츠 행사로서, 또 올림픽 이념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양 체제간의 대립에 올림픽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사이의 갈등 그리고 인종간의 분쟁 등 올림픽 역사안에 무수히 발견된다. 그리

고 올림픽 이상이 조화로운 인간완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이 그 국가나 국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깐여겨져 우승을 함해서 맹목적으로 훈련만 하여 신체적 초인을 만들고 심한 훈련에 따른 비인간적 전수를 기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과 긴장이 충만한 현대 사회에서 올림픽 경기는 새로운 자극제가 되고있다. 정치적 상황에 올림픽이 많이 이용되기는 했지만 올림픽이상을 향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와 인간에게 좋은 이념과 활력적인 분위기를 주어진 올림픽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올림픽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근대 올림픽은 부활된 당시부터 세계적 행사라는 것 때문에 개척국의 여러상황과 올림픽 이념의 실현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면 아마추어리즘, 올림픽 참가에 따른 공백기 보상의 문제, 여성의 참가, 정치적 문제, 인종주의, 상업화 현상, 경기규도의 거대화, 인종분쟁등과 올림픽 경기의 장래를 보장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줄 올림픽에 대한 사회철학을 확립하는 일등이 있다.

1.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리즘은 근대 올림픽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1894년 소르본느 제1차 국제회의에서 부터 논쟁의 가장 큰 쏠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 아마추어 선수를 규정하여 「직업이 아닌 취미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스포츠에서 상업주의 발달, 또 국가 아마추어의 등장으로 아마추어리즘 문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들은 직업적이고, 따라서 아마추어와는 반대되는 일종의 수단적 이용이 보편화 되어있다. 아마추어와 프로 스포츠의 구별은 오직 자본주의 전통에서만 발생하므로 올림픽참가에 제한을 받는 자본주의 진영과 프

로와 아마추어의 구별이 없는 사회주의 진영간에는 불평등이 성립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요즈음은 일부 종목에 한하여 프로선수도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아마추어에 대한 고정된 관념은 사회·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2. 올림픽과 IOC의 정치성

IOC는 각 회원이 절대적인 독립성을 지니도록 기본원리가 수립되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IOC회원은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주의 보다 IOC를 대표하는 국제주의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하였다. 1894년 이후의 위원회 회원들은 세계를 대표하는 IOC 회원들이었다. 쿠베르탱은 "위원회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였으며 위원회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가입될 수 없었다. 이렇게 강력한 집단체제를 주장하게 된것은 정치적 간섭과 민족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OC의 정치성은 올림픽 태동기에서부터 내포되어 왔다. 즉 1894년 소트본 회의에서 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정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올림픽에 참여할 선수선발을 위해 예선전을 치르도록하여 참가선수는 자국의 대표선수가 되게하였다. 또한 올림픽의 메달수로 국가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각국 선수의 행진이라든가 시상식에서 우승자 소속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것 등은 모두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모든 스포츠 종목마다 국제적 스포츠 대회의 대두로 각종 국제 스포츠 연맹의 세력이 증대되어 IOC내에는 같은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단합하여 투표함으로써 권력이 집단화되고 대립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IOC의 정치성과 상관없이 정치적·민족적 감정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무수히 많다. 가깝게는 모스크바, LA올림픽의 보이콧,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구원단"이라는 아랍계릴라의 테러, 베를린 올림픽에서 유대민족의 억압과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도구

로서의 올림픽 등이 그것이다.

3. 민족주의의 양면성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두 가지 모습을 지닌다. 긍정적으로는 민족의 단결과 명예를 조장하여 주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민족주의는 분명히 그 국민으로 하여금 의욕과 충성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미덕으로 평가되며 또한 강력한 정치적 힘이다. 그러나 근대 올림픽사에서 부분별한 민족주의의 과시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면,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의 경우 독일은 유대인의 탄압정책으로 「반유대인 법안」을 승인하고, 나치하의 유대인은 선수로 뿐만 아니라 관람객으로도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회우승에 전력을 다했으며, 선수들의 우수한 신체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독일의 젊은 여자들에게 우수한 독일선수의 유전자를 임신케함으로써 인종개량까지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흑백대결과 같은 인종차별 현상과 경기장에서의 인종간 대립과 폭력사건, KKK단과 같은 인종 분리주의자에 의한 올림픽 테러위협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민족주의의 힘은 국가를 단합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사기를 진작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는 통일운동권도 올림픽과 관련된 민족주의적 목소리라고 생각된다.

4. 올림픽의 개최와 경제력

근대 올림픽이 설립되고, 제1회 아테네대회에서는 13개국의 참가국과 9개 종목의 경기만이 열렸다. 그러나 90년이 지난 후의 '88년 서울 올림픽의 경우 참가국이 160개국에 넘고 경기 종목도 23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대회 때마다 늘어나는 경기규모로 인하여 경기와 관련된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상업주의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개최국들은 자국의 발전을 과시하려고 개최비용을 크게 늘려 잡고, 경기장 시설과 도시 환경개선에 투자한다. 개최비용과 투자

비용이 크다는 것은 경제력의 뒷받침없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엄청난 개최비용으로 최대의 적자로 문제된 나라가 캐나다이다. 몬트리올시는 처음 개최 비용으로 3억 달러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경기 비용은 그 보다 무려 5배가 넘는 15억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몬트리올에 사는 세금납부자 각각에게 726달러의 빚을 지게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올림픽의 존폐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경비충당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상품의 독점판매권을 발매하는 것이었다. 또한 올림픽 비용중 최고의 수익이 되는 TV방영권의 판매와 입장료·광고료 등의 수익사업의 활용과 혹자 운운으로 성공한 올림픽이 LA올림픽이다. LA대회는 국고의 지원없이 거의 민간자본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혹자 올림픽을 향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서울 올림픽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뛰어난 근면성으로 이룩한 경제발전과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나라로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일고있는 통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5. 통일 운동과 서울 올림픽

분단국에서 통일의 문제는 그 민족의 염원이며 잠시라고 미룰수 없는 민족 최대의 과제라 볼 때 국내에서 일고있는 '통일 올림픽'논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당수의 통일 올림픽 지지자들은 올림픽 유치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올림픽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국민의 무관심을 유도하며 한·미간의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외세 의존적으로 정치 수단인 올림픽을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치르자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로서 올림픽 자체가 또 하나의 민족관에 의하여 물드는 것은 비극이다. 왜냐하면 사회속에 인간이 있고, 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개최국민이니까 우리를 위한 올림픽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인의 올림픽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대화나 공동올림픽을 향한 남북한의 생각이 다르고 IOC의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북한측의 무성의함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올림픽에 대한 시각은 앞서 이야기한 올림피즘의 본질적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항상인류 역사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인간사회의 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여주는 의식적인 힘이라고 생각할 때, 서울 올림픽도 분단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한 IOC의 결정을 순수히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올림픽과 관계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미래에도 계속될 올림픽의 모습이다. 올림픽은 앞의 여러 문제들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첫째 경기규모를 축소시키자는 것이며 둘째 영구히 한 장소 혹은 여러 중립장소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제안이며 셋째 국가 단위의 행진과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등을 없애자는 제안들이다.

IOC의 서울 올림픽 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어려운 결단의 연속이었다. 세계는 분단국에서 모든 이념과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 잠재력을 표출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올림픽이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과 국가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며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올림픽이 걸어온 발자취를 알아보는 일이며 우리 국민의 바램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지도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 시리즈(I)

—유아체육편—

태권도 수련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따라서 태권도 지도자는 각기 다른 수련층을 대상으로 수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과 이론을 바탕으로 지도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현장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

본란에서는 일선지도자들이 다양한 수련층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유아체육」「아동체육」「청소년체육」「성인체육」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엮어나갈 계획이다.

이번호에는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발간된 「유아체육편(강상조, 조정환 共著: 한국체대 교수)」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태권도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유아체육의 내용을 태권도와 연계시켜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유아기(幼兒期) 신체활동의 중요성

유아 및 아동의 초기교육이 왜 중요한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학습심리학적 측면에서 볼때 「유아는 먼저 동작을 학습하고 동작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유아기 및 아동기에 기본동작기능(fundamental motor skills “예” 걷기, 달리기, 던지기 등)을 적절히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놀이나 활동에서 신체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또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몇몇의 연구는 초기 유아기에 단순한 기본적인 동기능에 어느정도 익숙해 있느냐하는 익숙정도가 후기 아동에 복잡한 운동기술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단순한 운동기능을 발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린이는 후기에 보다 복잡한 운동기능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초기 신체활동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아기는 운동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이상적 시기」이다.

그 이유는 뼈가 단단히 질기므로 몸이 유연하며
호기심, 모험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할 뿐
아니라 비교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다양한 기능의 학습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햇빛의 연구는 운동발달이 잘된 어린이는 학
습도 용이하다는 사실과 유아기는 기본운동능
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Bentley는 12세까지 대근육을 이용한 신체동
작중 약90%가 완성되며 소근육의 조정력(調整
力)은 약 80% 이상이 개발된다고 보고있다.

걷기, 뛰기(hopping과 leaping), 달리기, 던지
기, 잡기 등의 기본동작기능은 유아기에 이미
완성되거나 혹은 나타나는 발달특징의 하나이
다. 그런데 Bentley는 이와 같은 기본운동능력
을 제대로 지도받지 못한 어린이는 놀이나 신체
활동과정에서 부정확한 동작을 연출해 내고, 후
기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그들 스스로가 동작을
수행하는데 결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출생이후 유아기는 인생 중에서 두뇌발
달이 가장 현저한 「지능발달의 결정적 시기」이
다.

이 시기의 지능과 신체발달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영양상태
는 지능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에 운동발달이 지연되면 어린이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하는 학습장애의 원인이 되며 발
하기 위기 등에도 영향을 준다. 이는 운동발달
이 단순한 신체적인 동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각, 조작발달 및 신경조직의 발달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아동의 창의력을 개발시키는데 뿐
만아니라 교과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반응의 속도, 집중력, 통제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근육을 발달시
키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가 경험한 시간과 공간
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쳐질 수 있다.

유아기는 어느 시기보다 신경계 및 뇌 발달이
빠른 시기이다. 신경계에서 직접, 간접으로 주어

아동기는 신체활동을 통해 적절한
신체상(body image)을 확립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만족스러운 신체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동은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는 자극은 지능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Bentley
는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들은 흔히 운동기능 발달수준에서 다소 뒤떨어
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러한 기본운동기
능의 교정을 통해서 위기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뇌
는 신체동작의 통제가 용이할 때 보다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
다.

셋째, 유아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
는 시기이다.

놀이 및 신체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성취감,
만족감 등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어릴때 운동기능이 우수하면 집단에
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 역할을 배우
게 된다. 운동기능이 발달하면 아동은 신체적
안전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온다. 심리적인 안정감은 다시 자신감을 불
려 일으키고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자아개념 형성에 공헌하게 된다

「아동기는 신체활동을 통해 적절한 신체상
(body image)을 확립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이
다. 이 시기에 만족스러운 신체상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동은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어려움
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Johnson은 말했다.

그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손상된 혹은 지체
된 신체상을 확립,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은 대
근육을 이용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외에도 기본동작기능을 조기에 학습시켜

야 할 필요성은 Singer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은 운동기능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유아기에 기본동작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새로운 기능을 얼마나 쉽게 학습하느냐는 대부분 유아기에 얼마나 다양한 사전경험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 유아기의 체력 및 운동발달은 신체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운동기능이 약하다면 신체활동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참여의욕을 잃게 된다.

Kraus와 Raab은 「과단성 있는 활동을 기피하는 아동은 운동경기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피하거나 병에 걸린채 한다. 그들은 게임에 몰두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바보로 만들고 가벼운 상처에도 불평한다. 그들의 근육 발달 정도는 기준이하일 뿐 아니라 긴장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은 정서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억압된 감정을 해소시키며 불안과 욕구불만에 대한 긴장을 풀 수 있다. 또한 운동은 어린이의 독립심을 키우는 기초가 된다. 어린이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일을 부모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 내고 처리해 낼 수 있게 되면,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불쾌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협응력이 발달하게 되면 놀이동무가 없이도 혼자서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2. 유아들의 특성과 관심

유아 및 아동기 어린이의 발달특성과 관심은 크게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영역별 특성과 관심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적(知的)측면

◎ 주의집중 시간이 짧다.

◎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 신체동작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질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다.

◎ 집단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 창의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정서적(靜緒的) 측면

◎ 남녀 어린이간에 관심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즉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유사하다.

◎ 민감하고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다. “나”를 크게 중시하고 지적된 결점을 탐탁치 않게 받아들인다.

◎ 대집단활동보다는 소집단활동을 좋아한다.

◎ 어른들의 감성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모나 교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 한다.

◎ 무모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덩굴고, 넘어지고, 구르는 등 거친동작을 좋아한다.

◎ 개인적인 주의를 끌려고 애쓴다.

◎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놀이가 가능한 환경(장소, 시설, 기구 등)을 탐색한다.

3) 신체적(身體的) 측면

◎ 시끄럽고 항상 활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 성향을 보인다. 또한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타인의 관심을 끌기를 원한다.

◎ 대근육의 발달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게임할 수 있는 운동기능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다.

◎ 리듬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다.

◎ 쉽게 지치고 빨리 회복된다.

◎ 손과 눈의 협응력이 증가한다.

◎ 지각, 운동능력의 개발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유아들의 발달특징과 관심은 유아 및 아동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는데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면 지적 측면에서 볼때 이 시기의 어린이는 “주의집중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설명은 가능한한 간단히 하는것이 효과적이고 활동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이 시기 어린이들의 발달 특징과 관심을 근거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동작을 경험하게 하고, 특히 교육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 동작의 기본원리를 알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집단의 협동이 필요한 신체활동 상황을 만들어 주고 협동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게 한다.

◎ 어린이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새로운 동작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래 어린이들과 어울려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 남·여 어린이를 신체활동에 참여 시킬 때 구분할 필요가 없이 같이 참여 시킨다.

◎ 승리, 패배 등의 경험을 다양하게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리, 패배했을 때의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유치원 혹은 국민학교 저학년 때, 때로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대집단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교사, 부모는 용기를 붙여 넣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로는 다소 어려운 동작을 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린이들에게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전반부에는 매트위에서 구르기, 가볍게 뛰어내리기 또는 재주넘기 등의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 대근육군(팔, 다리, 몸통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간단한 기구, 놀이용구 등을 이용하고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면 줄넘기, 정글짐, 기끄럼틀 등 높은 곳에 오르기, 세발자전거타기, 장난감 자동차타기, 모형탐험코스에서의 놀이 등을 들 수 있다.

◎ 어린이에게는 재주넘기와 같은 강하고 활동적인 게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역할이 뚜렷이 요구되는 게임을 지도해 준다. 때로는 팀경기나 릴레이경기 등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새롭고 어려운 동작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궁던지기, 받기, 치기 등 운동기술을 경험하도록 한다.

◎ 음악과 함께 리듬이 있는 분위기에서 운동

유아의 운동능력, 넓게는 체력을 발달시켜야 할 필요성은 유아기의 운동발달이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능을 익히게 하고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동작을 취하게 함으로써 리듬감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준다.

◎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휴식시간이 간간이 포함되어 있는 다소 활력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공, 팔자무니, 훌라후프 등의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균형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균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를 양쪽 모두 한쪽만 비대칭, 대칭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포함시켜야 한다.

◎ 올바른 몸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하고 복부근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유아의 운동능력, 넓게는 체력을 발달시켜야 할 필요성은 유아기의 운동발달이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운동능력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키만 크고 가슴둘레나 몸무게가 빈약한 어린이 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몰아쉬는 비만아가 늘어나고 있는것은 모두 부모의 과잉보호에서 오는 운동부족 때문이다. 성장후 장래 사회에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기초체력과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첩성, 협응력, 균형성 등은 6~7세까지 약60%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아기야말로 아름답고 튼튼한 몸을 만드는 최상의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켜 몸을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튼튼한 몸이란, 몸의 각 부분이 조

하롭게 발달된 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몸전체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몸의 일부분만을 자극시키는 운동은 바람직 하지 못할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을 여러가지 시켜야 한다.

어린이 유아들의 운동지도에서 고려해야 할 운동능력 요소들은 크게 근력, 지구력, 유연성, 협응력, 균형성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를 유아의 발달단계로 보아 강조되어야 할 신체적 활동과 연계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력(筋力), 지구력(持久力)을 강화시키는 활동

유아는 운동신경 등은 상당히 발달하고 있지만 근육의 힘이나 뼈, 호흡순환계(심장, 폐)의 발달은 미숙한 편이다. 따라서 몸의 일부분(팔이나 머리)으로 몸 전체를 지탱한다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장거리 달리기와 같이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주는 운동은 4세 이전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리고 신체활동이 미숙하므로 격심한 장기간의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몸의 교육에는 휴식과 영양도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로해 보이면 반드시 쉬게 하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예) 걷기, 넓이뛰기, 던지기, 밀기, 누워 윗몸 일으키기, 무릎들어 율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높이뛰기, 경총뛰기, 매달리기, 당기기, 기어오르기, 내리기, 뛰어내리기, 장애물 넘기, 집단놀이 활동, 놀이기구 조립하기, 로프에 매달려 흔들기 등.

2) 유연성(柔軟性)을 강화시키는 활동

유연성이란 단지 몸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연성은 몸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바른 자세를 취하고 가장 능률적으로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몸을 구부린다든지, 젖힌다든지 하는 운동은 유연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은 체조에 가까와 유아들이 싫증을 내기가 쉽다. 또한 유아는 관절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은 조심해야 한다. 유연성을 기

르는 활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몸을 앞·뒤·옆 굽히기, 비틀기, 철봉놀이, 매트위에서 뒤집기, 흔들기, 재주넘기와 구르기, 장애물 넘기, 동작 따라하기, 동료어린이 놀이 관찰하기, 짝지어 놀이하기 등

3) 균형성(均衡性)을 강화시키는 활동

균형성은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이는 균형감각을 발달시킴으로써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안정된 동작을 수행해 낼 수 있다. 균형을 잡는 것은 협응력(Coordination) 즉, 신체 혹은 근육을 조정하고 통제시킬 수 있는 근력에 의해 좌우된다.

균형감각은 무엇보다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압박이나 지탱, 접촉 등의 느낌을 통하여 더욱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균형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맨발로 연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린이가 초기에 혼자 걷기를 시작하거나 후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것은 그들이 이미 균형감각을 터득했다는 증거가 된다. 균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익숙할 수 있는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한발로 서기, 평균대 위에서 걷기, 머리 위에 물건 얹어 걷기, 로울러스케이프타기, 균형대에서 균형잡기, 정확하게 뛰어내리기, 원형관에서 균형잡기, 고정된 용기구에서 균형잡기, 평균대에서 걸어가며 손잡아 도와주기 등

4) 협응력(協應力)을 증가시키는 활동

협응력은 몸전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협응력은 신체의 동작을 민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민첩성과 순발력, 균형성 등이 조화가 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며 동작을 행할 때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협응력을 길러주는 운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줄넘기, 시이소 타기, 공잡기·차기, 미끄럼틀타기, 공 드리블 하기, 자전거 타기, 그네 타기, 훌라후프 굴리기, 풍선놀이, 비치볼놀이, 벽면에 공 던져받기, 탁구공 놀이 등

<다음호에는 아동 체육편을 게재 합니다.>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운영요원 예행연습

'88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요원들을 주축으로한 태권도 운영요원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현장직응훈련과정을 거쳐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는 모의대회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이날의 VIP로는 김운용회장겸 IOC위원과 SLOOC, 태권도관계지도자 등이 참석해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위)

시상식(가운데), 국제심판위원장(아래 왼쪽), 한국선수의 입장(아래 오른쪽) 예행연습장경.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데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박세직 SLOOC 위원장에게 진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President Dr. Kim presented an appreciation plaque on behalf of all Taekwondo family to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the SLOOC, in appreciation of his assistance for development of Taekwondo.



박세직 SLOOC위원장은 4월 11일 올림픽시설 점검차 국기원을 방문했다.

Hon. Park, Seh Jik, President of SLOOC, visited Kukkiwon on 11 April for inspection of Olympic facilities.



4월 15일 국기원을 방문한 나바로 스페인 체육성 장관이 미동국고 어린이 시범단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다.

Hon. Javier Gomez Navarro, Spanish Secretary of State for Sports, is receiving a welcoming bouquet from a gir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 at the Kukkiwon, (15 April, 1988)



4월 14일 올림픽조직위 별관 부위원장실에서 거행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본부 간부임명장수여식에서 황운성전무이사가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경기부장임명장을 받았다.(위) 김운용회장은 담당관급이상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래)

Dr. Kim, in his capacity of Vice President of SLOOC, awarded the appointment certificate of Games Director to Mr. Hwang, Chun Seong,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14 April, 1988)

After awarding the appointment certificates to 26 Taekwondo officials of general managers or higher positions for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Dr. Kim directed them to exert their utmost effort in order to attain most successful result in the Taekwondo games in the Olympics.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 23~25, 네팔 카투만투



고국환감독이 대회우승컵을 김운용회장에게 전달했다.

Mr. Koh, Kuk Hwan,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presenting the 1st Place Team Trophy to Dr. Kim, President of the K.T.A.



한국남자태권도는 8개 전체급을 석권하며 8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여자태권도는 1세급을 제외한 7세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Korean National Men's Team grasped all 8 gold medals in 8 weight divisions and Women's Team won all gold medals except 1 weight division.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23-25 March, 1988 Kathmandu, Nepal



경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격려를.....

In a competition there always turn out to be a winner and a loser.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and encouragements to the loser.

남녀종합우승으로 「아시아 무적」을 선언한 한국대표팀이 자랑스런 태극기를 앞세우며 개설했다.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is returning home after triumph of winning 1st place in both men's and women's division in the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hey have exhibited Korea's superiority in Taekwondo and proved "No rival competitor in Asia".



플라이급 대표로 출전한 하태경전수가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Mr. Hah, Tae Geong of flyweight who participated in the Asian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and won the gold medal is all smile at the victory ceremony stand.



페더급 패권을 차지한 장명삼 선수가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건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Mr. Chang, Myong Sahn who won gold medal in the feather weight is solemnly saluting to the National Flag as the National Anthem is sounding through the gymnasium.

추계종별선수권대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17회

5. 25 ~ 30.



육종진 전주시장 겸 전북태권도협회장의 환영사, 엄운규 본회부회장의
답사, 강현욱전북체육회장 겸 전북도지사의 치사로 이어진 개회식에서
각 시도대표선수단은 개인의 명예는 물론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
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했다.



전국시도협회의 과일경행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치루어진 전주실내체육관

소년체전 11세급 우승자들, 앞
으로서는 전국체전대표와 국가대
표의 꿈을 안고 더욱 더 최선
을 다해 오늘의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소년체육대회

전주실내체육관



대회를 지켜보는 김운용회장과
염운규부회장 및 각 시도대표
들.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대표선수단.

본대회를 주관한 전북협회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종합 3위의 영광을 안은 전남
대표선수과 임원들.



선수들을 육성한 코치들의 표정 백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호흡이 같았아 승리를 얻는가 하면 반대로 패하는 쪽이 있어……그러나 이들의 타는 가슴속에서 선수들은 육성되고 태권도는 발전하고 있다.



일반부 우승자들



중등부 우승자들



'88 춘계종별선수권대회

3. 21~27, 국기원

대회를 하는 김운용회장



본대회는 1105명이 출전,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신인강자들이 선발되었다.



고등부 우승자들



'88년도 전국여자 개인선수권대회

4. 13~15, 국기원



김윤용회장은 해비급우승을 차지한 백영미(인천체고)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가정주부로서 대회에 출전해 관심을 모은 서영애선수는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장이숙선수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대표선수선서를 하는 성신여대의 방경애 선수



서영애선수의 코치로 나왔던 남편 김승일사범과 「엄마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던 딸 태미양의 모습.



체급별 우승자

핀급: 원선진(수성여중 2)
플라이급: 박은미(여수중앙여고 2)
밴텀급: 박원숙(유도대 1)
페더급: 정은옥(상명여대 1)

라이트급: 노경미(문산중고 3)
웰터급: 고재경(성신여대 2)
미들급: 방경애(성신여대 1)
헤비급: 백영미(인천체고 3)

'87국제대회 유공자 포상수여식

6월 3일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87국제대회 유공자로 상수여식에서 '87월드컵태권도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한 임형연단장, 송봉섭감독, 박수복코치, 연기호선수가 체육포장을 수상했다.(위) 또한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1회세계여자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녀종합 우승으로 국위를 선양한 김성태단장, 김용서감독, 유병호코치, 이계술코치, 강중식코치, 김영인코치가 체육훈장백마장을 수상했고 임성욱·강창모·양대승·이재행·장이숙·김소영·이은영·이영·장윤정·김지숙선수가 각각 기상장·백마장·기린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래)





대회사를 통해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가 줄 것」을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당부하는 서영준 국교연맹회장.

제9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5. 28~29.



여수서국교의 백훈선수는 정확하게 뛰어넘 기술발휘로 미가상의 영광과 함께 플라이급 태권왕이 되었다.



전국의 62개 국교에서 총 434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출전 태권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뜨거운 집전을 펼쳤다.



공명정대한 관정으로 대회를 질서정연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치는데 공이 컸던 심판들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잠실학생체육관



종합1위의 영광을 차지한 청주서원국교가 우승기를 안았고 월터급 태권왕이 된 이진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제15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도 대회

4. 28 ~ 29, 대구



김한주 대학연맹회장이 대회사를 통해 선수들에게 지성인답게 높은 기술과 태권도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에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



시상식에서 우승자에게 우승컵과 메달을 수여하는 최인범 전무이사.

제15회 전국중·고연맹 태권도대회

4. 19~23,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지난해 여고부단체우승을 차지한 문성여상으로부터
우승기를 반납받는 이유생중고연맹회장



부산직할시협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권오현 부산
직할시협회장은 태권도경기가 항도 부산의 태권도발
권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어줄 것
을 당부하였다.



남중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중 선수단 및 학부형
들이 우승기를 뽐내며...

성동고는 남고부 단체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페더급
1위를 차지한 박상표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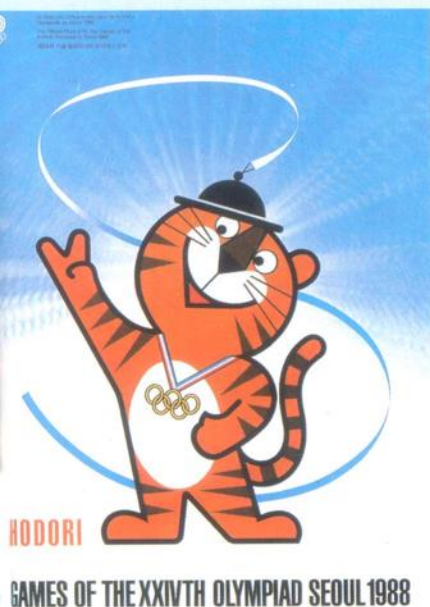


● 경기종목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